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18년(3차년도) 연차보고서

201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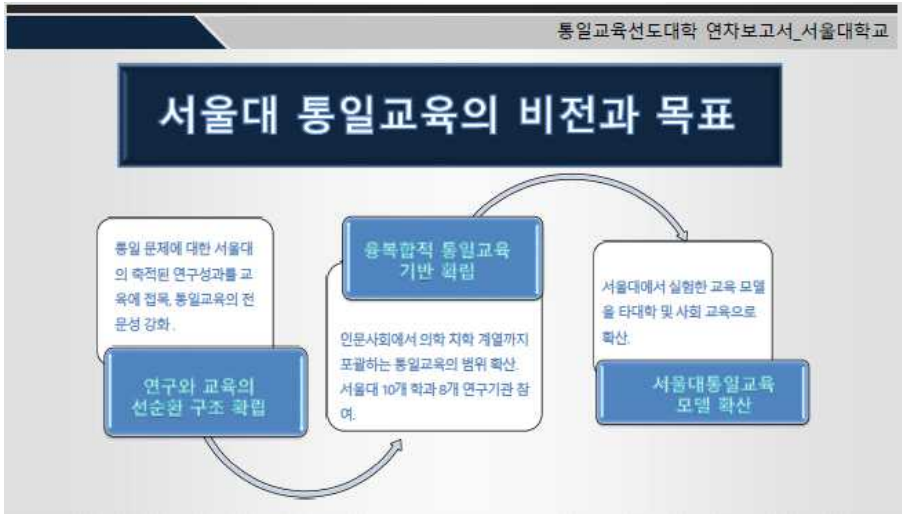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목 차

I. 3차년도 사업 개요.....	2
1. 기본구상(성과목표).....	2
2. 2018년 추진과제.....	4
II. 3차년도 사업 성과	8
1. 핵심성과	8
2. 추진 과제별 실적	23
1)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개발	23
2) 통일교육 강좌 운영	128
3) 통일교육 모델 확산.....	322
III. 2018년 사업 평가.....	395
1. 잘된 점.....	395
2. 개선(보완)할 점.....	396
IV. 2018년 예산 집행 실적.....	398

I 3차년도 사업 개요

1 기본 구상(성과 목표)



2 2018년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내용	성과목표와의 관련성
A. 모델연구를 통한 실제 강의 적용		
①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신희영 의과대 교수)	○ '통일의료' 과목 개설 및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통일 이 후를 대비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1) 각 전공영역에 적합한 통일교육 교과목 개발.
② 공개강좌 '통일교육 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박성춘 사범대 교수)	○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 전문가 양성 ○ 탈북민과의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통일교육아카데미 교육과정 개발. ○ 개발한 강좌를 바탕으로 공개 강좌 운영	2) 개발한 교과목이 실제 강의 개설로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함.
③ 교양강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쟁점' 개발 및 운영 (신범석 사회대 교수)	○ 신지정학적 입장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 ○ 글쓰기와 토론을 주 수업 방법으로 하는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	
B. 순수 모델연구		
①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윤대석 사범대 교수)	○ '민족주의'를 벗어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시대의 통일문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 워크숍 및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다문화적 관점 정립 ○ 연구 성과의 KCI 등재지 게재, 보고서 발간 등 연구 성과 확산	1) 통일교육의 전문적 영역 확대. - 교내 다양한 학과, 연구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통일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에 대하여, 문학, 교육학, 치의리학, 간호학, 사회학, 지리학, 정치외교학 등의 제분야와 통일교육을 연계시킴으로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
② 'SNS 기반 통일교육안' 개발 (박성춘 사범대 교수)	○ SNS를 활용한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을 모색 ○ 총 10편의 SNS 콘텐츠 (영상 시나리오) 개발 및 대중 보급을 통한 확산	
③ 통일치의학 교육과정 개발 (신태전 차의과대 교수)	○ 통일치의학 강의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국내 치과대학 최초의 통일치의학 교과목 개발	
④ 학생주도형 통일교재 개발 (박영규 사회대 교수)	○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강의를 개선해나가는 학생주도 및 참여형 통일 강의 개발 - 학생들이 작성하는 '코멘트 페이퍼'에 기반한 커리큘럼안 개발	2) A와 B를 합산하여 사업 개수 13개로, 전년도 3개에 비해 77% 이상 증가. 목표치인 10% 초과 달성.
⑤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리더 양성 (이현수 공대 교수)	○ 북한개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 국토인프라에 대한 인식 수준 향상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 운영안 개발 ○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전략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공개 강의 실시	
⑥ 간호대학(원)생 통일보건의료 교육 (채선마 간호대 교수)	○ 최초 간호대학의 통일보건의료 교육강좌 개설 - 간호대학(원)생을 위한 통일보건의료 교육 실시	

통일교육 모델 연구 개발

⑦ 대학통일교육 설계를 위한 초·중·고등학생 등학식 통일외식 실태조사	○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식 실태조사 실시 ○ 이를 바탕으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적합한 통일교육안 및 방향성 구상	
⑧ 석·박사학위논문 지원 사업	○ '통일교육'과 관련한 주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학위논문 지원 사업 ○ 박사논문 5편, 석사논문 6편 지원 ○ 문학, 사회학, 원자핵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논문 지원을 통해 통일 연구의 저변 확산	
⑨ 현장연계형 통일평화 관련 교과목 연구개발 (김부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 자유전공학부 1학년 대상으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강의 개발 ○ 강의와 토론, 현장학습의 병행을 통해, 1학년 학생들이 '통일'과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함	
⑩ '한국인의 통일외식과 통일교육 교안' 개발 (서보학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한국민들의 통일외식 실태와 추세를 파악하는 통일교육 교안 개발 ○ 향후 통일교육과 통일정책 과제 도출 도모	
A. 교과		
① 영상사회학 (정근석 사회대 교수)	○ 냉전·분단·통일·평화에 대한 지식 축적 및 관련 시각적 텍스트 연구 분석 ○ 주제 관련 전문가 초빙 및 심화 토론	1) 만족도 조사 평균 83%를 달성, 80%인 목표치 초과 달성.
② 문화사회학 (정근석 사회대 교수)	○ 분단·냉전·分境을 주제로 강의·답사·사진전 진행 ○ 남북분단문제 및 통일평화외식 제고	2) 참여 단위 총 8개 학과로서, 전년도 3개 단위에 대비하여 62.5% 증가. 목표치 10% 초과 달성.
③ 통일의료 (신희영 의과대 교수)	○ 외국인 맞춤 통일의료 강의 커리큘럼 개발 ○ '통일의료'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함양	
④ 남북한 보건의료 R&D (신희영 의과대 교수)	○ '남북한 보건의료 R&D' 강의 커리큘럼 개발 ○ 예비 의료인들에게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전문지식 전달	3) 교과목 개설 강좌 수 12개로, 전년도 6개 대비하여 100% 증가. 목표치 10% 초과 달성.
⑤ 북한지역연구특강 (박수잔 사회대 교수)	○ 북한과 직접 교류가 있었던 연구진 및 전문가 초빙을 통한 학생들의 북한 이해 증진 ○ 공동경비구역 또는 비무장지대 답사	
⑥ 북한학개론 (박성춘 사범대 교수) (배영애 사범대 강사)	○ 북한이탈주민 초청·담화를 통한 북한의 과거·현재에 대한 종합적 이해 도려 및 통일 시대를 위한 기초 소양 증진	
⑦ 통일교육론 (박성춘 사범대 교수)	○ 북한이탈주민 특강 진행 ○ 예비 윤리교사로서 통일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참여외식 함양	
⑧ 통일교육연구방법론 (박성춘 사범대 교수)	○ 실제적 통일교육 자료 마련·연구 보고서 토론회 운영을 통해 윤리교사로서 통일교육의 방향 및 연구방법 도모	
⑨ 공법헌법과 정치제도 (이효원 법대 교수)	○ 통일관련 헌법적인 쟁점 및 북한체제 비교과정으로 우리 헌법현실과 북한의 법 현실 고찰	
⑩ 한반도 평화와	○ 전통적인 지정학 비판, 탈냉전전 신지정학적	

강좌 운영

통일의 새로운 쟁점 (신범석 사화대 교수)	입장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방식 논의 ○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유기적 관계 토론회	
⑪ 신입생세미나 : 문학으로 생각하는 북한 문제 (방민호 인문대 교수)	○ 남북 관계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 ○ 남·북이 공유하는 오랜 문학과 문화의 뿌리 확인을 통한 상호 이해의 폭 증진 ○ 탈북작가 작품 강독 및 탈북작가 초청 강의	
⑫ 신입생세미나 : 다큐멘터리로 보는 통일 (조동준 사화대 교수)	○ 통일과 분단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및 현장 방문 ○ 분단의 상처 치유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 토론	
B. 비교과		
① 통섭형 통일국토 교육과정 운영 (박수진 사화대 교수)	○ 통일 이후 통섭형 국토운영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자원 교육을 위한 기초 계획 수립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 ○ 답사프로그램 및 교과서 개발	1) 교과목 개설 강좌 수 12개로, 전년도 11개 대비하여 8.3% 증가.
② 통일법 세미나 (이효원 법대 교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통일법학회 학생 대상으로 세미나식 교육 ○ 독일통일판례 위주로 통일법 이해	2) 비교과형 강좌 개설수 증가량은 목표치인 10%에 못 미치지만, 교과형 강좌 개설 수가 100%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성과임.
③ 통일법의 현황과 과제 (이효원 법대 교수)	○ 법학전문대학원 내 통일법 교육과정을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 ○ 통일법 제도에 대한 법이론 교육을 심화	
④ 통일법 강좌 (이효원 법대 교수)	○ 법학 비전공자 로스쿨 진학시 남북관계·통일 관련 전문가로서 진로 모색 ○ 법률무 전문가 초빙 강의를 통한 전문성 제고	
⑤ 통일법 학위논문 세미나 (이효원 법대 교수)	○ 학위심사예정자 논문 중심으로 연구 독창성/명확성/논리성/참신성/완성도/학계기여도 수준 향상	
⑥ 간호대학(원)생 통일보건의료 교육 (채산마 간호대 교수)	○ 통일시대 대비 간호대학생 통일보건의료 이해와 인식 향상	
⑦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리더 양성 (이현수 공대 교수)	○ 북한 개방 대비 국토 인프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 한반도 국토인프라 현안 공유와 기술 개발 도모	
⑧ 통일교육이카데미 (박성춘 사범대 교수)	○ 남북통합과 사람통일의 중요성 이해 ○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관련 교육 전문가 양성	
⑨ '북한의 기초과학 현실과 전망' 세미나 시즌 2 (한모니까 통일평화연 구원 교수)	○ 북한 출신 대학원생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북한의 기초과학 수준 이해 ○ 북한 출신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인들의 발표를 통해 남북 과학기술 차이의 인식 및 극복 방안 도모	
⑩ 시민 평화학교	○ 서울대-한길사 협업을 통한 사회적 효과 고취	

(이찬수 통일평화연구 원 교수)	○ 통일교육 아카데미의 모델을 시민사회로 확산		
⑪ 철원 통일·평화 현장학습 강좌운영 사업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134명 대상 철원 지역 통일·평화 관련 역사와 사회사 주제로 강의 및 실제 지역 답사		
⑫ 동아시아대학생 평화인권캠프 (정근석 사화대 교수)	○ 평화시대를 대비한 동아시아 전문 인재 양성 도모 ○ 사전세미나, 캠프 답사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현장의 역사를 심도 있게 이해		
모델 보급 및 확산	① 예체능 연계모델보 급: 플래시몹 제작 (최의창: 사범대 교수)	○ 통일을 염원하는 '댄스 플래시몹(Dance Flash Mob)' 실시 - 문화예술을 통한 학생들의 통일의식 및 문화 감수성 함양 ○ 플래시몹 영상제작 및 온라인 확산 - 서울대·인천대 연계 기획 및 실시 매뉴얼북 및 영상 제작을 통해, 선도대학모델의 성공적인 확산 방안 마련	1) 평화와 연계한 통일교육의 확장 - 통일교육을 한반도 분단을 넘어, 동북아의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각 속에서 파악하여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연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② SNU 황해 평화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서울대학교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답사/캠프 프로그램 ○ 구체적인 지역별 현안과 쟁점에 정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강화도·교동 지역 답사 및 세미나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사업 중 황해해 벨트에 해당되는 서울대-인천대 협력을 활용한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	2) 수요자 만족도 평균 95.8%를 달성 - 통일아카데미 94.5% 평화아카데미 96.8% 황해평화학교 95.4% 교직원통일교육 96.5%
	③ 한반도정책컨센서 스 정착형 통일교육 모델 보급 (통일평화연구원)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확대 및 공론의 장 마련 ○ 도출된 합의안의 언론 홍보를 통한 파급력 확산 도모	
	④ 통일아카데미 (통일평화연구원)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학문적 지식 향상을 위한 통일아카데미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실시되어 온 통일평화연구원의 18기 프로그램	
	⑤ 평화아카데미 (통일평화연구원)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평화에 관한 학문적 지식 향상을 위한 통일아카데미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실시되어 온 통일평화연구원의 제6기 프로그램	
	⑥ 서울대학교 통일교육모델 출판사업 (정근석: 사화대 교수)	○ 동아시아 평화교육 관련 서울대학교 통일교육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평화교육 현장교육의 대표적인 사례 및 교육성과를 출간	
	⑦ 교직원 통일교육 (행정교육원)	○ 서울대학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현장 학습을 통하여, 직원들의 통일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⑧ 서울대학교강원대 교류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통일평화연구원)	○ 접경지대에 위치한 강원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서울대 선도대학 모델의 확산 및 발전 도모 ○ 서울대 강원대의 통일교육 경험과 계획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II 3차년도 사업 성과

1 핵심 성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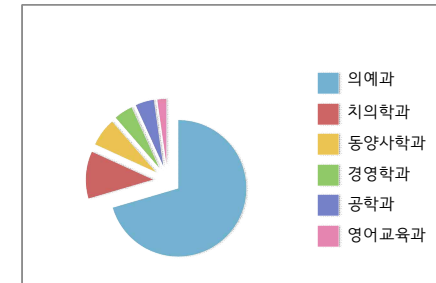
- 총 12건의 통일교육 커리큘럼 연구 개발. 그 중 3개가 당해연도 강좌로 시행.
- 총 24개의 통일평화 관련 강좌 운영. (교과형 12강좌, 비교과형 12강좌. 전년도 교과형 6개, 비교과형 11개 총 17개의 강좌 개설 수에 비해 대폭 증가)
- 총 1,607명의 학생이 관련 교과목을 수강. (교과형 1,068명, 비교과형 539명)
- 사회대, 인문대, 의대, 치대, 사범대, 법대, 공대, 간호대, 자유전공학부 등 서울대의 거의 모든 단과대학에서 참여.
-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활용, 현장실습을 겸한 강좌의 전문성 제고.
- 서울대-한길사 공동 주최한 '평화학교', 서울대-인천대 연계한 '플래쉬 몹', 서울대-강원대 교육모델 개발 워크숍 등 서울대의 모델을 타대학 및 시민 사회와 공유, 확산.
- SNS 매체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사회적 보급 확산에 기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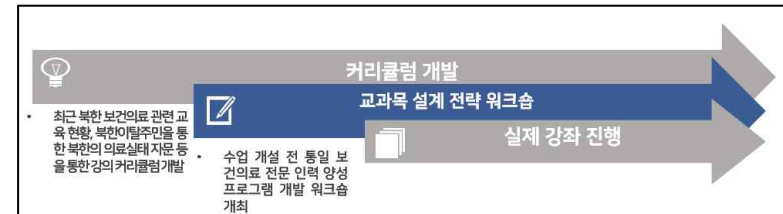
① 국내 유일의 보건 의료, 치의학 분야의 통일교육 커리큘럼 개발

- 신희영 의과대 교수의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개발'
 - 통일 이후 보건의료 통합에 대비하여 통일보건 의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통일 의료' 강의 커리큘럼 개발
 - 개발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2학기에 실제 강의 진행

- 영어 강의로 외국인 학생까지 통일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 의과계열 학생뿐 아니라 외국 교환학생, 이공계, 문과계, 어문학계의 학생들의 다각적 참여를 도모하여 통합적인 통일 보건의료 강좌형태로 폭 넓은 통일 교육 기회 제공.



강의 참가자의 단과대별 분포 현황



커리큘럼 개발에서 실제 강좌 진행까지의 프로세스 개요

○ 신희영 의과대 교수의 '남북한 보건의료 R&D' 강좌

- 예비의료인인 서울대학교 의학과 본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R&D' 선택강의 개설 및 강의 커리큘럼 개발
- 북한 보건의료체계와 대북 보건의료지원, 남북 보건의료 통합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여 폭넓은 시각을 형성.
- 최근까지 북한과 보건의료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 사례조사 완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 R&D 시행 시 전문가들의 추후 전망 의견을 수렴하고 북한 보건의료 현황 수업 영상자료 조사 및 수집완료.
- 강좌 이후 적극적인 남북한 보건의료 연구 참여 의지 증가
- 수강 학생 중 남북한 보건의료 이슈에 더욱 관심이 생겨 통일의학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 의지를 밝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 수행 계획 중에 있음.

○ 신터전 치의학과 교수의 '통일치의학 교육과정' 개발

- 국내 치과대학 최초의 통일치의학 교과목 개발
- 서울대 치의학과 교수 6인이 강의안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
- 통일치의학 개론 강좌 개발
- 개발된 통일치의학 관련 내용을 치과관련 학술대회에 소개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국내 통일 치의학 관련 연구 기반을 확장함.

번호	자문 내용	전문가	소속
1	남북한 치의학 용어 사용 고찰	이승표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교수
2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구강보건의료 교류의 현황	한동현	
3	남한 치과의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명훈	
4	남북한 치의학교육과정의 차이점	박지운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부교수
5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통합	노상호	
6	남북한 치의학 교육 과정 및 보건의료 인력 시스템 비교	신터전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조교수
7	북한에서 구강건강실태조사 시 고려할 사항	조현재	

② SNS · 영상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 대중화에 기여

○ 박성춘 사범대 교수 ‘SNS 기반 통일교육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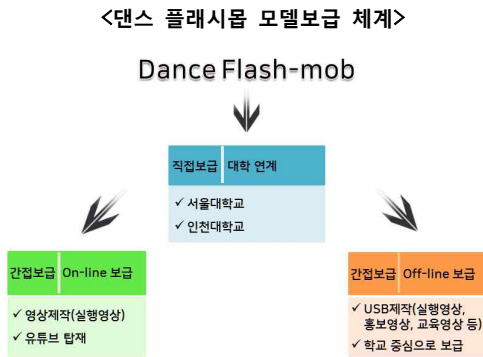
- 10분 내외의 통일교육 콘텐츠 10개 개발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통일교육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
- 정보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를 교육 도구로 활용
- 통일교육 콘텐츠의 대중적 보급을 통해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 확산에 기여



	영상 콘텐츠 제목	부제목
1	안중근 의사와 함께 통일을 거닐다-1	이슬이 지기까지
2	안중근 의사와 함께 통일을 거닐다-2	안중근, 통일을 생각하다
3	안중근 의사와 함께 통일을 거닐다-3	안중근, 발자취를 따라가다
4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1	개성, 통일의 문을 열다
5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2	개성, 공감하고 소통하다
6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3	개성, 사람 사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다
7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4	개성, 잠시 이별을 말하다
8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5	개성공단,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9	평양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1	평양, 사람이 살고 있었네
10	평양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2	평양,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다

○ 최의창 사범대 교수 '통일을 춤추다, 플래시 몹' 개발

- 통일을 염원하는 '댄스 플래시 몹(Dance Flash Mob)' 개발 및 영상 제작
- 대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대중적으로 확산
- 플래시몹 모델보급을 위한 간접적 방안으로 실행영상을 중심으로 한 On-line 보급과 실행영상을 포함한 교육영상 등의 콘텐츠를 담은 Off-line 보급을 실시.
- 플래시몹 안무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교육 영상 및 매뉴얼북 제작을 통해 플래시몹의 손쉬운 확산을 유도함.
- Off-line 보급: 관련 자료를 담은 USB를 제작하여 초, 중, 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보급을 실시.
- 관련 자료에는 플래시몹 실행영상 및 사진뿐만 아니라, 홍보영상, 특히 교육영상(설명용, 시연용)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장소와 대상에 관계없이 댄스 플래시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③ 다문화 시대 정서에 맞는 통일교육의 새 패러다임 모색

○ 윤대석 사범대 교수의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 현재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민족주의 중심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
- 전문가 워크숍,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통일 문화 교육의 관점을 정립하고, 통일 문화 교육의 목표와 핵심 개념 등을 도출함.
-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함. (총 6차시 교안 개발)

* 개발된 커리큘럼 예시



강의개요서	
(1) 목표	가.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이론적·경험적으로 파악한다. 나. 남북한 북한의 문화는 각기 단일하지 않으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다. 북한 이념 주입을 포함한 북한과의 만남에서 공감적이고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2) 핵심 개념 및 성취기준	(1) 남북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관리 및 해결 [성취기준] ①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인식한다. ②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③ 주변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학습 요소] 문화적 갈등, 문화 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 문화 간 의사소통 등
(3) 남북한 문화의 복수성 인식	[성취기준] ① 남북한 북한의 문화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② 매체 등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과연 표상된 사례를 찾아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③ 개인의 문화적 경험은 단일하지 않으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학습 요소] 문화의 복수성, 개인 묘상, 문화적 정체성, 매체 분석 등
(4) 북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협력적 상호작용	[성취기준] ① 북한 이념 주입과의 관계에서 공감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의 개념을 이해한다. ②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공감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학습 요소]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 공감, 정서 표현, 협력, 갈등 목표 달성 등
(5) 거리출판(6차시 수업 예시)	[수업 절차] 핵심 개념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1차시	남북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관리 및 해결	①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인식한다. ②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③ 주변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교사 설명(매체 자료 활용) 조별 회의
2차시	남북한 문화의 복수성 인식	① 남북한 북한의 문화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② 매체 등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과연 표상된 사례를 찾아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③ 개인의 문화적 경험은 단일하지 않으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교사 설명(매체 자료 활용) 조별 회의/토론
3차시	북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협력적 상호작용	① 남북한 북한의 문화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②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공감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③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협력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개인 발표
4차시	북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협력적 상호작용	① 남북한 북한의 문화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②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공감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③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협력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조별 역할극

(6) 프로젝트 예시

① '남북한 문화 차이 인식 및 갈등 해결하기' 프로그램

프로젝트명	남북한의 문화 차이 인식 및 갈등 해결하기	대상	학년
지표	① 영상: 남북한의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북한 이념 주입의 인식 ② 책: 언론: 남북한의 언어문화 차이	교사의 역할	사회자 / 조력자
차시	1차시(50분)	실행 방법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 방법	토의토론	원천교과	사회
학습 목표	•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인식한다. •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과목	학습의 주제	교수학습 활동	교사
단위	배경 지식	학습의 과정	교사
의의	평생 학습 / 동기 유발	평가	교사
유형	차이의 그로 인한 갈등을 인식	평가	교사

발전에 대한 자료			
차시	1차시(50분)	실행 방법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 방법	조별 발표와 동료 반응 및 평가	원천교과	사회
학습 목표	• 주변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과목	학습의 주제	교수학습 활동	교사
단위	배경 지식	학습의 과정	교사
의의	평생 학습 / 동기 유발	평가	교사
유형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동준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행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준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조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행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준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정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리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수	문제 지시	평가	교사

① '남북한 문화의 복수성 인식하기' 프로그램

프로젝트명	남북한 문화의 복수성 인식하기	대상	학년
지표	① 뉴스: 북한 귀순 행사 열사 오창성, '서울 탈세' 논쟁(해남, 2018.11.20.) ② 기사: 귀순 북한 행사 2차 수습 북	교사의 역할	사회자 / 조력자

명은 "기생충" ... 동일한 가치 존중 필요요?			
차시	1차시(50분)	실행 방법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 방법	토의토론	원천교과	윤리
학습 목표	• 남북한의 문화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매체 등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과연 표상된 사례를 찾아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과목	학습의 주제	교수학습 활동	교사
단위	배경 지식	학습의 과정	교사
의의	평생 학습 / 동기 유발	평가	교사
유형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동준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행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준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조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행	문제 지시	평가	교사
표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준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비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정	문제 지시	평가	교사
리	문제 지시	평가	교사
수	문제 지시	평가	교사

○ 박성준 배영에 사범대 교수의 '북한학개론'을 통한 다문화 공존의 교육

- 북한이탈주민 초청 특강을 운영.
- 딱딱한 정치학, 정세이론 위주의 북한학을 지양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사회 문화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공존의 방법을 모색.
- 2018학년도 1·2학기 총 737명이 수강하였으며 다양한 전공 분야의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개발을 도모.
- 정치적인 선입견이 담겨 있는 뉴스 등의 언론을 벗어나 북한 이탈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북한이해 교육이 가능하며 다양한 출신 배경의 북한이탈주민과의 추가적인 소통 의욕을 고취하고, 대학생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제(학교 및 교육)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 방법 학습.



11월 20일 북한이탈주민 통일전담교육사 특강 사진

2018년도 2학기 북한학개론 강좌2 특강 만족도 설문결과(11월 15일)

설문 문항	응답결과(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특강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였습니까?	129	28	3	0	0
2. 특강을 통하여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124	33	3	0	0
3. 특강 강사에 대해서 만족하였습니까?	128	27	5	0	0
4. 다음 학기에도 탈북 주민의 특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31	25	3	1	0

<조사대상: 수강생 응답 160명>

④ 통일에 대비한 전문가형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 이효원 법대교수의 '통일법 세미나' 외

- 비교과로 진행된 4개 강좌(통일법 세미나, 통일법의 현황과 과제, 통일법 강좌, 통일법 학위논문 세미나)를 통해 현재 통일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과 실제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도모
-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원의 입장을 이해. 독일통일판례를 비교하여 강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비서실장, 법무부 공익법무관, 헌법재판 연구원, 현직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통일 한국에 대한 대비를 촉구.
-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법학적인 문제인식을 함으로써, 통일관련 법규범적인 측면에서 고찰 및 비법학 전공자들이 로스쿨 진학 시 남북관계와 통일관련 전문가로서의 진로모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
- 법학전문대학원 내 통일법 교육과정 개설 및 통일법 제도에 대한 법이론 교육 심화.

<h3>2018학년도 1학기 통일법 강좌 강의 자료</h3>			
<h4>통일법의 개념과 특징</h4> <p>2018년 3월 13일 이효원(서울대)</p>	<h4>남북관계의 법법</h4> <p>가. 북한경제에 대한 대응 - 2012년 북한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DFGL)을 통한 경제협력 - 2013년 4월 남북경제협력협정 체결 - 2015년 4월 남북경제협력협정 개정 - 2016년 12월 남북경제협력협정 개정</p> <p>나. 북한경제의 현황 - 북한경제의 현황 - 북한경제의 전망</p>	<h4>통일헌법의 준비</h4> <p>2018년 3월 20일 김우진(변호사)</p> <p>통일헌법의 필요성과 기본원리</p> <p>1. 통일헌법의 필요성 - 통일헌법은 통일헌법적 가치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임 - 통일헌법은 통일헌법적 가치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임</p> <p>2. 통일헌법의 준비 - 통일헌법의 준비 - 통일헌법의 준비</p>	<h4>통일헌법의 제정절차</h4> <p>1. 통일헌법 제정절차의 주요 사항 - 통일헌법 제정절차의 주요 사항 - 통일헌법 제정절차의 주요 사항</p> <p>2. 통일헌법 제정절차의 주요 사항 - 통일헌법 제정절차의 주요 사항 - 통일헌법 제정절차의 주요 사항</p>
<h4>통일법의 개념과 특징(이효원 교수)</h4>		<h4>통일헌법의 준비(김우진 변호사)</h4>	
<h3>2018학년도 2학기 통일법 강좌 강의 자료</h3>			
<h4>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h4> <p>1. 통일정책의 비교 - 통일정책의 비교 - 통일정책의 비교</p> <p>2. 통일정책의 비교 - 통일정책의 비교 - 통일정책의 비교</p>	<h4>통일헌법의 의의와 통일헌법</h4> <p>1.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p> <p>2.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p>	<h4>통일헌법의 의의와 통일헌법</h4> <p>1.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p> <p>2.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p>	<h4>통일헌법의 의의와 통일헌법</h4> <p>1.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p> <p>2.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 - 통일헌법의 의의</p>
<h4>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이찬호 변호사)</h4>		<h4>통일헌법의 의의와 통일헌법(박종원 판사)</h4>	

○ 박수진 허정화 지리학과 교수의 '북한지역연구특강'

- 국내 전문가(북한과 직접 교류가 있었던 실무 전문가, 새터민, 외부 연구진 등)를 초빙하여 강의 진행 및 네트워크 확대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북방연구회 연구위원, 개성공업지구 부장, 통일부 북한인권과장, 前 통일부 차관 등 강의 주제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빙하여 강의 진행.
- 답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경비구역 또는 비무장지대 답사 진행
- 일반적인 지리학과 전공선택 교과목이 수요를 고려하여 2년에 한번씩 개설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은 지리학과 학생 뿐 아니라 타 전공, 대학원생, 일반인까지 많은 학생들이 수강 청강을 진행.
- 특히 접경지역 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 배운 것을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많은 학생들이 통일 및 통일국토 관련 분야 및 북한지리 연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관련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현수 공대 교수의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리더 양성' 교과목

- 학문적 이론에 앞서 경험 사례 강의를 통해 기초 지식 습득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실제 사례 강의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사례 학습과 토론 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재 중심으로 이론적 지식을 습득.
- 북한지역 국토인프라 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국내 7개 전문기관(공기업 및 연구소 등)의 인프라 연구전문가를 초빙하여 개별 인프라 조사 결과 및 국내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
- 북한 지역 자료 신뢰성 제고를 위해 탈북 과학자/연구자/공과대학졸업자들을 초빙하여 북한의 국토인프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도록 구성.
- 북한개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현안 공유를 통해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프로그램 기획 중요성 인식 제고.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남북한의 국토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성 역설 및 통일 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이 미래지향적인 한국건설의 기술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인식 촉구.
- 국가경쟁력 향상의 수단으로서의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으로 인식 전환 및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북한개혁방송 대표, 심원북한연구소 박사 등 남북한 국토 인프라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
- 통일 한반도의 예비 건축공학설계자로 성장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전문적인 지식 및 실제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 개발 촉구.

<1차 강좌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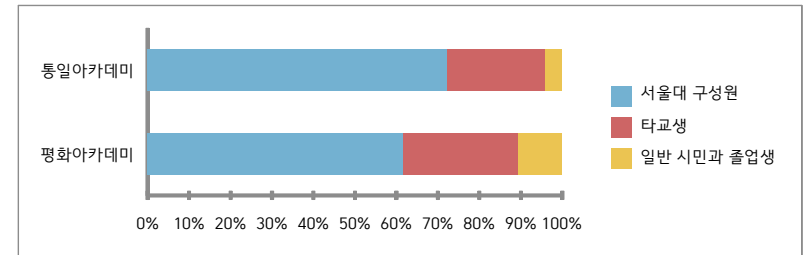
<2차 강좌 현장 사진>



⑤ 권위 있는 '자격증 수여 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 안착

○ 제18기 통일아카데미, 제6기 평화아카데미

- 올해로 11년째 진행되는 통일아카데미와 5년째 수행한 평화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통일의식과 평화의식 및 지식 함양을 위해 진행되는 권위를 지닌 아카데미.
- 다양한 전공 및 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의 참여를 통한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
- 통일 아카데미: 총 72명의 수강생 중 서울대학교 구성원 52명(72%), 타교생 17명(23%), 기타 일반 시민과 졸업생 3명(4%)
- 평화 아카데미: 총 65명의 수강생 중 서울대학교 구성원 40명(61%), 타교생 18명(28%), 기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인 등 7명(11%)



- 정규 교과 과목에서 소화하기 힘든 가장 최근의 시의성 있는 통일·평화 관련 내용들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한 공개강좌를 통해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현안의 통일평화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함양

통일 아카데미 프로그램				
주차	일자	주제	강사명	강사 소속
1회	4. 3.	(개강) 통일한국 브랜딩	전병길	재) 통일과나눔 사무국장
2회	4. 10.	해외분단국 경험: 독일,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3회	4. 17.	SDG와 대북개발협력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4회	4. 24.	북한출신청년과의 대화: '남한에서 살아보니'	정서윤	민주평통 주무관
5회	5. 1.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6회	5. 8.	중국이 보는 한반도 통일	박 우	한성대학교 교수
7회	5. 15.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천해성	통일부 차관
8회	5. 29.	수료식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평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주차	일자	주제	강사명	강사 소속
1회	10. 2.	오리엔테이션 & 분쟁에서 평화로	이찬수	IPUS HK연구교수
2회	10. 16.	아프간이라크의 아픈 역사	김영미	시사IN 분쟁전문 PD
3회	10. 2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끝나지 않는 전쟁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교수
4회	10. 30.	21세기 화약고 시리아 전쟁, 8년 전쟁의 끝은?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가
5회	11. 06.	보스니아 내전: 새로운 전쟁	김철민	한국외대 동유럽학과 교수
6회	11. 13.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20년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7회	11. 20.	65년 간의 전쟁, 73년의 분단	김학재	IPUS HK교수
8회	11. 27.	수료식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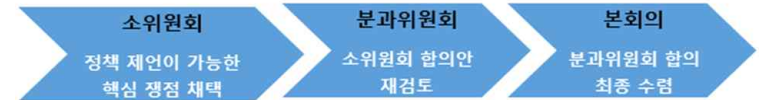
○ 제1회 SNU황해평화학교 개교

- 통일아카데미, 평화아카데미의 성과를 학교 바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제1회 SNU 황해평화학교를 개설
- 인천대, 인천발전연구원과의 연계 속에서 공동 강사진을 꾸려, 강화도와 교동, 한강평화수역에 대한 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한반도신경제구상'의 황해벨트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수료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함으로써 향후 서울대의 새로운 교육모델로 정착해 나갈 예정.

⑥ 학생 주도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정책형 통일교육모델 보급

- 2018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청년층을 주도로 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총 3일간의 행사에 52명(사무직원 제외)이 등록하였으며, 심화 토론 과정인 본회의 시간에는 30명의 청년 대학생이 참가하여 대주제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임.
- 서울대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다양한, 연세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동대학교, 상명대학교,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Bourges 등 다양한 대학 학생들이 참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직장에 종사하는 청년들 역시 참여함.
- '소위원회 - 분과위원회 - 전체회의'로 이어지는 3단계 상향식 회의 구조를 확립.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합의안을 23개의 소위원회가 합쳐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며 합의안을 수정 보완하고, 마지막 날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하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consensus)를 도출하는 상향식 구조 모델 마련.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협력을 통해 회의 결과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언론을 통해 청년층의 목소리가 사회와 정치에 보다 파급력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맡음.

* 한반도정책컨센서스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

통일부 공식 블로그 기사 탑재

통일신문
The Tongil Shinmun

© 편집 2019.01.21 [14:04]
로그인 | 회원가입 | 이이디서면 찾기

정치 | 경제 | 군사/외교 | 사회/NGO | 탈북민 | 인터넷

사회/NGO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한반도정책 공론의 장
한반도정책컨센서스...통일·외교·안보담론 확산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18/08/02 [15:02]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지금이 북한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통일·외교·안보담론을 확산하고 상이한 의견 합의의 도출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나섰다.
청년 주도 정책협의체인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사무국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제3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를 연다고 밝혔다.
사무국 관계자는 "남북분단 이후 한반도문제와 북한에 대한 일관된 논의, 안정적인 정책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층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속의민주주의의 토의 모델을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참가자 간의 합의의 도출을 시도한다. 회의 첫 날 참가자들은 6개의 소위원회 법제, 행정, 산업, 통상, 문화체육, 사회, 국방, 외교에 소속되어 안전을 상정하고 의결해 나간다. 회의 둘째 날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로 나뉘어져 4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합의안을 수정하고 의결한다. 이어 마지막 날에는 모든 참가자가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위 통과 안건을 심의해 컨센서스 리포트를 작성, 작성된 리포트는 한반도 정책컨센서스 사무국을 통해 통일, 외교, 안보교육기관과 연구소에 전달되어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신문 내 관련 기사 탑재

2 추진 과제별 실적

□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개발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A. 모델연구를 통한 실제 강의 적용		
번호	단위사업	담당자
1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신희영 (의과대 교수)
2	공개강좌 '통일교육 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박성춘 (사범대 교수)
3	교양강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쟁점' 개발 및 운영	신범식 (사회대 교수)
B. 순수 모델연구		
1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윤대석 (사범대 교수)
2	'SNS 기반 통일교육안' 개발	박성춘 (사범대 교수)
3	통일치의학 교육과정 개발	신태전 (치의학과 교수)
4	학생주도형 통일교재 개발	박명규 (사회대 교수)
5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리더 양성	이현수 (공대 교수)
6	간호대학(원)생 통일보건의료 교육	채선미 (간호대 교수)
7	대학통일교육 설계를 위한 초·중·고등학생 통일외식 실태조사	문인철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8	석·박사학위논문 지원 사업	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9	현장연계형 통일·평화 관련 교과목 연구개발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10	'한국인의 통일외식과 통일교육 교안 개발	서보혁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A. 모델연구를 통한 실제 강의 적용

- 1) 교과목 개발지원 - 신희영 (의과대 교수)
세부 사업명: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① 연구 목적

- 예비 통일보건의료 전문 인재 양성
 - 남·북한 보건의료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통일 이후 보건의료 통합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일보건의료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각계의 통일의료에 대한 의식을 배양하고자 함.
-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 넓은 통일 교육 기회 제공
 - 서울대학교 전 학내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보건의료 인재인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교환학생, 이공계, 문과계, 어문학계의 학생들의 다각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통합적인 통일 보건의료 강좌형태로 폭 넓은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과목명
 - 통일의료
- 대상
 - 서울대학교 학생
- 주제
 - 북한 보건의료 체계, 대북 보건의료 지원, 남북 보건의료 통합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2학기
 - 1주일 당 1회 강의(2시간, 총 15주), 2학점 취득 가능한 선택과목 (교과)
- 강의 운영 계획
 - 2018년 '통일의료' 커리큘럼(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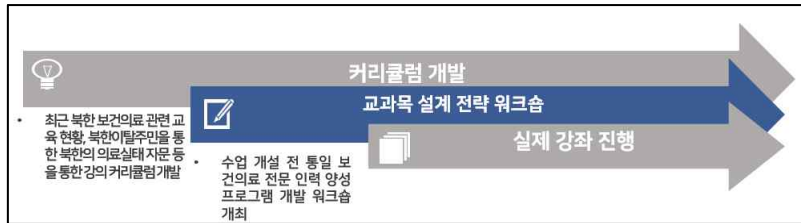
주차	세부 주제
1	통일과 보건의료: 서울대학교 통일 보건의료 사업 소개
	통일과 보건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사업 소개 - 서울대학교 병원 통일 보건의료 사업 소개 - 통일의료 교과서 소개 (과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의견 제출, 하나원 견학 논의
2	북한의 보건의료지표
	- 북한의 보건의료 지표 - 북한 보건의료 백서, 통일의료 교과서 내용 소개

3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조직체계
	- 호담당 의사 - 인민병원 - 도급병원 - 중앙급병원 - 평양사진 소개
4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 OCED IDS, UNOCHA FTS 데이터 활용방법 -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현황 -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의의 -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한계 -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평가
5	국내 대북 보건의료지원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데이터 소개 -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보건의료지원 현황 - 정부,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의의 - 국내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한계 - 국내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의의 및 발전방향 - 북으로 간 의사:MBC 방송 소개
6	효과적인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계획
	- 평양, 모향산 사진소개 - 남북한 보건의료 R&D 소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북 보건의료지원 전략 계획 소개 -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의견 논의 - 관계자 특강
7	북한의 흔한 질병: 말라리아와 기생충
8	중간고사
9	통일 보건의료 전문가 초청 특강 1
10	영유아 건강과 모자보건, 북한의 흔한 질병: 결핵
	- 주요 대북 영유아 건강 모자보건 기관 소개 - WHO, UNICEF, UNFPA 사업 분석
11	대북 백신지원 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 북한자료센터 북한실상설명회 - 탈북 보건의료 인력 특강
12	통일을 대비한 의학교육의 표준화
	- 북한 의학잡지 소개 - 북한 의학잡지 분석 - 북한 의학교육 현황 소개 - 남북한 의학교육 비교분석
11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12	하나원 방문
13	통일을 대비한 의학교육의 표준화: 탈북의사 교육
14	통일 보건의료 전문가 초청 특강 2
15	기말고사

- 이상의 통일의료 강의를 통해 예비 보건의료인의 통일 의식 함양을 돕고, 나아가 통일의료와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여 추후 '통일의학연구' 자발적인 참여까지 연계 예정.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연구개발 프로세스



○ 커리큘럼 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급변에 따라 시의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됨.
- 영어강의를 통해 서울대학교 재학생 이외의 타 대학 및 외국대학 교환학생까지 대상으로 하여, 남북한 보건의료의 현황과 대북지원의 전망을 공유하는 보다 글로벌한 시각의 자료 개발을 촉구.
- 최근 북한 보건의료 관련 교육 현황,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의 의료실태 자문과 함께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강의를 준비하고자 함.

○ 교과목 설계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일시: 2018년 6월 20~21일 (1박 2일)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층 플럼룸
- 인원: 신희영 교수 외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6명
-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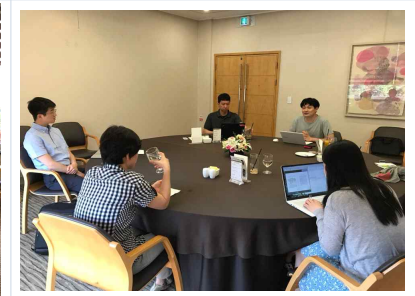
일시	시간	일정	비고
6월 20일 (수)	09:00~10:00	호암교수회관 모임	간단한 식사 후 모임
	10:00~12:00	2018년 '통일의료' 커리큘럼 계획	
	12:00~13:30	점심식사	
	13:30~15:30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의료실태)	

	15:30~16:00	휴식	
	16:00~18:00	남북 의료인력 양성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의학교육 비교	안경수 연구원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의 의학교육 실태	John Park
	18:00~20:00	저녁식사	
	20:00~22:00	북한 보건의료 최근 영상자료 검토	
6월 21일 (목)	08:00~10:00	조식 및 휴식	
	10:00~12:00	북한자료센터의 북한 보건의료 문헌자료 수집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12:00~13:00	점심식사	

㉠ <2018년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현장 사진>



<통일의료> 커리큘럼 기획회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 워크숍 내용-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중 (요약)

- 북한의 의료시설과 병원 현황에 대한 자료는 WHO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자료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자료의 일부인 상황에서, 최근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병원 현황 자료를 담은 자료가 발간됨.
- 이에 따라 해당 연구를 수행한 북한이탈주민을 인터뷰하여 해당 지역의 병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일의료' 강의 내 북한 보건의료 시설 관련 자료로 업데이트하고자 함.
- 함경북도 온성군은 지역의 특성상 탄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반 병원이 아닌 산업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북한 보건의료체계 내 산업병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자문을 진행함.
- 자문을 통해 산업병원은 구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며 해당 구에 탄광이 위치할 경우, 이를 탄광병원으로 칭하고 해당 구의 주민들은 탄광병원을 구 병원처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에서 일반 주민은 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여길 정도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의약품보다는 민간요법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 워크숍 내용-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의 의학교육 실태 파악

1. 2017년 12월,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에서 북한 의료진을 교육했던 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평양과학기술대학과 센터가 지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커리큘럼을 비교함.
2.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의학대학은 2017년 개소하였으며 학생들은 영어강의를 수강 중, 올해부터 의학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하나 UN 제재로 인해 학생을 지도할 외부 교수 영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함.
3. 이외에도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내부 의료기기와 학교 시설에 관해 공유함.
4. 남북한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평양과학기술대학 양성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커리큘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에 주안점을 두는 발표시간을 가짐.
5. 통일의료 강의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남북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는 보완하여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함

Context: History of PUST

- PUST was founded in 2010 by President James Kim
- It is the first private university in the DPRK taught in English by foreign faculty
- In 2001, the DPRK requested that President Kim create PUST after seeing the success of YUST (China)
- The first PUST graduates graduated in May 2014
- The first medical students were admitted in 2016



PUST 연혁

PUST Division of Medical Sciences:



PUST 의학부 학과



PUST 진료소 치과실



PUST 진료소 의약품 현황

④ 실제 강좌 진행

- 통일의료 강의 커리큘럼 개발 및 재구성
 - 강의에 활용할 영상자료 검색 및 관련 사진을 추려 연계 강좌에서 소개.
 - 전문가 초청강의: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이혜원, 서울의료원), 북한의 흔한 질병 말라리아와 기생충 (최민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안성 하나원과 연락,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방문 일정 조율.
 -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사진을 공유하고 수강생들에게 자세한 사례로 소개.
- 강의 방식 및 참가자
 - 강의전달식(특강 포함), 그룹별 발표 및 토론, 영상시청, 자기주도형 과제(레포트)
 - 참가자: 총 46명(의예과 31명, 타과생 및 외국인 15명, 청강생 1명)
- 강의 기간 및 장소
 - 2018년 9월 5일~12월 12일 (2018년 2학기 교과목 / 15주 / 주당 2시간)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24동 214호
- 강의 계획서

일자	내용
9/5 (수)	통일과 보건의료: 통일보건의료 사업 소개 - 서울대학교병원 통일 보건의료 사업 및 <통일의료> 소개 - 안성 하나원 현장견학 관련 논의
9/12 (수)	국제기구 데이터를 통해 보는 북한 보건의료 지표 - 북한 보건의료백서 및 통일의료 교과서의 관련 내용 소개
9/19 (수)	북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 무상의료제, 예방의학제, 호당당 의사 개념 및 사진 (발표) 주요지표를 통해 보는 북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안
9/26 (수)	북한 보건의료 조직체계 - 인민병원, 도급병원, 중앙급병원 개념 및 사진
10/3 (수)	국내 대북 보건의료지원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데이터 소개 -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보건의료지원 현황 - 국내 대북보건의료지원의 의의와 한계 및 발전방향
10/10 (수)	북한의 흔한 질병: 결핵 (발표) 국내 대북 보건의료지원 현황 및 추진 전략
10/17 (수)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 OECD IDS, UNOCHA FTS 데이터활용 방법 안내 -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의의와 한계 및 평가 -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이혜원 전문의 특강 (발표)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현황 및 추진 전략

10/24 (수)	중간고사
10/31 (수)	현장견학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아동 지원기관인 안성 하나원 방문
11/7 (수)	대북 백신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 대북 영유아 건강 및 모자보건 담당의 주요 기관 소개 - WHO, UNICEF, UNFPA 사업 분석 (발표) 북한의 흔한 질병 '결핵' 현황 및 시사점
11/14 (수)	북한의 흔한 질병: 기생충과 말라리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최민호 교수 특강 (발표) 북한의 흔한 질병 '말라리아/기생충' 현황 및 시사점
11/21 (수)	통일대비 의학교육 표준화 및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 - 남북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정 비교 - 합리적인 인력 통합방안에 관한 논의 (발표) 북한의 고려의학과 남한의 양한방의학 비교 분석
11/28 (수)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R&D (발표) 주요 체제전환국 보건의료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12/5 (수)	효과적인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계획 (발표)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 및 합리적인 통합 방안
12/12 (수)	기말고사

○ 조별 활동 개요

- (1조) 북한 보건의료 주요지표를 통해 보는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방안
- (2조) 국내 대북 보건의료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전략
- (3조)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전략
- (4조) 북한의 흔한 질병 '결핵' 현황 및 시사점
- (5조) 남북한 감염성 질환 '말라리아, 기생충' 현황 및 시사점
- (6조) 북한 고려의학과 남한의 양·한방 비교 분석
- (7조) 주요 체제전환국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보는 한국에의 시사점
- (8조)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 및 합리적인 통합 방안

○ 현장견학: 안성 하나원

- 일시: 2018년 10월 31일 (수) 9:00~15:00
- 대상: 통일의료 강의 수강자 중 23명
- 특이사항: 점심 및 다과 제공, 하나원 입장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 소지



<통일의료> 강의

제2하나원 견학

○ 결과물

-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맞춘 강의 자료 및 그룹별 발표 자료 제시.
- 북한 보건의료체계와 결핵 사업에 관한 영상을 감상한 후 레포트 제출.
- 안성 하나원 방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의 실제 만남의 기회 가짐.
-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료 지식 습득을 측정할 수 있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 강의 평가 설문.

⑤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기존 '통일의료' 강의 커리큘럼 수정 및 보완

- 최근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 동향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육 커리큘럼 파악을 통한 남북한 의료인력 양성체계 강의안 보완 등 보다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커리큘럼 채택.
- 북한의 말라리아와 기생충 실태,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강의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커리큘럼 마련.

○ 남북한 보건의료 관련 영어 강의 진행

- 북한 보건의료 강의에서 최초로 영어로 통일의료 강의를 진행하여, 한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까지 남북한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
- 안성 하나원 방문과 같이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가시설을 함께 견학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접목한 외국인 대상 강의가 가능했음.

- 그룹별 발표 및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수법 도입
 - 일반적인 강의전달식 교수법에서 벗어나 그룹별 발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법을 채택하였고, 타과생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현장학습 등 다양한 교수법 도입을 통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강의에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높은 평가를 받음.
- 연구개발 과정을 통한 최신 북한 보건의료 실태 파악 가능
 -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남북한 의료인력 양성체계 비교 분석의 초석으로 삼음.
 - 함경북도 온성군 의료기관의 현황 및 설비를 파악하고, 탄광병원과 산업병원, 산업진료소 및 일반 병원과 진료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
 - 이를 바탕으로 대북 보건의료지원 시 고려할 사항의 우선순위 도출.
- ‘통일의료’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함양과 강의 방향성 제시
 - 보건의료분야의 의학도를 벗어난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등의 소속 학생들을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전교생 대상, 의료분야 종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통일의료 전문 인력으로서의 성장 기회 제공.
 - 영어강의로 진행됨에 따라 남북한 분단의 현실과 보건의료 격차를 외국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통일의료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2) 교과목 개발지원 - 박성춘 (사범대 교수) 세부 사업명: 공개강좌 ‘통일교육 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① 연구 목적

- 남북통합과 사람통일의 중요성 이해
 - 정치적, 경제적 수준의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차원의 사람 통일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의 학부,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통하여 남북한 통합의 경험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 전문가 양성
 -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나 인력 수급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본 사업은 남북통합의 경험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와 연구자를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과목명
 - 통일교육 아카데미
- 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
- 주제
 -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과 통합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대비한 교육전문가 양성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2학기
 -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비교과)

○ 강의 운영 계획

일자	내용
4/1 - 6/30	통합중심 통일교육 선행연구 분석
7/1 - 9/31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발
10/1-12/3	서울대 통일교육아카데미 교육과정 내용 개발 및 강좌 운영 실행
12/3-12/31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 프로그램 개요 (계획안)

세션	차시 /날짜	강 의 주 제
개강	1차시 (10/1)	통일을 열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종석 (세종연구소, 전통일부장관)
세션 1:		
개성공단의 경제통합	2차시 (10/8)	개성공단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다 "개성공단은 퍼주기라 아니라 퍼오기이다"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3차시 (10/15)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다 '개성공단 공식 1호 기업'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대표의 사업이야기 유창근 (개성공단기업연합회 부회장)
	4차시 (10/22)	개성공단 통합경험을 가르치다 "개성공단의 경제통합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워크숍> 채형우 (개성공단지원재단 통합경험교육팀장)
세션 2:		
서울대학교의 통일실험학교	5차시 (10/29)	서울대학교에서 통일을 실험하다 "통일은 실험할 수 없지만 통일학교는 가능하다" 서울대 통일학교 이야기 유준희 (서울대 교육연구실장)
	6차시 (11/5)	서울대 통일학교에서 가르치다 "남북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다" 통일학교의 경험 강나현, 손수진 (장도초, 경서중 통일전담교육사)
	7차시 (11/12)	통일 이후 학교를 생각하다 "과연 통일학교는 통일 이후 학교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워크숍> 김병연, 김은수, 손은혜 (양재고, 청원여고, 매탄초 교사)

세션 3:		
남북한 사람통일과 교육	8차시 (11/19)	북한과 남한 학교에서 배우다 학생의 시선으로 남북한을 담다. 전지적 학생 시점! 박미경, 장은숙 (서울대, 고려대 학생)
	9차시 (11/26)	북한과 남한 학교에서 가르치다 "북한에서 교사를 하다가 남한으로 왔어요. 지금은 통일전담교육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최경욱, 최금실(등방초, 하안남초 통일전담교육사)
	10차시 (12/3)	교육으로 통일을 준비하다 "통일교육은 왜 답정너인가?" 새로운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법 모색 <워크숍> 박성춘(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장)

○ 프로그램 모집 요강

교육일정	2018년 10월 1일~ 12월 3일 (10주) 매주 (월) 저녁 6시 30분 ~ 9시
모집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
원서교부 및 접수	2018년 9월 12일(수) ~ 9월 19일(수)
제출서류 모집, 접수	지원서 1통(소정양식) 접수(tongiledu@snu.ac.kr) 40명 내외 선발, 발표 9월 21(금) 문의 02)880-4461 (담당자 한승원)
수강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10-1동 103호)
수강료	무료
수강혜택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 발급 수료증(80%이상 출석자)

④ 실제 강좌 진행

○ 강의 진행 기간: 2018년 10월 1일 ~ 12월 3일

○ 세부 커리큘럼

세션	차시 /날짜	강 의 주 제
개강	1차시 (10/1)	통일을 열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종석 (세종연구소, 전통일부장관)

세션 1:		
개성공단의 경제통합	2차시 (10/8)	개성공단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든다 "개성공단은 퍼주기라 아니라 퍼오기이다"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3차시 (10/15)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다 '개성공단 공식 1호 기업'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대표의 사업이야기 유창근 (개성공단기업연합회 부회장)
	4차시 (10/22)	개성공단 통합경험을 가르치다 "개성공단의 경제통합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워크숍> 채형우 (개성공단지원재단 통합경험교육팀장)
세션 2:		
서울대학교의 통일실험학교	5차시 (10/29)	서울대학교에서 통일을 실험하다 "통일은 실험할 수 없지만 통일학교는 가능하다" 서울대 통일학교 이야기 유준희 (서울대 교육연구원장)
	6차시 (11/5)	서울대 통일학교에서 가르치다 "남북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다" 통일학교의 경험 강나현, 손수진 (장도초, 경서중 통일전담교육사)
	7차시 (11/12)	통일 이후 학교를 생각하다 "과연 통일학교는 통일 이후 학교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워크숍> 김병연, 김은수, 손은혜 (양재고, 청원여고, 매탄초 교사)
세션 3:		
남북한 사람통일과 교육	8차시 (11/19)	북한과 남한 학교에서 배우다 학생의 시선으로 남북한을 담다. 전지적 학생 시점! 이정호, 장은숙 (서울대, 고려대 학생)
	9차시 (11/26)	북한과 남한 학교에서 가르치다 "북한에서 교사를 하다가 남한으로 왔어요. 지금은 통일전담교육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최경욱, 최금실(동방초, 하안남초 통일전담교육사)
	10차시 (12/3)	교육으로 통일을 준비하다 "통일교육은 왜 답정너인가?" 새로운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법 모색 <워크숍> 박성춘(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장)

※ 8차시 발표자 : 박미경→이정호 변경

○ 수강생 인원
- 총 48명

과정별	직군별	대학별
학부 (23명)	초중등 교육 관련 예비교사/사범대 대학원 포함 (29명)	서울대(38명)
석사과정/졸업 (7명)	그 외 (19명)	성균관대, 동국대, 이화여대, 경기대, 인천재능 대, 숙명여대, 교대, 서울고 등검찰청, 고려사이버대 등
박사과정/졸업 (11명)	법무관, 고려사이버대 학생, 수의학과, 사회교육과 시간강사,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인문대 주무관 등	기타 (10명)
기타 외부 (7명)		

○ 결과물 (예시)

1강: 통일을 열다 -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강의 사진



제 1강 “통일을 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강의 내용	남북관계 대전환의 동력을 한국, 북한, 미국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김정은 비핵화 의지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이어서 남북협력의 조건과 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화체제와 한반도신경제구상을 통한 평화 변영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맥락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며 통일교육아카데미의 첫 문을 열었다.

⑤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사업 결과
 - 10회에 걸쳐 진행된 통일교육아카데미는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한 37명의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였음.
- 사업 효과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교육 분야에서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통합방안 및 통일교육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통일교육 선도교사 및 통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향후 남북 교육통합을 위한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통한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는 통합의 경험과 통일교육의 방법을 실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체적인 남북통합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각과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교과목 개발지원 - 신범식 (사회대 교수)

세부 사업명: 교양강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쟁점’ 개발 및 운영

① 연구 목적

□ 연구개발 목적

- 이번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이견 표출은,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 중심적 접근법을 통한 당위적 통일론이나 반공주의적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접근법 등을 지양하고, 이제 “북한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음.
- 이는 행복, 인권, 평등, 평화 등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세대의 보편적 가치지향이 한국의 다가올 주류세력의 이념적 지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함.
- 새로운 세대는 통일 보다 평화가 우선적 가치로 자리 잡을 개연성이 큼. 평화의 보장 하에서 모색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이 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구상해 볼 수 있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변화는 통일 논의를 “평화와 통일” 및 “미래세대와 통일”이라는 새로운 초점을 가지고 모색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할 수 있음.

□ 수업의 목적

- 전통지정학과 비판·신지정학적 입장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방식과 논의를 비교적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일의 환경, 주제, 인식 그리고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인식을 고양.
- 통일문제를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지정학적 방식과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적 틀 속에서 이해하는 신지정학적 방식을 대비시켜 이해하도록 함.
- 통일의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평화의 문제가 어떻게 통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궁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과목명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쟁점
- 대상
 - 서울대학교 학생
- 주제
 - 글쓰기와 토론을 주 수업 방법으로 하는, 평화와 신지정학, 그리고 통합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2학기, 3학점이 부여되는 교양 과목 (교과)
- 강의 운영 계획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의 준비를 위한 논의 - 참여 강사진 선정 및 강자의 방향성 설정 - 학생들의 토론/평가방법과 결과의 활용 방안 논의										
- 강좌 계획 및 강의계획서 완성 - 강좌 교육자료 작성 및 취합										
강좌 진행										
강좌 평가 및 강좌 보완계획서 작성										

④ 실제 강좌 진행

- 강의 진행 기간: 2018년 9월 4일 ~ 12월 20일
- 세부 커리큘럼

	날짜	강사명	소속	제목
제1강	9/4	신범식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평화와 통일의 전통적 개념과 담론
제2강	9/11	신범식		역사 및 정체성과 평화와 통일
토론1	9/18	신범식		한반도에서 상호 국가 인정은 통일 또는 평화의 선결조건이 될 수 있는가?
제3강	10/2	김선, 김희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통일 관련 인식의 세대적 변화
제4강	10/16	임기홍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통일과 평화의 정당성
토론2	10/23	신범식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통일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5강	10/30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북한의 경제특구, 접경소지역협력
참관	11/2	학술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관계」 참관		
토론3	11/13	신범식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경제와 복지의 새로운 출구로서 통일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제6강	11/20	김상배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한반도 신중안보의 복합지정학
제7강	11/27	전재성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고전지정학과 통일
토론4	12/4	신범식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통일의 과정과 상태를 어떻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평가	12/11	기말고사		
	12/20	기말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		

- 수업 진행 방식
 - 2개의 강의와 한 번의 토론 시간으로 구성된 4개의 세션으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함. 수업은 글쓰기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3주에 한 번씩 A4용지 2장 내외의 토론문을 작성해야 함.

○ 수업 참가자 명단 (최종 명단)

이름	학교	전공	학년	연락처
이채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3	leece4022@snu.ac.kr
야마구치 하나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4	hiii9.john@snu.ac.kr
오예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3	sallyoyw@snu.ac.kr
박기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3	kbp1403@snu.ac.kr
김민엽	서울대	산림과학부	4	yeob0331@snu.ac.kr
진규영	서울대	영어교육과	1	snufly@snu.ac.kr
박민웅	서울대	작곡과	3	minwoong96@hanmail.net
이우빈	서울대	의예과	2	dnqlstmxk111@naver.com
홍석호	기타	청강생	1	sa88693@naver.com

* 최초 18명 신청, 수강포기 8명, 휴학 2명 최종 8명 (+청강생 1명)

○ 강좌 운영

- 결과물: 강의 자료 및 교안
- 최종평가: 출석 10%, 수업 참여 10%, 토론 및 에세이 작성 40% (10점x 4회), 기말고사 및 페이퍼 작성 40%

○ 강의 자료 예시

○ 강의계획서 및 주차별 커리큘럼안

강 의 계 획 서

교과목 번호	시간/강의실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과	담당교수	
					직명	성명
	08:30-12:20 88-502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쟁점	3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교수	신범식
교과목 개요	1. 주제, 개념, 내용: 본 강좌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환원적인 관점과 비판적 관점 그리고 신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평화에 대한 정의,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평화와 통일 사례들, 새롭고 정면세대 사이에서 부과되는 인식 간의 비교, 통일 및 통일 관련 개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양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제와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통일 평화와 관련된 실질정책의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목적: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변화하는 통일의 환경, 주제, 인식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진행하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평화와 통일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이해하고, 공유점을 발견하고, 이를 확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시도하도록 한다.					
	3. 특징 및 의의: 본 강좌는 담당교수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강의 2회,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집중 토론(세미나) 1회의 일정을 네 차례 반복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에세이를 글쓰기 훈련의 관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 주 교재 - [교재1]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외국가전략연구원, 『통일의 신지정학』, (박정사, 2017).					
	* 참고 교재 - [교재2] Johan Galtung, <i>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i>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 [교재3] 김규원 외,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교재4] 강일택 외 4인, 『남반반 젊은 세대의 통일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교재5] 조영철,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푸른나무, 2007). - [교재6] 신범식 편, 『북-중-러 점진적대화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이조, 2018). - [교재7] 김성배, 신범식 엮음, 『한반도 신중안보의 세계정치』 (사외평화아카데미, 2017).					

주별 강의 계획			
강의차수 (날짜)	강의주제	강의진행 및 수강자활동	필독자료 및 과제
1주차 (09/04)	- 오리엔테이션 - 평화와 통일의 현존적 개념과 그 의미 - 평화와 통일 달성의 전개과정과 새로운 통일 관인 남북의 과제	강의	[교재] 1-2, 1-3
2주차 (09/11)	- 역사 및 정책성과 평화와 통일 논의 -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사례를 검토	강의	[교재] 1-1, 2-3
3주차 (09/18)	통일은 필요하다? (안보에서 통일과 평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학생 토론 및 질의 응답	토론문(1) 제출 [교재] 또는 [교재] 참조
4주차 (09/25)	주목 휴강		
5주차 (10/02)	- 통일 관련 인식의 세대별 변화: 청년 인식 - 한반도의 통일 인식: 남북 수반, 탈북민, 해외 동포	강의	[교재] 2-1, 1-4
6주차 (10/09)	한글날 휴강		
7주차 (10/16)	- 통일을 넘어 평화로? 북한 가치로서의 평화, 인권, 평화 - 통일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강의	[교재] 2-2, ()
8주차 (10/23)	토론주 기생세대와 청년세대 통일관은 다른가? 다르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학생 토론 및 질의 응답	토론문(2) 제출 [교재] 참조
9주차 (10/30)	- 북한의 경제, 교육, 남북 네트워크 통합 - 일일소비예절, 이념, 포스트레드크	강의	[교재] 3-1, 3-2, 3-3, 3-4
10주차 (11/06)	- 남북한 실질협력의 새로운 이슈 - 학생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관계』 [11월 2일 18:30-18:00, 특히 4-6시 한국연호 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위클리 토론회	강의	상동
11주차 (11/13)	토론주 경제와 북한의 새로운 송부로서 통일은 얼마나 필수적이다?	학생 토론 및 질의 응답	토론문(3) 제출 [교재] 또는 [교재] 참조

12주차 (11/20)	- 한반도 평화 - 통일의 준비와 방법 - 신거점국가 북한변방 통일론	강의	[교재] 4-1, 4-2
13주차 (11/27)	- 신중안보와 평화 - 북한서점화와 통일의 책임	강의	[교재] 4-3, 4-4
14주차 (12/04)	토론주 통일의 과정과 남북의 거점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만약 그 통일이 온다면 어떤 경로로 올 것인가?	학생 토론 및 질의 응답	토론문(3) 제출 [교재] 참조
15주차 (12/11)	기말 고사		
수강자 참고사항			
- 본 강의는 3주 + 4주 구조로 진행된다. 첫 2주는 담당 교수 및 소청 교수의 강의에 진행되 며, 뒤 3주에서는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동별 토론을 진행하는 세미나로 진행된다. - 토론수업(총 4회: 3주차, 8주차, 11주차, 14주차)을 위해서 각 수강자는 제시된 참고자료를 읽고 제시된 질문에 관하여 2쪽 이내(200~2500자)의 답안을 작성해 지정 일시까지 지정된 사이트(ClassPrep)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에 응하고, 상도 평가한 뒤 수업에 참석한다.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			
출석 10% (교양과정 운영위원회 따라 수업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 F학점 처리) 토론 과제서 40% (10일 x 4회) 수업 참여 10% (토론 시간에서의 주도성과 참여) 기말고사 40% (학업 성취도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강의 관련 문의는 이강준 조교(jamcoun@pus.ac.kr)에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⑤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수업 연구 개발

○ 강의 자료 개발

- 총 6주치의 자체 강의 교안(4회 토론 수업을 심화 수업)과 5번의 특강 강사들의 교안 개발.
- 통일에 대한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을 넘어 평화와 신지정학, 그리고 통합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교안에 담음.

□ 학생 교육 측면

- 총 5차례에 걸친 글쓰기 및 토론 과정을 통하여, 통일 및 평화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B. 순수 모델연구

1) 교과목 개발지원 - 윤대석 (국어교육과 교수)

세부 사업명: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① 연구 목적

-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현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기존 민족주의 중심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
-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 및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문제 지점을 확인.
- 분단국가에서 통일 국가로 나아간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상호 간의 문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 관점 정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및 공동 학술대회를 주최하여, 통일문화 교육에 필요한 다문화적 관점을 정립.
-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성과를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KCI 등재지에 게재하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 성과를 확산.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운영 주제

-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1·2학기

추진내용/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행 연구 검토										
현행 교육과정 검토										
통일문화교육 관점 정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통일문화교육의 개념 설정 및 핵심 교육내용 도출													
'다문화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다문화시대의 통일문 화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													
'통일시대의 문학교육' 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선행 연구 검토

○ 목적: 통일문화교육의 관점 정립 및 교육요소 선정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와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

○ 기간: 2018.3~4.

○ 결과

- 통일교육의 방향은 시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으나, 그 중심이 반공에서 안보로, 다시 민족통합으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경제의 부침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오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북한 간 우열을 관계가 성립 불가능한 '문화·사회'와 같은 생활세계의 통합에 근거를 두려는 통일교육의 경향이 대두됨.

□ 현행 교육과정(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및 북한이탈청소년 교육과정 검토

○ 목적: 그간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피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을 부수적으로 살펴봄. 통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탈북학생 지도용 국어과 교육과정도 확인.

○ 기간: 2018.4~5.

○ 방식: 통일교육 및 문화 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검토 대상: 국어과 교육과정(2009개정/2015 개정), 탈북 학생 대상 국어과 교육과정(초등),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2015 개정)

○ 결과

- 교육과정 검토 결과, 교육과정에서도 통일과 관련하여 문화적 요소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회'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 6차부터 도덕과에서 통일과 관련된 단원에 '북한 사회의 이해'가 포함되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그 예임. 그러나 북한 주민의 생활조차 정치와 경제에 의해 과잉 표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편 정치·경제 논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어과에서는 민족 동일성에 입각하여 주로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일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이는 당연한 현상인 듯 보이나, 언어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언어 민족주의에 입각해 있기에 언어의 차이는 쉽게 인간의 차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함.
- 결과적으로 현재의 통일문화교육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치·경제적 체제 우월성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통일교육에서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그런 점에서 의의를 지님.

□ 통일 문화 교육 관점 정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목적: 통일 문화 교육의 관점 정립을 위해 "탈북민의 언어문화와 언어감성"이라는 주제로 워크숍 개최

○ 기간: 2018.5.29.

○ 방식: 전문가 워크숍(강연회 및 청중 질의)

○ 참가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약 45명

○ 결과: 북한 이탈 주민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의 문화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 특히, 지배층에서 전개하고 있는 언어 순화 운동이나 혁명적인 언어 사용 등이 실제 대중들에게까지 완전히 스며들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

<전문가 워크숍 자료 중>

<p>참사 한 정 미 (보은주 하사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 강준태, 권도태, 서병태 등 강사(1998~2009) 통일부 차장, 제2차남한 교류위원(2005~2010) 한국전쟁대 프리젠티브 코디네이터, 지도교수(2011~현재) • 주요 저서 :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역할(2007, 단국) 북한의 남관연구(2010, 공저) 김계 불이 온 곳으로 열두마탄(2011, 공저) 영미권 교육(2012, 공저) 공체 치는 전쟁정치(2012, 공저) 북한이탈주민 별의불 어둠 안에서(2014, 공저) NK-CID(북한어문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2014, 공역역) <p>차 논문다수</p>	<p>잘못된 북한 정보</p>  <p>아주 통일 영어강연에 이야기 북한말 알아야기 "북한 오징어 남편에선 남자가... 딸 낳지마!" "북한 오징어 남편에선 남자가... 딸 낳지마!" "북한 오징어 남편에선 남자가... 딸 낳지마!" "북한 오징어 남편에선 남자가... 딸 낳지마!"</p>
<p>남북 소통 장벽, 어휘와 표현</p>  <p>“외래어만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모르면 직장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러다가 조선말이 다 잊어지겠어요.”</p> <p>“같은 한국말인데 실마...” “순우리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말은 너무 손스러워서...”</p>	<p>북한의 언어정책이 북한주민 언어생활에 끼친 영향</p>  <p>2018년 11월 14일 발표된 자료</p>

<전문가 워크숍 사진>



□ 통일 문화 교육의 개념 설정 및 핵심 교육 내용 도출

- 목적: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을 위해 통일 문화 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핵심 개념 및 학습 요소 등을 도출.
- 기간: 2018.9.~10.
- 방식: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 문화 교육의 개념을 설정하는 한편, 통일 문화 교육의 핵심 교육 내용을 도출.
- 결과
 - 통일 문화 교육의 개념을 ‘북한과의 직·간접적 만남에서 다문화 문식력을 가지고 공감적·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핵심 교육 내용을 ① 남북한 문화의 복수성 인식 ② 북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협력적 상호작용 ③ 남북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관리 및 해결로 설정.

□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 목적: 통일 문화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 기간: 2018.11.~12.
- 방식: 고등학교 학습자 대상의 커리큘럼 개발(6차시 수업 예시)
- 결과
 - 남한의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6차시 교안 개발.
 - 교육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통일 문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

강의계획서

(① 목표

- 가.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론적·경험적으로 파악한다.
- 나. 남한과 북한의 문화는 각기 단일하지 않으며 복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 다.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북한과의 만남에서 공감적이고 협력적으로 상호작용

용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2) 핵심 개념 및 성취기준

(1) 남북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관리 및 해결

[성취기준]

- ①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인식한다.
- ②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 ③ 주변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학습 요소]

문화적 갈등, 문화 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 문화 간 의사소통 등

(2) 북한 문화의 복수성 인식

[성취기준]

- ①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 ② 매체 등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과잉 표상된 사례를 찾아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③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복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학습 요소]

문화의 복수성, 과잉 표상, 문화적 정체성, 매체 문식성 등

(3) 북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협력적 상호작용

[성취기준]

- ① 북한 이탈 주민과의 관계에서 공감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의 개념을 이해한다.
- ②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공감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 ③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협력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학습 요소]

북한 문화와의 상호작용, 공감, 정서 표현, 협력, 공동 목표 달성 등

(3) 커리큘럼(6차시 수업 예시)

수업 차시	핵심 개념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1차시	남북한 문화 차이로 인한	①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인식한다.	교사 설명(매체 자료 활용)

차시	갈등 관리 및 해결	②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③ 주변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조별 토의 조별 사례 조사 및 발표
2차시	갈등 관리 및 해결	②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③ 주변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조별 토의
3차시	남북한 문화의 복수성 인식	①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② 매체 등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과잉 표상된 사례를 찾아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교사 설명(매체 자료 활용) 조별 토의/토론
4차시	북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협력적 상호작용	③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복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개인 발표
5-6차시	북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협력적 상호작용	① 북한 이탈 주민과의 관계에서 공감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의 개념을 이해한다. ②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공감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③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협력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조별 역할극

(4) 프로그램 예시

① ‘남북한 문화 차이 인식 및 갈등 해결하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남북한의 문화 차이 인식 및 갈등 해결하기	대상 학년	교1
자료	① 영상: 남북한의 언어문화 차이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인식 ② 학술 논문: 남북한의 언어문화 차이	교사의 역할	사회자 / 조력자
차시	1차시(50분)	실행 방법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 방법	토의·토론	관련 교과	사회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인식한다. •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과정	단 계	형 태	학습의 호응
	홍 미 유	전 체 학	교수·학습 활동 학생
도입	배 경 지 식 동기 유발	영 상 자 료 를 보 면 서 북 한 이 탈 주 민 이 느 기 는 남 북 한 의 문 화 차 이 와 그 로 인 한 갈 등 을 인 식	교사
		영 상 자 료 를 보 면 서 북 한 이 탈 주 민 이 느 기 는 남 북 한 의 문 화 차 이 와 그 로 인 한 갈 등 을 인 식	북 한 이 탈 주 민 이 남 한 에 서 겪 고 있 는 문 화 차 이 와 그

	발	습		한다.	로 인한 갈등을 담고 있는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의 내용 중 언어문화 차이를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활동준비	전체학습	문제인식	상황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파악한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전개	조별토의	전체학습	조별토의 ①	영상에서 살펴본 남북한의 언어문화 차이를 정리한다. (예시) ① 남한은 서비스업 등의 발달로 '상업적 언어'가 많이 발달했으나, 북한 주민에게는 이러한 언어가 생소하며 남한 사람은 '속을 알 수 없고, 위선적이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② 남한 사람들이 친교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발화(예: 언제 밥 한번 먹어요.)에 대해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것을 '약속 발화'라고 여긴다.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언어문화 차이를 다룬 참고 자료를 보충하여 학습자들이 남북한의 언어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조별토의 ②	남북한의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별로 생각해 본다.
정리	마무리	전체학습	남북한의 문화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상황 인식	남북한의 문화 차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한다.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주시킨다.
			과제	조별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찾아 분석해 오도록 한다.(적절한 해결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갈등 상황을 조사해 오고 해결 방안을 조원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관련 자료」

1.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겪은 문화 차이와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영상

탈북민 한국정착, 인사말, 인사문화, 호칭 사용, 남북한 차이, 북한, 탈북자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ZGMRHMwgRk>

2. 남북한의 언어문화 차이에 대한 학술 논문

권순희(2014),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교육 지원 방향**, 이화어문논집 34, 이화어문논집, 중 발췌

2.2. 남북한 언어문화 차이

2.2.1. 간접 화행, 직접 화행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휘의 차이로 인해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대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대화뿐만 아니라 도서나 드라마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발화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표 전달, 즉 메시지의 포인트가 메시지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발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메시지 자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W대학교 석사과정인 북한이탈주민 L의 증언).

예를 들면 남한의 경우 회사에서 상사가 “답지 않아요?”라고 발화를 했을 때 그 발화를 들은 일반 회사원의 경우 대부분 상사의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트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창문을 열까요?’ 혹은 ‘에어컨을 켜까요?’ 등의 발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답지 않아요?’라는 발화에 대한 답으로 본인이 더울 경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별로 덥지 않습니다.”로 발화를 한다. 이는 메시지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발화 수반 행위나 발화 효과 행위를 해석의 범주로 넣느냐에 따라 청자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나눈 남한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을 가리켜 직설적인 발화를 많이 한다고 말한다. 이는 반대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사람은 말을 지나치게 돌려 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정서 자체가 선전 선동이 깊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화는 직설적일 수밖에 없다. 즉 직접 화행이 발달하였다. 반면 남한의 경우 인구 이동이 잦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발화가 발달하였다. 즉 간접 화행이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남한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언제 밥 한번 먹어요.’라는 식의 인사말을 자주 한다. 이는 식사 약속을 하겠다는 말이기보다는 지나가는 친근감의 표시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언제 밥 한번 먹어요.’라는 남한 사람의 말을 식사 약속과 같은 직접적인 말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언제까지나 기다렸지만 상대방의 연락이 없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후 ‘연락드릴게요.’라는 사장의 말을 듣고 ‘연락’을 기다리다 한 달 늦게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남한의 간접 화행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로 입국 초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반면 남한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화가 너무 직설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을 바꾼 한 여대생이 북한이탈 대학생인 A에게 ‘나 머리 어때?’라고 물었을 때 남한 사람은 ‘괜찮아’, 혹은 ‘예뻐’, ‘잘 어울린다.’ 등의 긍정적인 발화들을 많이 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한다.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발화를 들은 남한 사람은 종종 오해를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날 기회가 적은 남한 사람의 경우는 간혹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2.2.2. 언어 어감도에 따른 차이

언어 어감도의 문제도 인간관계 단절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언젠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북한이탈주민인 A가 B의 헤어스 타일 변화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예①)

B: 제 머리 어때요?

A: 예구! 니 머리 새쓰개 같다. 왜 돈 주고 머리 그 모양으로 만들었니?

B: 진짜요? 하긴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머리가 요즘 한국에서는 유행하는 스타일이예요.

또 다른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 남한 남성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서 화를 냈던 사례이다.

(예②)

○○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어떻게 남편인 날 보고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남편한테 정신병자라니, 그렇게 말하고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고 있더라. 정말 황당했어.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결혼한 남편의 말 중에서).

(예①에서 '새쓰개'는 '정신병자'와 같은 말이다. (예①에서 '새쓰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이다. 직설적인 발화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화자들이고, 이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질 집단 내에서 '새쓰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경우이다.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는 함경도 지역의 사람은 이 발화를 큰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예②는 같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정신병자'를 남한 남편에게 사용함으로써 남편이 크게 노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동일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예①과 (예②를 같은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반면, 남한 남편은 (예②에서처럼 '정신병자'라는 말에 대한 어감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곤란한 어휘로 반응한다. 만약 남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의 발화에서 '정신병자'라는 어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감정은 상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북한이탈주민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 없다, 일 없습니다.'의 경우 남한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습니다.'와 같은 어휘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일 없다'를 언급할 경우 남한 사람들은 그 발화에 대한 어감도가 부정에서 긍정에 가깝게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할지 모르지만 부정적 어감은 희석되고 있다고 반응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남한의 남성이 혼인한 경우 남한의 남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말을 막 한다.' 혹은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많이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정작 그 발화가 '심한 말, 혹은 막말'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혁명과

주체사상을 강조하여 투쟁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남한은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다. 북한의 경우는 적군을 지칭할 때 '원썩', '놈'이라는 표현만 쓰는 것에 비해 남한은 '적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원썩', '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또한 남한에서는 생선이나 동물들의 뺨을 가리켜 '머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북한에서는 무조건 '대가리'로 표현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가지', '대갈통', '병신', '늪으대기' 등의 어휘를 북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만, 남한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탈주민의 발화에서 이러한 어휘가 섞여 나오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청자가 남한 사람이라면 이 어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대화는 단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의 언어 어감도에 따른 문제는 어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저속한 말로 취급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북한이탈주민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을 들은 남한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은 그 결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기기도 한다.

② '남북한의 문화 차이 해결 방안 탐색하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남북한의 문화 차이 해결 방안 탐색하기		대상 학년	고1	
자료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화 갈등에 대한 뉴스 영상 ② 남북한의 문화 차이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		교사의 역할	사회자 / 조력자	
차시	1차시(50분)		실행 방법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 방법	조별 발표와 동료 반응 및 평가		관련 교과	사회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과정	단계	형태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도입	흥미 유발	전체 학습	배경 지식 활성화 / 동기 유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화 갈등에 대한 짧은 뉴스를 시청한다.	문화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활동준비	전체 학습	문제 상황 인식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전개	조별 발표	전체 학습	조별 발표	우리 주변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 사례를 찾아 발표한다.	조별 발표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 주고 평가한다. (같은 갈등 상황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상황은 실제로 일어난 상황 또는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 상황 모두 가능하다. - 해결 사례가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조별로 해결 방안을 생각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대해 서로 다른 해결 방안을 다른 경우 이에 대해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동료 반응 및 평가	다른 조의 발표를 들으면서 갈등 상황의 요점과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동료 발표에 집중하여 반응 및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마무리	전체 학습	정리 활동	문화적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남북한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협력적 관계가 가능해짐을 이해한다.

③ ‘남북한 문화의 복수성 인식하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남북한 문화의 복수성 인식하기		대상 학년	고1
자료	① 뉴스: 북한 귀순 병사 오청성, ‘서울 말씨’ 눈길(채널 A, 2018.11.20.) ② 기사: 귀순 북한 병사 2차 수술 복병은 ‘기생충’ ... 통일의 가장 큰 위협요소?		교사의 역할	사회자 / 조력자
차시	1차시(50분)		실행 방법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 방법	토의·토론		관련 교과	윤리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문화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 매체 등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과잉 표상된 사례를 찾아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과정	단계	형태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도입	흥미 유발	전체 학습	배경 지식 활성화 / 동기 유발	뉴스를 보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귀순 병사가 서울말(경기도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놀란 이유를 생각해 본다.
	활동 준비	전체 학습	문제 상황 인식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사회 또는 북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
전	조	전	뉴스 기사	북한 귀순 병사의 기생충에 뉴스 기사에서 무엇

개	별	체	읽고 북한 사람에 대한 매체의 표상 방식 이해 하기	대한 뉴스 기사 읽기	이 문제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중(네티즌)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중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조별 토의 ①	조를 나누어 기사를 읽고 들었던 북한 사회 또는 북한인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나누어 본다.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표현(협오스럽다, 징그럽다 등)에 주목하도록 한다.
			조별 토의 ②	매체가 북한 귀순 병사의 질병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매체에서 귀순 병사의 질병을 ‘질병의 은유(야만, 낙후로서의 질병)’ 으로 다루고 있음에 주목하도록 한다.
정리	마무리	전체 학습	북한 문화의 복수성 이해 및 매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	매체에서 표상하고 있는 북한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깨닫는다.	문화의 복수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고, 매체의 표상에 대해 비판적 태도가 필요함을 주지시킨다.
			과제	‘나의 문화적 정체성’ 활동지를 바탕으로 나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조사해 오도록 한다.	

「관련 자료」

1. 북한 귀순 병사의 언어 사용 관련 뉴스
북한 귀순 병사 오청성, ‘서울 말씨’ 눈길(채널 A, 2018.11.20.) 영상 링크: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21962
2. 북한 귀순 병사의 기생충에 대한 매체 보도
귀순 북한 병사 2차 수술 복병은 ‘기생충’ ... 통일의 가장 큰 위협요소? 귀순 북한 병사 2차 수술이 진행됐다. 15일 귀순 북한 병사 2차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에 따르면 귀순 북한 병사에게서 엄청난 기생충이 나왔다. 이 기생충은 귀순 북한 병사 2차 수술 후 경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치료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귀순 북한 병사 2차 수술에서 언급된 기생충은 북한의 고질적 문제다. 지난 2015년 11

월 대한의사협회 창립 10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북한의 기생충이 통일 됐을 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오기까지 했을 정도다.

1950년대 60% 이상으로 높았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1% 이하로 감소한 반면, 북한은 여전히 57.6%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세미나에서 심서보 건국역대 교수는 “현재 탈북자 수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통일이 되면 3년 안에 북한 주민 20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높은 기생충 감염률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학이 앞장서서 북한 의료 현실과 치료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귀순 북한 병사 2차 수술 경과에 여론은 “기생충...생각도 못했다. 그냥 장기오염만 생각했지 그런 복병이 있을 줄이야.”, “통일 전에 기생충 문제 해결 안 하면 대거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함. 탈북민도 탈북하고 나서 구충제 등으로 전염될 거 확실히 예방해야 한다.”, “북한군 병사 99년생이란다...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내일 수능 봤을 청소년...ㅠㅠ 너무 가슴 아프네요. 반드시 쾌차하십시오...”,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보여지네요.”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헤럴드 뉴스, 김수정 기자, 2017.11.15.

④ ‘문화적 정체성의 다양성’ 인식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나의 문화적 정체성 이해하기			대상 학년	고1
자료	활동지			교사의 역할	사회자 / 조력자
차시	1차시(50분)			실행 방법	개인 발표
활동 방법	개인 발표 / 동료 반응 및 평가			관련 교과	윤리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문화적 정체성이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과정	단계	형태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학생	교사
도입	홍미유발	전체 학습	배경 지식 활성화 / 동기 유발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본다.	
	활동준비	전체 학습	문제 상황 인식	한 사람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전개	발표 학습	개별 발표	나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발표	학습자 발표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 주고 평가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정리	마무리	전체 학습	동료 반응 및 평가	동료의 발표를 들으면서 나와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기록하며 듣는다.	학습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다.)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 이해하기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을 설명한다.
			북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 생각해 보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사람 역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	우리는 흔히 편견에 의해 북한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양하게 보지 못함을 주시시킨다.
과제	다음 시간의 역할극을 위해 역할극의 주제를 알려 주고, 조별로 역할극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자료」

1. ‘나의 문화적 정체성’ 활동지

다음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 요소의 예입니다. 각 요소에 대해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고, 제시된 요소 외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을 적어 보세요. 표를 참고하여 나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정리해 봅시다.

하위 요소	나의 문화적 정체성
인종	(동양인)
국적	(대한민국)
종교	(천주교)
모국어 및 방언 사용	(한국어/경기도 방언)
성별	(여성)
성 정체성	(아직 잘 모르겠음.)
기타	(부모님 중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심.)

⑤ ‘북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협력적 상호작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북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협력적 상호작용	대상 학년	고1
자료	활동지	교사의 역할	진행자 / 조력자

차시			2차시(100분)		실행 방법	역할극
활동 방법			역할극		관련 교과	국어, 사회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이탈 주민과의 관계에서 공감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의 개념을 이해한다.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공감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북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협력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과정	단계	형태	학습의 호 름	교수·학습 활동		
				학생	교사	
도입	흥미유발	전체 학습	학습 문제 확인 / 역할극 형식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인식: 북한 이탈 청소년과 생활하는 경우 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역할극을 수행한다. 역할극의 형식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극의 주제를 다시 확인시킨다. 교육방법으로서 역할극의 형식을 설명한다. 준비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준비	전체 학습				
준비	역할극 내용구성	전체 학습	쟁점 확인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한 학급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해 본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해 보고, 구체적인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갈등 당사자(남한 학생 1, 북한 이탈 청소년 ①, 주변 친구 등 역할을 설정 후 역할을 나눈다. 자신의 역할에 따른 언어와 태도 등을 생각해 본다. 	갈등 당사자의 역할을 맡은 학습자는 적대적, 공격적 태도보다는 공감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을 강조한다.	
역할극	실제 공연	전체 학습	역할극 실행	조별로 역할극을 실행한다.		역할극 수행에 있어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나치게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공격적, 비협력적 발언이 이어질 경우 개입한다.
정마전			역할극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극 수행 시 경험한 상 		학생 간 상호작용을

리	무	체	자기	호작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관찰하고 평가한다.
		학습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극에 대한 감상 및 평가지를 작성한다. 	

□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 주제 발표

- 목적: 본 사업팀에서 도출한 통일 문화 교육의 관점과 교육 요소 등에 대한 타당성 제고.
- 기간 : 2018.12.01.
- 방식 : 발표 및 토론, 청중 질의
- 참가자 명단 : 국어교육 전문가 약 80명
- 결과
 - 주제 발표의 토론을 맡은 조희정(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① ‘통일 문화 교육’의 정의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 ② 통일 문화 교육 시 보편성(다문화적 관점)을 고려한 접근과 특수성(남한과 북한의 관계)을 고려한 관점에 대한 동시적 고려 ③ 통일 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인간상에 대한 논의 보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본 사업팀은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시 위 지점을 중점적으로 보완.

□ “통일시대의 문학교육”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 목적: 본 사업팀에서 도출한 통일 문화 교육의 관점과 교육 요소 등에 대한 타당성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통일 시대 문학 및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주최.
- 기간: 2018.12.01.
- 방식: 학술대회(개인 발표 및 주제 발표)
- 참가자: 국어교육 전문가 약 80명

○ 결과

- 해당 발표 논문 KCI 등재지에 게재 예정.
- 통일 시대 문학 및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 심화.

제80회 한국문학교육학회 학술대회
<통일시대의 문학교육>

- 일시: 2018년 12월 1일(토) 13:00~18:20
-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1동 103호, 308호
- 주최: 한국문학교육학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세부 프로그램

일 정			
13:00~13:10	접수 및 등록		
13:10~13:20	개회사 및 학회장 인사 : 김동환(한성대)		
13:20~15:20	분과1 (103호)	사회 : 서명희(서울대)	분과2 (308호)
	발표: 광상인(서울시립대)	발표: 권혜정(이화여대)	발표: 권혜정(이화여대)
	이문열의 <시인>에 나타난 '시인'과 문학교육적 의미	토론: 이재용(인하대)	토론: 김현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이재용(인하대)	발표: 강민규(강원대), 구영산(충남대)	발표: 엄인영(이화여대)
15:20~15:40	주제 발표 (103호)		
	휴식		
	주제 발표 (103호)		
15:40~16:20	통일시대 문화교육 발표 : 윤대석, 고정희, 차경미(서울대) 토론 : 조희정(조선대)		사회 : 임경순(한국외국어대)
16:20~17:00	북한의 문학문화와 교육교양: 통일시대 맞이하기 발표 : 이영미(경희대) 토론 : 이상일(가톨릭관동대)		

17:00~17:40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발표 : 최홍원(상명대) 토론 : 정진석(강원대)
17:40~17:50	연구윤리 교육
17:50~18:20	총회(회장 선출, 회계 보고 등에 관한 건)
18:20~18:40	폐회사 : 김동환(한성대)

<공동학술대회 사진>



④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의 관점, 목표, 핵심 개념 설정
 - 본 사업팀은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워크숍,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통일 문화 교육의 관점을 정립하고, 통일 문화 교육의 목표와 핵심 개념 등을 도출하였음.
 - 이러한 연구 성과는 향후 통일교육 교육과정 및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끄는 한편,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일 문화 교육의 실천을 추동할 수 있음.
-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 본 사업팀은 다문화 시대의 통일 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음. 이 같은 성격의 커리큘럼은 기존 통일교육 연구나 국어교육

- 연구 등에서는 논의된 바 없는 새로운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올해 사업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으나, 향후 학습자 실태 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이 보강된다면 타당성과 교육의 실제성이 확보된 통일 문화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교과목 개발 지원 -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세부 사업명: 'SNS 기반 통일교육안' 개발

① 연구 목적

- o SNS를 활용한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고 통일교육의 관심을 증대시키며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보급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함
- o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 o SNS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통일의식 제고 및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을 위한 수업에 활용
- o SNS를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의 확산을 통하여 전국 대학생들의 통일 역량 강화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o 운영 주제
 - SNS에 기반한 통일교육안 개발
- o 보급 대상
 - 서울대학교 대학생 포함 전국의 대학생과 일반 국민
- o 내용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10분 내외 * 10회)
 - 통일교육 영상 기획, 설계, 촬영 및 편집
 - 서울대학교 대학생 및 국민을 위한 통일교육 콘텐츠 온라인 제공
- o 사업 기간 및 진행 사항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10개월)

기간	주요사업	세부 추진 내용
2018.03.~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o 쟁점과 생활 중심 통일교육 콘텐츠 기획 o 온라인 강좌 촬영 일정 논의 o 전문가 협의회
2018.04.~06.	통일교육 온라인 강좌 기획, 설계,	o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 이해 바탕으로 통일교육 온라인 강좌 촬영 콘텐츠 설계

	촬영	○ 통일교육 온라인 강좌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강좌 촬영
2018.07.~08.	통일교육 온라인 강좌 편집 및 제작	○ 통일교육 온라인 콘텐츠 편집 및 수정 ○ 추가 보완 촬영 ○ 전문가 협의회
2018.09.~12	통일교육 온라인 강좌 콘텐츠 평가, 시범운영, 및 확산	○ 통일교육 온라인 강좌 콘텐츠 완성 ○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통일교육 온라인 강좌 및 열린 강좌를 활용하여 교내 외 학습자에게 통일교육 제공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 연구진: 연구책임자, 통일교육연구센터 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
- 연구방법: 통일교육 자료 분석, 강의 개발, 강의 영상 촬영 및 일반 공개
- 연구내용 및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일반 국민을 위한 통일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통일교육 운영 방안

- 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강의 운영
- 대상: 서울대학교 교내 구성원 시범 통일교육 온라인 강좌 운영
- 운영 안: 강의 개발 및 SNS 공개, SNS를 활용한 콘텐츠 피드백 반영, 서울대학교 정규 교과목 활용 및 열린 강좌 서비스 제공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연구 추진 내용

○ 기간: 2018.3월~12월

○ 방법

- 신문기사, 논문, 학술지 등 다차원적 자료 조사를 통한 기초 연구 진행
- 연구책임자, 통일교육연구센터 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주 1회 이상 영상 기획 제작 회의 진행

○ 세부 추진 내용

추진내용		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주제 선정	주제선정		■	■									
온라인 콘텐츠 기획	스토리보드 작성			■	■	■							
	기초 자료 조사			■	■	■	■						
	콘텐츠 설계				■	■	■	■					
	콘텐츠 촬영					■	■	■	■				
콘텐츠 편집	온라인 강좌 촬영 콘텐츠							■	■	■			
콘텐츠 수정 및 보완	제작 및 편집							■	■	■	■		
	콘텐츠 평가									■	■	■	
통일교육 온라인 콘텐츠 완성	추가 촬영										■	■	
	콘텐츠 시범운영												1월 예정
	결과보고서 작성											■	

□ 회의 사진 자료



□ 콘텐츠 기획 과정

	초기 영상 제작 기획	최종 영상 제작 기획
주제 선정	<p><1차 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인식 북한의 IT 북한의 대학 남북한 역사/도덕 교과서 비교 북한으로 여행가기 북한의 장마당 개성공단 남북관계 타임라인 압록강 <p><2차 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IT (1편) 북한의 IT (2편) 개성공단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으로 가는 방법 통일을 생각하며 안중근 의사를 만나다(1편) 통일을 생각하며 안중근 의사를 만나다(2편) 안중근 의사의 동양의 평화와 통일 	<p>제목 : 통일을 거닐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중근 의사와 함께 통일을 거닐다 (총 3편)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 (총 5편) 평양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 (총 2편)
형식	사진 + 인터뷰 + 강의	사진 + 인터뷰 + 강의 + 예술
비고	<p>북한의 현실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북한의 교육, 사회, 문화, 지리 등에 대한 특징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실제 모습을 소개하고자 함</p> <p>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의도함</p> <p>그러나 저작권 문제 및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음</p>	<p>저작권 문제 및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 정보 접근 한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뒤 자료를 재 수집하여 영상 제작을 기획함</p>

④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총 10편의 SNS 콘텐츠 (영상 시나리오) 개발

	영상 콘텐츠 제목	부제목
1	안중근 의사와 함께 통일을 거닐다-1	이슬이 지기까지
2	안중근 의사와 함께 통일을 거닐다-2	안중근, 통일을 생각하다
3	안중근 의사와 함께 통일을 거닐다-3	안중근, 발자취를 따라가다
4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1	개성, 통일의 문을 열다
5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2	개성, 공감하고 소통하다
6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3	개성, 사람 사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다
7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4	개성, 잠시 이별을 말하다
8	개성공단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5	개성공단,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9	평양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1	평양, 사람이 살고 있었네
10	평양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거닐다-2	평양,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다

□ 영상 시나리오 예시

안중근 의사 2편 - 안중근, 통일을 생각하다	
화면	내용
<p># 인터뷰 화면</p>  <p>(기본적으로 인터뷰 화면을 비추면서 때때로 관련 사진 영상을 비추도록 한다.)</p> <p># 하늘을 배경으로 무용하는 장면</p> 	<p>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센터장 박성춘 교수입니다. 저는 통일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에 있어서 왜 안중근 의사가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 인터뷰 화면</p>	<p><제목 표시> 안중근 의사와 함께 통일을 거닐다</p>
	<p>2018년 8월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2019</p>

	<p>년부터 조만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생각할 때면 갈라진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원래 하나였던 우리민족. 우리민족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면서 잘사는 것. 그것을 생각하셨던 분이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p>
<p># 인터뷰 화면 중간에 지도 사진 표시</p> 	<p>저는 특히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생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클라스키노,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셨던 뤼순. 그 곳들을 여러차례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p>
<p># 크라스키노 단지동맹기념비 사진</p> 	<p>연해주를 방문했을 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단지동맹기념비였어요. 그 기념비 앞에 보면 핏방울 형상의 조각상도 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보면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열두명의 젊은 독립 운동가들이 모여서 왼손 무명지를 자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모아서 대한 독립이라고 태극기에다가 씹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삼창을 했다고 나와요. 그 때 당시 안중근 의사의 나이가 30살. 젊은 청년이었어요.</p>
<p># 안중근 의사 손 부조</p> 	<p>단지동맹기념비 앞에 안중근 의사의 유명한 손바닥 모습 있죠? 그게 부조의 형태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제 손을 그 옆에다가 살짝 대 봤는데, 제 손이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손이 정말 작더라고요.</p>
<p># 최재형 선생 사진</p> 	<p>크라스키노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바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을 준비하셨던 곳이에요. 유명한 독립운동가였고 안중근 의사를 지원하셨던 최재형 선생님의 집에서 그것을 준비했었는데, 최재형 선생님의 딸인 율가의 회고록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노보키예프스크(현 크라스키노)에 살 때였다. 안용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듣기로 누군가를 사살할 준비를 한다고 했다. 우리집 마당벽에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서 권총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p>
<p># 최윤가 선생 사진</p>	

	
<p># 안중근 의사, 우덕순 의사, 유동하 의사 사진</p> 	<p>안중근 의사께서 크라스키노에서 하얼빈으로 가실 때 우덕순 선생님, 유동하 선생님과 함께 가게 되요. 최재형 선생님이 사장으로 있었던 대동공보의 기자의 자격으로 가게되는데요. 이 때 옆에 있었던 유동하 선생님은 그 때 당시 나이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러시아어를 잘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번역, 통역을 하게 되고 거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죠.</p>
<p># 지도 다시 표시</p> 	<p>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 거사 후에 "꼬레아우레"라고 외쳐요. 바로 러시아어로 대한만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러시아어로 그렇게 외쳤을까요? 바로 하얼빈이 러시아의 영토였거든요.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께서는 러시아 경찰에게 잡혀서 러시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 달리 일본 군대에서 안중근 의사를 하얼빈에 있는 일본 영사관예다가 가두게 됩니다. 일본 영사관이라는 말은 하얼빈이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일본 경찰들은 안중근 의사를 약 10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뤼순으로 이송을 하게 되요. 그 이유는 러일전쟁 이후에 뤼순 지역이 일본의 영토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감옥에 가두게 되고, 일본의 법원인 뤼순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를 그 먼 뤼순까지 이송하게 되는 것이죠.</p>
<p># 뤼순 법원 사진</p> 	<p>여기가 "여순관동법원구지"라고 적혀있는데, 여순의 법원이었어요. 일본의 법원이었는데, 1층은 지방법원, 2층은 고등법원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께서는 1층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지방법원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많은 기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 외신기자들이 너무 큰 관심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2층에 올라가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등법원의 크기는 상당히 큰데, 그 때 당시 딱 차있었다고 해요, 외신 기자들이 많아서.</p>
<p># 뤼순 법원 내부 계단 사진</p>	<p>이 때 1층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갈 때 저도 그 계산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봤어요. 근데 올라갈 때 천장이 아주 낮아서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갈수밖에 없었</p>

 <p># 뤼순 법원-계단에서의 무용 영상</p>	<p>라고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2층 고등법원에 올라갔습니다.</p>
<p># 뤼순 법원-재판장 내부 # 서울대 학생들 사진</p>  <p># 무용부 학생 인터뷰 장면</p> 	<p>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았던 장소에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대학생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무용부 학생들과도 함께 왔었는데요.</p>
<p># 뤼순 법원-재판장 내부 무용부 학생들 촬영 장면</p> 	<p>서울대학교 무용부 학생들과는 이곳에서 무용 영상을 함께 촬영하기도 했었습니다.</p>

□ SNS 콘텐츠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영상 콘텐츠는 지금까지 통일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인 안중근 의사, 개성공단, 최근 북한의 모습을 주제로 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다룸
 - 남북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재, 동양의 평화를 외쳤던 안중근 의사의 행적과 사상이 남북한 통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봄.
 - 남북통일이 실험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통합의 의미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
 - 최근 북한 및 북한 주민의 실제적 모습을 통해 단편적이고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우며 통일 한국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
- 정보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를 교육적 도구로 활용한 통일교육 영상은 일반 국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지금까지 텍스트와 언어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방식과 달리 시각적 정보를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해 통일교육의 새로운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은 통일 의식 제고 및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을 위한 수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콘텐츠를 확산을 통해 서울대학교 대학생을 비롯한 전국 대학생,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3) 교과목 개발지원 - 신터전 (치의학과 교수)

세부 사업명: 통일치의학 교육과정 개발

① 연구 목적

- 통합 통일치의학개론 강의록 및 통합 및 통일치의학 강의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국내 치과대학 최초의 통일치의학 교과목 개발
 - 국내 치과대학 최초로 통일치의학과 관련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치과관련 학술대회에 소개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치과의사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통일치의학 관련 연구의 기반 확장을 목적으로 함.
- 수강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향상
 -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교육적 차원 대북 의료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북한의 치의학이나 북한의 치·의대 커리큘럼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운영 주제
 - '통일치의학' 강의 커리큘럼 개발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1·2학기
- 구상 및 계획
 - 탈북치과의사 및 북한 의사를 연수한 경험이 있는 연자를 초빙하여 세미나 개최
 - 자료 확보를 위해 연변치과대학 관계자 방문
 - 통일치의학에 관심 있는 교수 전문가 섭외·연구독려
 - 통일치의학 교육에 관여 경험이 있는 교수·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 통합 통일치의학개론 강의록 및 통합 통일치의학 강의커리큘럼을 개발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통일치의학 전문가 특강

- 목적
 -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자 오랜 기간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를 치료 치료한 경험이 있는 남북구강보건의료 협회 소속 치과의사를 초빙하여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
- 기간
 - 2018년 6월 19일
- 주제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북사업과 미래
- 연사
 - 최치원(대한치과의사협회/최치원치과의원)

<특강 사진자료>



□ 통일치의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속 치의학 전문가들의 원고 및 자문

-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기 위한 통일치의학 개론 강좌를 개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속 치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각 주제 별 원고를 수합함.

○ 자문 내용 및 전문가 정보

번호	자문 내용	전문가	소속
1	남북한 치의학 용어 사용 고찰	이승표	서울대학교 치위학과 교수
2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구강보건으로 교류의 현황	한동헌	
3	남한 치과기사의 복합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명훈	
4	남북한 치의학 교육과정의 차이점	박지운	서울대학교 치위학과 부교수
5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보건 의료분야에서의 통합	노상호	
6	남북한 치의학 교육 과정 및 보건 의료 인력 시스템 비교	신터전	서울대학교 치위학과 조교수
7	북한에서 구강건강실태조사 시 고려할 사항	조현재	

○ 자문 자료 예시

④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대학원 소속 치의학 전문가들의 원고 및 자문을 통해 통합 통일치의학개론 강의록 및 통합 통일치의학 강의커리큘럼을 개발 - 강의계획서

기본사항							
교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이수구분	학년	교육기간	구분코드
	M0000.010300	통일치의학개론	1	전공선택	4	2018년 05월 01일~2018년 06월 19일	
참여교수	교수명		소속	연락처	E-mail		
	책임교수 공동교수	신터전	소아치과학교실	022072-2607	snmc94@snu.ac.kr		
		이승표	구강해부학교실	8671	orana9@snu.ac.kr		
		명훈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3059	myoungh@snu.ac.kr		
		한동헌	예방치학교실	8780	dhhan73@snu.ac.kr		
		진보형	예방치학교실	8783	jjbh@snu.ac.kr		
		노상호	구강생화학교실	8681	sangho@snu.ac.kr		
		정신혜	치과재료학교실	8693	den533@snu.ac.kr		
		박지운	구강내과학교실	4912	ankara01@snu.ac.kr		
조현재		예방치학교실	8677	stbluewi@snu.ac.kr			

학습성과·교수학습방법									
교과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한국에 대한 치과외과로서의 비전을 수립하고 올바른 역사의식하에 전문적인 구강보건 책임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게 될 것이다. · 민족통합의 선례인 독일과 예멘, 베트남의 경우를 학습하고 그 역사적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남북한간 치의학 이질감과 괴리감을 제도적, 학문적, 임상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간극의 극복에 대한 필요성 및 방법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역량달성 과목체계	해당사항 없음								
교수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유인물 · 동영상 · 질의응답 								
수업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보건의료통합준비 한-독 심포지움 보고서 · 대한치과기사회지 2015년 53권 10호 · 통일기획 패널사업 보고서 · 대한치과기사회지 2015년 53권 10호 726-731 								
졸업역량 및 직무기술 중 일의 요소	<p>[졸업역량]</p> <p>A.1. 치과외과인으로서, 의료윤리를 기본으로 한 의사결정 및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A.2. 치과외과행위와 관련한 법적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다. F.5. 진료행정, 재정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운영할 수 있다. F.7 환자의 구강 건강 증진과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직무기술서 중 일의 요소]</p> <p>C2-6 재무 및 법무 관리하기 C3-1 전문직업능력개발하기</p>								
학습성과 학습목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학습성과</th> <th rowspan="2">학습목표</th> </tr> <tr> <th>번호</th> <th>수행수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학습성과		학습목표	번호	수행수준			
학습성과		학습목표							
번호	수행수준								

참여교수	A.1.	Lv2	통일한국에 대한 치의학도로서의 윤리적 사고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A.2.	Lv2	남북한간 치의학 제도의 법적, 제도적 차이에 대해 이해한다.	
	F.5.	Lv2	남북한 치의학 이질감을 학문적, 제도적, 임상적 측면에서 고찰하며 극복방안의 방법론을 이해한다.	
	F.7.	Lv2	북한 주민의 구강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임상적인 방안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학습평가	학습성과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반영비율	
			평가방법	반영비율
	A.1.	통일한국에 대한 치의학도로서의 윤리적 사고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매시간 예습 내용 확인 및 수업 내용 숙지 확인을 위한 수업 중 퀴즈 평가	10
	A.2.	남북한간 치의학 제도의 법적, 제도적 차이에 대해 이해한다.	매시간 예습 내용 확인 및 수업 내용 숙지 확인을 위한 수업 중 퀴즈 평가	10
	F.5.	남북한 치의학 이질감을 학문적, 제도적, 임상적 측면에서 고찰하며 극복방안의 방법론을 이해한다.	매시간 예습 내용 확인 및 수업 내용 숙지 확인을 위한 수업 중 퀴즈 평가	10
	F.7.	북한 주민의 구강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임상적인 방안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발표 레포트제출	50
		출석 및 태도	3회 이상 결석 시 F 처리됨.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함.	20
	합계		100	

평가체계	성과역량	A.1. 치과의료인으로서, 의료윤리를 기본으로 한 의사결정 및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목표	통일한국에 대한 치의학도로서의 윤리적 사고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수행준거	치의학도로서 윤리적 사고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수행수준	Lv3	통일한국시대에 치의학도로서 윤리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Lv2	통일한국시대에 치의학도로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Lv1	통일한국시대에 치의학도로서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달성목표	수강생 전원은 Lv2 단계 이상			
	평가방법	평가도구	매시간 예습 내용 확인 및 수업 내용 숙지 확인을 위한 수업 중 퀴즈 평가		
		측정방법	평가도구	퀴즈 (10%)	
			채점기준	Pass	퀴즈에서 핵심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Lv2 이상
Fail				퀴즈에서 핵심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Lv2 미만	
평가결과 개선	<평가결과 Fail 인 경우> -해당 수업 진행 후 재시험 실시 후 재평가				

평가체계	성과역량	A.2.치과의료행위와 관련한 법적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다.			
	학습목표	남북한간 치의학 제도의 법적, 제도적 차이에 대해 이해한다.			
	수행준거	남북한 치의학 제도의 법적, 제도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수행수준	Lv3	남북한의 치의학제도의 법적인, 제도적인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Lv2	남북한의 치의학제도의 법적인, 제도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Lv1	남북한의 치의학제도의 법적인, 제도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달성목표	수강생 전원은 Lv2 단계 이상			
	평가방법	평가도구	매시간 예습 내용 확인 및 수업 내용 숙지 확인을 위한 수업 중 퀴즈 평가		
		측정방법	평가도구	퀴즈 (10%)	
			채점기준	Pass	퀴즈에서 핵심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Lv2 이상
Fail				퀴즈에서 핵심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Lv2 미만	
평가결과 개선	<평가결과 Fail 인 경우> -해당 수업 진행 후 재시험 실시 후 재평가				
평가체계	성과역량	F.5. 진료행정, 재정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학습목표	남북한의 구강보건 행정제도 및 인력관리의 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수행준거	남북한의 구강보건 행정제도 및 치의학 보건인력 양성 시스템의 차이를 이해한다.			
	수행수준	Lv3	남북한의 구강보건제도 및 치의학 보건인력의 양성제도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Lv2		남북한의 구강보건제도 및 치의학 보건인력의 양성제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Lv1		남북한의 구강보건제도 및 치의학 보건인력의 양성제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달성목표	수강생 전원은 Lv2 단계 이상				
평가방법	평가도구	매시간 예습 내용 확인 및 수업 내용 숙지 확인을 위한 수업 중 퀴즈 평가			
	측정방법	평가도구	퀴즈 (10%)		
		채점기준	Pass	퀴즈에서 핵심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Lv2 이상	
			Fail	퀴즈에서 핵심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Lv2 미만	
평가결과 개선	<평가결과 Fail 인 경우> -해당 수업 진행 후 재시험 실시 후 재평가				

평가 체계	성과역량	F.7 환자의 구강 건강 증진과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진료를 제공 할 수 있다.			
	학습목표	북한의 구강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수행준거	통일한국 시대의 북한의 구강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수행수준	Lv3	통일한국 시대의 북한의 구강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임상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Lv2	통일한국 시대의 북한의 구강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Lv1	통일한국 시대의 북한의 구강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달성목표	수강생 전원은 Lv2 단계 이상			
평가방법	평가도구	보고서 평가			
	측정방법	평가도구	보고서 (50%)	출석(20%)	
		채점기준	Pass	실습결과물 평가 Lv2 이상	결석 2회 이하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간주함)
Fail	실습결과물 평가 Lv2 미만		3회 이상 결석 시		
평가결과 개선	<평가결과 Fail 인 경우> - 보고서 제작성 및 재평가				
학생 추후지도	<전체 역량 평가결과 후 평가결과 개선프로그램 이후 Fail 의 경우> -해당 역량 관련 주차 교수회의를 통한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해당 학생 개별면담 후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본 교과외 최소 역량 달성여부 재평가 후 최종 성적 산출				

□ 통일치의학개론 강좌를 통한 통일 및 통일치의학에 대한 인식도 변화 조사

○ 대상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 개론 수강생 전체

○ 비고

- 통일치의학 개론 수강 후 통일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2차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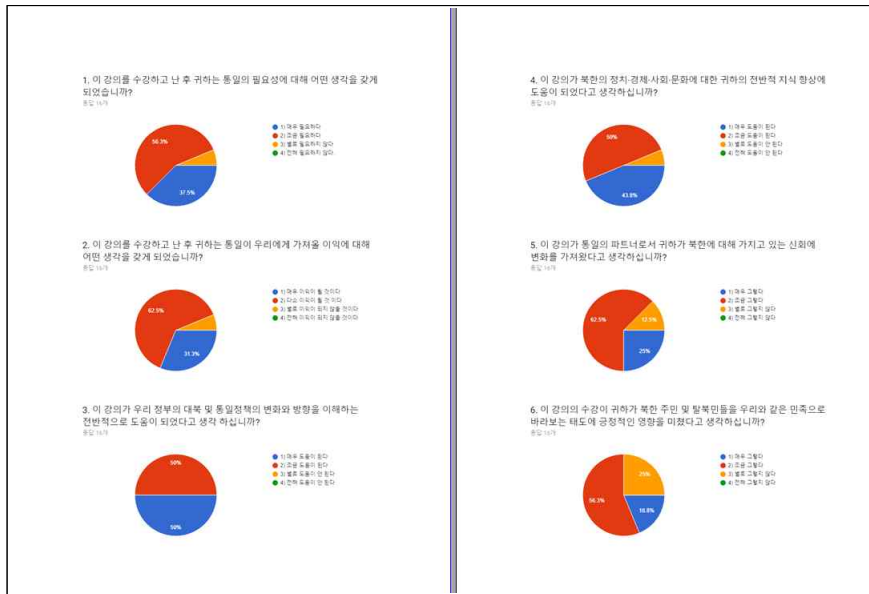
○ 응답자 수

- 16명

○ 분석 결과

- 1차 인식조사와 비교하여 ‘통일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다’라고 답한 학생은 52.9%에서 56.3%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은 1차 인식조사 때보다 조금 줄어듦. (1차 조사: 70.6%, 2차 조사: 68.8%)
- 1차 조사에서는 ‘국력 강화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0%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25%로 크게 하락하였고, ‘전쟁위협’이나 ‘단일민족으로서의 과제’, ‘이념 갈등 완화’ 등 기타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폭을 보임.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때 50%의 응답자가 ‘경제적 비용’을 꼽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경제적 비용’, ‘이미 각각의 국가’, ‘사회, 문화적 혼란’ 이 3가지 이유가 모두 33.3% 골고루 나타남.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하락한 것은 통일세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1차 조사에서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2%이었던 것에 반해 2차 조사에서는 62.5%로 대폭 상승함.
-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1차 조사 때보다 긍정적인 견해가 53%에서 68.8%로 상승함.
- 대북정책에 관련하여 1차 조사에서는 가장 최우선시 해야 할 내용으로 ‘적극적 통일 정책과 통일재원 준비’가 3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시장’이 43.8%로 압도적으로 앞섬. 또한, 대북 의료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남. 인도적 차원의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82.4%에서 93%로 증가하였고, 교육적 차원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88.3%에서 93.8%로 증가함.
- 양·한방이 공존하는 북한의 치의학이나 북한의 치·의대 커리큘럼에 대한 인식은 다소 긍정적으로 개선됨. 통일 이후 북한 치과 의사에게 3~4년 정도의 연수 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인정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1차 조사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1차 조사에서는 35.3%의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다’, 35.3%의 학생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37.5%가 ‘바람직하지 않다’, 43.8%가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바 있음.

<설문조사 분석 결과 예시>



- 그 결과, 통일치의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영입하여 강의록 개발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통일치의학 관련 연구의 기반을 확장할 수 있었음.
- 본 연구의 결과 개발된 커리큘럼은 국내 치과대학 최초로 개발된 통일치의학 관련 교과목임.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발 내용을 치과관련 학술대회에 소개함으로써 치과의사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 이를 바탕으로 대한통일치의학회 참여를 유도하였고, 국내 통일치의학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4) 교과목 개발지원 -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
 세부 사업명: 학생주도형 통일교재 개발

① 연구 목적

- 학생을 수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수업의 주체이자 강의를 구성하는 한 당사자로 참여시켜,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적극 반영하여 강의를 개선해나가는 학생주도 및 참여형 통일 강의 개발
- 정해진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강의자-수강생, 수강생-수강생 간의 원활한 토론을 유도하여 함께 통일 논의를 발전시키는 소통-공감형 강의 구성
-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통일론이 아닌, 현실에 적합한 문제 중심적 논의와 시의성 높은 이슈를 심화하는 강의 방식과 내용을 개발
- 남북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환경 및 21세기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강의 내용을 구성
- 이를 위하여 강의의 세부주제, 소통과 피드백 방식, 활용 자료, 교안의 내용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방형 강의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운영 주제
 - 통일평화교육의 혁신과 새로운 강좌모델 구축방안 연구를 위한, 학생주도·소통공감·미래지향적 통일교재 개발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1·2학기
- 구상 및 계획
 - 서울대학교 기초핵심교양 과목으로 매 학기 개설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통일의 전망” 강의를 더 활성화하고, 이를 새로운 교육 모델, 강좌 구성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틀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위해 2018년 1, 2학기 동안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현 남북관계에 대한 이들의 생각들을 심도 있게 파악, 향후 대학 수준에서의 통일 교육 방식과 내용을 보완·강화·업데이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자 모델로 제공.

-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반응, 생각, 태도를 강의 모델 구축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 및 피드백을 체계화, 자료화.
- 국제적 맥락을 고려한 통일평화 강의 교안 개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자료, 국제적인 변화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기초로 강의 교안 개발, 나아가서는 교재 출간을 목표로 함.
-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초청강연과 현장학습 추진.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실제 강의를 통한 커리큘럼 개발

- 실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코멘트 페이퍼를 수집하고, 이를 자료화 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함

□ 매주 코멘트 페이퍼 수집 및 자료화

○ 목적

- 매주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 관한 수강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자료화하여 강의 교안에 반영하고 최종적인 통일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함. 또 학생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업 내용을 흡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구성하고 발전시킬 것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리고 여러 이유로 자신의 의견이나 비판점, 또는 의문점을 강의 시간에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학생들이 글로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간

- 2018년 1, 2학기 (2018.3.2.~2018.6.21. / 2018.9.3.~2018.12.22.)

○ 방식

- 강의 시 학생들에게 남북관계 이슈나 수업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고자료를 제공함. 학생들은 다음 강의 2~3일 전까지 질문에 대한 논의를 1~2매 분량의 글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이후 강의자 및 조교는 과제를 통합한 뒤, 각 학생들의 과제를 1~2줄로 요약하고 내용별로 분류. 강의자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코멘트페이퍼를 개괄하여 정리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를 바탕으로 토론 시간을 가짐.

<각 주차별 코멘트 페이퍼 내용>

일자	내용	제출
1학기		
2018.3.7	대북특사 파견과 향후 전망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에 여러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인지, 견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언론기사나 여러 논평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간략히 서술해보라.	2018.3.12
2018.3.14	2018년 현재의 남북관계는 세 차원(적대관계/준국가관계/민족관계)이 어떤 비중으로 공존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차원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앞으로 어떤 차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서술해 보라.	2018.3.19
2018.3.21	참고문헌을 읽고, 각자의 논평문을 작성해보라. (다음은 참고문헌으로 지정함. ① 박명규 (2009).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1(①))	2018.3.26
2018.3.28.	현재 남·북·미의 비핵화 해법은 크게 [선 평화 조치 단계적 비핵화론 (북) / 원 샷(일괄 타결) 해법론 (남) / 선 핵 폐기, 후 보상론 (미)]로 나눌 수 있다. 위 세 가지의 비핵화 해법 중 자신이 생각하기에 실현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은 어느 쪽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2018.4.2
2018.4.18	한동안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했다. 또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호적인 태도가 강하다. 한국에서 반핵운동이 그다지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론'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며, 미국의 '핵우산'을 중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각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서술하라.	2018.4.23
2018.4.25.	C. Offe는 독일통일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기초로 체제통합의 동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세 동력은 공통적인 역사-언어-문화에 기초한 민족주의, 자유·평등·정의에 기초한 헌정의 수립, 경제체제의 재구성이었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는 세 요소 중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보라. (다음은 참고문헌으로 지정함. ① Claus Offe (199①). Property, Nation, Republic: Aspects of the Unique German Journey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i>German Politics and Society</i> , (0)22. ② ② 박명규 (201②). 민족론과 통일론: 독일과의 비교.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창비)	2018.4.30
2학기		
2018.9.5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오늘(2018년 9월 5일) 평양을 방문한 특사와 북한 당국자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여기서 이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인지, 견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언론기사나 여러 논평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해보라.	2018.9.3

2018.9.12	10년 후 한반도에 우리가 원하는 항구적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때 항구적 체제란 어떤 형태를 의미할 것인지, 또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라.	2018.9.10
2018.9.19	'남북연합의 실제', 즉 한 국가로 통일 되기 이전 그 중간 단계의 연합체를 어떤 형태로 그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다음은 참고문헌으로 지정함.) ① 김상준 (2012. 10). 독재의 순환고리 양국체제로 끊어내자. 다른 백년. ② 백낙청 (2018.9). 어떤 남북연합을 만들 것인가. 창작과비평 181호. ③ 박명규 (2009).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1(①). ④ 이일영 (2018). 양국 체제인가, 한반도 체제인가. 동향과 전망)	2018.10.8
2018.10.24	군사분야합의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고, 평화상태를 지속하게 할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2018.10.29
2018.11.14	참고문헌을 읽은 후, 양안 관계가 한반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논하라. (다음은 참고문헌으로 지정함.) ① 박명규 (2016). 양안에서 바라본 통일과 평화. 박명규, 백지운 (편).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한다. 진인진. ② 백지운 (2016). 양안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가능한가. 박명규, 백지운 (편).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한다. 진인진.	2018.11.19
2018.12.5	참고문헌을 읽고 ① 현 시점에서 6.15 공동선언 제2항의 현실적합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② 정부의 공식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각자의 견해를 정리해보라. (다음은 참고문헌으로 지정함.) ① 최원규 (200②).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연구학회보, 6(①).	2018.12.10

○ 참가자

- 2018년 1학기: 서울대학교 학생 51명
- 2018년 2학기: 서울대학교 학생 16명

○ 결과물

- 매주 수강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요약·분류한 코멘트 페이퍼 요약 자료.

○ 평가 및 수강생 피드백

- 코멘트페이퍼 자료는 강의자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통일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데 기반이 되었으며,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안 및 강의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됨. 즉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음.

- 또 강의자는 남북관계 현안 또는 강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코멘트 페이퍼의 주제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업 내용을 흡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구성하고 발전시킬 것을 장려할 수 있었음.
- 1학기에 비해 수강생이 비교적 적었던 2학기의 경우, 모두 마주보는 원형으로 앉아 각 수강생들이 매주 코멘트페이퍼를 토론 자료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강의자 및 다른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더 활발한 소통으로 강의자와 수강생이 함께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었음.

<코멘트 페이퍼 요약본 예시>

2018-1 [남북관계와 통일의 전망] 2주차 코멘트 페이퍼 요약

2018년 현재의 남북관계는 세 차원이 어떤 비중으로 공존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차원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앞으로 어떤 차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서술해 보라.

<외교적 관계 중시 (19)>

이소미 (정치외교학부)
[현재] 적대적 관계 : 외교적 관계 : 민족 관계 = 50 : 30 : 20
[의견] 적대적 관계 줄이기 위해 대화와 교류 통한 외교적 관계 강화하여 평화적인 기류 조성해야

김남수 (경제학부)
[현재] 적대적 관계 : 외교적 관계 : 민족 관계 = 20 : 40 : 40
[예상] 외교적 관계 강화될 것 (외교부 역할 증대, 남한의 외교적 중재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
• 국방 경계가 너무 느슨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미 연합 훈련 축소는 성급

김세훈 (산업공학과)
[현재] 적대 관계 완화, 외교 관계 매우 중요한 시점

김엽 (국어교육과)
[과거] 적대적 관계 : 외교적 관계 : 민족 관계 = 70 : 30 : 0
[현재] 적대적 관계 : 외교적 관계 : 민족 관계 = 10 : 35 : 55
• 현재 남북 관계 문제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점
[나아가야 할 방향] 적대적 관계 : 외교적 관계 : 민족 관계 = 5 : 40 : 55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외교적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가 중요한 시점

김영목 (정치외교학부)
[현재] 적대적 관계 : 외교적 관계 : 민족 관계 = 30 : 50 : 20
[예상/의견] 정상회담 통해 외교적 관계 강화될 것이고 또 이 관계 강화해야

김지원 (윤리교육과)
[현재] 적대적 관계 : 외교적 관계 : 민족 관계 = 20 : 60 : 20
[예상/의견] 외교적 관계가 주를 이룰 것이고 또 그라야 함
•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결정하는 변수

□ 특강

○ 목적

- 특정 분야의 전문가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을 일일강사로 초청하여 수강생들에게 깊이 있고 현장감 있는 강의 제공.

○ 기간

- 2018년 1, 2학기 (2018.3.2.~2018.6.21, 2018.9. ~2018.12.22.)

○ 특강 내용 및 교수자 정보

일자	내용	교수자
1학기		
2018.4.4	문화예술을 통해 본 북한 이해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 교수)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HK연구교수인 전영선 교수가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오늘날 북한의 생활방식, 소비행태, 대중문화 등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소개함.		
2018.5.2	사진으로 본 북한의 오늘, 북한 경제 이해	정은미 (송실평화통일연구원 박사)
송실평화통일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지낸 정은미 교수가 사진 자료를 통해 평양의 도심 풍경, 상업 문화를 소개함.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 시장 변천사, 근로자의 경제활동 양상, 빈부 격차 등을 양적 데이터와 함께 소개함.		
2018.5.23	탈북민의 시선으로 본 북한, 남한, 통일	김윤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생)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윤희 연구원이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 체제, 북한에서의 경제 생활과 사회적 관계, 탈북 과정, 탈북 이후의 삶에 대해 현실감 있게 강연하고 질의에 응답함.		
2학기		
2018.10.17	탈북민의 시선으로 본 북한, 남한, 통일	김윤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생)
이전 학기 특강을 진행했던 김윤희 연구원이 이번 특강에서는 탈북자의 시선으로 본 북한 사회와 체제의 변천사에 집중하여 좀 더 거시적인 흐름에서 북한의 정치/사회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된 작간접적 경험 및 예시를 들어 현장감을 높임.		
2018.10.31	군사합의서로 본 비핵화 구축의 길	김성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로 재직하며 핵문제, 폭력 및 평화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김성철 교수와 함께 군사분야합의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함. 또 이를 기반으로 핵 과학기술의 이용을 평화인문학의 비판적 관점에서 다루었음.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과 함께 비핵화의 정의를 짚어보고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고찰함.		

○ 평가 및 수강생 피드백

- 한 명의 강의자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칫 한 방향으로 편중될 수 있는 커리큘럼의 균형을 잡고 다양화할 수 있었음.
- 다양한 전문가가 초청되어 경제, 군사, 사회, 예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하여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여러 강의자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수강생의 시야를 넓힘.
- 1, 2학기 모두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강의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하고 현장감을 제공한 데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 개인별 체험 활동 (1학기) / 단체 현장 답사 (2학기)

○ 목적

- 강의실에서 벗어나 남북문제와 관련된 개인별(또는 2~3명의 팀별) 체험 활동을 장려하거나 역사적 장소를 단체로 답사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수준의 접근에 그치지 않고 통일과 관련된 경험을 심화하고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고찰할 것을 장려.

○ 기간

- 2018년 1, 2학기 (2018.5.23.~2018.6.21, 2018.11.7)

일자	내용	제출
2018.5.23 ~ 2018.6.21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어떤 활동(장소의 답사, 행사의 참가, 사람과의 인터뷰, 단체의 방문, 사건의 조사, 자료의 분석 등)을 자유롭게 수행, 이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2018.6.20
2018.11.7	단체로 중서부전선 DMZ 일원 현장을 탐방, 이후 체험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	2018.12.22

○ 방식

- 1학기: 본래 수강생 전체와 함께 단체로 특정 장소를 답사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초기 수강 희망자가 60명을 초과하면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체험 활동을 자유롭게 모색하여 개인 또는 2~3명의 팀으로 직접 계획을 짜고 수행하도록 함. 그 전에 미리 학생들이 체험활동 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금액을 지원(일인당 최대 2만원)함. 이후 개인별로 체험 활동과 이론적 논의를 접합하여 7~9매 분량의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함.
- 2학기: 전문가를 초청하여 단체로 연천~철원 일대(열쇠전망대, 백마고지, 노동당사)를 당일로 답사함. 장소마다 강의자 및 전문가가 필요한 강의 및 질의응답을 짚막하게 진행함. 이후 각 수강생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3~4매의 체험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참가자

- 1학기 (총 49명)
- 2학기 (총 17명. 그 외 지도자 3명)

○ 평가 및 수강생 피드백

-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원금과 함께 자기주도적 체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통일, 남북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학기의 경우, 학생들이 제출한 기말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류한 체험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음.

체험 활동 내용			학생 수	
1	인터뷰	전문가	16	18
		북한이탈주민	2	
2	현장답사	파주 DMZ 평화관광	10	14
		고성 DMZ 평화관광	2	
		양구전쟁기념관	2	
3	문헌 분석		12	
4	영화 분석		3	
5	강연 참석		1	
6	직접 강의		1	

- 1학기의 개별 체험 활동과 2학기의 연천~철원 일대 단체 답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론적인 수준에서만 남북관계를 떠올리는 수강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생각을 전환하는 데 효과적이었음. 또 단순한 체험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문헌이나 영상 등 자료들과 관련하여 경험과 생각을 발전시키는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큰 시각으로 자체 평가하고 고찰하도록 함.
- 결과적으로 통일은 정치적인 뉴스로만 접하기 쉬운 문제인 만큼, 학생들이 피부로 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일 교육에서 필수적인 커리큘럼이라 생각됨. 학생들 역시 (1학기의 경우) 자유롭게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탐구할 수 있었던 것에 학생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임.



④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반응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통일 강의를 제공.
 - 토론, 과제, 대화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피드백을 강의 구성 및 방향에 지속적으로 반영, 수강생들이 강의 구성의 당사자로서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반영이 진행됨에 따라 강의는 강의자 중심에서 학생주도형으로, 당위/규범적인 논의에서 현실/공감형 논의로, 정치·민족사의 관점뿐 아니라 사회·예술·인권 등 다양한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다루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존의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틀을 평화/적대의 이분법적 틀로 재단하지 않고 현실적인 틀로 제시하였으며, 북한 체제, 핵, 인권, 국제질서, 예술 등 다양한 쟁점으로 남북관계를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였음.
- 남북관계/통일 강의 교안 개발
 - 뉴스와 같은 대중매체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개론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군사, 경제, 사회, 예술, 인권 등, 나아가서 독일통일과 양안관계로 바라본 통일까지 다각도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교안 및 커리큘럼을 개발.
 - 2018년 1, 2학기의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수강생들과의 토론, 대화, 과제 등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대학생이 남북관계/통일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뿐 아니라, 강의 당시 수강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주제나 이해나 지식이 다소 부족한 주제, 강의에서 다루길 원하는 주제 등을 파악하여 1년간 교안을 보완.
- 효과적인 통일 강의 모델 고안
 - 두 학기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또 그 성과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통일 문제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자기 주도적이고 학습할 수 있는 강의 모델을 고안.
 - 1년 간 학생들과의 대화, 강의 평가와 같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일방향적인 강의나 형식적인 자기 주도적 과제가 아닌,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극하고 때로는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과제를 마련.
 - ‘코멘트페이퍼’를 통하여 학생들이 그 주의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현재의 남북관계 정세와 이론적 논의를 엮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글쓰기를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 또 이 과정은 자연스레 토

론 준비가 되어 수강생들은 다음 수업의 토론 시간에 정리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음.

- ‘개인/단체 체험활동’을 통해 이론적인 접근에 국한된 강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정치적 이슈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강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또 이 과제에 성적의 비중을 두어 단순한 필기시험으로만 학생들이 암기한 이론적 내용을 평가하는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의 능동적인 체험과 자기만의 관점을 인정하고 중시하는 자기주도형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

5) 교과목 개발지원 - 이현수 (공대 교수)

세부 사업명: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리더 양성

① 연구 목적

- 북한개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 북한과 정상회담 이후 도로, 철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수행계획을 논의한다고 합의됨.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토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 이에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재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 현황과 남·북한 국토인프라 격차 현황에 대해 공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함.
- 국가경쟁력 향상의 수단으로서의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으로 인식 전환
 - 북한 지역의 국토인프라 사업이 단순히 남북한 간의 격차해소 또는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의 성능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반도 국토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도록 함.
-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북한지역 혹은 통일한반도의 국토인프라 구축은 생산기술보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전문기술이 사업의 성패에 핵심 역할을 하므로, 해당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운영 주제
 -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리더 양성을 위한 강의 운영안 개발 및 1·2차 강좌 운영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2학기

추진내용/기간	9월	10월	11월	12월
강좌 운영안 개발				
1차 강좌운영				
2차 강좌운영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강좌 운영안 개발

- 강좌 운영안 개발 방향 및 목적
 -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이 건설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재인식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무대로서 인식하게 함.
 - 남·북한 국토인프라의 격차해소가 단순히 북한지역에 부족한 국토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통일한반도의 경쟁력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로 인식하게 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남북한의 국토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함.
 -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이 미래지향적인 한국건설의 기술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함.
- 개발 강의안 내용 및 강사진

주차	강사명	소속	제목	세부내용
제1강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안 파악을 위한 사례 소개와 향후 전망 공유 • 대북 제재 상황의 쟁점 요소 • 비핵화 과정의 이슈 분석 등
제2강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북한의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도시의 이해 • 통일이후 북한지역 도시개발 방향 등
제3강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의 주택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주택인프라 현황 •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경험소개 • 북한의 주택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4강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북한의 도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도로인프라 현황 • 북한의 도로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5강	한국철도공사		북한의 철도 및 지하철인 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철도 및 지하철인프라 현황 • 북한의 철도 및 지하철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6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의 항만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항만인프라 현황 • 북한의 항만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7강	한국공항공사		북한의 공항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공항인프라 현황 • 북한의 공항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8강	수자원공사		북한의 수자 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수자원인프라 현황 • 북한의 수자원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9강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상·하수도인프라 현황 북한의 상·하수도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 현황 등
제10강	한국전력기술	북한의 발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발전인프라 현황 북한의 발전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11강	한국전력공사	북한의 송·배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송·배전인프라 현황 북한의 송·배전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12강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경제성장과 국토인프라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의 의미와 방향 한국의 국토인프라 구축 사례: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발전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남·북한 국토인프라 비교분석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전략방향 등
제13강	김승철 대표	북한개혁방송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경험 사례 소개 및 대북진출 전략 남북한 협력에서 정치/제도적 경제의 특징 북한 SOC역사와 현황 및 특징 기업의 대북진출 역사와 문제점 및 교훈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SOC 분야에서 기업의 대북진출 전략 등
제14강	강영실	심연북한연구소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산업 육성 정책 법 제정 및 제도화 건설기술 인력 육성 체계 건설인력 배치 및 기능 등
제15강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사업모델 구상 & 청년토론회 통일 이후 현안 국토인프라 격차해소 방향 국토인프라 격차해소 전략 구상 신기술/신공법/건설스타트업 사례소개 등

* 음영 표시된 강의는 이번 차년도에 시범운영함
 - [1차 강연] 제 15강
 - [2차 강연] 제 1강, 제 2강, 제 13강, 제 14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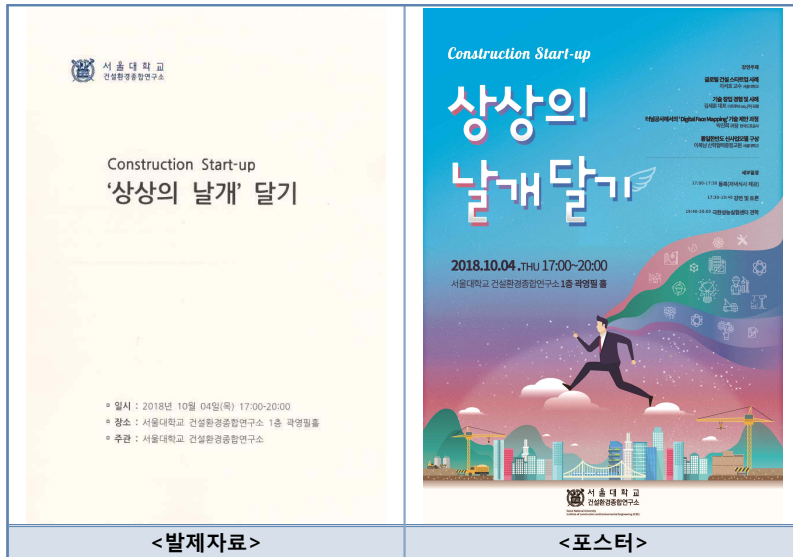
□ 1차 강좌 운영

- 목적
 - 혁신적인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필요성과 방법 제안
- 강좌 개요
 - 강좌 일시: 2018년 10월 4일 (목) 17:00-20:00

- 강좌 장소: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층 광영필홀
- 강좌 세부 일정

구분	시간	활동
등록 및 접수	17:00~17:30	▣ 등록
개회	17:30~17:40	▣ 개회사 : 이 현 수 소장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주제발표	17:40~18:00	▣ 통일한반도 신사업모델 구상 이 복 남 산학협력중점교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8:00~18:20	▣ 터널공사에서의 'Digital Face Mapping' 기술 제안과정 박 진 희 과장 (한국도로공사)
	18:20~18:40	▣ 글로벌 건설 스타트업 사례 지 석 호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8:40~19:00	▣ 기술 창업 경험 및 사례 김 세 훈 대표 (㈜AweXome Ray, ㈜김랩)
토론	19:00-19:40	▣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김 영 오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패널] 지 석 호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 세 훈 대표 (㈜AweXome Ray, ㈜김랩) 박 진 희 과장 (한국도로공사) 이 복 남 산학협력중점교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송 호 재 학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문 세 동 학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견학	19:40~20:00	▣ 기념사진촬영 ▣ 극한성능실험센터 견학

- 참여자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39명
- 토론
 - 강사들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강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견학
 - 북한 인프라의 급속진단/보수/보강 교체기술 및 SOC 특화기술의 테스트 베드 검증을 위한 실험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극한성능실험센터' 견학.



<발제자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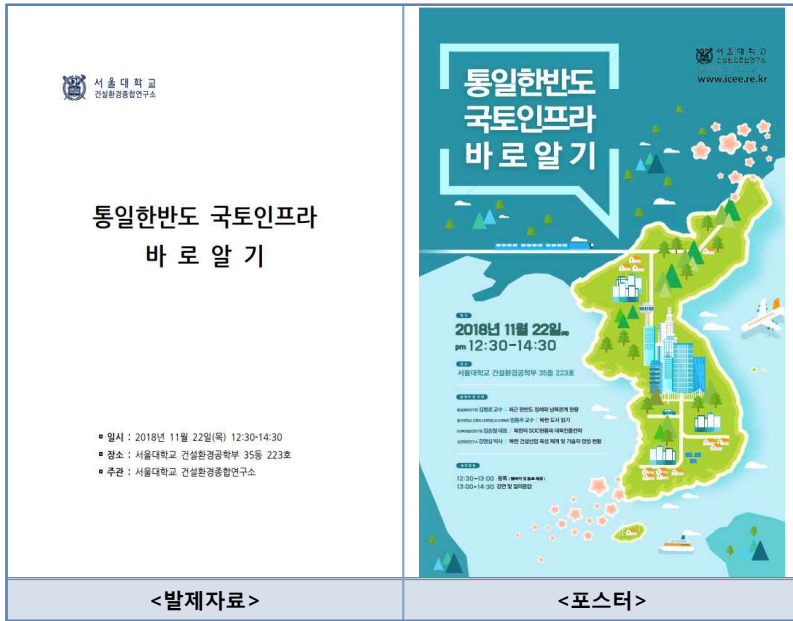
<강의 현장 사진>

□ 2차 강좌 운영

- 목적
 - 북한의 인프라 실태 및 건설기술인 현황 파악을 통한 통일한반도 시대 대비 전략 공유
- 강좌 개요
 - 강좌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13:00 -14:30
 - 강좌 장소: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5동 223호
 - 강좌 세부 일정

구분	시간	활동
등록 및 접수	12:30~13:00	▪ 등록
개회	13:00~13:05	▪ 개회사 : 이현수 소장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강연	13:05~13:20	▪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김 병 로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3:20~13:40	▪ 북한 도시 읽기 임 동 우 교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13:40~14:00	▪ 북한의 SOC 현황과 대북진출 전략 김 승 철 대표 ((사)북한발전연구원)
	14:00~14:20	▪ 북한 건설산업 육성 체계 및 기술자 양성 현황 강 영 실 박사 (심연북한연구원)
질의응답	14:20-14:30	▪ 질의응답

- 참여자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67명
 - 서울대학교 타학과 학생 23명
 - 교외 참가자 4명
 - 총 84명 참가



<강의 현장 사진>

④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강의안 개발성과

- 학문적 이론에 앞서 경험 사례 강의를 통해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북한 지역 국토인프라 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
 - 국내 7개 전문기관(공기업 및 연구소 등)의 인프라 연구전문가를 초빙하여 개별 인프라 조사 결과 및 국내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구성함.
 - 북한 지역 자료 신뢰성 제고를 위해 탈북 과학자/연구자/공과대학졸업자들을 초빙하여 북한의 국토인프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구성함.
- 미래지향적인 통일한반도 설계에 대한 관심 유도

□ 1차 강연 운영성과

- 통일시대의 국토인프라 관련 이슈와 북한지역 국토인프라 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 및 전문기관의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와 남북한 국토인프라 격차정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도움.
- 통일이 통일한반도의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 속에서, 청년들이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함.
-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이 건설관련 전공의 학생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재인식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무대로서 인식하게 함.

□ 2차 강연 운영성과

- 북한지역의 도시, 인프라, 건설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며 객관화시켜 살펴보게 함으로써 언론으로 접하던 수준보다 상세하고 깊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북한의 대북진출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접근해야함을 알려줌으로써 장기전으로 준비해야하는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것에 의의.
- 통일시대의 국토인프라 관련 이슈와 북한지역 국토인프라 실태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및 북한의 건설산업 육성체계 관련 정책 자료 공유를 통해 학생들에게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뿐만 아니라 북한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건설산업 차원의 일감증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통일한반도의 수요자이자 운영주체인 학생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게하고 도전의식을 고취 시킴.

6) 교과목 개발지원 - 채선미 (간호대 교수)
세부 사업명: 간호대학(원)생 통일보건의료 교육

① 연구 목적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통일보건의료 교육 강좌를 개발 및 운영하여 간호대학생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하고자 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운영 주제
 - 간호대학(원)생을 위한 통일보건의료 교육
- 교육 대상
 - 간호대학(연건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부 2, 3, 4학년 대상.
 - ※ 1학년의 경우, 관악캠퍼스에서 모든 교과목을 수강함에 따라 연건캠퍼스에서 운영하는 본 사업의 교육강좌 참여가 어려워 금년도 사업 계획에서 제외함).

○ 사업추진 계획

- A. 2018년도 1학기: 교육강좌의 설계와 강사 섭외
 - 통일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간호사, 의사, 상담사, 북한이탈주민 등) 탐색과 섭외.
 - 일정과 장소 계획
 - 2학기 간호대학 학사일정과 비교과과정 강의인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과 장소 계획함.
 - 학기 중 매월 2회, 총 6회의 특강으로 구성함.
 - 강의 시간은 화요일 12시~12시 50분으로 계획함: 학부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모든 학년이 이론 수업을 수강하는 요일과 시간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간단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기로 계획함.
 - 장소: 간호대학 408호(70석 규모의 세미나실)
- B. 2018년도 2학기: 교육강좌 운영 및 평가
 - 운영
 - 9월~11월 매월 2회의 특강을 화요일 12시~12시 50분, 점심 제공과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함.

- 본 교육강좌의 홍보를 위한 포스터(전체 프로그램 소개 대형 포스터, 각 회기별 특강 소개 소형 포스터)와 스탠드형 배너 제작.

· 평가

-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특강 매 회차마다 참여자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관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특강 전후에 실시하고자 함.
- 참여자의 교육강좌 평가회: 6회기 교육강좌 운영을 모두 종료한 후 참여자들의 본 교육강좌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교육강좌 운영

○ 목적

- 간호대학(원)생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 향상.

○ 교육 대상의 확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최초 계획과 달리 교육 대상을 확대 적용함.
- 2018년도 2학기 간호대학 4학년의 수업이 모두 관악캠퍼스에서 개설 됨에 따라 연건캠퍼스에서 수강하는 학부생이 2학년과 3학년에 국한 됨. 이에 다수의 간호대학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간호대학 재학 대학원생들도 포함하여 교육강좌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육강좌를 운영함.
- 실제 운영시 학부와 대학원생 이외에도 통일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간호대학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직원도 일부 참여함.

<간호대학(원)생 통일보건의료 교육강좌의 개요>

횟수	일자	강사명	소속 및 직위	강의 주제
1	9월 4일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간호와 통일대비 과제
2	9월 18일	홍인철	○ 평양과학기술대 학 의학대학원 교수	평양과학기술대학 의과대학원의 현황; 북한의료의 이해와 전망
3	10월 2일	민하주	○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연구원	통일대비 국내 보건의료인의 역할 모색

4	10월 16일	김성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통일대비 보건의료인을 위한 북한 간호교육제도의 이해
5	11월 6일	김영인	남북하나재단 책임전문상담사	간호서비스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이해
6	11월 13일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는 보건의료인 10대 지침

○ 기간

- 2018년도 2학기 9월~11월, 매월 2회



○ 교육강좌의 홍보



- 프로그램 소개 대형 포스터
(간호대학 본관과 연구동, 학생휴게실, 학생생활관 등에 게시)
- 프로그램 소개 스탠드형 배너
(간호대학 본관 로비에 상시 게시하고, 특강 당일에 특강 장소에 추가로 설치)
- 각 회기별 특강 소개 포스터
(간호대학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연구동, 학생생활관 등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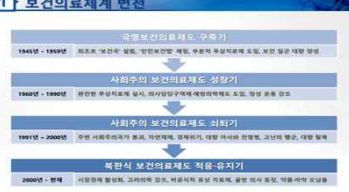

○ 교육강좌 참석 수강생인원


횟수	일자	교수	간호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기타	총인원 (명)
1	9월 4일	9	55		64
2	9월 18일	4	○ 44	○	48
3	10월 2일	5	○ 27	○	32
4	10월 16일	4	26	연구원 1, 병원 직원 1	32
5	11월 6일	1	48	연구원 1, 병원직원 2	52
6	11월 13일	6	41	연구원 1, 병원직원 1	49



○ 교육강좌 내용 예시

강의 횟수	강의 슬라이드 (PPT)
	<p>1</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div> <div style="width: 30%;"> <p>1.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2. 북한 보건의료체계 현황 3. 최근 북한 보건의료 변화 4.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5. 북한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분야 과제</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div> <div style="width: 30%;"> <p>1.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2. 북한의료체계 현황 3. 최근 북한 보건의료 변화 4.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5. 북한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분야 과제</p> </div> </div>

2	<p>의료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한 DPRK 의료의 이해와 전망 (평양과기대에서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홍인철 교수 (의학대학원 부학장)</p>
	<p>평양과학기술대학교 의학부</p>  <p>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UST)</p> <p>의학부 (DMS) 설립추진 주요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0월 25일 개학시 의학부 추가 신설 협의, 모색 · 2012년 10월 18일 의학부 개설 협의 · 2013년 5월 의학부 및 의학부동 설립 협의 · 2014년 5월 21일 의학부동 착공식 · 2015년 의학부 가을학기 개강(예정) - 보건대학원, 치과대학원
	 <p>PUST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MS: Dept. of Medical Science</p>

3	<p>통일대비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역할모색: 간호사를 중심으로</p> <p>2018. 10. 01 (진)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박사 5학기 민하주</p> 
	<p>Cont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II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III 탈북자, 대한민국 간호사 적응기 IV 통일대비, 간호사의 역할
	<p>1 북한의료체계 변천</p>  <p>북한 보건의료 현황</p> 

4	 <p>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간호교육 전망</p> <p>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성재</p> <p>평양방문 배경 세계기독교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 평양과학기술대학(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UST)의 간호대학 설립추진 주제</p> <p>NAFEC North American Federation of Christian Nurses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PUST 국제학술대회 초청</p>
	<p>평양과학기술대학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U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설립한 대학 · 2002년 6월에 착공, 2009년 9월에 준공 · 2010년 10월에 대학운영 시작 · 2016년 9월 학기부터 간호대학 학생교육시작하기로 계획함
	<p>방문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ST 대학 견학 · PUST 국제학술대회 참석 · PUST 총장단 면담 · 북한 간호인력 교육양성기회 방문 및 기관장 면담 · 북한 간호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방안 논의

5	 <p>북한이탈주민 고객 이해하기</p> <p>김경연 전문상담사</p>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시행기 책임 요인 ▶ 실무시행기 책임 주체 ▶ 위험한 상담 사례 사례와 예방 ▶ 상담의 의의요리 ▶ 결론 및 제언
	<p>통일 대비 보건의료인력의 준비</p> <p>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민</p> <p>57세 남한 면허 취득한 새터민 의사</p>  <p>이탈주민의 의료역량</p> <p>이탈주민의 의료역량은 대체로 한국인 의사보다 낮은 편이다. 특히 의료현장 실무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에 진입하는 것 또한 어렵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전문 교육이 부족하여, 대안으로 한국에서 전문의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서 취득한 면허를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취득한 면허를 인정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재교육을 이수하고 한국 의사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p>
	<p>남북 인력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 갈등</p> <p>예) 의료 인력의 통합</p> <p>From Answering to "Three Minute Care": Healthcare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ul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Healthcare Workers to South Korea Heungsik Park, Jeeun Hwang, Hyeon, and Sung Young Park Medical Care, 2018, 30(1), 20-30. doi:10.17582/JC.MC.2018.30.1.20-30 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상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희영, 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상민, 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상민</p>

6	<p>구소련 출신 유대인 의사</p> <p>의료계의 장벽</p> <p>구소련 출신 유대인 의사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의료윤리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구소련 출신 유대인 의사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의료계 상황에 대한 이해, 의료윤리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p>
	<p>이탈주민의 의료역량</p> <p>이탈주민의 의료역량은 대체로 한국인 의사보다 낮은 편이다. 특히 의료현장 실무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에 진입하는 것 또한 어렵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전문 교육이 부족하여, 대안으로 한국에서 전문의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서 취득한 면허를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취득한 면허를 인정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재교육을 이수하고 한국 의사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p>
	<p>이민자 의사들의 높은 입업률(12.7%), 지방에 취업, 의료 관련 타적종 전문가</p>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최초 간호대학의 통일보건의료 교육강좌 개설
 - 본 교육강좌는 비교과과정이었지만, 간호대학 내에서 한 학기동안 정기적으로 개설된 최초의 통일보건의료 관련 교육강좌였음에 의미가 큼.
 - 총 6회로 구성된 통일보건의료 특강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통일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보건의료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강의를 진행함.
- 간호대학(원)생의 통일과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향상
 - 총 6회의 통일보건의료 특강을 통해 전반적으로 간호대학(원)생의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시켰으며, 그동안 언론으로 공개된 북한의 모습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깨닫고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탐구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고 응답함.
 -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며, 동시에 통일 이후 보건의료계가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도움.

7) 통일의식 실태조사 - 문인철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세부 사업명: 대학통일교육 설계를 위한 초·중·고등학생 통일의식 실태조사

① 사업 목적

- 초·중·고등학생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적합한 통일교육을 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파악된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 통일교육에 필요한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법론을 확인 및 모색.
- 연구원 차원에서 진행되는 초·중·고등학생 통일의식조사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운영 주제
 - 초·중·고등학생 통일의식 실태조사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1·2학기
 - 서울에 있는 초등(2개), 중등(2개), 고등(2개) 학교 학생 각 100명 씩, 총 600여명에 대해 설문을 통한 통일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함.
 - * 참여학교 6개 (새솔초, 원명초, 염광중, 인헌중, 월계고, 양재고)
 - * 공동연구원 1명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 시행을 위하여 먼저 조사연구원들의 공동제작으로 설문지 제작을 완료하고, (주)한국리서치의 보완 아래 배포용 문서로 완성함.
 - 이후 완료된 설문에 대한 데이터 코딩 작업을 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 통일교육 모델 설계에 주는 함의를 파악함.

추진내용	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설문 기획	기초 자료 조사		■	■	■				
	설문지 제작					■	■				
설문 조사	설문조사 실시							■	■	■	
설문 분석	데이터 코딩								■	■	
	결과분석									■	■

③ 추진 내용 및 진행 과정

□ 사업 참가를 위한 조사연구원 및 설문조사 실시 대상 학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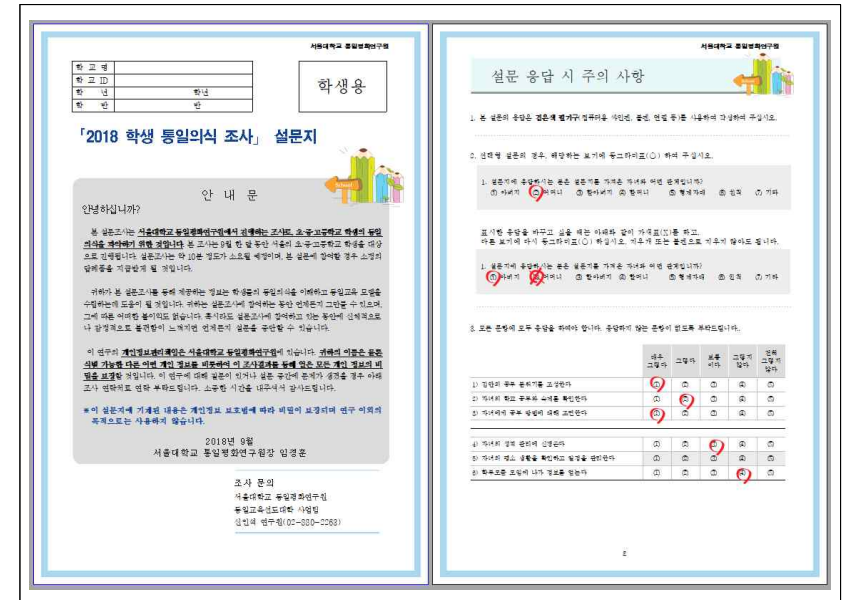
- 설문조사 실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사 연구원을 선정함.
- 설문조사 대상 학교: 새솔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염광중학교, 인헌중학교, 월계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

- 조사 연구원 및 사업 참가자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역할
1	김병연	양재고등학교	조사연구원
2	정용민	월계고등학교	
3	강성	염광중학교	
4	이선희	인헌중학교	
5	이기희	원명초등학교	
6	양미정	새솔초등학교	
7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연구원
8	문인철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9	신인석	통일평화연구원	실무담당자

□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실시

- 통일평화연구원 내 선임연구원(문인철) 1명, 공동연구원(엄현숙) 1명, 연구원(신인석) 1명 등 실무진 총 3명의 참석 하 교사로 이루어진 각 학교 조사연구원 6명이 설문 제작과 관련한 착수 회의를 진행함.
- 회의 후 조사연구원 6명의 공동제작으로 최종 설문지 제작을 완료하고, (주)한국리서치의 보완 하에 이를 배포용 문서로 제작함.
- 표집 선정된 6개 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 당 100부 썩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학생들의 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는 모두 5개의 주제, 34개의 질문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함.
- 학생들에게 배포한 설문지 형태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
I. 통일에 대한 인식						
* 자유 응답을 하고 대답하는 것은 옳고(○) 틀리다(×)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 자유, 평화, 번영을 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다. (○)						
17. 통일이란, 남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다. (○)	○	○	○	○	○	○
18. 북한, 남한의 공통, 조국을 위해 일 것이다. (○)	○	○	○	○	○	○
19. 통일: 자유, 평화, 번영을 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다. (○)	○	○	○	○	○	○
20. 남북의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21.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22.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23.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24.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25.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26.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27.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28.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29.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0.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1.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2.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3.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4.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5.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6.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7.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8.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39.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0.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1.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2.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3.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4.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5.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6.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7.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8.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49.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0.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1.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2.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3.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4.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5.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6.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7.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8.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59.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0.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1.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2.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3.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4.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5.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6.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7.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8.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69.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0.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1.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2.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3.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4.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5.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6.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7.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8.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79.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0.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1.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2.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3.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4.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5.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6.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7.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8.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89.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0.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1.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2.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3.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4.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5.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6.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7.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8.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99.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100. 통일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	○	○	○	○	○	○

○ 의식조사에 따른 종합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이번 조사에서는 학생을 둘러싼 학교 생태계에 주목하여 분석 수준을 성별, 가정형편, 학교급, 학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성별의 차이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등의 결과들이 보였다.

또한 가정형편은 북한, 통일관련 이슈의 접근성과 미래지향적 통일관 형성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가정형편에 따라 북한의 위협이나 미, 중, 일에 대한 의존도가 변화되는 등의 여러 지점들을 보여준다.

학교급의 경우는 대체로 초등학교에서 북한, 통일 문제에 긍정적인 반면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대표적인 모습을 노출한다. 다만 반대의 경우는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에서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하여 높은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학교별 관찰은 흥미로운 문제를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으로 가정형편과 맞물려 평가할 수 있다. 같은 학교급에서도 지역이 어딘가에 따라 문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

종합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첫째, 다수의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분단과 통일에 관심이 있다. 셋째, 통일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통일의 장애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한다. 여섯째,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일곱째,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저학년에서 많이 나타났다. 여덟째,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 아홉째, 통일 이후는 지금보다 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열째, 통일 이후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열한번째, 통일 이후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열두번째, 통일 되면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열세번째, 통일 이후 나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 인식이 조금 우세하다.

②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첫째, 북한 사회 및 생활모습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둘째, 북한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대상을 인식한다. 셋째, 북한을 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낮다. 다섯째, 북한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섯째, 대다수 학생들은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곱째, 최근 북한 사회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은 첫째,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수업을 듣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영향은 약해진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을 지금보다는 많이 실시해야 한다. 넷째, 북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긍정적이다. 다섯째,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교육하길 바란다.

④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첫째,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미국, 중국에 대해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잘사는 편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긍정적이다.

⑤ 북한, 통일 관련 정보는 TV, 학교수업, 유튜브, 인터넷 포털, 가족, SNS, 종교 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 코딩 및 결과 분석

○ 총 600부의 설문문이 조사 완료되었으며, 그 중 (주)한국리서치의 검수 하에 불성실응답 4건을 제외한 596부를 데이터 코딩 작업 대상 설문지로 선정함.

○ 이에 따라 최종 데이터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주)한국리서치에서는 각 조사 연구원에 결과표를 전달함.

○ 조사연구원 6명이 결과표에 대한 분석을 거치고 공동연구원 1명이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됨.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재고 계기 마련
 - 이번 조사에서는 각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각자 자신의 학교 학생들의 설문 결과에 기초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음. 그 결과 이번 조사는 학교에서의 북한 및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함.

- 의식 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통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방향성 모색
 - 초, 중, 고등학교 북한, 통일 의식은 대학의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초등학교에서 높아졌던 통일 의식의 고등학교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은 연속교육 체계로서 대학교육에서 종결의 의미를 갖기 때문임. 이번 조사를 통해, 앞서 종합된 다섯 가지의 인식 변화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대학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함.

8) 학위논문 지원 - 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세부 사업명: 석·박사학위논문 지원 사업

① 사업 목적

- 본 프로그램은 통일 대비 및 통일 이후의 통합과 체제전환, 남북관계, 북한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와 학술 연구를 장려하고자 교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통일교육’과 관련한 주제의 학위논문이 효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양한 전공의 학위논문을 지원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학계의 여러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운영 주제
 -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내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
- 운영 주체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1·2학기
 - 학내 학위논문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석사학위논문 6편, 박사학위논문 5편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자들은 1차 심사 과락인 70점 이상을 통과할 경우에만 지원금의 50%를 수령하고, 최종 논문 완성도 평가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중간심사를 통과해야 나머지 지원금 50%를 수령.

		기간											
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모집 공고	1차 모집					■	■	■					
	2차 모집						■	■	■				
	3차 모집								■	■			

학위논문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중간 심사									

③ 추진 내용 및 진행 과정

□ 통일평화연구원 내 사업 참가자 및 심사위원 확정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역할
1	백지운	통일평화 연구원	HK교수	사업책임자
2	신인석		연구원	실무담당자
3	김학재		HK교수	심사위원
4	이찬수		HK연구교수	
5	천경효		선임연구원	
6	정동준		선임연구원	
7	최규빈		선임연구원	

□ 1차 모집 공고 및 1차 심사 (2018.7.~8.)

○ 내용

- 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공지, 교내 대량메일 발송 등을 통해 1차 모집 공고를 실시. 박사과정 6명, 석사과정 5명이 지원.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70점을 과락 기준으로 1차 심사한 결과,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4명이 합격.

○ 지원자 명단

- 박사과정

번호	성명	학과	주제
1	홍승진	국어국문	월남 작가 김중삼 시의 살아남는 이미지
2	전소영	국어국문	월남 작가의 자기 전유와 문학세계 형성 과정 연구: 최인훈과 이호철을 중심으로

3	백민아	외국어교육	공감 기반 통일교육에 있어서 전환기 문학의 가치: 잉고술체의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4	Max Nurnus	국제학	Bringing Emotions back i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Emo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5	강인화	사회학	한국 병역의무의 보편화 과정 연구(1945~1999)

- 석사과정

번호	성명	학과	주제
1	김인외	윤리교육	통일교육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중심으로
2	박민지	원자핵공학	Near Misses in Nuclear Power System and their Root Cause Analysis and Recurrence Prevention: Block Chain based Safety Information Dissemination
3	최서희	사회약학	북한의 의약품 사용 및 생산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 도출
4	최고운정	도시및지역 계획학	북한 경제개발구의 특성분석을 통한 개발 가능성 평가
5	백승훈	국제관계학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during the Arduous March A Study of Link between Economic Performance and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6	오혜윤	시각디자인학	서울, 평양 두 도시간의 일상용품 연구를 통한 시각문화 비교

○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 공모 포스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교육 산도대학

2018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 공모

□ 응모 자격
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중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 공모 주제
통일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와 주제

□ 시상 내용
▶ 박사학위논문(6면)
- 1편당 장학금 300만원 수여
▶ 석사학위논문(6면)
- 1편당 장학금 150만원 수여

□ 접수 기간
2018년 7월 31일(월) 18:00까지

□ 제출 방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tonph@snulack)으로 제출
E-MAIL 제목은 다음 양식 준수:
2018 통일교육 산도대학 학위논문지원 신청, 박사 또는 석사, 이름
※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된 직통번호 필수

□ 제출 서류
▶ 논문계획서 1부
-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A4용지 5매 내외, 박사학위논문인 경우 A4용지 10매 내외(휴면영조,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00% 기준) 작성
▶ 논문요약문 1부
- 위 논문계획서를 축약한 형식으로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A4용지 1매, 박사학위논문인 경우 A4용지 1~2매(위와 동일 기준) 작성
▶ 재학동행서 1부
▶ 신청자 이력서 1부
-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며 성명, 소속, 대학 및 입학, 주소, 월간 전액, 이메일, E-MAIL 주소, 졸업 및 석사과정 입학 및 경력사항 포함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자유양식으로 작성

□ 기타사항
문의처: ☎ 02-880-2263

□ 2차 모집 공고 및 2차 심사 (2018.8.~9.)

○ 내용

- 1차 모집 공고에서 합격하지 못한 석사과정 잔여 인력 충원을 위하여 2차 모집 공고 실시. 석사과정 3명 지원.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70점을 과락 기준으로 2차 심사 결과, 석사과정 2명이 합격.

□ 지원금 전달 (2018.9.3.)

○ 내용

- 선정된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6명에 대한 1차 지원금 50%가 전달됨.
- 지원금은 각 박사과정 150만원, 석사과정 75만원.

□ 3차 모집 공고 및 3차 심사 (2018.10.~11.)

○ 내용

- 박사과정 선정자 5명 중 2명이 각각 지원금 중복 수혜, 취업 문제 등으로 지원금 반환.
- 박사과정 2명의 지원금 반환에 따른 결원으로 3차 모집 공고 실시. 박사과정 3명 지원.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70점을 과락 기준으로 3차 심사 결과, 박사과정 2명이 합격.

□ 중간 심사 (2018.12.6.)

○ 내용

- 기존 1·2차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6명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중간심사 실시.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1명 불참하였고, 해당 심사는 서면보고로 대체하였음.)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70점을 과락 기준으로 중간심사 결과, 석·박사 지원자 전원이 합격해 잔여 지원금 50% 전달.

○ 중간 심사 사진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교내 학위논문 지원 사업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6년부터 지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통일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통일·평화, 북한 연구 등에 있어 후속연구 세대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함.
- 제출된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금년 지원 사업은 월남 문인의 문학 세계, 공감 기반 통일교육, 통일교육 학습 방법론, 북핵 문제, 북한 의약품 체계, 북한 경제개발구 특성, 북한 도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총 망라되었음.
- 최종 선정된 학위논문 목록
 - 박사학위논문

번호	이름	소속	논문 제목	추천인
1	홍승진	국어국문	월남 작가 김중삼 시의 살아남는 이미지	김유중
2	전소영	국어국문	월남 작가의 자기 전유와 문학세계 형성 과정 연구: 최인훈과 이호철을 중심으로	방민호
3	백민아	외국어교육	공감 기반 통일교육에 있어서 전환기 문학의 가치: 잉고 술체의 작품을 중심으로	권오현
4	Max Nurnus	국제학	Bringing Emotions back i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Emo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이근
5	강인화	사회학	한국 병역의무의 보편화 과정 연구(1945-1999) : 동원-보상체제의 성립과 국민/남성의 형성	정근식

- 석사학위논문

번호	이름	소속	논문 제목	추천인
1	김인의	윤리교육	통일교육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중심으로	박성준
2	박민지	원자핵공학	Near Misses in Nuclear Power Systems and their Root Cause Analysis and Recurrence Prevention: Block Chain based Safety Information Dissemination	황일순
3	최서희	사회약학	북한의 의약품 사용 및 생산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 도출	홍승희
4	최고운정	도시 및 지역계획학	북한 경제개발구의 특성분석을 통한 개발가능성 평가	최막중
5	백승훈	국제대학원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during the Arduous March A Study of Link between Economic Performance and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이근
6	오혜윤	시각디자인학	서울, 평양 두 도시간의 일상용품 연구를 통한 시각문화 비교	김경선

9) 교과목 개발지원 -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부 사업명: 현장연계형 통일·평화 관련 교과목 연구개발

① 연구 목적

-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사회가 경험한 전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게 하는 통일·평화 관련 교과목 개발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라는 이름의 강의를 개발하여, 다양한 전쟁과 평화 중에서도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쟁을 한국이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확인. 이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을 증진.
- 강의와 토론, 현장학습, 팀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과 ‘평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보다 실제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운영 주제
 - 현장연계형 통일·평화 관련 교과목 개설을 위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라는 교과목 연구 개발.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1학기
- 구상 및 계획
 - 사전 조사 및 교과목 연구를 통한 강의 교안 개발.

	3월	4월	5월	6월	7월
사전 조사					
교과목 연구 및 실라부스 작성					
강의 교안 개발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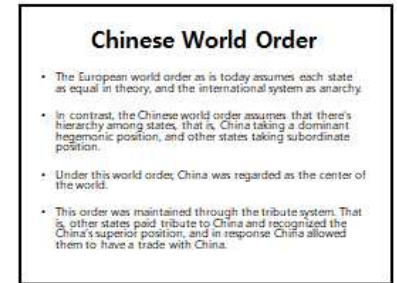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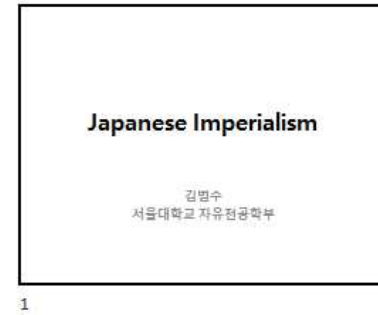
□ 사전 조사를 통한 교과목 연구 및 실라버스 작성

○ 강의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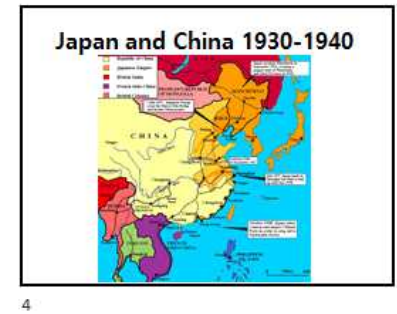
<p>2019년 1학기 주세실화어미22</p> <h3>한반도의 전쟁과 평화</h3> <p>(도시 수업 보완 예정)</p> <p>강좌번호: 수업시간: 강의실: 담당교수: 김범수 (jvmin@naver.com) 연강시간: 수업일 30주 ~ 40주 (이론으로 2시간 연강) 연강장소: 교수 연구실 (220동 323호)</p> <p>교육개요 본 과목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과목으로 한국 사회가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한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표상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학과에서는 연세형 대학에서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과목에서는 영화, 신문 등 미디어 시료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들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강의 마무리에서는 통일 전쟁 박물관, 최현배의 베트남전쟁기보문, 쉐린 지크 담사 등 한중학술을 통해 한국 사회가 기억하고 표상하는 전쟁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p> <p>교육 목표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사회가 경험한 전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합조하며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p> <p>수업 진행 수업은 강의와 토론, 한중학술, 팀 프로젝트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원인과 경과,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은 수업 내용 중 학생들이 느낀 문제의식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중학술은 최신 전쟁학술을 근, 최신 베트남전쟁기보문, 쉐린 지크 담사 등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기억하고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강의 마무리에서는 통일 전쟁 박물관, 최현배의 베트남전쟁기보문, 쉐린 지크 담사 등 한중학술을 통해 한국 사회가 기억하고 표상하는 전쟁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p>	<p>수업 개요 1.목에서 학생들은 교재를 읽고 기존 연구와 논의를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매주 AA 2쪽 분량의 발표를 제출한다(3회). 2.목에서는 영화, 소설, 신문 등 미디어 시료를 통해 주요 전쟁의 의미에 대해 본론을 발표한다(3회). 3.목에서는 한중학술을 다룬 이후 AA 4쪽 분량의 개인 감상문을 제출한다(3회). 또한 팀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와 관련한 사전 과제이집, UCC 등을 제작하여 발표한다(2회 과제).</p> <p>성적 평가 수업 출석 (10%) 토론 참여 (10%) 개인 발표 (20%) 미디어분석 리포트 (20%) 개인 감상문 (20%) 학기말 프로젝트 발표 (20%)</p> <p>수업 스키움 수업 스키움은 당사 사항 및 기타 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p> <p>1. 과목 소개 - 강사: 김범수 - 내용: 과목 소개, 강의 안내와 일정, 평가방법, 주피사한, 팀 구성 등</p> <p>2. 일본 제국주의 - 강사: 김범수 - 내용: 일본 제국주의의 기원 - 교재: Michael A. Barnhart, <i>Japan Prepares for Total War: The Search for Economic Security (1919-1941)</i>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p. 17-49 and 77-147.</p> <p>3. 일본과 태평양전쟁 - 강사: 김범수 - 내용: 태평양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는? - 교재: Jack L. Spector, <i>Japan's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i>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1), pp. 112-192. - 교재: Williamson Murray and Allan R. Millet, <i>A War to Be Won: Fighting the Second World War</i>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chs. 18 and 20. - 영상자료: 윌리엄머레이(영국)AHC(미국)ZDF(독일) 제작, '태평양전쟁 14 일분의 도박'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2B2WU_4958 - 영상자료: 윌리엄머레이(영국)AHC(미국)ZDF(독일) 제작, '태평양전쟁 24 소조전'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PRCNU-Urnb0A</p>
<p>4. 영화로 보는 태평양전쟁 - 강사: 김범수 - 내용: 일본이 기억하고 표상하는 태평양전쟁 - 영화: Clint Eastwood, <i>Letters from Iwo Jima</i> (2006).</p> <p>5. 한국전쟁 I - 강사: 김범수 - 내용: 한국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는? - 교재: Bruce Cummins, <i>The Korean War: A History</i> (New York: Modern Library, 2011).</p> <p>6. 한국전쟁 II - 강사: 김범수 - 내용: 한국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는? - 교재: Bruce Cummins, <i>Born'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i>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5), chs. 4 and 5. - 영상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선전쟁'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PYVj5DNEaG0</p>	<p>11. 베트남전쟁 I - 강사: 김범수 - 내용: 팀 프로젝트 발표 (사전제세이집, UCC, 개인감상문 또는 논문)</p> <p>12. 한중학술: 최신 베트남전쟁기보문 - 강사: 김범수 - 내용: 한국 사회가 기억하고 표상하는 베트남전쟁 - 교재: 존슨,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원의 원인과 1999년 "한겨레21, 2월호 그 이후 변화의 중심"으로 "저자와 역사, 105면 (2015), pp. 7-40. - 교재: 이상선, "한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성", 『한국조국학지서』, 44 권 4호 (2016), pp. 22-34. - 교재: 김소영,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기" 추모와 '망각'을 넘어서, 『현대문학의 연구』, 54 권 (2014), pp. 183-205.</p>
<p>7. 영화로 보는 한국전쟁 - 강사: 김범수 - 내용: 영화로 표현된 한국전쟁의 이미지 및 기억 - 교재: 문순경, "영화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방식: 문화전쟁과 기억의 사회", 『한국사학과 논리』, 10호 (2016), pp. 203-208. - 교재: 신영진, "전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의 역사/리얼리티/가치", 『통일문제 연구』, 23권 2호 (2011), pp. 1-36. - 영화: 강태규 감독, 『태극기 휘날리며』, (2004).</p> <p>8. 신문으로 보는 한국전쟁 - 강사: 김범수 - 내용: 신문 기사에 나타난 한국 전쟁 - 교재: 『경향신문』, 『동아일보』, 1950년 6월 25일 ~ 2016년 6월 25일, https://newlibrary.naver.com</p> <p>9. 한중학술: 최신 전쟁기보문 - 강사: 김범수 - 내용: 전쟁기보문 표상된 전쟁의 기억 및 이미지 - 교재: 김철근, "한국전쟁의 공식기록과 전쟁기보문", 『한국전쟁정보보통』, 제40권 (2007), pp. 192-221.</p> <p>10. 팀 프로젝트 발표</p>	<p>13. 베트남전쟁 II - 강사: 김범수 - 내용: 베트남이 기억하고 표상하는 베트남전쟁 - 교재: 손재남, "베트남의 전쟁기억과 조속시절", 『통일연구』, 19권 3호 (2016), pp. 129-169. - 교재: 한은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 인식: 위험의와 과거를 함께 기억할 것인가", 『사회와 역사』, 118권 (2018), pp. 273-305.</p> <p>14. 한중학술: 쉐린 지크 담사 저작 평가하기 - 강사: 김범수 - 내용: 한국 사회가 표상하는 평화의 의미지는?</p> <p>15.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 - 프로젝트 최종 발표</p>

□ 강의 교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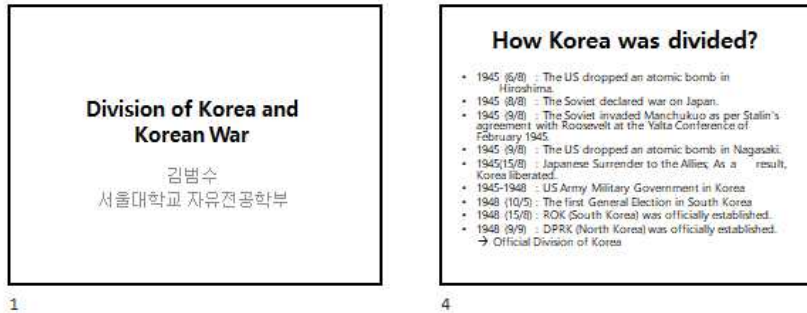
○ 교안 1 예시: Japanese Imperialism



○ 교안 2 예시: Japan and Pacific War



○ 교안 3 예시: Division of Korea and Korean War



④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대학통일교육 모델 개발에 기여
 -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라는 해당 교과목 개설을 위한 연구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단과 국제적 갈등을 야기한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의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대학통일교육 모델 개발에 기여함.
- 통일을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
 -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현장학습과 팀 프로젝트, 토론을 병행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느낀 문제의식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답하는 방식의 토론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진 에세이집, UCC 등을 직접 제작하는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10) 통일평화관련 교과목 개발 - 서보혁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세부 사업명: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교안 개발

① 연구 목적

- 한국인들의 통일의식 실제와 추세 파악
 - 한국민에게 내재되어 있는 통일의식의 심리적, 물질적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통일교육과 통일정책 과제 도출
 - 이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의 주요 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를 밝히는 교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운영 주제
 -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을 주제로 한 통일평화관련 교과목의 교안 개발
- 운영 주체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기간 및 진행 사항
 - 2018년 1·2학기

③ 추진 내용 및 연구개발 과정

□ 교안 개발을 위한 기존 조사 방법 검토 및 활용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 활용
 - 조사 주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조사 방법: 2007년부터 매년 7-8월 진행, 전국 성인 1,200명 유효표본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층화 계통 추출법
 - 표본오차: ± 2.8% (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 조사기관: 한국갤럽

- 통일연구원(KINU)의 조사 활용
 - 2018년 5~6월 진행, 전국 성인 1,000명 유효표본
 - 표본추출방법: 인구비례할당 표집
 - 표본오차: ± 3.0% (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 조사기관: 닐슨컴퍼니코리아

④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 총 2강의 교안 개발 (한글 및 영문)

○ 1강: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강의 목표와 내용

- 목표
 - 한국인들의 통일의식 실태와 추세 파악
 - 통일교육과 통일정책 과제 도출
- 내용
 - 통일의식의 심리적·물리적 구성 요소들
 - 통일정책의 주요 과제 및 우선순위
 -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방법

- 통일연구원(KINU)
 - 2018년 5~6월 진행, 전국 성인 1,000명 유효표본
 - 표본추출방법: 인구비례할당 표집
 - 표본오차: ± 3.0% (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 조사기관: 닐슨컴퍼니코리아

통일의 이미지

통일의 필요성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다. 통일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통일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통일의 이미지 - 연령대

통일의 필요성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다. 통일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통일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강의 교안 (PPT 슬라이드 형태) 예시>

○ 2강: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cember 2018

Dr. Suh, Bo-hyuk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Lecture Purpose and Contents

-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peace in the context of Korean division,
- To analyze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peacebuilding, and
- To make vision of peace regime toward Korean reunification.

평화 平和 Peace

● Meaning of the Word "Peace"

- Latin: *pax*, order
- Hebrew: *shalom* and Arabic: *salaam*, peace, justice, health, safety, welfare, security, etc.
- Greetings: *Aloha* or *salaam*, Saying farewell the departed
- Buddhism: A feeling acquired following the end of all sufferings
- Islam: Being obedient and humble before Allah

평화 平和 Peace

● Two Paths to Peace

-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Si Vis Pacem, Para Bellum*)
- Realist?
-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peace!
(*Si Vis Pacem, Para Pactum*)
- Idealist?

<강의 교안 (PPT 슬라이드 형태) 예시>

□ 통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함의 제시

- 개발된 교안을 바탕으로, 현 세대에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통일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
-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
 - 통일정책은 남북관계 변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 그리고 통일 정책을 고려하고 시행함에 앞서 무엇보다 평화 우선의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함.
- 통일 역량 확충의 필요성 강조
 -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미래세대의 통일관에 주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확인.
 -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내용)을 통일교육(형식)과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 도출.

□ 통일교육 강좌 운영

과정	번호	강의 제목	개설단위(교수)	개설학기	학점	수강인원
교과 형	1	영상사회학	사회학과(정근식)	1	3	47
	2	문화사회학		2	3	23
	3	통일의료	의대(신희영)	2	2	47
	4	남북한 보건의료 R&D		2	0.5	11
	5	북한지역연구특강	사회대 (박수진/허정화)	2	3	56
	6	북한학개론	사범대 (박성춘/배영애)	1-2	3-3	737(397-340)
	7	통일교육론	사범대(박성춘)	1-2	3-3	34(15-19)
	8	통일교육연구방법론		1	3	16
	9	공법I 헌법과 정치제도	법대(이효원)	1	2	62
	10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쟁점	외교학과(신범식)	2	3	8
	11	신입생세미나 -문학으로 생각하는 북한 문제	국문과(방민호)	1	1	16
	12	신입생세미나 -다큐멘터리로 보는 통일	외교학과(조동준)	2	1	11
총원						1,068

1) 영상사회학(사회대 정근식 교수)

- ① 사업 목적
- 냉전분단체제에서 전쟁·민주화·통일·평화 등을 다루는 시각적 텍스트들(사진·다큐멘터리·영화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 사회적 맥락, 대중적 소비과정, 사회학적 함의 분석 및 성찰
 - 한국전쟁, 냉전, 통일, 평화와 관련된 시각적 텍스트들을 생산한 사진작가와 감독 또는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시각적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체험하고 시각적 텍스트의 의미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 진행
 - 냉전·통일·평화와 관련된 시각적 텍스트를 직접 연구·분석한 기말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반도의 역사와 현실을 고민 및 탐구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타대 교환학생 총 47명
- 참가자 구성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과	인원(명)	비고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32	타대학 교환학생 1명 포함
	언론정보학과	5	
	정치외교학부	2	
인문대학	인류학과	1	
	국어국문학과	1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1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1	
	의류학과	1	
	음악대학	작곡과	1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2	
합 계		47	교내 46명, 타대 교환학생 1명 사회학과 32명, 타과 15명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 2018학년도 1학기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3학점(A-F)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정근식 / 사회학과 교수 외 10인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월요일 14:00-16:50
- 장소 : 서울대학교 16-1동 406호
- 강의방식 : ① 담당 교수의 강의 ② 특강 ③ 학생 발표 ④ 최종 토론

날짜	강사명	소속	제목
제1강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의 소개
제2강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전쟁과 사진 [특강] 한국전쟁과 사진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교수	
제3강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전쟁 포로수용소와 포로 사진·동영상 [특강] 한국전쟁 포로수용소와 포로 사진
	전갑생	통일평화연구원	
제4강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중국에서 보는 항미원조 영화 [특강]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기억과 재현
	김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제5강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중양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영상의 발굴과정과 냉전기 소련과 중국 간 경쟁을 반영하는 영화들 [특강] 중양아시아의 탈북 영화인들: 다큐멘터리 <굿바이 마이러브, NK>를 중심으로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제6강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냉전과 영화: <비정성시>
제7강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탈냉전과 영화: <군중낙원>
제8강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PD 30년사> [특강] 분단·통일 관련 텍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정길화	MBC PD	
제9강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18 사진·증언·기록 [특강①] 사진으로 보는 5.18 항쟁과 광주 정신 [특강②] 5.18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18 기록의 역사
	나경택	前 연합뉴스 기자	
	이재의	5.18 기념재단	

일	날짜	강사명	소속	제목
제10강	5/7		자료위원	대체공휴일
제11강	5/14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18 기억의 재현과 문화예술 [특강]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인문학: 홍성담 민중판화 <5월>과 같이 듣기
		오정목	前 광주 MBC PD	
제12강	5/21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18·6월항쟁 영화의 계보 [특강] 5.18 영화의 사회 치유적 함: 분단체제 속 5.18과 분단폭력에 맞선 비폭력 방어평화는 어떻게 형상화되는가?
		박재인	건국대학교 교수	
제13강	5/28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특강] 평화의 시각적 재현: 평화기념공원에서 선택된 것과 배제된 것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제14강	6/4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리포트 초고 발표
제15강	6/11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리포트 초고 발표
제16강	6/18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종 리포트 발표

강의 내용				
제1강	수업목표, 수업 내용, 특강 주제 및 강연자, 과제물, 참고문헌 등을 소개함.			
제2강	첫째,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한국전쟁 사진들의 시각과 사각을 분석함. 둘째, 전쟁 사진들이 전쟁을 재현하고 집합구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토론함. 셋째, 한국전쟁 영상을 담당한 미군 사진부대의 구성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들이 촬영한 일본군 위안부 영상 자료들을 함께 관람한 뒤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함.			
제3강	첫째,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된 한국전쟁과 포로수용소 관련 자료들을 검색·수집하는 방법을 익힘. 둘째, 포로들의 신체에 새겨진 문신들, 포로수용소에 비치된 표어들, 포로수용소의 의식주를 전시하는 사진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념 전쟁의 시각적 속성에 대해 논의함. 셋째, 포로수용소 연구 결과를 담은 특별전시회 <포로, 수용소, 사람들> 영상을 관람하고 감상을 공유함.			
제4강	첫째,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뜻하는 '항미원조'의 언급 여부와 표현 방식이 정권과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살펴봄. 둘째,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항미원조'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건국시대(1949년-1980년) 냉전적 표상이 두드러지고 집단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경향, 개혁개방시대 초기(1980년-2000년) 가족주의를 통해 국가주의·집단주의를 보완하고 중국과 북한을 잇는 매개로 '어머니'라는 상징을 활용하는 경향, 개혁개방시대 후기(2000년-2012년) 개인 영웅 서사가 두드러지고 미국에 대한 비판이 약화되는 대신 소련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는 경향, 시진핑 집권기(2012년-현재) 대중문화에서 항미원조를 적극적으로 다루되, 남한군을 제국주의자의 피해자이자 보호 및 교육 대상으로 재현하면서 남한군의 입을 통해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미군의 혼란상을 제시하는 경향.			
제5강	첫째,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강화하는 대표적 선전 도구인 영화가 중소분쟁을 전후로 중국과 북한에서 각각 변화한 양상을 살펴봄. 둘째, 북한에서 1950년대까지 거둬들인 속청을 통해 유일 권력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물 사진들이 삭제·편집되는 양상을 분석함. 셋째, 중양아시아의 고려인들과 탈북인들에 대한 김소영 교수의 다큐멘터리들			

	을 통해 북한의 영화와 현대사가 개개인의 삶과 맞물리는 방식에 대해 논의함.
제6강	첫째, 1980년대 대만 뉴웨이브가 등장하여 대만의 역사와 언어와 정체성을 다루게 된 배경을 살펴봄. 둘째, 대만 뉴웨이브의 대표작인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영화 <비정성 시>의 미적 장치와 서사 구성을 분석함. 셋째, 가족사를 통해 침묵 되어 온 역사적 사건(2.28사건)을 최초로 다룬 <비정성시>의 역사적 의의를 논의함.
제7강	첫째, 금문도에 군 위안 시설 '특약다실'이 설치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 둘째, '특약다실'에 대한 대만·금문도 사람들의 인식을 한국 위안부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과 대조하고 양자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논의함. 셋째, 영화 <군중낙원>에 드러난 사람과 이별의 서사, 군 위안부와 '특약다실'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함. 넷째, <군중낙원>이 재현하는 '자유로운 성매매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소비하는 전쟁/영화라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함.
제8강	첫째, 언론과 언론환경(정권 변화)의 관계를 통해 언론의 역할에 대해 토의함. 둘째,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문제의식들을 중심으로, 단순한 대립 구도와 진영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큐멘터리 정신에 대해 논의함. 셋째,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표현법·의의한계를 SWOT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
제9강	첫째, 5.18 당시 전남매일신보에 근무하고 있던 나경택 사진기자의 사진들을 중심으로 사진이 갖는 기록의 힘과 증언의 힘에 대해 논의함. 둘째, 이재의 자료위원이 5.18 당시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활동한 뒤 <죽음을 너머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의 공저자로 참여하게 된 경험을 중심으로 5.18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성 과정을 논의함. 셋째, 5.18을 찍은 국내기자·외신기자·시민들의 사진들과 국내외 신문들의 구성·편집을 비교·분석하고, 사진이 역사적 맥락을 호출하고 극복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토의함.
제11강	첫째, 정치적 기회구조가 시청각 자료의 생산과 수용을 변화시킨다는 이론을 학습하고 5.18 사례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함. 둘째, 5.18을 다룬 초기 시청각 자료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상기록 다큐멘터리로 국한되었던 반면, 민주적 정권교체이후 TV 다큐멘터리, 구술·증언채록, 노래다큐멘터리, 드라마와 영화로 그 장르가 다양해지고 내용 또한 다각화되었음을 확인함. 셋째, 최초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오정목 PD의 노래와 홍성담 작가가 그린 5.18 민중판화 <오월>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방식들에 대해 논의함.
제12강	첫째, 5.18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26년>, <꽃잎>의 등장인물, 서사구조, 카메라의 시선, 편집 방식을 분석하고, 재현의 한계와 리얼리즘 논쟁에 대해 논의함. 둘째, 6월항쟁을 다룬 세 편의 다큐멘터리와 3편의 독립영화의 계보를 추적하고, 2017년 개봉한 상업영화 <1987>의 등장인물, 서사구조, 역사적 고증의 치밀성, 영화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채택한 영화적·기술적 기법들을 분석함. 셋째, 영화 관람이 관람객들의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분석 방법들을 숙지하고, 각 이론과 방법에 따라 때 5.18과 6월항쟁을 다룬 영화들이 관람객들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토론함. 넷째, 5.18 북한군 개입설 등 다양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분단은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5.18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
제13강	첫째, 한국전쟁 영화들이 활용하는 다면적 분리 구도, 한국적 공동체에 대한 지향, 소

	박한 평화 등의 재현 방식들을 분석함. 둘째, 소설·영화·공연·박물관에서 DMZ가 재현되는 방식을 국내외 다른 접경지역 사례들과 비교·분석하고, DMZ가 상징하는 평화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계승·발전하는 사례의 하나로 DMZ국제다큐영화제를 제시함. 셋째, 제주 4.3평화공원,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 2.28평화기념공원에서 정치적 역할 관계에 따라 선택된, 배제된, 선택되었다가 삭제되거나 파괴된 전시물들을 비교·분석함. 넷째, 전쟁·갈등의 담론에서 평화·화해의 담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텍스트의 변화와 그 역할에 대해 논의함.
제14강	기말보고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냉전·통일·평화에 대한 시각적 텍스트를 선정하고, 분석 관점과 방법 및 현재까지 진행된 분석 내용을 간략히 발표하고 토론함.
제15강	기말보고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냉전·통일·평화에 대한 시각적 텍스트를 선정하고, 분석 관점과 방법 및 현재까지 진행된 분석 내용을 간략히 발표하고 토론함.
제16강	리포트 초고 발표를 기초로 작성한 최종 기말보고서를 발표·토론 및 제출함.

④ 사업 성과

- 수강생들이 냉전·분단·통일·평화에 관한 관심을 재고하고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고, 그에 관련된 시각적 텍스트를 직접 연구하고 분석한 기말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시각적 텍스트들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과 그것의 사회학적·현재적 함의를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됨
- 본 수업에서는 한국전쟁, 냉전, 통일, 평화와 관련된 시각적 텍스트들을 생산한 사진작가와 감독,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들을 특강 연사로 초청하여 시각적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체험하고 시각적 텍스트를 다각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현장 사진 및 기타 자료

--	--



사진 1. 4월 2일 제5강
김소영 감독·교수 특강 기념



사진 2. 4월 23일 제8강
정길화 PD 특강



사진 3. 4월 30일 제9강
나경택 기자·이재의 자료위원 특강 기념



사진 4. 5월 14일 제11강
오정목 PD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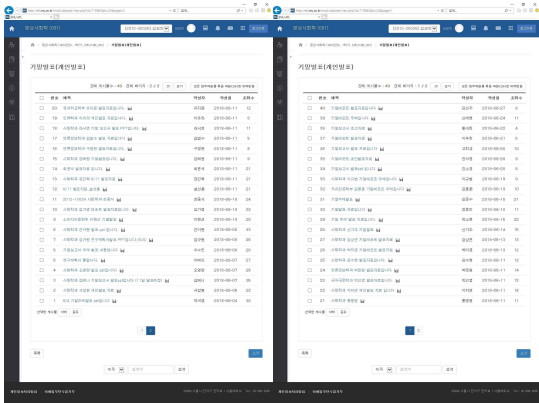


사진 5. 기말보고서 초고 발표 자료 제출 eTL 게시판

[첨부 2] 우수 보고서 제목

연번	보고서 제목
1	한반도 통일교육의 이데올로기와 통일영상교육: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영상을 중심으로
2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남북정상회담 사진 비교: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3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국내언론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생산 및 수용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 JTBC와 TV조선의 보도 비교를 중심으로
4	간첩의 재현: <의형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조>, <강철비>의 북한요원 재현방식을 중심으로
5	연평도 냉전 전경의 형성: 전경의 외부자와 내부자라는 두 가지 주체의 관점에서

[첨부 3] 특강 강의안 목록

성명	특강 제목
정길화	분단·통일 관련 텍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나경택	사진으로 보는 5.18 항쟁과 광주 정신
이재의	5.18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18 기록의 역사
오정목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인문학: 홍성담 민중판화 <5월>과 같이 듣기
박재인	5.18 영화의 사회 치유적 힘: 분단체제 속 5.18과 분단폭력에 맞선 비폭력 방어
김민환	평화의 시각적 재현: 평화기념공원에서 선택된 것과 배제된 것

○ [첨부 4] 강의평가 자료

아래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강의에 만족하였으며, 특강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정량평가

평가항목	평균(5점 만점)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3.70
강의 준비와 강의 내용이 충실하였다	3.48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3.50

Ⓑ 정성평가

□ 질문: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적어 주십시오.

□ 수강생 답변:

- 여러 사람이 강의하는 것
- 발표와 토론 시간이 좋았다
-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와 다양한 특강
- 교수님의 전달력
- 교수님이 열정적입니다

- 교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 다양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 영상사회학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양한 특강으로 많은 사회 분야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특강을 통한 다방면의 사회학적 고찰
-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볼 수 있었다는 것

○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을 지원해주시고 다

2) 문화사회학(사회대 정근식 교수)

① 사업 목적

- 최근 형성되고 있는 경계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분경 경관에 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 학습
- 파주·동두천 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진 자료의 생산 및 활용을 직접 경험
- 분단·냉전·분경 경관을 몸소 체험하고 시각적 자료를 직접 생산하면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통일·평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 숙고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23명
- 참가자 구성

㉠ 강의 프로그램 참가자 총 23명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과	인원(명)	비고
학부생 (수강생)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11	
	사회복지학과	1	
인문대학	미학과	1	
	철학과	1	
	서양사학과	1	
경영대학	경영학과	1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1	타대학 교환학생
소 계		17	
대학원생 (청강생)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4	
	여성학협동과정	1	
미술대학	서양학과	1	
소 계		6	
합 계		23	교내 22명, 타대 교환학생 1명 사회학과 15명, 타과 8명

㉞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 총 35명

(1) 강의 프로그램 수강생·청강생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과	인원(명)	비고
학부생 (수강생)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9	
	사회복지학과	1	
인문대학	미학과	1	
	철학과	1	
	서양사학과	1	
경영대학	경영학과	1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1	타대학 교환학생
대학원생 (청강생)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4	
	여성학협동과정	1	
미술대학	서양학과	1	
소 계		6	
(1) 합 계		21	
(2) 강의 프로그램 비수강 참가자			
소속 기관·단과대학	직위·소속 학과	인원(명)	비고
교수·연구원·활동가·사진작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1	
한양대학교	교수	1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1	
동두천 두레방	활동가	1	
파주 현장사진연구소	사진작가	2	
소 계		6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	학부생
경영대학	경영학과	1	학부생
인문대학	인문광역	1	학부생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4	대학원생
	인류학과	1	대학원생
소 계		8	
(2) 합 계		14	
(1) + (2) 총 계		35	

㉟ 사진전 참가자 총 15명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과	인원(명)	비고
학부생 (수강생)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9	
	사회복지학과	1	
인문대학	미학과	1	
	철학과	1	
	서양사학과	1	
경영대학	경영학과	1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1	타대학 교환학생 1명 포함
합 계		15	교내 14명, 타대 교환학생 1명 사회학과 9명, 타과 6명

㉡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3학점(A-F)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정근식(사회학과 교수), 이용남(현장사진연구소 소장)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화요일 12:30~15:20
 - 장소 : 서울대학교 16동 226호
 - 강의방식 : ① 담당 교수의 강의 ② 답사 참여 ③ 학생 발표

㉢ 강의 프로그램

	날짜	강사명	소속	제목
제1강	9/4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의 소개
제2강	9/11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경계 - 국경과 분경: 군사분계선, 한강중립지대, 북방한계선과 중립선
제3강	9/18	정근식	서울대학교	판문점: 분단의 도상(아이콘)

			사회학과 교수	
제4강	9/25		추석 연휴	
제5강	10/2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포로, 벌거벗은 생명
제6강	10/9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파주·동두천 기지촌 경관 현장조사 현장사진연구소 특강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연구소장	
제7강	10/16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철원 수복 지역
제8강	10/23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철조망과 철책
제9강	10/30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초소와 전망대
제10강	11/6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략촌
제11강	11/13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지촌
제12강	11/20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리, 철도, 도로
제13강	11/27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개성공단
제14강	12/4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밀보고서 아이디어 발표
제15강	12/11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진전 준비

강의 내용	
1강	수업목표, 수업 내용, 답사·사진전 프로그램, 과제물, 참고문헌 등을 소개함.
2강	첫째, 냉전경관 연구의 맥락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봄. 둘째, 한반도의 남과 북을 가르는 국경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학습하고 그것이 갖는 느슨하고 불안전하며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경계적 성격에 대해 논의함. 셋째, 국경·휴전선·서해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함. 넷째, 수복지구와 접경지역을 소개하고 이들의 불확실한 지리적 정체성에 대해 토의함. 다섯째,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짧은 시간 동안 사회적·문화적 균열을 만들었으나, 단군신화와 같은 동의 된 영역과 개성공단이나 이북 출신자들처럼 중간적인 존재들도 함께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논의함. 여섯째,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분단' 개념을 '분경'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토론함.
3강	첫째, 판문점을 도끼 사건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고 건축을 통해 이념·체제의 우월성을 경쟁하는 냉전과 분단의 아이콘이자, 한편에서는 반공적 근대화와 전통적 민족주의가 교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냉전과 탈냉전이 교차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정의함. 둘째, 대중가요와 소설에서 판문점이 재현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함. 셋째, 남한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을 촬영한 구와바라

	시세이의 사진들을 통해 남쪽의 분방함과 북쪽의 경직성을 읽어냄으로써 분단과 경계의 의미에 대해 논의함. 넷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기조가 판문점을 분단과 냉전의 아이콘에서 평화와 탈냉전의 아이콘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토론함.
5강	첫째, 제네바 협약 전후 변경된 포로의 개념, 한국전쟁에서 포로가 의제화되는 과정을 학습함. 둘째, 한국전쟁 포로들을 '이념전의 희생양'으로 묘사하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와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탐색함(예: 인권적 관점). 셋째, 민간인 희생자와 달리 적법한 구속에 처해 있으나 범죄자와 달리 적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정당화되는 포로의 이중적 위치와 그 의미를 토론함. 넷째, 한국전쟁 포로들과 포로수용소를 찍은 미군 사진부대의 사진들을 비평하고, 남한과 북한이 아닌 제3국을 선택한 포로들의 전후 생애에 대해 논의함.
6강	첫째, 파주 현장사진연구소에서 파주 기지촌의 역사와 사진에 대한 이용남 연구소장의 특강을 들음. 둘째, 현장사진연구소의 안내를 받아 파주 용주골의 세 구역(백인구역, 한인구역, 흑인구역), 캠프하우즈의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여 각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단과 분경에 관련된 사진들을 촬영함. 셋째, 동두천 기지촌에 대한 담당 교수자(정근식 교수)와 동두천 두레방 활동가 Joyce Kim의 설명을 듣고, 현재 외국인 관광 특구 및 '공방거리'로 탈바꿈되고 있는 보산역 일대의 상점가와 시장을 답사하면서 분단과 분경에 관련된 사진들을 촬영함.
7강	첫째, 폐허의 이중적 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론함: 전쟁·탄압·공포의 상징이면서 허무·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점, 문명의 붕괴처럼 보이지만 폐허 속에서도 생명은 계속된다는 점, 쇠락과 죽음을 의미하는 한편 창조적 자원이 되어 예술의 소재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도 한다는 점. 둘째, 철원 안보관광의 사례를 중심으로 폐허가 파괴된 공간이면서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빈 공간'이면서 '충만한 공간'이라는 역설에 대해 논의함. 셋째, 한국전쟁 이후 수습되지 못하고 남겨진 유해들을 '인간 폐허'라는 공간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군 유해발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함. 넷째, 폐허에서 관광지로 탈바꿈한 대만 금문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해 5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
8강	첫째,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가 형성되고 해체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민족국가와 국경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함. 둘째, 종래의 민족국가/국경론과 달리 냉전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생긴 경계를 '분경'으로 개념화하는 새로운 논의의 타당성을 토론함. 셋째, 군사분계선과 철책과 초소가 형성되는 과정을 사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이라는 정치적 시각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함. 넷째, 냉전·분경 경관의 일부인 철책과 초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일상적인 시각적·촉각적 매체로서 불편함과 익숙함의 감정들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문화사회학적 연구 대상임을 파악함.
9강	첫째, 초소와 전망대는 타자를 바라보는 공간이자 반대로 바라보이기도 하는 대칭적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 둘째,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초소는 군사적 시선을, 전망대는 시민적 시선을 견지한다는 차이를 확인. 셋째, 탈분단 시대 전망대/관광의 의미가 '통일전망대/안보관광'에서 '평화전망대 /평화관광'으로 변화해 왔음을 확인. 이와 유사하게 초소 역시 평화의 제스처로 사용될 때 매우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 넷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세 종류로서 감시, 응시, 주시가 갖는 특징들에 대해 논의함.
10강	첫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의 '전략촌' 민북마을이 조성되는 과정과 그것의 군사적 의미를 살펴봄. 둘째, 민북마을을 분석하는 관점으로서 근대적 전략촌 일반의 특징인

	하이 모더니즘과 한반도의 사회역사적 맥락인 분단·냉전을 채택함. 셋째, 전략촌은 자립 안전촌, 비무장지대촌, 실향민촌과 달리, 민간방위체제 구축, 북방 유희농지 개척, 대북 선전 시행, 주민 편의 도모라는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확인. 넷째, 군사화된 민북 마을 주민들의 삶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분단·냉전 경관과 탈냉전 이후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 논의함. 다섯째, 제주에 4.3 전략촌이 형성된 과정과 경계 짓기를 특징으로 하는 전략촌에서 경험되는 대표적인 사회심리인 '소외'와 '정신적 죽음'에 대해 논의함.
11강	첫째, 기지촌의 인구학적 특징을 확인함(여성과 3차산업 종사자 중심의 인구, 전국 읍지 평균치 이상의 인구밀도, 토착민의 수가 낮은 대신 미수복지 피난민과 이농 영세민의 수가 많음). 둘째, 의정부 '뺨발'에서 자란 수강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지촌에서의 삶에 대해 논의함. 셋째, 기지촌 소설들이 기지촌을 타락한 지역, 성애화된 식민지, 미국화/선진화된 지역, 삶의 공간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들을 스티그마, 피해자, 남성성 회복의 매개체, 서구화/미국화/선진화, 애국자, 어머니로 재현하고 있음을 분석함. 넷째, 이러한 기지촌 소설의 표상들이 탈식민 이론의 주장처럼 분단과 냉전의 식민지적 면모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지 토론함. 다섯째, 동두천 두레방 활동가들의 특강을 통해 기지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성매매 지원 프로그램,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 1994년 이후 변화하고 있는 기지촌 성산업의 양태, 기지촌의 이주여성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고 토의함.
12강	첫째, 짐멜이 <다리과 문>에서 주장하는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리되어야 한다'는 변증법의 의미에 대해 논의함. 둘째, 분단으로 인해 남한이 '섬'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남북한 역사에서 등장하는 한강인도교, 한강철교, 대동강철교, 돌아오지 않는 다리, 72간 다리, 경의선/경원선 철도중단점, 도보다리 회담 등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의의를 살펴봄. 셋째,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국경인 외레순 다리를 통해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계선과 전쟁 중 폭파된 한강철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함. 넷째, 군사분계선이 열린 문 같은 닫힌 문이고, 폭파된 한강철교가 건넌이 허락되지 않는 닫힌 다리라면, 짐멜의 이론체계는 남북 간 다리와 문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적 관점을 견지함.
13강	첫째, 개성공단의 설립 과정과 남북교역의 역사를 학습함. 둘째, 개성공단을 남북 협력의 상징적 공간이자,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험장이자, 통일의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의미에서 '평화 공간'으로 개념화함. 셋째, 개성공단 개발계획이 지속되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원인에 대해 논의함. 넷째, 통일에 대한 인식과 기존 정책에 미루어 볼 때, 최근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을 토론함. 다섯째, 최근 언론들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서로 다른 사실과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함.
14강	사진전 출품 사진들과 감상문을 공유·토론하고 사진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설치함.
15강	기말보고서 주제, 분석 관점, 분석 방법 및 현재까지 진행된 분석 내용을 간략히 발표하고 토론함.

㉞ 답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 일시: 2018년 10월 9일
- 장소 및 일정: 파주 용주골과 동두천 보산동을 아래 일정과 같이 답사

시간	내용	장소
08:15-08:30	집합	서울대학교 박물관
08:30-10:00	이동	
10:00-12:00	이용남 소장 특강 "분단생활"	파주 현장사진연구소
12:00-12:15	이동	
12:15-13:00	점심식사	암소식당(파주 월롱면)
13:00-13:15	이동	
13:15-14:15	용주골 일대 답사	파주읍 연풍리 일대
14:15-14:35	이동	
14:35-15:35	엄마품동산 답사	캠프하우즈문화공원
15:35-16:40	이동	
16:40-17:30	보산역 일대 답사	동두천 평화로 2539
17:30-18:00	양키시장 답사	동두천시 생연동
18:00-20:00	이동	
20:00-20:10	도착 및 해산	서울대학교 박물관

㉟ 사진전 프로그램 내용 및 일시

- 제목: 사진전 프로그램 "분경(分境) 경관을 걷다"
- 기간: 2018년 12월 4일 ~ 12월 20일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층 로비

진행 내용	
사진전	용주골과 보산동을 답사하면서 찍은 냉전·분단·분경 경관을 포착한 사진 두 장을 골라 그에 대한 상세한 감상을 적음으로써 분단·분경·통일·평화에 대해 깊이 사유해보고 그 결과를 전시함으로써 수업의 성과를 학내에 공유

④ 사업 성과

- 강의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사진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열의와 과제물을 참고할 때 소기의 목적 또한 달성

○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분경 경관을 다루는 문화사회학 문헌들과 최신 경계연구 문헌들을 소개·학습함으로써 통일과 평화에 관한 관심을 유도함

○ 답사 프로그램과 사진전 프로그램을 통해 냉전·분단·분경 경관을 직접 체험하고, 남북분단으로 인한 공간과 삶의 변화 및 사회적 갈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의식을 재고할 기회를 제공함

⑤ 증빙 자료

[첨부1] 강의현장 사진 및 기타자료

 <p>사진 1. 10월 2일 학생 발표</p>	 <p>사진 2. 10월 2일 강의 및 토론</p>
 <p>사진 3. 10월 9일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장 특강 '분단생활'</p>	 <p>사진 4. 10월 9일 이용남 연구소장 특강 기념</p>

 <p>사진 5. 10월 9일 파주 용주골 답사</p>	 <p>사진 6. 10월 9일 파주 엄마품동산 답사</p>
 <p>사진 8. 10월 9일 답사 기념 현수막(엄마품동산에 게시된 모습)</p>	 <p>사진 10. 10월 9일 동두천 보산동 답사 기념</p>
 <p>사진 11. 11월 13일 두레방 활동가 특강(1)</p>	 <p>사진 13. 사진전 전경(1) 건물 안에서 바라본 모습</p>
 <p>사진 14. 사진전 전경(2) 건물 밖에서 바라본 모습</p>	 <p>사진 15. 사진전 개최 기념사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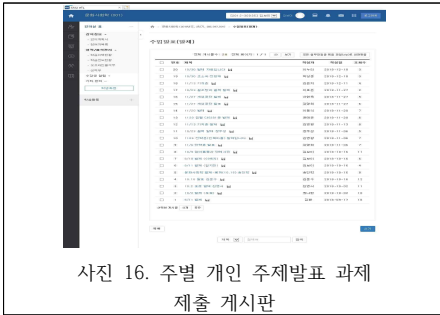


사진 16. 주별 개인 주제 발표 과제 제출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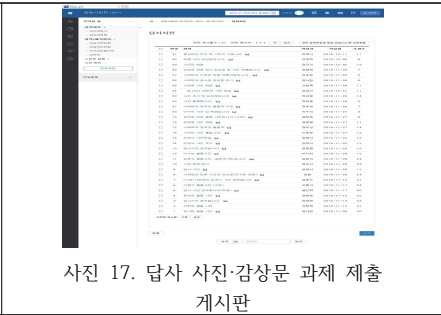


사진 17. 답사 사진·감상문 과제 제출 게시판

[첨부 2] 강의평가 자료

아래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강의에 만족하였으며, 특강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정량평가

평가항목	평균(5점 만점)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21
강의 준비와 강의 내용이 충실하였다	3.86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4.21

㉡ 정성평가

□ 질문: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적어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경관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었다. - 수업 진행과 참여가 자유로워 좋았고 교수님께 받는 코멘트도 값졌다. - 발표 주제에 대한 코멘트를 받으면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다. - 보통 사회학 강의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답사나 사진전이 신선했다. - 지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이 구성되어 좋았다. -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프로그램 - 자유로운 분위기의 발표·토론 수업이 좋았다. - 강의형 수업과 달리 토론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이 좋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공부한 내용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주제도 흥미로웠고 발제에 대한 교수님의 코멘트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 교수님께서 생각할 거리를 계속 던져주셔서 시각을 달리해볼 수 있었다. - 분단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문제점, 해결방안을 생각할 수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사 프로그램 - 수업 내용이 생생하게 와 닿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도 향상되었다.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 좋았다. - 가볼 생각도 해보지 못했을 곳을 다녀온 것 자체가 큰 경험이었다. - 답사 장소와 테마가 좋았고 동행하신 분들도 좋았다. - 답사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 혼자 갔더라면 읽어내지 못했을 지점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 개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을 경험할 수 있었다. - 답사를 통해 새로운 곳을 방문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 백문이 불여일견을 실천한 교육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전 프로그램 - 다른 수업에서는 잘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라 흥미로웠다. - 덕분에 답사지에서 모든 공간을 새롭고 심도 있게 바라보려 노력했다. - 사진과 감상문을 통해 자유로운 생각을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어 좋았다. -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수업의 주제에 한층 가까이 다가간 것 같다.

3) 통일의료 (의과대 신희영 교수)

① 사업 목적

- 남북한 보건의료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통일 이후 보건의료 통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보건의료인의 통일보건의료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각계의 통일의료에 대한 의식을 배양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 전 학내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보건의료 인재인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교환학생, 이공계, 문과계, 어문학계의 학생들의 다각적인 참여로 통합적인 통일 보건의료 강좌형태로 폭 넓은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의예과 학생 및 타과 학생 총 47명
- 참가자 구성

연 번	성 명	소 속
③	JORDYN	아시아언어문명학부
④	김준기	동양사학과
⑤	김태원	동양사학과
⑥	홍동의	동양사학과
⑦	MARIA	경영학과
⑧	VERNARDO	경영학과
⑨	구본재	재료공학부
⑩	강수호	산업공학과
⑪	DANIEL	영어교육과
⑫	김성진	화학교육과

⑬	조유진	의예과
⑭	고병철	의예과
⑮	송영록	의예과
⑯	소재현	의예과
⑰	이소연	의예과
⑱	이우빈	의예과
⑲	정진형	의예과
⑳	조윤이	의예과
㉑	김창연	의예과
①	박은송	의예과
②	주태현	의예과
③	배정현	의예과
④	하정빈	의예과
⑤	김승빈	의예과
⑥	김성진	의예과
⑦	윤한나	의예과
⑧	강영훈	의예과
⑨	오찬영	의예과

⑪	최종윤	의예과
⑫	손주희	의예과
⑬	신정현	의예과
⑭	윤승현	의예과
⑮	조민호	의예과
⑯	신정민	의예과
⑰	우한결	의예과
⑱	정진서	의예과
⑲	황성용	의예과
⑳	박유진	의예과
㉑	박세희	의예과
①	민세라	의예과
②	공소영	의예과
③	이예은	치의학과
④	김용승	치의학과
⑤	이세민	치의학과
⑥	길준홍	치의학과
⑦	이주현	치의학과

⑨	박세희	보건대학원
---	-----	-------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의예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2학점(S/U)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신희영(의예과 교수)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수요일(10:00~11:50)

-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24동 214호

- 강의방식 : 강의전달식(특강포함), 그룹별 발표 및 토론, 영상시청, 자기주도형 과제(레포트)

주차	일 자	내 용	제 출
1	9/5 (수)	통일과 보건의료: 통일보건의료 사업 소개 - 서울대학교병원 통일 보건의료 사업 및 <통일의료> 소개 - 안성 하나원 현장견학 관련 논의	강의자료
2	9/12 (수)	국제기구 데이터를 통해 보는 북한 보건의료 지표 - 북한 보건의료백서 및 통일의료 교과서의 관련 내용 소개	강의자료
3	9/19 (수)	북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 무상의료제, 예방의학제, 호담당 의사 개념 및 사진 (발표) 주요지표를 통해 보는 북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안	강의자료, 발표자료
4	9/26 (수)	북한 보건의료 조직체계 - 인민병원, 도급병원, 중양급병원 개념 및 사진	강의자료
5	10/3 (수)	국내 대북 보건의료지원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데이터 소개 -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보건의료지원 현황 - 국내 대북보건의료지원의 의의와 한계 및 발전방향	강의자료, 레포트
6	10/10 (수)	북한의 흔한 질병: 결핵 (발표) 국내 대북 보건의료지원 현황 및 추진 전략	강의자료, 발표자료
7	10/17 (수)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 OECD IDS, UNOCHA FTS 데이터활용 방법 안내 -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의의와 한계 및 평가 -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이해원 전문의 특강 (발표)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현황 및 추진 전략	강의자료, 발표자료
8	10/24	중간고사	시험지

	(수)		사본
9	10/31 (수)	현장견학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아동 지원기관인 안성 하나원 방문	견학 결과보고
10	11/7 (수)	대북 백신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 대북 영유아 건강 및 모자보건 담당의 주요 기관 소개 - WHO, UNICEF, UNFPA 사업 분석 (발표) 북한의 흔한 질병 '결핵' 현황 및 시사점	강의자료, 발표자료
11	11/14 (수)	북한의 흔한 질병: 기생충과 말라리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최민호 교수 특강 (발표) 북한의 흔한 질병 '말라리아/기생충' 현황 및 시사점	강의자료, 발표자료
12	11/21 (수)	통일대비 의학교육 표준화 및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 - 남북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정 비교 - 합리적인 인력 통합방안에 관한 논의 (발표) 북한의 고려의학과 남한의 양한방의학 비교 분석	강의자료, 발표자료
13	11/28 (수)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R&D (발표) 주요 체제전환국 보건의료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강의자료, 발표자료
14	12/5 (수)	효과적인 대북 보건복지지원을 위한 계획 (발표)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 및 합리적인 통합 방안	강의자료, 발표자료
15	12/12 (수)	기말고사	시험지 사본

* 강의는 의과대 신희영 교수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므로 강사명 및 소속은 생략함

④ 사업 성과

○ 외국인 맞춤 통일의료 강의 커리큘럼 개발 및 보완

- 북한자료센터의 문헌 연구 및 워크숍을 통해 강의 담당 교수 및 전문가 초빙, 수업 진행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커리큘럼 논의 및 강의에 참고할만한 북한 보건 의료 실태 관련 영상자료 수집·최근 북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 및 사업 관련 자료 조사·북한 감염성 및 비감염성질환의 국제기구 데이터 및 지표 취합·안성 하나원 현장견학을 위한 일정 타진을 통해 한국인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던 기존 커리큘럼을 수정하고 국제사회의 범용성 있는 데이터를 보다 널리 활용하여 커리큘럼 보완

○ 연구개발 과정을 통한 최신 북한 보건의료 실태 파악 가능

- 2017년 개소한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대학의 교육현황을 공유함에 따라, 북한 의학교육 및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가능해졌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교육 특수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공유를 통해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의 교육 실태 파악 및 남북한 의료인력 양성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추후 커리큘럼에 반영하게 됨
- 온성군 지역의 의료시설명, 개수, 의료시설 및 설비 현황 및 탄광병원과 산업병원,

산업진료소 및 일반 병원과 진료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을 통해 함경북도 온성군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대북 보건의료지원 시 고려할 사항의 우선순위 도출

○ '통일의료'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함양과 강의 방향성 제시

- 의예과 학생 및 서울대학교 국내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예비 보건의료인과 일반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의학도를 벗어난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등의 소속 학생들을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전교생 대상, 의료분야 종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통일의료 전문 인력으로서의 성장 기회 제공 및 영어강의로 진행됨에 따라 남북한 분단의 현실과 보건의료 격차를 외국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통일의료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 현장 사진 및 시각 자료



신희영 교수님 강의



신희영 교수님 학생 발표 지도



서울의료원 이해원 과장 특강



안성 하나원 방문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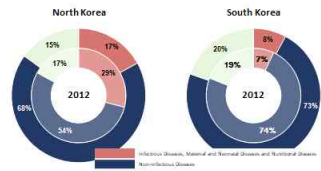
최민호 교수 특강



안성 하나원 방문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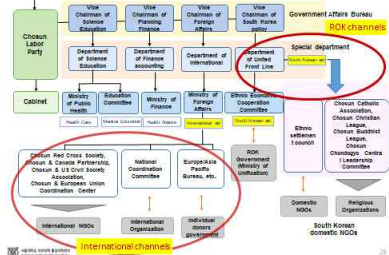
[첨부 2] 강의 자료

Comparison of YLL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012)



- Increase in disease burden caused by non-infectious diseases in North Korea: 54% (2000) → 68% (2012)
- Still higher infectious disease burden compared to South Korea: DPRK 17% vs. ROK 1% (2012)

North Korean Party and Health Organization



강의자료 5주 (국내 대북 보건의료지원 자료)

Healthcare Reforms in Russia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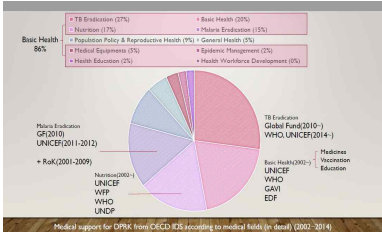
- 1991, first law on medical insurance adopted
- Creation of a FOMS, and territorial funds in each of Russia's constituent regions

Intentions of OMS system

- promote efficiency and patient choice(purchaser provider split)
- facilitate the restructure of care
- supplement budget revenues and help to maintain adequate levels of healthcare funding

FAILED

강의자료 2주 (남북한 보건의료 지표 비교 자료)



3주 학생 발표자료 (국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현황)



10 Days in North Korea, Inside the most isolated country in the world

7주 학생 발표자료 (체제 전환국 보건의료 정책)



An American Doctor's Fight To Cure TB in North Korea

레포트 영상자료 (10 Days in North Korea, Inside the most isolated country in the world)

레포트 영상자료 (An American Doctor's Fight to Cure TB in North Korea)

[첨부 3] 현장 견학 결과 보고서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워크숍 결과 보고서

- 일시: 2018년 6월 20-21일(1박2일)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층 출퇴근
- 인원: 심희경 소장님 외 6명 (심희경 소장, 안경수 안현은 전직은 최소정 김혜영, John Park)

- 목적: 통일의학센터는 2016년부터 서울대학교 전 학내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통일 보건의료 강좌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음. 2018년 4월 27일 방문 견학 이후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어 시기상응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재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됨. 또한, 2018년 2학기에 열린 '통일의료'는 영어강화로 진행될 예정으로 외국 학생 예정자를 고려한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대북지원의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깝게 하길, 따라서 워크숍을 통해 커리큘럼을 업데이트 하고, 관련 불분명, 특강과 영상강좌를 검토하여 2학기 수업을 준비하고자 함.

일정

일시	시간	일정	비고
8월20일 (수)	09:00-10:00	호암교수회관 모임	간단한 식사 후 모임
	10:00-12:00	2018년 통일의료, 커리큘럼 계획	정실
	12:00-13:30	정식	
	13:30-16:30	북한 이철주인 인터뷰 (한경북도 순성군 북한의료실터)	
	15:30-16:00	축식	
8월21일 (목)	16:00-18:00	남북 의료인력 양성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의학교육 비교	안경수 연구원
	18:00-18:00	평양과학기술대학(UST)의 의학교육 실터	John Park
	18:00-20:00	저녁	
	20:00-22:00	북한 보건의료 최근 영상자료 검토	
	08:00-10:00	초식 및 초식	
8월21일 (목)	10:00-12:00	북한자르첼러 자르수업	정실
	12:00-13:00	정식	

워크숍 결과보고



2018. 11. 1.

의 과 대 학
[통 일 의 학 선 터]

하나원 견학 결과보고

[첨부 4] 수업과제(Issues in Health Policy for Unification Assignment) 국/영문 일부

<p>Bernardo Jesus 2018-82850 Issues in Health Policy for Unification Assignment 1</p> <p>"Throughout the videos it is possible to get to know, more deeply, the North Korea radical political regime and the opprobrious medical situation."</p> <p>"The first video - 10 Days in North Korea inside the most isolated country in the world - illustrate how the Socialist regime has been working for 70 years, at the expense of the isolated and subjugated citizens. People are totally controlled and live under the illusion that they are protected from the outside world, which is unstable, cruel and greedy. North Korea is a highly military country, where 15% of the GDP is spent in military."</p> <p>"The media which is entirely controlled by the state focuses totally in the country's economy and in propaganda of the leaders. The biggest share of North Korea GDP is from Industry and Mining, followed by service sectors and finally agriculture, which isn't enough to meet the populations' needs. Thus, North Korea has to rely on international help besides having the reputation of not paying its debts."</p> <p>"The country has one ideology that every citizen must follow. Every interview, reported in the video is previously validated by the state agents. Every collected feedback from the citizens is positive, although some people don't seem to be honest, especially the young generation."</p> <p>"Furthermore, Alejandro Cao de Benó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said that the people who are interviewed don't understand the westerns mind-set and supposedly don't understand why people ask about their satisfaction about the regime. People have very limited knowledge, since they only know about their district or neighbourhood. As he said, "people are convinced that this is the best because they don't know anything else"."</p> <p>"Moving forward, the video An American doctor's fight to cure TB in North Korea, exposes a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MDRT-TB) which is a problematic health</p>

외국인 학생의 영문 과제

<p>기원과 슬픈 우주, 북한.</p> <p>의예과 2017-11649 송영복</p> <p>"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같은 모습, 같은 언어,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 우리와 달라요 너무 다른 그 곳을 누군가는 '우주'라고 표현한다. 그 곳에 갈 때는 우주를 갈 때와 같은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한 학기 동안 북한학개론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기 전, 나는 한 학기 후에는 내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훨씬 가깝게 느낄 것이라 생각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북한을 멀게 느끼는 이유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를 이수한 후 나는 마치 우주에 대해 공부하는 천문학과와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알면 알수록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곳은 정말 지구 밖 '우주' 같았다."</p> <p>"내가 느낀 북한의 가장 큰 특징은 '허상'이었다. 모든 국민이 온 생애에 걸쳐 마치 최면에 빠진 듯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숭배하며 자신들의 삶은 축복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은 <u>어둠</u>이다. 기본적인 인간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 곳이 바로 북한이다. 하지만 북한 고위층은 그러한 실태를 절대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들은 '허상'에 집착한다. 그들에게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행복하며 물질적인 삶을 향유하는 유토피아, 그 곳은 바로 '북한'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이지 않게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 마른 부위를 감추고 가리면 그 속은 끝</p>
--

의예과 학생의 국문 과제

[첨부 5] 강의 평가 결과

㉠ 정량 평가

연번	문항	평균(6점 만점)
1	수강하신 통일의료는 과목을 신청하기 전에 과목 명이나 강의 계획서를 보고 가졌던 관심 혹은 기대했던 바와 부합하였습니까?	4.87
2	통일의료의 학습목표는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29
3	통일의료의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되었습니까?	5.02
4	수강하신 통일의료의 내용은 수강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00
5	수강하신 선택교과4는 강의계획서에서 공지된 대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64
6	수강한 통일의료에서는 다음 중 어떤 교수법(들)이 활용되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 강의: 43명 (95.56%) • 토론: 4명 (8.89%) • 소그룹(TBL 등): 21명 (46.67%) • 공학기자재사용(clicker 등): 1명 (2.22%)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강의: 8명 (17.78%) • 기타(): 14명 (31.11%)	-
7	수강한 선택교과에서 활용된 교수법(들)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88
8	통일의료가 수행되었던 교육 환경(물리적 환경 즉, 교실, 시설, 장치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23
9	수강하신 통일의료는 의학에 관한 흥미를 키우고 동기유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95

연번	문항	평균(6점 만점)
10	통일의료에서 다양한 교육방법 시행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습니까?	4.74
11	통일의료의 전반적인 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52
12	수강하신 통일의료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14
13	수강하신 선택교과4의 교육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습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4.90

㉡ 정성 평가

과목명	학생 의견
통일의료 Issues in Health Policy for Un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탐방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의도 현재 북한의 상황을 잘 요약해서 알려줘 흥미롭고 강의 목표와 잘 맞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조별과제를 좀 더 잘 준비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 통일의료와 관련하여 학우들과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 국문 PPT가 있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PPT외에 다른 시각자료(다큐, 영상 등)를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 의학적 지식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계속 영어로 해주세요. •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통일의료에 대해 그 현장에서의 연구와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강의 재밌게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겪은 일과 통일의료에 대한 생각을 말 해주시는게 제일 유익하고 흥미로웠다고 느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 이번 수업을 통해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을 통해 멀게만 느껴지던 북한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근거리에서 평가해보게 되었습니다. • 큰 기대 가지고 수강신청했는데, 한 학기 동안 그에 부합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서 앞으로도 공부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재미있었고, 유익했습니다. • 현황과 지표를 명료히 제시하는 전반부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하는 후반부로 나누어 이론습득과 활용시도라는 체계적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 하나원 field trip 너무 좋았습니다. • More discussions and application of the materials learned. • I was really welcomed in this course. It was a pleasure to be part of this team and very interesting to learn about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 Keep working towards the unification. • I really enjoyed this course. I have learned a lot and the teacher is very good.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take this class and this class is very important for foreign students, like me, to understand one importance of the health policies for unification. • The professor and the teacher's assistants were very kind, so I felt comfortable in this course. The content was stimulating, but not too overwhelming, so I was able to learn a lot.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me and I'll always stay interested in 통일 and North Korea.

4) 남북한 보건의료 R&D(의과대 신희영 교수)

① 사업 목적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실천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공유의 장으로 관련 학술정보를 예비 보건의료 인력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다각적인 통일 보건의료 학문 교류와 통일의료에 관한 의식을 배양
- 예비의료인으로 거듭날 서울대학교 의학과 본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R&D' 선택강의 개설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체계와 대북 보건의료지원, 남북 보건의료 통합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여 폭넓은 시각을 형성
- 통일의료 강의를 통한 기초 지식 함량을 통해 이후 본과 4학년 대상 '통일의학연구' 전공과목의 선택을 독려하여 전문 의료인의 토대를 다진 학생들에게 통일의학연구 주제를 제시하여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서의 성장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의학과 본과 2학년 총 11명
- 참가자 구성

연 번	성 명	소 속
1	강건주	서울대학교 의학과
2	김남백	서울대학교 의학과
3	김도연	서울대학교 의학과
4	김동현	서울대학교 의학과
5	김태훈	서울대학교 의학과
6	변정현	서울대학교 의학과
7	이주영	서울대학교 의학과
8	전수현	서울대학교 의학과
9	정성혜	서울대학교 의학과
10	최병헌	서울대학교 의학과
11	한희원	서울대학교 의학과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의예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0.5학점(S/U)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신희영(의예과 교수)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2018학년도 2학기 4주당 1회 강의(4시간, 총 16시간)
 - * 교육과정 개편으로 신설된 '선택과목'은 서울대학교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개설되었고, 본 개설에 통일교육 주제를 과목개설 신청하여 수업이 진행됨. 의과대학 과목특성상 수업기간이 짧으나, 서울대학교 의학과 본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과목은 처음으로 개설 운영
 - 장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GDR
 - 강의방식 : 강의, 토론, 영상시청, 발표

일자	세부 주제 및 강의 내용	제출
1주 (7월31일)	통일의학센터 조직 및 추진사업 소개 1. 통일医료를 이해한다. 2. 통일의학센터 조직과 사업을 확인한다. : 열린강좌, 통일보건의료 아카데미, 의학연구, 연변대학 의료인력사업,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체결 노력 등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기획 1. 서울의대-서울대어린이병원-어린이어깨동무의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알아본다. 2. 제3국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R&D 사례를 확인한다. 3. 남북한 보건의료 R&D의 개념을 이해한다. 4. 북한 학술문헌 분석을 통한 인수공통질병, 천연물신약 기술동향 R&D 가능성을 검토한다. 5. 조 및 팀원 정하기(제비뽑기)	강의자료
2주 (8월7일)	남북한 교류증대에 대비한 감염병 대책 1. Health Security, MERS와 Health Security, 남한 감염병 발생 현황, 남북한 감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필요, 구 동.서독 감염병 대응 사례(법제) 2. 남북한 보건의료 R&D 시행을 위해 사전에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지 토론해 본다. 남북한 보건의료 R&D 사례1 1. 북한과 교류·협력이 활발했던 시기(2000년대) 북한과 실제로 사	강의자료

	<p>업을 수행했던 사업을 확인한다.(북한 조선컴퓨터와 뇌혈관 지표진단기 개발, 초음파 진단기 S/W 개발 및 시범사업 사례)</p> <p>남북한 보건의료 R&D mind map 1</p> <p>1.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추후 남북한 교류 시 가능한 R&D 주제나 이슈를 생각해 본다.</p> <p>2. Mind mapping을 통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한다.</p>	
3주 (8월14일)	<p>북한의 관심 분야(천연물 의약품) 및 질병 현황 파악</p> <p>1. 북한의 천연물을 활용한 질병치료 동향 살펴본다.(20분)</p> <p>2. 북한 결핵 실태 영상(유진벨재단 out of breath 30분)</p>	강의자료, 영상 (비공개)
	<p>남북한 보건의료 R&D 사례2</p> <p>1. 북한 천연물을 활용한 결핵균 증식 억제 작용 연구결과를 알아본다.</p> <p>남북한 보건의료 R&D mind map 2 (mind map 1에 했던 작업을 이어서 시행)</p> <p>1.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추후 남북한 교류 시 가능한 R&D 주제나 이슈를 생각해 본다.</p> <p>2. Mind mapping을 통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한다.</p>	
4주 (8월21일)	<p>남북한 보건의료 R&D mind map 발표</p> <p>1. 최종 아이디어를 조별로 발표한다.(팀별 10분씩)</p> <p>2. 공유된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p>	강 의 자 료 , 리포트, 발 표자료
	<p>탈북의료인의 북한 보건의료 현황강의</p> <p>1. 남한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의료인에게 직접 북한 현실을 물어본다.</p> <p>2. 남북한 교류 협력을 앞두고 의료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 해 본다.</p>	
	<p>Reflection Report 제출</p> <p>1. 남북한 보건의료 R&D 수업종료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보고서를 제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수업 내용이 기존 지식 혹은 경험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 - 앞으로 추가로 학습(또는 연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문은 무엇인가? 	

※ 강의는 의과대 신희영 교수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므로 강사명 및 소속은 생략함

④ 사업 성과

- ‘남북한 보건의료 R&D’ 강의 커리큘럼 개발
 - 최근까지 북한과 보건의료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 사례조사 완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 R&D 시행 시 전문가들의 추후 전망 의견을 수렴하고 북한 보건의료 현황 수업 영상자료 조사 및 수집완료

- 예비 의료인들에게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전문지식 전달 및 다학제적 남북한 보건의료 R&D 시각 형성
 -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대하고 대북 보건의료 지원 및 교류 방향에 대한 전문지식 형성을 통해 남북한 보건의료 R&D 아이디어 도출
- 강좌 이후 적극적인 남북한 보건의료 연구 참여 의지 증가
 - 수강 학생 중 남북한 보건의료 이슈에 더욱 관심이 생겨 통일의학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 의지를 밝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 수행 계획 중에 있음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 현장 사진 및 기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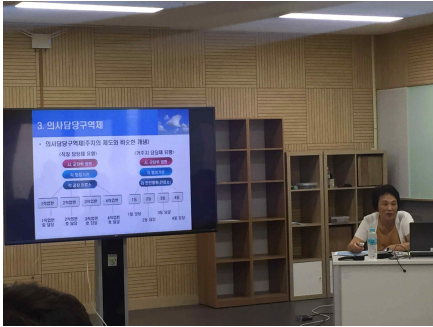
신희영 교수님 강의



신희영 교수님 그룹토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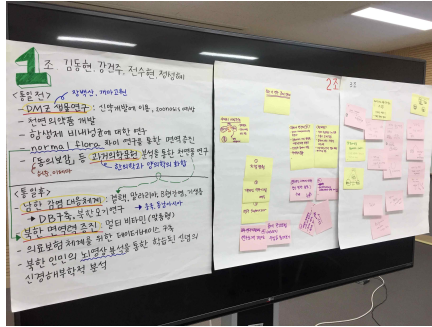


한국지질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장용 고문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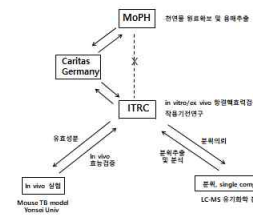
최희란 탈북의사 강의

국제결핵연구소 엄석용 부장 강의



조별 발표

남북한 공동연구 진행 과정



강의자료 3주
(천연물이용 결핵치료제 개발 남북 공동연구 결과)

5. 북한병원의 현황



강의자료 4주
(북한의 보건 의료 현황)

[첨부 2] 강의 자료



강의자료 1주
(연변대학 부속병원을 통한 북한 의료인 연수사업)



강의자료 1주
(평양의학대학 의료인력 현지교육 과정 모습)



강의자료 2주
(단계별 대북의료지원 로드맵)



강의자료 3주
유진벨재단 out of breath 영상 시청

[첨부 3] 수업 과제 요약

- 한반도의 미래를 중요하게 고찰
 - 일상 속에서 북한, 통일 이라는 단어가 생소 했었는데, 수업을 통해 의학을 배우느라 세상을 바라본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됨
 - 북한이 연구의 보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생각의 전환이 됨
 - 통일은 막연히 남북한이 서로 왕래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통일 이후 20년간 질병관리를 위한 상호 이주 금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생김
 -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들에 의료도 함께 발 맞춰 통일을 준비해야 함
 -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통일했기 때문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음에도 '통일했기 때문에 실패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 제3자가 보기에는 왜 통일이라는 옳은 길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음
- 북한의 보건 의료 현황을 명확히 파악 가능
 - 북한이 단지 의료체계가 열악하고, 의료기기나 약품이 부족하다는 단점 이외에 고립된 정치, 경제, 개발도상국형 감염병이 많은 특수한 환경, 자연의 다양한 의료 지원 등 연구 측면에서는 매우 특이적인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북한 질병 발병 자료나 다큐멘터리는 북한이 공개한 자료가 잘 없고, 그마저도 왜곡된 지표들이 많았는데, 수업을 통해 검증된 자료로 학생의 지적 갈등을 해소함
 - 북한 의학연구 학술지에 김정일, 김정은의 어록에서 연구의 동기를 찾아 시행한 점을 보며 생소했으며,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봄
- 북한의 장점을 활용한 통일대비 교류방안 마련 필요
 - 북한의 주치의 제도는 남한에 없는 의료전달체제로 예방의학적인 북한의 제도를 참고가 필요
 - 북한과 교류하거나 통일이 되면 남한은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입장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수업이후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고 알리는데 힘써줬다는 깨달음을 얻음
 - 단순히 북한에게 '지원 한다(비용을 지불해 준다).'는 개념이 아닌 '남북한 공동연구에 따라 북한 측에 로열티를 지불한다'식의 접근방법이 유효한 전략이라는 생각을 가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이 흔들리는 남북 관계로 인해 연구 진행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

길 수 있으니, 제도적 정립이 필요

- 북한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 의지 고취
 - 북한 해외원조 방식에 대한 학습 요구 고취
 - 한국정부에서 북한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얼마만큼의 투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제기
 - 천연물을 활용한 말라리아 신약 개발을 통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중국의 투유유(Tu You you)의 관련 논문을 찾아 추가적으로 수학하고자 함
 - 통일의료 예과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업을 들었을 때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조별 활동을 통해 '20년 뒤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에 관해 토론을 한 이후 의료보험제도, 의료급여, 국민연금 해결을 위해 남북한 의료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 탈북의료인을 통한 이해와 공감이가 커짐
 - 탈북 의료인과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말도 잘 통하고 언어가 같으니 소통과 이해가 훨씬 쉬웠음
- 북한에서 활동하신 의료봉사분의 강의 추가 요청

[첨부 4] 강의 평가 결과

㉠ 정량 평가

연번	문항	평균(6점 만점)
1	수강하신 선택교과4는 과목을 신청하기 전에 과목 명이나 강의 계획서를 보고 가졌던 관심 혹은 기대했던 바와 부합하였습니까?	4.67
2	선택교과4의 학습목표는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33
3	선택교과4의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되었습니까?	5.00
4	선택교과4에서 강의계획서를 통해 공지된 평가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3
5	수강하신 선택교과4의 내용은 수강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00
6	수강하신 선택교과4는 강의계획서에서 공지된 대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33
7	수강하신 선택교과4는 강의계획서에서 공지된 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담당 교수님께서 미리 공지하였습니까?	5.50
8	수강하신 선택교과4의 수업 종료 시간은 대체로 언제였습니까? (① 4시 이전 ② 4:00 ~ 4:30 ③ 4:30 ~ 5:00 ④ 5:00 ~ 5:30)	2번
9	수강한 선택교과에서는 다음 중 어떤 교수법(들)이 활용되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105명(77.21%) • 토론: 84명(61.76%) • 소그룹(TBL 등): 96명(70.59%) • 공학기자재사용(clicker 등): 11명(8.09%)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강의: 11명(8.09%) • 기타(): 27명(19.85%) 	

연번	문항	평균(6점 만점)
10	수강한 선택교과에서 활용된 교수법(들)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33
11	선택교과4가 수행되었던 교육 환경(물리적 환경 즉, 교실, 시설, 장치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67
12	수강하신 선택교과4는 지식전달 중심 수업을 지양하고 사고과정이나 추론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까?	5.00
13	수강하신 선택교과4는 일방향 강의가 아닌 학생 참여위주의 수업을 지향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00
14	수강하신 선택교과4의 평가(시험, 보고서, 발표 등)를 대비한 수업 시간 외의 부담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시간
15	수강하신 선택교과4는 의학에 관한 흥미를 키우고 동기유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33
16	선택교과4에서 다양한 교육방법 시행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습니까?	5.00
17	선택교과4의 전반적인 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00
18	수강하신 선택교과4에서 배운 내용은 선택교과 외 과목(또는 수업)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00
19	수강하신 선택교과4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00
20	수강하신 선택교과4의 교육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습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33

㉡ 정성 평가

(1) 앞으로 진행될 선택교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과목명	학생 의견
남북한 보건의료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고찰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해당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통찰로 신희영 교수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5) 북한지역연구특강(사회대 박수진 교수, 허정화 강사)

① 사업 목적

-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2017학년도 2학기 해당 과제(“북한지역연구특강” 수업 운영 시 북한과 직접 교류가 있었던 실무 전문가, 새터민, 외부 연구진을 초빙한 특강에 대한 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외부강사 초빙에 대한 지원 지속 진행
- 국내 전문가를 초빙하여 2017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관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초빙 진행하고 주요 전문가 초빙 후보 기관으로부터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 및 확대
- 답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경비구역 또는 비무장지대 답사를 진행하고 남북정세에 따라 북한 관광이 허용되는 경우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진행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학부 학생 및 대학원 청강생 총 56명
- 참가자 구성

㉠ 강좌 프로그램 총 56명

연 번	이 름	전공
1	김기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	금창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3	정재선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	변윤섭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5	이정상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6	오문현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7	이민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8	신우택	자유전공학부
9	최정용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10	전정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1	전찬익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연 번	이 름	전공
12	임태용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3	김병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14	이한섭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15	배종우	인문대학 언어학과
16	유동한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7	길홍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8	이현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	최예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	민경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1	송인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2	김서진	자유전공학부
23	고나영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4	이종호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5	박태영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6	배광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7	박병선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8	정혜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9	이종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30	심은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31	이소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2	이유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3	이진경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4	김예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5	송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6	윤승일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37	김도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8	이다영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39	송창후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0	황세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1	임승현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2	장희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3	안수혁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4	배정엽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연 번	이 름	전공
45	장채린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6	김수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7	오성훈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8	김정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9	이예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0	이석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1	강민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2	김준영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3	김하정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4	최기훈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청강생 석사과정)
55	길은비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청강생 석사과정)
56	강연주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청강생 석사과정)

㉞ 답사 프로그램 총 27명

연번	이름	전공
1	이정상	정치외교학부
2	김정민	지리학과
3	김서진	자유전공학부
4	김예원	지리학과
5	이종호	지리학과
6	최예원	영어영문학과
7	김도희	지리학과
8	최정용	고고미술사학과
9	이현주	지리학과
10	임태용	지리학과
11	김기준	지리학과
12	변윤섭	경제학부
13	배정엽	지리학과
14	길홍준	지리학과
15	유동한	지리학과
16	송준	지리학과
17	이예찬	지리학과

연번	이름	전공
18	임승현	지리학과
19	김수민	지리학과
20	김준영	지리학과
21	고나영	지리학과
22	이한섭	산림과학부
23	민경준	농경제사회학부
24	최인준	농경제사회학부
25	이소민	지리학과
26	이석준	지리학과
27	오성훈	지리학과

㉟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3학점 / S/U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박수진(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허정화(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담당 강사), 안유순(담당 강좌 조교 및 2, 3주차 담당강사 겸임) 외 5인

○ 강의 일자 및 내용

㊱ 강의 프로그램

- 기간 : 매주 금요일 14:00-16:00

- 장소 : 서울대학교 16동 214호

*18. 11. 23(금), 30(금)에는 16-1동 407호에서 진행

- 방식 : 강의 및 질의응답

주차	날짜	담당강사	소속	내용
----	----	------	----	----

1주	9/7	허정화 (담당교수)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강의소개
2주	9/14	안유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수료	북한의 자연환경(1)
3주	9/21			북한의 자연환경(2)
4주	9/28	홍승표	개성공업지구 과장	북한의 경제지리(1) : 개성공단의 설립과 운영
5주	10/5	조총희	북방연구회 연구위원	북한의 도시지리(1) : 북한의 주요 도시와 특징
6주	10/12			북한의 도시지리(2) : 북한의 도시화와 주민생활-평성군을 중심으로
7주	10/19	변상욱	개성공업지구 부장	북한의 경제지리(2) : 북한의 지역개발-개성공단 등
8주	10/26	자율학습		
9주	11/2	허정화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접경지 답사(철원, 연천 일대) * 종일 진행, DMZ일원 등에 대한 답사 진행
10주	11/9	남종우	통일부 북한인권과장	북한의 정치지리
11주	11/16	휴 강		
12주	11/23	김형석	대진대 교수 前통일부차관	북한의 정치외교(1) : 북한 변화의 동인과 전망
13주	11/30			북한의 정치외교(2) : 북한의 잠재적 가치와 한반도의 미래
14주	12/7	조총희	북방연구회 연구위원	북한의 사회지리- 북한의 문화와 주민생활

구분	강의 내용
주차	매 시간 강의를 청취, 이에 대한 담당 강사와의 또는 수강생간의 논의 진행 - 중간평가 : 답사 참여 또는 답사참여대체과제 제출 - 최종평가 : 강의 전체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주차별 상세 강의 내용은 증빙 자료에 첨부된 PPT 파일 참조

㉞ 답사 프로그램

- 기간 : 2018년 11월 2일(금) 9:00 ~ 18:00
- 장소 :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접경일원(현장탐방)

시 간	장 소	세부내용	비 고
09 : 00	서울대	집결/인원점검	전용버스
09:00~11:30	이 동	서울대→고속도→승리전망대	서울-포천-철원
11:30~12:20	승 리 전망대	-민통선 출입 -11개전망대중 정중앙 전망대 -북한 DMZ 향해 사진촬영	육군보병15사단
12:20~12:40	이 동	승리전망대→안중식당	

12:40~13:30	목단식당	중식	
13:30~14:00	이 동	목단리→생창리	
14:00~15:20	생 창 리	마을방문자센터	-육군보병3사단 -국도 5번/43번 교차지점 -도로원점 -김화이야기
	D M Z 생태평화공원 용 양 보	-생태평화 습지 탐방 -DMZ 통문 철책선 답사 -북한 오성산 -금강산가는철도 -남방한계선내 진입 -용양보 생태계 탐방/가마우지	
15:20~17:30	이 동	철원→서울	
17:30	서 울	도착 및 해산	

㉟ 사업 성과

- 본 프로그램은 지리학과 전공선택 “북한지역연구특강”으로 2017년 2학기
기에 강으로써 개발된 이후 2년차를 맞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정착
이 진행
- 일반적인 지리학과 전공선택 교과목이 수요를 고려하여 2년에 한번씩
개설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은 지리학과 학생 뿐 아니라 타 전공,
대학원생, 일반인까지 많은 학생들이 수강·청강을 진행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향후 북한 관련 연구 및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
- 특히 접경지역 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 배운 것을 현
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많은 학생들이 통일 및 통일국토 관련 분야 및 북한지리 연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관련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

㊱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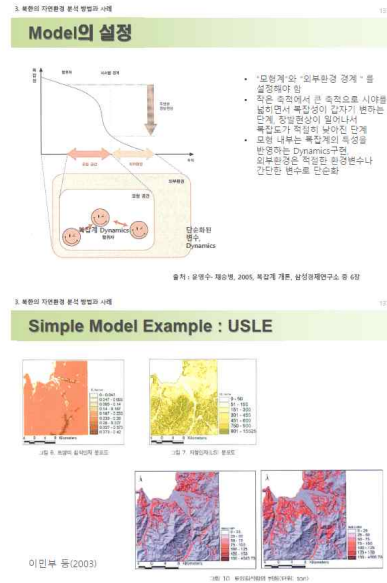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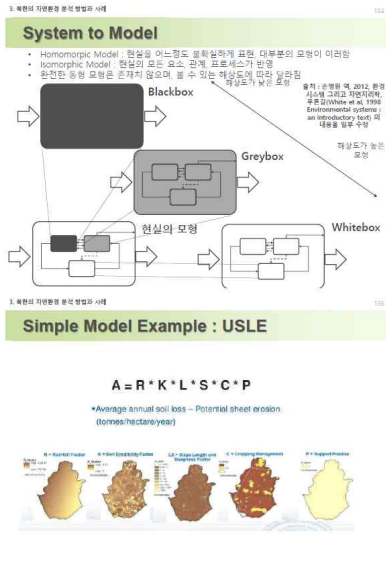


[첨부 3] 강의 자료 일부



[첨부 2] 현장 답사 사진





6) 북한학개론(사범대 윤리교육과 박성춘 교수, 배영애 강사)

① 사업 목적

- 강의식 수업의 한계를 보완한 북한이탈주민 초청 특강을 운영(총 2회) 하며 생생한 경험담을 통한 북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독려
- 다양한 전공 분야의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 하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개발을 도모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 과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각계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리더십 역량 개발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학생 총 737명(1학기 397명, 2학기 340명)
- 참가자 구성

강좌별	인원	서울대 학부생(전공별)
1학기 강좌 (1)	206명	농생명과학대학 51명, 사회과학대학 44명, 음악대학 20명, 인문대학 19명, 사범대학 18명, 공과대학 15명, 경영대학 12명, 치의학대학원 5명, 자유전공학부 5명, 미술대학 4명, 생활과학대학 4명, 의과대학 4명, 수의학대학 3명, 자연대학 2명
1학기 강좌 (2)	191명	음악대학 38명, 사회과학대학 32명, 농생명과학대학 22명, 인문대학 22명, 사범대학 16명, 공과대학 15명, 경영대학 14명, 미술대학 9명, 생활과학대학 7명, 의과대학 6명, 자유전공학부 4명, 자연대학 4명, 간호대학 2명
2학기 강좌 (1)	176명	음악대학 27명, 사회과학대학 26명, 농생명과학대학 24명, 경영대학 22명, 인문대학 17명, 사범대학 12명, 공과대학 11명, 자유전공학부 7명, 간호대학 7명, 생활과학대학 6명,

[첨부 4] 강의 평가 자료

- 정량 평가

번호	문항 내용	평균(5점 만점)
1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24
2	강의 준비와 강의 내용이 충실하였다.	4.35
3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4.12

		수의학대학 5명, 의과대학 4명, 자연대학 4명, 치의학대학원 3명, 미술대학 1명
2학기 강좌 (2)	164명	사회과학대학 33명, 농생명과학대학 33명, 공과대학 18명, 사범대학 12명, 경영대학 11명, 인문대학 10명, 수의학대학 9명, 음악대학 7명, 의과대학 7명, 자연대학 7명, 미술대학 4명, 생활과학대학 4명, 치의학대학원 4명, 간호대학 4명, 자유전공학부 1명,

사회대	농생대	음대	인문대	공대	경영대	사범대
135	130	92	68	59	59	58
의대	생활대	미대	자유전공	수의대	자연대	간호대
21	21	18	17	17	17	13
치의대	총 737명 (인원 순서)					
12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학과

: 2018년 1, 2학기(총 4개 강좌)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3학점(A-F)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1·2학기 매주 화요일·목요일 13:00~15:50

-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2동 401호 대형강의실

- 방식 : PPT 강의 및 질의응답

주차	강사명	소속	강 의 내 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강의 안내

2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 이해의 동향과 북한 연구방법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연구방법과 연구동향) * 북한의 지리 및 행정 (자연지리, 인구특성, 행정구역의 체계와 개편)
3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개관(사건, 인물들 소개)
4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정치 1 (정치체계의 특성과 주요 통치이념, 권력구조와 통치기구)
5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정치 2 (통치기구 및 3대 세습, 권력엘리트의 특성, 통치스타일)
6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군사 (인민군의 특성과 군사정책, 군사제도, 군사전략과 군사력)
7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경제 (경제발전노선, 경제관리기구, 경제정책의 특성과 한계, 시장화, 대외개방정책)
8주	중간고사		
9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사회.문화1 (주민의 일상생활의 모습, 생애과정과 의식주, 명절과 풍습, 놀이와 문화생활)
10주	강나현	인천 장도초 통일전담교육사	탈북 주민 특강
	손수진	서울 경서중 통일전담교육사	
11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사회.문화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학교생활, 언어의 특성)
12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사회.문화3 (주민의 조직생활과 학습활동, 계층분류와 계층구조의 특성)
13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사회.문화4 (주민의 사회일탈과 범죄유형, 사회통제의 특성과 기구)
14주	배영애	윤리교육과 강사	* 북한의 대외정책 (대외정책기조, 대외정책결정구조, 대외관계의 특성과 변화, 주변 국가와 관계)
15주	기말고사		

일자	내용	제출
2018.05.08.	북한이탈주민 특강 (1)	PPT 자료
2018.05.10.	북한이탈주민 특강 (2)	PPT 자료
2018.11.15.	북한이탈주민 특강 (3)	PPT 자료, 사진, 특강 만족도 조사
2018.11.20.	북한이탈주민 특강 (4)	PPT 자료, 사진, 특강 만족도 조사
세부 내용		
주제	북한의 교육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내용	(1시간 30분) 북한 교육 및 학생 생활 경험담 강의 (1시간 30분) 질의 응답	

세부 내용	통일전담교육사는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서, 전국 탈북학생 밀집 지역의 초·중등학교에서 탈북학생들을 돕는 전담 교사로 탈북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상담 및 학습보조를 진행하며 남북한 학생들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진행 및 북한 교사 출신으로서 북한의 학교생활 및 교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이해교육 실시
-------	--

④ 사업 성과

-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학습 효과
 -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북한 주민과의 실제적인 소통이 학습효과 극대화하고 정치, 경제, 국제 정세를 벗어난 사회·문화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학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 해소 및 남한 사회의 정착 과정 이해하게 됨
-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도모
 - 정치적인 관점이 녹아 있는 뉴스 등의 언론을 벗어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북한이해 교육이 가능하며 다양한 출신 배경의 북한이탈주민과의 추가적인 소통 의욕을 고취하고, 대학생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제(학교 및 교육)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 방법 학습

⑤ 증빙 자료

[첨부 1] 북한이탈주민 특강 사진 (11월 20일)

강00 (인천 장도초, 통일전담교육사)



손00 (서울 경서중, 통일전담교육사)



[첨부 2] 북한이탈주민 특강 만족도 조사 결과

2018년도 2학기 북한학개론 강좌2 특강 만족도 설문결과(11월 15일)					
<조사대상: 수강생 응답 160명>					
설문 문항	응답결과(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특강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였습니까?	129	28	3	0	0
2. 특강을 통하여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124	33	3	0	0
3. 특강 강사에 대해서 만족하였습니까?	128	27	5	0	0
4. 다음 학기에도 탈북 주민의 특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31	25	3	1	0

5. 이번 특강에서 좋았거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서술해 주세요.

- 강사님의 강연이 유쾌하셔서 좋았고, 질문시간(Q&A)을 통해 평소에 북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 북한 사회를 탈북 주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고, 의미가 있었다.
- 여러 사람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실제 탈북 주민의 답변을 들으니 북한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 남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들에 대해 강사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두 분 모두 남한 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고 맞춰 나가시려는 모습에 우리가 비록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지만 '한민족'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다.
- 북한 실생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어 좋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깰 수 있었다. 특히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 북한의 사교육이나 영어교육에 관한 정보가 흥미로웠다. 북한의 교과서, 수업장면 등 교육에 대해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있어 좋았다.
- 강사분들이 남한에 와서 꿈과 희망을 처음으로 생각해 봤다는 말을 듣고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 탈북 주민이 남한에서 적응하는 과정과 어려움을 들을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였다.

6. 이번 특강에서 아쉬웠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서술해 주세요.

-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이 보충될 수 있도록 사전에 etl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을 미리 받았으면 한다.
- 강사 2분이 모두 북한 교사 출신이다 보니 교육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해 조금 아쉬웠으며, 다음 특강에는 서로 다른 직업군을 경험하신 분들을 섭외하면 특강내용이 보다 더 다양해질 것 같다.
- 강사분의 말이 너무 빨라서 몇 개의 단어는 알아듣기 힘들었다.
- 평양 고위층 출신의 탈북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2018년도 2학기 북한학개론 강좌1 특강 만족도 설문결과(11월 20일)

<조사대상: 수강생 응답 170명>

설문 문항	응답결과(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특강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였습니까?	140	26	4	0	0
2. 특강을 통하여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137	29	4	0	0
3. 특강 강사에 대해서 만족하였습니까?	139	27	3	1	0
4. 다음 학기에도 탈북 주민의 특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42	24	2	2	0

5. 이번 특강에서 좋았거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서술해 주세요.

- 탈북 주민과 학생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질문시간이 길어서 좋았다.
- 북한에서 교사로 있었던 2명의 강사들로부터 북한 교육의 실상을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있어 매우 유익했고 의미가 있었다.
- 북한의 실상을 탈북 주민을 통해 알 수 있었다.(특히 평양 출신이 아닌 분들)
- 질문을 다양하게 받아주셔서 좋았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북한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질문시간이 길어서 좋았고, 답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바를 최대한 말씀해 주시려 했던 강사분의 모습이 좋았다.
- 인문이나 학술적 접근을 통해 접했던 정치, 경제 분야 보다는 주민들의 일상의 모습 등 색다른 사회문화적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 3+2=5를 남한에서는'삼 더하기 오'라고 읽는데, 북한에서는'삼 더하기 둘' 같기는 오'라고 한다는 것이 신기했으며, 탈북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서 좋았다.

6. 이번 특강에서 아쉬웠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서술해 주세요.

- 평양 출신의 탈북주민이 아니어서 평양에 관한 사항이나 현실을 상세히 알 수 없던 점이 아쉬웠다.
- 강의 전에 질문리스트를 받아서 학생들의 투표로 질문들을 정하여 시간 내에 궁금한 내용들이 다 해결 되면 좋겠다.
- 강사분이 탈북한 지 10년 정도 되어서 최근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의 질문들 중에서 너무 뻘하거나 실례되는 질문이 있어서 아쉬웠다.(청중측면)

7) 통일교육론 (사범대 박성춘 교수)

① 사업 목적

- 북한이탈주민 특강 운영을 통해 수업시간과 교과서에서만 보던 북한과 주민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통일 의식과 통일교육 교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그들을 만나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고 남북한 간의 사람 통합의 중요성을 숙고
- 학생 자율 세미나 운영을 통해 향후 윤리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통일교육 선도교사'로서 통일과 통일교육 분야의 자발적인 연구 자세를 익힘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 및 대학원생 총 34명(1학기 15명, 2학기 19명)
- 참가자 구성

㉠ 통일교육론 (1학기) : 15명

연번	성명	소속
1	한승원	윤리교육과(석사)
2	정상구	윤리교육과(석사)
3	이수진	윤리교육과(학부)
4	손하은	윤리교육과(학부)
5	김채현	윤리교육과(학부)
6	서승윤	윤리교육과(학부)
7	김다은	윤리교육과(학부)
8	강인구	윤리교육과(학부)
9	이정현	윤리교육과(학부)
10	김민선	윤리교육과(학부)
11	빈다은	윤리교육과(학부)
12	이동형	윤리교육과(학부)

13	이민우	윤리교육과(학부)
14	김승제	윤리교육과(학부)
15	김경수	윤리교육과(학부)

㉡ 통일문제연구 (2학기) : 19명

연번	성명	소속
1	박승혜	불어교육과
2	김민재	윤리교육과
3	김종진	윤리교육과
4	심아연	윤리교육과
5	이현아	윤리교육과
6	정예진	윤리교육과
7	신지인	윤리교육과
8	최하연	윤리교육과
9	조건희	윤리교육과
10	김하린	윤리교육과
11	김선영	윤리교육과
12	고수원	윤리교육과
13	배준영	윤리교육과
14	이유림	윤리교육과
15	이현지	윤리교육과
16	조수빈	윤리교육과
17	이성찬	윤리교육과
18	이정희	윤리교육과
19	김근호	자유전공학부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학과
: 2018년 1, 2학기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3학점(A-F)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박성춘(윤리교육과 조교수)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2018학년도 1, 2학기 매주 수요일(14:00~16:50)

-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2동 501호

- 방식 : 강의 및 질의응답, 학생 세미나는 학생 자율 토론

㉠ 통일 교육론

주차	날짜	강사명	소속	강의 내용
1	3/7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통일교육에 대한 질문 구성 예) 통일교육은 왜 답정너일까? 통일교육은 왜 재미가 없을까? 창의적인 통일교육은 가능할까? 나에게 통일이란 무엇일까? 나는 왜 통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나? 나는 왜 통일이 안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내가 살기 힘든데 왜 통일이 되어야 하지? 통일이 왜 되어야 하지? 나는 통일이 되지 않길 바라는데 내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과연 통일이 될까? TV에서 보여지는 북한은 싫는데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나?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난 그냥 탈북자가 불편한 걸 어찌지? 정부가 할 일이지 내가 왜 통일에 신경 써야 하나? 등
2	3/14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1장 통일교육 이대로 좋은가? 통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 충돌, 그리고 갈등 영상1: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평 1) 통일교육에 대한 솔직하고 비판적인 질문 1개 그리고 그 질문의 이유
3	3/21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 영상2: 북한에서의 생활 + 영상 3: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 (논평 2) 북한이탈주민에게 하고 싶은 질문과 그 질문을 하는 이유 (1/2쪽) 영상 2와 영상 3을 보고 나서 하고 싶은 질문과 그 이유 (1/2쪽)
4	3/28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2장. 통일교육의 특징 통일교육 연구의 동향 새로운 통일교육을 위한 접근 (논평 3) 생활(또는 쟁점) 중심 통일교육: 질문과 대답(1쪽)
5	4/4	박성춘	서울대학교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3장.

			윤리교육과 교수	장기화된 분단, 새로운 세대 다문화 사회, 다양한 구성원 민족 개념의 재구성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논평 4) 생활(또는 쟁점) 중심 통일교육 영상 기획안1 (2쪽 이내)
6	4/11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4장. 이중적 북한 이해 통일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 합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인식 사회정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논평 5) 생활 중심 통일교육: 질문과 대답 교육영상 구성안 1 (도표 활용)
7	4/18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5장. 정치적 민감성 지식 위주의 주입 사회 통합을 위한 감수성 개발 역량중심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논평 6) 생활 중심 통일교육 영상 구성안을 기초로 영상 내용 개발 1
8	4/25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6장. 다문화 시대의 사회 통합을 위하여 (논평 7) 생활 중심 통일교육 영상 구성안을 기초로 영상 내용 개발 2
9	5/2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일상 생활에 기초한 실질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사고의 흐름에 맞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SNS 기반 영상 교육 콘텐츠 발표 (6쪽 이내) (발표) 생활 중심 통일교육 영상 계획 발표
10	5/9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남북한은 어떻게 변해 왔나요? 세계 속의 남북한 변화와 발전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 영상 4: 남북한의 변화 (논평 8) 학생들과의 논의
11	5/16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초청강사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채형우 <남북통합경험공유> 를 통해 본 통일과 통일교육 영상 5: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논평 9) 학생들과의 논의
12	5/23	강00 (29세) 강00 (36세)	전기전자공학부 대학원생 의과대 졸업	초청강사 : 서울대 재학 중인 탈북학생 2명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및 한국의 대학생활" 영상 6: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논평 10) 학생들과의 논의
13	5/30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잉고 술체 저, 원성철 역. (2014). 우리의 아름다운 새 옷. 독일은 어떻게 통일을 했나요?

			교수	독일은 통일 이후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영상 7: 독일 통일의 과정 + 영상 8: 통일 이후의 독일
14	6/6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통일에 대한 자유 토론
15	6/13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기말고사(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 학생 제출 중간고사 + 토론 내용)

㉞ 통일문제연구

주차	날짜	강사명	소속	강의 내용
1	9/5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강의소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개요
2	9/12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통일문제에 대한 주제 선정 및 토론: 독일통일, 베트남통일, 개성공단, 민족공동체, 국제정세, 이산가족, 평양의 모습,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정착 및 적응, 통일학교, 통일감수성, 통일기반구축 등 - (국내/국제 신문 ppt 보고 3+3)
3	9/19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실제 및 핵심 개념>
4	9/26			공휴일(추석)
5	10/3			공휴일(개천절)
6	10/10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실제 및 핵심 개념>
7	10/17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실제 및 핵심 개념>
8	10/24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한반도 내 통일문제 이해 + 세계 속에서의 통일문제 이해 (국내/국제 신문 ppt 보고 7+7)
9	10/31	이송화	우양 평화강사	초청강연: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북한이탈주민 출신 대학생, 그가 바라보는 통일
10	11/7			중간고사 (평가 30)
11	11/14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관심 주제에 맞는 도서의 핵심 내용 그룹1 발표
12	11/21	주승우	한신대학교 외래 교수	초청강연: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북한이탈주민 출신 대학 교수, 그가 바라보는 통일
13	11/28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발표 및 토론관심 주제에 맞는 도서의 핵심 내용 그룹2 발표
14	12/5	박성춘	윤리교육과 교수	현장학습
15	12/12			기말고사 12/12 (평가 30)

④ 사업 성과

○ 미래 세대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 시도

- SNS 기반 영상자료나 학생들의 통일교육 아이디어를 통해 식상한 교육 자료를 벗어나 현 세대와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 기획 및 대런 '뤼순감옥'과 '4.27 정상회담' 등의 역사적 사건과 장소를 통해 통일교육의 관심 환기 및 교육 효과 상승

○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사람 통합, 그리고 통일교육의 관계 제고

- 예비고사 전공 학생들에게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편견 제거의 기회를 갖고, 통일 교육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및 사람 간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 검증

⑤ 증빙 자료

[첨부 1] 북한이탈주민 특강 사진 (이송화, 우양 평화강사, 10월31일)





[첨부 2] 2018년 1학기 통일교육론 특강 자료

- 1. 일시 :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2. 장소 : 강의실 12동 501호
- 3. 초청강사 인적사항

- 강00 (29세)

소속명	서울대학교 졸업(18.02)	직위	무직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공	의과대
기타	북한 평양 출신 한국 거주 약 7년		

- 강00 (36세)

소속명	서울대학교	직위	대학원생 1학년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학부 졸업	전공	전기전자공학부
기타	북한 평양 출신 한국 거주 약 7년		

4. 초청의 목적 및 내용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 남한 사회 적응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이해하고, 남한 사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은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수강생들이 탈북자에게 궁금한 것

- 북한에서 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게 된 배경은?
- 북한 평양에서의 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
- 북한 사람들의 유학생 비율은 ?
- 북한에서 좋은 학교 입학 선발 과정은?
- 통일이 되면 남/북한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가?
- 북한에도 사교육이 있는지?

평양 건축종합대학을 다니다가 유학을 가게 된 배경은?

- 북한에서의 유학생 비율은 0.01%보다 더 작다.
- 지역은 공산주의 체제 배경인 중국, 러시아, 체코, 독일 등이다. 나 때에 전체 55명이 갔는데, 독일 10, 러시아 15, 오스트리아 등으로 해서 갔다. 북한으로서는 처음으로 서구 자본주의 나라에 보냈다.
- 한 때 김정일이 2000년대에 중국을 방문해서 천지 개별 등으로 놀래서 건축을 발전시키려 했다. 그것의 일환으로 대서 건축 전공으로 유학을 보냈다. 선진 건축 기술을 배워와서 건설 좀 해보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 '중앙대'라는 곳에서 먼저 학생을 선발해서 4차, 5차 이렇게 한번 추려내고, 신체검사를 하고 집안 토대에서 (한국 출신은 없는가) (지주 자본가 계급은 없는가) 보아서 보냈다.
- 혁명 역사에서 지주와 자본가 계급은 좋은 계급이 아니라서, 우리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 집안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간부 자식, 돈 있는 집안이 아니라 실력으로만 뽑으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계급 없이 선발되어서 유학을 가게 되었다.
- 전공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대학을 갈 때부터 나라에서 정해줬다. 유학을 갈 때에도 나라에서 건축으로 가라고 해서 갔다.
- 독일에서 석사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으로 왔다. 북한에서는 원하는 전공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일할까 공부할까 하다가 의대 공부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만 해왔다. 언젠가는 건축학이라는 공부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땠는지?

- 6개월 동안 언어 교육을 받았고 3개월 동안 사상교육을 받았다.
 - : 사상 교육은 감부자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우상숭배하는 내용이다.
 - :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계급교양 교육을 받았다.
 - :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 독재, 지주, 자본가, 계급이랑 양집할 수 없다는 교육을 받았다.
 - : 반간첩교육을 받았다. 한국 국정원이 접근해서 간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교육을 받음.
- 한국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대사관에 가서 보고하고 문서로 기록을 남겼다. 처음에는 막 엄청 세세하게 쓰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나름대로 걸러서 쓰게 되었다. 한국 사람에 대한 경계감이 없어졌다.

북한에서의 교육은 어땠는가?

- 95년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소학교도 2000년대 초반에 생겼다가 다시 지금 줄고 있다. 99년에 나라가 어려운 사태를 대비해서 인재를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재교육을 생각했고, 영재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1 중학교가 더 많아졌고, 실용주의 교육을 시작했다.

-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이 시행되었다. 99년 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 2012-2013년부터 교육에서의 큰 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 2001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보통 경험상 간부집 애들이 공부를 못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못 사는 애들이 공부를 잘했다. 1고등을 다니면 군대를 안가서 간부집애들이 그냥 왔다.
-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엘리트 교육, 수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 <망경대 혁명학원> 이라는 곳이 있는데 김일성 같이 혁명을 할 수 있는 자식들을 교육했던 기관이다. 영웅 자식들에 대한 자녀교육으로서 특별한 교육 기관이다. 이곳은 군사 교육을 시키고 군사 칭호를 쓴다.
 - * 여기에서 참고할 사항 : 남한은 독립운동 자녀들은 거의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 * 북한은 독립운동 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해줬다.
- 그러나 <망경대 혁명학원>에서 김일성 이후에 권력이 승계된 사건은 큰 영향을 주었다.

북한에도 사교육이 있나?

- 88-99년 북한에 살 때에는 사교육이 전혀 없었다. 자본주의에 개념이 없었다.
- 장마당이 생기면서 유행이 있는 물건만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생겼지 서비스에 대해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 그러나 선생님이 사심없이 못하는 친구를 따로 공부시키고 돈 안 받고 그런 개념은 있었다. 부모님이 대신 고맙다는 마음으로 학교에 떡 한덩이 돌리고 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동네에 누구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학생 엄마가 부탁해서 해줬고, 용돈을 받는 개념보다는 그 집에서 저녁을 먹는 그런 개념으로 과외를 해준 적이 있다.
- 2000년대의 2005~2007년에는 수학선생님들이 자기가 지도한다고 group을 가르치고 쌀, 옥수수 등을 받고 애들을 가르쳐줬다. 컴퓨터 배우고 싶은 애들있어서 담배 / 술 등을 받고 가르쳐줬다.
- 올림픽이 나가려면 과외를 해야한다고 부추기면서 교사들이 과외를 따낼려고 했다.
- 평양시에서는 고의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한달에 30달러, 100달러 등을 요구했다.
- 98년생 애들은 수학, 물리, 화학, 교사가 인기가 많았고 지금은 영어 교사가 인기 많다.
- 왜 과외를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국가에서 배급이 없기 때문에 돈/쌀 등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다.
- 또, 지금은 제대 군인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생으로부터 과외를 받기도 한다
 - * 교육을 이해할 때에는 북한은 1995년 / 2003년 ~ 이후 등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에 좋은 점이 무엇인가?

- 북한은 순수과학이 정말 장점이 많다. 수학과 과학을 진짜 잘한다. 잠재력이 있다.
- 거기에서는 어려운 수식도 계산하고 머리를 많이 쓴다.
- 그런데, 남한에서는 최신식 기계를 잘 다룬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조합이 되면 좋을 것 같다.
- 북한은 외국에 나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 인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들을 잘 활용하면 한반도가 좋은 인재들을 갖춘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
- 그러나 한국에서 그들을 받아들일지가 숙제이다.
- 북한은 지하자원 마그네시아 등의 광물이 정말 많다. 세계적으로 지하자원이 세계 2위인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장된 것을 개발할 기술과 자본이 없다. 그것을 돌 덩이 채로 중국에 아주 헐값에 팔고 있고, 중국은 그것을 가공해서 세계에 수출해서 돈을 받아 먹고 있다. 지하자원은 가공하면 값이 몇십배 몇백배가 된다. 가공 기술을 남한이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정말 잘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8) 통일교육연구방법론 (사범대 박성춘 교수)

① 사업 목적

- o 북한이탈주민 특강 운영을 통해 교과서나 언론을 통해 본 간접적인 북한을 벗어나 북한에서 살다가 온 주민과의 만남을 통하여 실제적인 통일교육의 자료 마련 및 이해 도모
- o 연구 보고서 토론회 운영을 통해 현장 윤리교사로서 <통일교육>의 방향 및 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연구 계획을 토론히 상호 발전 도모
- o 북한이탈주민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통일 의식과 통일교육 교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만남을 통해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 중요성을 재고

② 강좌 대상

- o 서울대학교 윤리교육전공·타전공 대학원생 및 청강생 총 16명
- o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1	세키네마야	윤리교육전공 청강
2	이혜진	윤리교육전공 박사
3	오유진	윤리교육전공 박사
4	이정환	윤리교육전공 박사
5	박찬영	윤리교육전공 박사
6	신지선	윤리교육전공 석사
7	이슬희	윤리교육전공 석사
8	류기련	윤리교육전공 석사
9	강민겸	윤리교육전공 석사
10	현재균	윤리교육전공 석사
11	정성락	윤리교육전공 석사
12	김하민	윤리교육전공 박사
13	정상구	윤리교육전공 석사
14	박은애	윤리교육전공 박사
15	김진하	윤리교육전공 석사
16	박수연	글로벌교육협력전공 박사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대학원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3학점(A-F)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박성춘(윤리교육과 조교수)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월요일 18:30-21:20

- 장소 : 서울대학교 11동 416호

- 강의방식 : 강의 및 질의응답, 세미나 형식으로 자율 토론

주차	날짜	강사명	소속	강의 내용
1	3/5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강의계획 및 연구 논의
2	3/12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사례: 개성공단 ● 논평1: 개성공단에 대한 사전 조사: 나는 무엇에 왜 관심이 있는가?(1쪽)
3	3/19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통일교육론 입문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1장 + 6장. 통일교육 이대로 좋은가? 통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 충돌, 그리고 갈등 다문화 시대의 사회 통합을 위하여 통일교육 영상1: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논평2: 내가 생각하는 통일교육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1쪽)
4	3/26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연구방법론 입문 연구방법론의 토대 과학적 연구의 본질 연구의 유형 ● 논평3: 연구방법론 입문 내용과 통일교육을 어떻게 연결할까?(1쪽)
5	4/2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북한 사회와 탈북민의 사회 적응 이해: 탈북교사와의 대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 통일교육 영상2: 북한에서의 생활 + 통일교육 영상 3: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 ● 논평4: 나는 탈북교사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그 이유는?(1쪽)
6	4/9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연구계획과 연구절차 연구설계의 의의 연구설계의 유형과 전략 접근방법별 연구절차

				과학적 연구의 절차 과학적 연구의 분석단위 ● 논평5: 통일교육의 어떤 부분에 연구 관심이 있는가? 왜 관심이 있는가?(1쪽)
7	4/16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통일교육연구 문헌분석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2장. + a 통일교육의 특징 통일교육 연구의 동향 통일교육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논의 통일교육 영상 4: 남북한의 변화 + 통일교육 영상 5: 판례로 보는 남북한 ● 논평6: 영상 4, 영상 5에 대한 나의 생각은? 연구 과제로 만든다면?(1쪽)
8	4/23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1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3장. 장기화된 분단, 새로운 세대 다문화 사회, 다양한 구성원 민족 개별의 재구성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 영상6: 독일 통일의 과정 + 통일교육 영상 7: 통일 이후의 독일 ● 논평7: 영상6, 영상7에 대한 나의 생각은? 연구 과제로 만든다면?(1쪽)
9	4/30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2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4장. 이중적 북한 이해 통일교육 영상 8: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김 00	동방초등학교 통일전담교육사	● 논평8: 영상 8에 대한 나의 생각은? 연구 과제로 만든다면?(1쪽)
		최 00	하안초등학교 통일전담교육사	● 북한이탈주민 특강 (1)
10	5/7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3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5장. 정치적 민감성 지식 위주의 주입 사회 통합을 위한 감수성 개발 역량중심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 논평9: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을 읽고 난 후 관련된 연구 과제를 만든다면?
11	5/14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연구계획서 작성1 연구계획서의 의의 연구계획서의 내용 ● 논평10: 연구계획서 초고/아이디어 발표
12	5/21	김 00	무소속 북한이탈주민	연구방법에 대한 개관 집적연구 양적연구 내용분석 내성연구 실증연구
13	5/28	이 0	동국대학교 대학원	● 북한이탈주민 특강 (2) - 5/21 초청강사 김00 ● 북한이탈주민 특강 (3) - 5/28 초청강사 이 0
14	6/4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논평10: 연구계획서 초고/아이디어 발표
15	6/11	박성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연구계획서 완성, 발표, 제출

④ 사업 성과

-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이해 자리를 마련하여, 정치 논쟁이 심한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벗어나서 주민들의 실생활을 통해 실제, 학생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됨.
- 다른 곳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도 물어보기 힘든 내용을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편하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새로운 통일교육의 자료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남한 교사 및 학생들이 보기에 편한 자료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시각에서 보아도 손색이 없는 통일교육의 자료를 개발함의 중요성 인식
- 현장 교사로서 4.27 판문점 선언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남북한의 교육의 격차를 인식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업을 통해서 통일교육 현실과 전망을 토론하면서 관심과 사고의 확장

⑤ 증빙자료

[첨부 1] 강의현장 사진 및 시각자료



[첨부 2] 2018년 1학기 통일교육연구방법론 특강자료 (2018.4.30.)

1. 탈북교사 초청강사 인적사항			
최00			
직장명	인천동방초등학교	직위	통일전담교육사
출신학교	양강도 삼지연 소학교	전공	초등교사
관련 경력	혜산교원대학 교원과 졸업(북한)		
	삼지연소학교 교사(북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남한)		
	인천동방초등학교 탈북학생전담코디(5년)		
최00			
직장명	경기도 광명시 하안남초등학교	직위	통일전담교육사
출신학교	함경남도 단천시 금봉고등학교	전공	중등교사
관련 경력	함흥 제1교원대학 교원과 졸업(북한)		
	단천 보석고등학교 교사(북한)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공학과 졸업(남한)		
	광명 하안남초등학교 탈북학생전담 교사(2년)		
2. 초청의 목적 및 내용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이해하고, 남한 사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은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남한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북한주민들의 생활

- 북한의 학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 북한의 음악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 북한에서 대학교는 어떻게 진학할까?
- 북한주민들의 인터넷 사용률, 스마트폰 보급률은?
- 북한의 외국어 교육은?
- 북한 대학생들의 취미생활은 무엇일까?

◇ 탈북민들의 정착 과정과 학교생활을 알아보는 시간

- 남한에서의 생활
- 남한 학교에서의 생활

◇ 북한이탈주민에게 묻는다.

- 탈북청소년의 정착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 남북한 소송제도의 차이는?
- 한국에서 통일전담교육사가 되는 방법은?
- 탈북자녀들이 겪는 남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 북한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국가 요직, 혁명열사 자녀 출신에 따라서 가산점 부여.
- 그래도 실력이 기본적.

‘교원대, 사범대학은 몇 년제?’

- 교원대는 3년제 , 사범대는 4년제.
- 김영직 사범대학은 유일하게 5년제.
- 평양에 있는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대학교수를 배출.

‘북한에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나?’

-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가정집 전화도 드물었던 북한.
- 지금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핸드폰 사용.

‘스마트폰 사용,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 혜산시의 경우, 대략 30% 휴대폰 사용.
- 단천시의 경우, 대략 70% 휴대폰 사용.

‘북한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에서도 프랑스어를 배우는지?’

-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하는 북한.
- 70~90년대 초반 주로 러시아어를 공부.
- 지금은 영어 공부도 많이 하는 편.
- 외국어공부에서도 세대차이가 존재.

‘북한대학생들의 취미는?’

-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는 대학 시절.
- 북한 전 대학이 기숙사 생활. 과제, 노동, 사회활동으로 취미 생활이 어려움.

-북한의 대학교 기숙사 : 아침 여섯시 기상, 세수, 식사도 규칙적으로, 밤 10시에 점검.

‘북한 대학생도 연애하나?’

- 남녀 교제한 해도 대학교에서 퇴학당하던 시절.
-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 경제난 고난행군의 시기. 고난의 행군 전, 후로 확 달라진 북한의 생활.
-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북한의 분위기.

‘북한 학교의 장점은?’

- 북한 학교 :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엄격한 규율이 존재, 엄격한 규율 하에 학교폭력이나 불량학생이 없는 북한학교, 사교육 없이도 학교 수업만으로 대학 진학.
- 남한 학교 : 편안하지만, 자칫 너무 자유분방한 남한의 교실, 사교육 부담이 심한 남한의 학교

‘지금 북한의 모습은?’

- 북장도 자유로워지고, 서양 브랜드, 한국의 물건도 인기.
- 사회주의지만 점점 자본주의화.

부모의 입장에서 탈북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

- 북한에서 소학교를 다니다 온 아들이 학교 공부보다 힘들어 했던 것은 교우 관계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었고, 친구 대신 게임이 전부였다. 다행히 따뜻한 담임 선생님을 만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
- 딸은 갓난아기일 때 탈북하여 남한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했다.
- 또래보다 위축된 탈북 자녀들.

북한에서 외국어 교육 방법?

- 북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서양인. 나도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직도 외국인과 만나는게 신기하다. 외국어 수업도 원어민이 아닌 북한 선생님이 지도한다. 주로 단어 - - 암기와 문법 위주의 수업이다. 외국어 교육은 영어와 러시아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최근 중국어와 한자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첨부 3] 2018년 1학기 통일교육연구방법론 특강자료 (2018.5.21.)

1. 초청강사 인적사항

김 00 (25세)

소속명	무소속 (입시생)	직위	북한이탈주민
기타	북한 평양 출신 한국 거주 약 6개월		

2. 초청의 목적 및 내용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 남한 사회 적응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작년 2017년까지도 북한 의 평양시에 소속되었던 사람으로서 최근의 북한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북한 사회의 변화와 한국에서의 북한을 바라볼 때의 관점과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수강생들이 탈북자에게 궁금한 것

- 평양리과대학은 어떤 곳인지?
- 평양리과대학에서의 대학교 생활은 어떤지?
-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탈북하는 과정과 동기는 무엇인지?
- 북한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은 무엇인지?
- 한국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평양 리과대학을 가게 된 배경은?

- 아버지가 리과대학 교수였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 전공은 전기전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다.

평양리과대학에서의 대학교 생활은 어떤지?

- 하루 일과가 7시 정도에 학교에 등교하고 저녁 5시 정도면 끝난다.
- 모든 수업들이 고등학교처럼 전체적으로 짜여있다.
- 교복처럼 군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한다.
- 학교는 군부대처럼 이름이 붙여져 있고 같은 소대원 소속 등으로 분류된다.
- 여가 생활을 할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없이 하루 종일 시간표가 굴러간다.
- 특히, 전공 공부를 할 시간보다는 국가에서 사상 교육을 하고 하루 생활 총화 등의 업무 시간이 많다. 그리고 노동에 불려간다.
-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숨어서 책을 보고 사상 교육 시간에 책상 밑으로 책을 보고 등의 몰래 공부를 한다.

북한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북한의 사상 교육을 다 받고 있지만,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와 독재 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서로 내 놓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하면 서로 비판하고 총화를 하고 서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비판을 할 수는 없다.
- 북한에서 학생들이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
- 여러 사상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 따로, 책을 구해서 몰래 보고 있다.
- 한국 영화와 노래 등의 매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잘 사는지 거의 알고 있다. 장마당에서 한국 물건도 비싸게 다 팔리고 있다.
- 한국의 전기 전자 기업들이 세계에서 잘 팔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탈북 배경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40여 시간 만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바다를 통해서 왔다.
- 가정적인 배경이 있고, 더 이상 내 혼자서 그 사회에서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배경이 되었다.

- 북한은 토대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배경이 좋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
- 어차피 북한에서 꿈을 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죽더라도 한국행을 택하고 싶었다. 한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까지 올라가고 싶었다.
- 사실은, 엄마가 20년 전에 한국에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엄마를 찾아서 한국에 왔다. 그런데 엄마에 대한 이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엄마를 보고 나서 많이 깨졌다. 아픔이 있다.
- 북한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한국에 오는 배경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와줘야할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잘 말하지 않는다.
-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혀 끌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도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그리고 북한에서 공부할 때 잠을 4시간 자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의 교육 수준은 정말 높다. 그래서 여기에 애들도 열심히 하는데 실력 차이가 현저하게 있다.
- 지금은 한국에 와서 적응하면서, 어디 가서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배우려는 자세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와서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점은?

- 아무래도 한국은 개인주의 문화라서 인간적인 정이 많이 없는 것 같다.
- 가족이 거의 없다시피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
- 모르는 것이 있어도 사소한 것을 물어볼 상대가 없다.
- 공부하는 것은 몰라도 힘들지 않은데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즐겁다.
-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 학원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 같다.
- 그래도 지금은 하는 공부가 좀 점수가 오르고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있다.

[첨부 4] 2018년 1학기 통일교육연구방법론 특강자료 (2018.5.28.)

1. 초청강사 인적사항

이 0 (28세)

소속명	동국대학교	직위	대학생 2학년
출신학교	북한 중고등학교 2학년(중퇴) 한국 여명학교 졸업	전공	연극영화과
기타	북한 양강도 혜산시 거주 한국 거주 약 5년		

2. 초청의 목적 및 내용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 남한 사회 적응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이해하고, 남한 사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은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수강생들이 탈북자에게 궁금한 것

- 북한에서 거주한 지역은 지도상의 어디인가?
- 북한에서 거주한 지역에서 학교생활은 어땠는가?
- 북한에서 거주한 학교생활에서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 탈북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탈북했나?
- 한국에서 학교는 어떤 종류의 학교를 다녔나?
- 한국에서 탈북자를 위한 교육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학 전형은?
-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북한에서 살았던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 북한의 북쪽 경계이며, 국경지대 양강도이다.
- 양강도의 가장 큰 도시 혜산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 양강도에서의 삶도 계층에 따라서 아주 다르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한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섞인 배경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중국에서 4년을 살았으며, 중국으로 가게 된 배경은 가정 환경 때문이다.
- 북한에서 주식은 옥수수를 간 것이며, 쌀은 거의 잘 못 먹었다.
- 학교를 가기 위해서 1시간 넘게 걸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탈북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

- 북한의 국경지대 중에서도 백두산 자락 쪽에 경계가 덜 삼엄한 곳을 통해서이다.
- 탈북자들의 탈북 경로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다.
- 그 이유는 탈북자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된다.
- 한 번 오기 위해서는 브로커가 필요하며 비용은 300만원 정도가 든다.
- 탈북자들 중에서 '안전하게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단 국경을 빠져 나온다는 것은 험난한 길이며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경험이다.
- * 탈북자들의 북한에서 탈출한 동기와 과정은 대체로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 탈북자들 스스로가 얘기 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북한에서의 학교 생활과 교육은 어떠한가?

- 북한에서 교육은 일단 '김일성 체제에 대한 찬양과 경배'이다.
-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역사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암기하고 시험을 친다.
- 자아비판과 동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고, 수학과 국어 도덕 모든 것이 그것 중심이다.
- 하지만 먹는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먹고 도시락 싸 오면 친구들과 다 나눠먹었다.
- 남한처럼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정이 없고, 기계적이지가 않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인정이 안되나?

- 북한에서 중등학교 2학년 때 가정환경 때문에 학교를 다 못다녔다.

- 중퇴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이 안되었다.
- 경제난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안 한지 10년이 되었다.
- 한국에 와서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준비하게 되었다.
- 여명학교는 한국에서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학교 입학전형은 어떤가?

-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있다.
- 내신 점수는 대안학교에서의 점수를 보고, 실기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본다.
- 재외국민 전형이다.
- * 탈북학생 같은 경우, 수능을 안보고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반학생들과 수준차이가 난다. 대안학교는 탈북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수능'을 교육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특별전형은 수사에서 탈북학생들에게 '수능'이라는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반학생들과 수준차이가 더 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이다.
- * 한국에서 유명한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두 학교에서 수능을 보는 학생은 1% 밖에 없다. 대부분의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는 탈북자들은 재수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 가족 없이, 혼자 왔기 때문에 외로웠다.
- 국정원에 오면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핸드폰을 받았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
-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집을 받아서 사회에 나왔는데, 다시 '하나센터'에서 11일 동안 교육을 받는 데 도우미 여자 아줌마가 있었다. 이 아줌마랑 1:1로 전담으로 시간을 보내주어서 감사했다. 지하 철 길찾기도 힘들고 내가 있는 집이 어디인지 찾기가 힘들어서 집을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 있었다.
- 요즘 사람들은 네이버로 길 찾기를 하지만 나는 네이버를 할 줄을 모른다.
- 탈북민들이 외롭고 적응이 힘들어서 자살할 확률이 한국인의 3배라고 한다.
- 또, 간판이나 이런 거를 소리를 읽을 수 있는데 뜻을 전혀 못알아 듣는다.
- TV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알아듣고 웃기지가 않는다.
- 우울하고 힘들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했다.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었다.
- 말은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처럼 말을 못할 것 같다. 사회에 나가서도 말투가 달라서 다르게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 한국 사람들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 그것을 보면서 나는 북한에서 "짜사랑"을 했다고 생각했다. 남한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과 일본을 싫어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싫어하고 있었다.
-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잘 못살고 하지만 불쌍한 게 아니다.
- 남한에서는 뭔가 친해질 이유가 있을 때 친해지고 인간미가 없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 상처를 받았고, 나도 이제는 사람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나기 시작했다.
- 또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기 때문에 범죄율이나 고아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북한은 원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이 많고 사기가 많다. 내가 갖고 있던 돼지도 없어지고 그랬다.
- 그런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다.

9) 공법I 헌법과 정치제도(법대 이효원 교수)

① 사업 목적

- 국가의 기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에 대한 수업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입헌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북한 법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입헌주의체제를 알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관련 헌법적인 쟁점 및 북한체제 비교과정으로 우리 헌법현실과 북한의 법현실을 고찰, 객관적이고 올바른 헌법관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장차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이 강좌는 통일실무자 양성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적인 강의진행은 헌법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 북한법 및 통일법을 병행하여 강의 실시(비중 : 헌법 80%, 북한법 및 통일법 : 20%)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 62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1	김성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김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정재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황호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오세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이은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	안수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	김윤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	장원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	양동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	유주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	정헌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	류승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	장재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	이형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	김솔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	장기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	김상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	박민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	정호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1	장기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2	김상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3	박민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4	정호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5	장수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6	문휘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7	유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8	최정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9	이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	나누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	박상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2	한병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3	전수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4	이동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5	조영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6	김민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7	이은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8	조영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9	김재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	박재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	조영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2	이예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3	김지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4	김유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5	송영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6	김광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7	구본승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8	류혜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9	이하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	이주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	이도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2	곽민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3	라웅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4	권기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5	성현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6	최고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7	오유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8	김선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9	박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	장현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1	서형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2	신승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강	4.30(월) 5.2(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8강	5.7(월) 5.9(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행정부, 사법부
제9강	5.14(월) 5.16(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제도
제10강	5.28(월) 5.30(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감사원,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관리
제11강	7. 4(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중강수업(특강 : 강사 4명) - 헌재판례분석(북한골동품 반입관련 판례 2004헌바68)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2학점(A-F)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이효원(법학과 교수)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월요일, 수요일(14:00-15:15)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 홀
- 방식 : 이론 강의 및 질의응답

구 분	날 짜	강사명	소속	제목
제1강	3.5(월) 3.7(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의 개념과 본질,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2강	3.12(월) 3.14(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제3강	3.19(월) 3.21(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의 경제질서, 사회복지국가,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제4강	4.2(월) 4.4(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제5강	4.9(월) 4.11(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부형태론, 국회의 조직과 구성
제6강	4.23(월) 4.25(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당론, 국회의 기능과 권한

구 분	강좌 별 강의 내용
제1강	○ 헌법의 개념과 본질,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헌법 차이점 - 강의 주요내용 : 북한 및 사회주의헌법 특징 * 헌법제정권력 미인정, 헌법보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우선주의, 최고인민회의의 제정 등
제2강	○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원칙과 북한에서의 인정여부 - 북한 헌법상 기본원칙의 특징 * 당 지도기준을 명시하고 있을 뿐, 헌법은 지도의 수단으로만 활용 * 최근 법제정법이 제정되었으나 법률하위 법원(法源)에만 적용
제3강	○ 헌법의 경제질서, 사회복지국가,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 북한의 계획경제, 사회주의국가, 평화의 의미 비교 * 중앙계획에 따른 통제관련 법률, 사회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차이, 북한의 평화는 제국주의 침략의 배제
제4강	○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당의 관계, 형식적 민주주의, 권력분립 불인정 * 조선노동당-최고인민회의-조선인민군의 관계, 권력분립보다는 통제
제5·6강	○ 정부형태론, 국회의 조직과 구성, 정당론, 국회의 기능과 권한 - 전형적인 사회주의국가 정부형태, 최고인민회의의 구성원리 * 타 사회주의국가는 집단지도체제로 진정한 당 중심을 방침으로 하나, 북한은 1인 집종의 형태임. 최고인민회의도 조선노동당(의 지배자)의 통제를 구현하는 수단일 뿐 * 조선노동당 규약이 최고의 법원(法源)이며, 헌법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제7·8강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행정부, 사법부 - 북한은 조선노동당 및 국무위원 중심제도 - 사법부, 더 나아가 검찰조직도 지도의 준수여부를 감시·통제하는 기구
제9강	○ 헌법재판제도 - 북한은 헌법재판이 존재하지 않음 - 위헌법률심판 기능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실시하나 그저 해석에 그칠 뿐
제10강	○ 감사원,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관리 - 당 지도기관, 내각 책임기관, 검찰 및 사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함

제11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특강 : 현재판례분석(북한골동품 반입관련 판례 2006. 7. 27. 2004헌바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자 : 이재희(공익법무관), 이동건(해군법무관), 이상협(공익법무관), 최건호(법무연수원) - 강의주제 : 남한의 골동품매매업자가 북한 주민들이 도굴한 고려시대 청자 등을 중국에 판매하자, 이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수입 신고 없이 남한으로 가지고 왔을 때의 법적 쟁점 - 강의내용 :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구조와 방법을 남북관계사건을 바탕으로 해석
------	--

④ 사업 성과

o 통일관련 헌법적인 쟁점 및 북한체제 비교과정으로 우리 헌법현실과 북한의 법현실을 고찰, 객관적이고 올바른 헌법관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이해는 곧 북한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과 원칙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통일관련 교육은 향후 통일실무자로 진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됨.

⑤ 증빙자료

[첨부 1] 강의현장 사진



공법1 헌법과 정치제도 강의수업

공법1 헌법과 정치제도 특강현장

[첨부 2] 증빙자료목록

연 번	자 료	개 수
1	수업참고자료(2017년 북한법령집, 통일합의서의 쟁점)	3개
2	2004헌바68 특강자료	4개

3 로스쿨 북한법 강의참고자료 1개

1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81 통일 합의서의 주요 쟁점</p>	1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82 통일 합의서의 주요 쟁점</p>
2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83 2004헌바68 강의자료(이동건)</p>	2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84 2004헌바68 강의자료(이상협)</p>
3		3	

[첨부 3] 강의 평가 자료

㉔ 정량 평가

교수별강의평가현황표									
2018학년도 1학기 정규									
대학	학과	직급	성명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교과목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이효원	931.601 002	공법1(헌법과정치제도)				
() 안은 표준편차									
문항	담해강좌		학과		대학		전체		
	<응답인원: 51>		<응답인원: 2,452>		<응답인원: 2,452>		<응답인원: 23,084>		
	교수별 평균	공통강의 평균	평균	백분위	평균	백분위	평균	백분위	
※ 공통문항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This lecture was generally satisfactory.)	4.37 (0.72)	0 (0)	4.28 (0.92)	55.03	4.28 (0.92)	55.03	4.35 (0.88)	31.57	
강의 준비와 강의 내용이 충실하였다.(This prepar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lecture were adequate.)	4.31 (0.73)	0 (0)	4.33 (0.99)	52.46	4.33 (0.89)	52.46	4.38 (0.86)	27.03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The teaching method was effective.)	4.29 (0.81)	0 (0)	4.2 (0.98)	46.47	4.2 (0.98)	46.47	4.29 (0.93)	25.86	
[외국어 강의 경우] 강의가 실제 외국어로 이루어졌다.([For foreign language courses] Actual classes and lectures were conducted in a foreign language.)	4.18 (0.89)	0 (0)	4.06 (1.02)	34.26	4.06 (1.02)	34.26	4.09 (1.01)	19.62	
[융합형 과목 경우] 강의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The course was helpful in learning practical knowledge and skills that would be required as a practicing attorney.)	4.25 (0.82)	0 (0)	4.18 (0.97)	43.47	4.18 (0.97)	43.47	4.18 (0.97)	23.85	
강의가 강의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다.(Lecture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course schedule outlined in the syllabus.)	4.31 (0.73)	0 (0)	4.39 (0.86)	52.46	4.39 (0.86)	52.46	4.39 (0.86)	27.03	
전체 평균	4.33 (0.75)	0.00 (0.00)	4.27 (0.93)	51.32	4.27 (0.93)	51.32	4.34 (0.89)	28.15	
○ 항목별 평가점수 - 5점: 매우 그렇다(strongly agree) - 4점: 그렇다(agree) - 3점: 보통이다(fair) - 2점: 그렇지 않다(disagree) - 1점: 매우 그렇지 않다(strongly disagree)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백분위 수치는 100에 가까우며, ()안의 수치는 평가점수의 표준편차임									

㉕ 정성 평가

◎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적어 주십시오.

- 수업이 즐겁다. 교수님께서 항상 웃으시면서 수업하신다.
- 다 좋았다.
-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시험 출제 방식도 합리적이었고 수업 내용도 재미있었습니다.
- 총론 부분을 자세히 나간 것이 다른 분반과 차별점이 되었음.
- 교수님이 워트 있으시고 좋았습니다.
- 교수님의 강의력
- 교수님께서 학생에게 질문하신 후에 잘 대답하지 못해도 배려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담 없이 수업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 교수님의 심도 있는 강의와 친절하신 설명이 좋았습니다.
- 헌법 조문 위주로 수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재밌는 설명

◎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수업 중 단심으로 배웠던 해양소송은 법 개정으로 1심이 고등법원 관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 없다.
- 판례를 적게 다루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 강의내용이 ppt에 좀 더 충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쟁점(외교학과 신범식 교수)

① 사업 목적

- 전통지정학과 비판·신지정학적 입장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방식과 논의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일의 환경, 주제, 인식 그리고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인식을 고양
- 통일문제를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지정학적 방식과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적 틀 속에서 이해하는 신지정학적 방식을 대비시켜 이해할 것을 촉구
- 통일의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평화의 문제가 어떻게 통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궁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 8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1	이재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	야마구치 히나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3	오예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4	박기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5	김민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6	진규영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7	박민웅	서울대학교 작곡과
8	이우빈	서울대학교 의예과
9	홍석호	기타 청강생

* 최초 18명 신청, 수강포기 8명, 휴학 2명 최종 8명(+ 청강생 1명)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 2018학년도 2학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3학점(A-F)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교수)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화요일 (09:30~12:20)

- 방식 : 이론 강의 및 질의응답

	날짜	강사명	소속	제목
제1강	9/4	신범식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평화와 통일의 전통적 개념과 담론
제2강	9/11	신범식		역사 및 정체성과 평화와 통일
토론1	9/18	신범식		한반도에서 상호 국가 인정은 통일 또는 평화의 선결조건이 될 수 있는가?
제3강	10/2	김선, 김희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통일 관련 인식의 세대적 변화
제4강	10/16	임기홍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통일과 평화의 정당성
토론2	10/23	신범식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통일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5강	10/30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북한의 경제특구, 접경소지역협력
참관	11/2	학술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관계」 참관		
토론3	11/13	신범식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경제와 복지의 새로운 출구로서 통일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제6강	11/20	김상배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한반도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제7강	11/27	전재성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고전지정학과 통일
토론4	12/4	신범식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	통일의 과정과 상태를 어떻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평가	12/11	기말고사		
	12/20	기말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		

④ 사업 성과

□ 수업 연구 개발

○ 강의 자료 개발

- 총 6주치의 자체 강의 교안(4회 토론 수업을 심화 수업)과 5번의 특강 강사들의 교안 개발.
- 통일에 대한 전통이고 통상적인 내용을 넘어 평화와 신지정학, 그리고 통합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교안에 담음.

□ 학생 교육 측면

- 총 5차례에 걸친 글쓰기 및 토론 과정을 통하여, 통일 및 평화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⑤ 증빙자료

[첨부 1] 강의 자료 예시

[첨부 2] 강의계획서 및 주차별 커리큘럼안

강의 계획서						
교과목 번호	시간/강의실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과	담당교수	
					직명	성명
	화9:30-12:20 83-502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쟁점	3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교수	신범식
교과목 개요	1. 주제, 개념, 내용: 본 강의를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전통적인 관점과 비판적 관점 그리고 신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평화에 대한 정의,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평화와 통일 사례들, 새롭고 청년세대 사이에서 부각되는 인식 간의 비교, 통일 및 통일 관련 개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양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통일 평화와 연관된 실질협력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목적: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통일의 환경, 주제, 인식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진행하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평화와 통일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이해하고, 공유점을 발견하고, 이를 확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도록 한다.					
	3. 특징 및 의의: 본 강의는 담당교수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강의 2회,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실습 토론(세미나) 1회의 일정을 4주에 반복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에세이를 글쓰기 훈련의 관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교재 - [교재1]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가전략연구원, 『통일의 신지정학』 (박영사, 2017). - 참고 교재 - [교재2]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 [교재3] 김규문 외,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교재4] 강원택 외 4인,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교재5] 조성원,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푸른나무, 2007). - [교재6] 신범식 편, 『북-중-러 경쟁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이조, 2018). - [교재7] 김상배, 신범식 엮음, 『한반도 신중안보의 세계정치』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첨부 3] 강의 평가 자료

㉠ 정량 평가

번호	문항 내용	평균(5점 만점)
1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24
2	강의 준비와 강의 내용이 충실하였다.	4.35
3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4.12

㉡ 정성 평가

평가문항	답변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적어 주십시오.	-
	-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배울 수 있었다
	한반도 미유의 대해 토론을 하고 강의록을 볼 수 있는 기회였고, 특히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흥복원 시국이 지어지던 20대 사이에서 안전한 현대에 통일에 대한 시안을 더욱 알파하고 할상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남북 current issue를 알수있어 너무 좋았다. 교수님과 조교님도 친절하셨고 열정이 넘치셔서 열심히 가르쳐주신거 같다.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교수님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조언
	통일에 대해서 스스로 심도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좀 더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선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토론이 조금 interactive 해지면 좋을 것 같다
	토론 수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좋을 듯 하다.
	다소 형식적인 상호평가체계
	-

11) 신입생세미나(문학으로 생각하는 북한 문제)

① 사업 목적

- 북한 작가의 시와 소설 작품을 읽어보기도 하고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북한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공유
- 남·북 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쉬운 청년들이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접함으로써 남·북이 공유하는 오랜 문학과 문화의 뿌리를 확인 및 북한의 사회적 조건과 탈북자의 삶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초석 마련
- 분단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동질성은 언어로부터 발견된다는 믿음 하에, 다양한 세대의 탈북 작가들을 초청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방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총 16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이름	소속
1	이예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	김승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3	김지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4	신유림	서울대학교 서어문학과
5	정준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6	강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7	정창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8	장재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9	서성일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0	이태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1	정다운	서울대학교 수의예과

12	김하연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13	한지양	서울대학교 수의예과
14	안소현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15	홍성암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16	이명훈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1학점(S/U)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방민호(국어국문학과 교수) 외 작가 4인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화요일 16:00-18:00

- 장소 : 인문대학 8동 303호

- 방식 : 세미나 진행 및 개별 발표

	날짜	강사명	소속	제목
제1강	3/13	조문호	작가	북한 대학생의 생활과 소설 창작 배경
제2강	3/20	김정애	작가	탈북 여성인의 소설쓰기
제3강	3/27	도명학	작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타자로서의 창작
제4강	4/3	이지명	작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삶
제5강	5/8	1차 학생 발표		북한의 집단문화
제6강	5/15	2차 학생 발표		북에서 온 유튜버
제7강	5/22	3차 학생 발표		북한의 유명인사
제8강	5/29	4차 학생 발표		북한 내 여성인권

일자	강의 내용	비고
3/6(화)	OT (다과 시간 포함)	
3/13(화) ~ 5/1(화)	작가 초청 및 세미나 ※ 매주 해당 책 배포	참가자 전원 및 별도 신청자에게 도서 증정
5/8(화) ~ 6/5(화)	중간 발표 진행 - 11/4(금) 중간 평가 진행	
6/12	결과 발표회 (중식 포함)	

④ 사업 성과

○ 다양한 세대의 탈북 작가를 초청해 대학 신입생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간의 인식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 마련 목표 달성

○ 매주 선정한 탈북 작가의 작품을 배부하여 각자 미리 읽어온 후 초청한 작가를 직접 만나 질의응답 및 소감 공유를 통해 통념을 재고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짐

⑤ 증빙 자료

※ 본 신입생 세미나 강좌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음

22) 신입생 세미나-다큐멘터리로 보는 통일(외교학과 조동준 교수)

① 사업 목적

- 이 강좌는 서울대학교 신입생 세미나의 일환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과 분단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분단의 상처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분단의 상처 치유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설됨.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1학년 신입생 총 11명
- 참가자 구성

단과대학	시작 인원	수료 인원
인문대	6명	5명
사회대	2명	2명
공대	5명	4명
생활과학대	1명	0명
자유전공학부	1명	0명
총원	15명	11명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기초교육원
- 학점 및 성적 부여 방식 : 1학점(S/U)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조동준(정치외교학부 교수)

○ 강의 일자 및 내용

일자	내용	제출
2018.09.04	수업 소개, 다큐멘터리 시청 1("사랑은 기적을 이룬다-장기려," KBS 인물현대사 2003.12.05.), 의견교환	소감문(1문단)
2018.09.11	탈북 대학생과 함께 프로야구 관람+의견교환	소감문(1문단)
2018.09.18	다큐멘터리 시청 2("살아 돌아온 망자-조창호," KBS 인물현대사, 2004.6.25.), 의견 교환	소감문(1문단)
2018.09.27-28	1박 2일 답사 (강화도 일대)	소감문(1쪽)
2018.10.02	다큐멘터리 시청 3("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의 기록," KBS 역사스페셜 2012.06.28.)	소감문(1문단)
2018.10.16	다큐멘터리 시청 4("어느 인민군 병사의 수첩," KBS 스페셜, 2011.7.3.)	소감문(1문단)
2018.10.23	다큐멘터리 시청 5("박정희와 레드 콤플렉스 - 황태성 간첩사건,"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1.08.17)	소감문(1문단)
2018.10.30	다큐멘터리 시청 6("내 조국은 어디인가 - 남북여부 이재근," KBS 인물현대사, 2004.10.8)	소감문

④ 사업 성과

- 서울대학교 신입생들과 함께 강좌를 진행해 나가며 주제와 관련된 6개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통일/분단에 대한 감수성 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함.
- 또한 통일/분단 지식 향상 및 현장 학습을 통한 체화된 지식과 감성을 길러 낼 수 있었음.

⑤ 증빙 자료

[첨부 1] 다큐멘터리 시청 후 수강 학생 소감문

1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통일이었지만 다큐멘터리 '살아 돌아온 망자'를 통해 수 십 년 만에 돌아와 전역 신고를 하시는 참전용사들과 그 분들의 아픔, 그리고 답사를 통해 가까이에서 본 북한을 보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 이**).
2	"서울대학교의 신입생 세미나에서는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는데, 다큐멘터리와 답사를 통해 북한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남한과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되짚어볼 수 있었다. 남북 관계에 있어 '이산가족'은 단순히 감정적이며 지나갔을 뿐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정 이상 세대 앞에 놓인 과제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새삼 깨달았다" (수강생 안**)
3	신입생세미나가 내게 오직 사람이라는 선물만 준 것은 아니다. 통일과 남북한의 관계, 평화 등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주로 일방향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 ... 통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에 교수님이나 동기들과 토의할 기회가 있

기 때문에 심화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간 상 문제로 다큐멘터리 시청 후에 질의응답을 원활히 할 수 없었지만 다음 수업부터는 적극 참여하고 싶다. 특히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입생세미나는 다른 강의들과 차별화된 교수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도와 이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강생 김**).

[첨부 2] 신입생 세미나 답사 일정(9/23-9/29)

1일차 9/28	2일차 9/29
<p>9월 28일</p> <p>12:30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출발(머핀+음료 확보)==> 강화 갑곶 둔대(90분 예상)</p> <p>14:00 강화 갑곶둔대 주차장 도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30분 예상)</p> <p>14:30 갑곶둔대 주차장 출발 ==> 던킨 도너츠 ==> 고려궁지 주차장 (20분 예상)</p> <p>14:50 고려궁지 도착 + 관람 (약 30분 예상)</p> <p>15:20 고려궁지 주차장 출발 ==> 강화역사박물관 주차장 (20분 예상)</p> <p>15:40 강화역사박물관 주차장 도착 + 관람 (40분 예상)</p> <p>16:25 강화역사박물관 주차장 출발 ==> 강화평화전망대 (20분 예상)</p> <p>16:45 강화 평화전망대 도착 (40분 예상)</p> <p>17:25 강화 평화전망대 ==> 장화리 일몰조망지 주차장 (60분 예상)</p> <p>18:25 장화리 일몰조망지주차장 도착 + 낙조 관람 + 휴식 (30분 예상)</p> <p>18:55 장화리 일몰조망지주차장 출발 ==> 갯별식당</p> <p>19:00 갯별 식당에서 식사 (한 시간 반 예상)</p> <p>20:30 갯별 식당 ==> 화도공용버스터미널 (1차 서울 북귀팀 하차)</p> <p>20:45 화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CU강화해안로점으로 이동</p> <p>21:00 숲속의 오후로 출발</p>	<p>9월 29일</p> <p>09:00 기상</p> <p>10:00 숙소 출발 ==> 정족산성 주차장 (40분 이동 예상)</p> <p>11:00 정족산성 관람 (한 시간 예상)</p> <p>12:10 정족산성 주차장 ==> 초지진 (20분 예상)</p> <p>12:30 초지진 관람 (30분 예상)</p> <p>12:40 초지진 출발 ==> 퓨전궁중두부</p> <p>*퓨전궁중두부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동로 124 (초지리 19-118)</p> <p>032-937-7921</p> <p>13:30 서울 출발</p>

[첨부 3] 신입생 세미나 답사 중 사진



강화 양현수 사당 앞



강화 초지진

[첨부 4] 강화도 답사 후 소감문 모음

1	<p>이렇게 평화와 통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 강화도로 답사를 떠났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기숙사생으로서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한 것도 정말 좋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며 북한의 땅을 보았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원래 래 빨간 깃발들이 휘날렸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남북화합의 분위기 때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내가 죽을 때까지 가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살짝 다치시미 하셨지만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다는 것, 친구들과 더 친해졌다는 것, 평화전망대부터 포탄을 맞은 소나무까지 강화도에서 보고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템플스테이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 강**).</p>
2	<p>답사를 통해 출발 전에는 어색했던 우리가 조금씩 친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강화도는 처음 가보는 장소라 저는 이 답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첫 날에는 계획자체를 일몰에 맞추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강화도의 주요 장소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오랜만에 바다에서의 일몰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강화도가 겪어온 역사적 사건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답사전에는 강화도라고 하면 일본과의 관계, 강화도조약의 인상만 있었지만 답사를 통해 다양한 강화도의 역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화도가 생각보다 훨씬 북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땅이 눈앞에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가는 현실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여러 모로 저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답사였습니다. (수강생 이**).</p>
3	<p>많은 것을 보고, 낙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첫 날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첫 날 일정 도중에 조금 힘들었지만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녁을 먹으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숙소에서의 시간이다. 처음에 교수님께서 면담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긴장을 많이 했지만 교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무엇보다 달빛과 별과 밤공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경험 자체가 정말 낭만적이었다. 서울대에 와서 아쉬웠던 것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조연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지식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에 의의가 있었던 답사였고, 교수님과 동기들과 낭만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수강생 박**).</p>

□ 통일교육 비교과 강좌 운영

과정	번호	강의 제목	개설단위(교수)	개설학기	수강인원
비교과	1	통섭형 통일국토교육과정 운영	지리학과(박수진)	2	56
	2	통일법 세미나	법대(이효원)	1-2	18
	3	통일법의 현황과 과제		2	12
	4	통일법 강좌		1-2	32(14-18)
	5	통일법 학위논문 세미나		2	23
	6	간호대학(원)생 통일보건의로 교육		간호대(채선미)	2
	7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리더 양성	공대(이현수)	2	39
	8	통일교육 아카데미	사범대(박성춘)	2	48
	9	'북한의 기초과학 현실과 전망' 세미나 시즌 2	통평원(한모니까)	1	8
	10	시민 평화학교	통평원(이찬수)	1	92
	11	철원 통일·평화 현장학습 강좌운영 사업	자유전공학부(김범수)	1	134
	12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인권캠프	사회대(정근식)	여름방학	13
총원					539

1) 통섭형 통일국토교육과정 운영(지리학과 박수진 교수)

- ① 사업 목적
- 통일국토교육 발표자 섭외 ·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마련 및 기초계획 수립
 -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국토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통일국토교육의 기본 모형, 교재 개발을 위한 시험 모형 구축
 - 통일국토교육 답사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DMZ와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일대를 탐방함으로써 남북한의 협력과 대립이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관찰 및 탐구
 - 통일국토교육과정 평가 및 통일지리 교과서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기 운영한 상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도출 및 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체계화 하여 학부생 대상 교과서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도출을 시도하여 향후 논의 내용을 실제 북한 교과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총 56명
- 참가자 구성

㉠ 통일 국토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총 56명

연 번	이 름	전공
1	김기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	금창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3	정재선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	변윤섭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5	이정상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6	오문현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7	이민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8	신우택	자유전공학부
9	최정용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10	전정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연 번	이 름	전공
11	전찬익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2	임태용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3	김병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14	이한섭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15	배종우	인문대학 언어학과
16	유동한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7	길홍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8	이현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	최예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	민경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1	송인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2	김서진	자유전공학부
23	고나영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4	이종호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5	박태영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6	배광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7	박병선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8	정혜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9	이종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30	심은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31	이소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2	이유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3	이진경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4	김예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5	송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6	윤승일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37	김도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38	이다영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39	송창후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0	황세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1	임승현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2	장희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3	안수혁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연 번	이 름	전공
44	배정엽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5	장채린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6	김수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7	오성훈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8	김정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9	이예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0	이석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1	강민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2	김준영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3	김하정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4	최기훈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청강생 석사과정)
55	같은비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청강생 석사과정)
56	강연주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청강생 석사과정)

㉔ 통일국토교육 답사프로그램 개발·운영 참가자총 27명

연번	이름	전공
1	이정상	정치외교학부
2	김정민	지리학과
3	김서진	자유전공학부
4	김예원	지리학과
5	이종호	지리학과
6	최예원	영어영문학과
7	김도희	지리학과
8	최정용	고고미술사학과
9	이현주	지리학과
10	임태용	지리학과
11	김기준	지리학과
12	변윤섭	경제학부
13	배정엽	지리학과
14	길홍준	지리학과
15	유동한	지리학과
16	송준	지리학과

연번	이름	전공
17	이예찬	지리학과
18	임승현	지리학과
19	김수민	지리학과
20	김준영	지리학과
21	고나영	지리학과
22	이한섭	산림과학부
23	민경준	농경제사회학부
24	최인준	농경제사회학부
25	이소민	지리학과
26	이석준	지리학과
27	오성훈	지리학과

© 통일국토교육과정 평가 및 통일지리 교과서 개발방안 회의 총 12명

연번	성명	소속·직책	구분	자문회의 참석여부 (○-참석, X-불참, ◎-서면참여)		
				1차	2차	3차
1	이민부	한국고원대학교 교수	자문	○	○	○
2	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		X	○	○
3	최영은	건국대학교 교수		X	○	X
4	박효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X	○	○
5	김두철	日 오카야마대학교 교수	자문	X	X	◎
6	김석주	中 연변대학교 교수		X	X	◎
7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	X
8	안재섭	동국대학교 교수		X	○	X
9	이복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전담교원		X	○	X
10	박수진	서울대학교 교수	자문청취 · 정리	○	○	○
11	허정화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X	○	X
12	안유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X	○	○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박수진(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허정화(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외 11명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금요일 14:00 ~ 16:00

- 장소 : 서울대학교 16동 214호

- 진행 방식 : 강의 및 질의응답 · 답사 · 회의

구분	사업 진행 내역
1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토교육 강사 초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 : 3 ~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초빙하였던 각 분야의 전문가, 북한과 접촉 경험이 있는 실무진, 새터민 출신 연구자를 중심으로, 강사 초빙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활동 진행 ○ 국내 전문가 초빙 :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확대 추진
2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 개발 : 6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 2학기 개설 예정인 지리학과 학부전공선택 과목 “북한지역 연구특강”을 중심으로, 공개강좌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된 통일국토교육 네트워크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발 - 2017년 개발한 강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및 공개강좌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문가 : 10명 - 학내 전문가 : 1 ~ 2명
3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9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프로그램을 토대로 수업 및 공개강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정원보다 많은 청중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섭외 - 포스터, 인터넷,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 진행 - 강연자료 공개 및 사진촬영(가능한 경우) 녹화 ○ 현장 답사 프로그램 운영 : 10~11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또는 휴전선 일대 예정 - 전문가 동행하여 진행 ○ 각 주차 강의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수강생·외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강의에 대한 평가 청취 - 평가 내용을 전달하여 기록 및 강사에게 전달
4	통일국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사점 도출 : 12월

프로그램 개발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토교육 평가 내용 정리, 당초 계획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평가 진행 ○ 성과, 한계, 시사점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	---

㉠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차	날짜	담당강사	소속	내용
1주	9/7	허정화 (담당교수)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강의소개
2주	9/14	안유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수료	북한의 자연환경(1)
3주	9/21			북한의 자연환경(2)
4주	9/28	홍승표	개성공업지구 과장	북한의 경제지리(1) : 개성공단의 설립과 운영
5주	10/5	조총희	북방연구회 연구위원	북한의 도시지리(1) : 북한의 주요 도시와 특징
6주	10/12			북한의 도시지리(2) : 북한의 도시화와 주민생활-평성군을 중심으로
7주	10/19	변상욱	개성공업지구 부장	북한의 경제지리(2) : 북한의 지역개발-개성공단 등
8주	10/26	자율학습		
9주	11/2	허정화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접경지 답사(철원, 연천 일대) * 중일 진행, DMZ일원 등에 대한 답사 진행
10주	11/9	남종우	통일부 북한인권과장	북한의 정치지리
11주	11/16	휴 강		
12주	11/23	김형석	대진대 교수 前통일부차관	북한의 정치외교(1) : 북한 변화의 동인과 전망
13주	11/30			북한의 정치외교(2) : 북한의 잠재적 가치와 한반도의 미래
14주	12/7	조총희	북방연구회 연구위원	북한의 사회지리- 북한의 문화와 주민생활

* 주차별 상세 강의 내용은 증빙 자료에 첨부된 PPT 파일 참조

㉡ 통일국토교육 답사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간 : 2018년 11월 2일(금) 9:00 ~ 18:00
- 장소 :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접경일원(현장탐방)

시 간	장 소	세부내용	비 고
09 : 00	서울대	집결/인원점검	전용버스
09:00~11:30	이 동	서울대→고속도→승리전망대	서울-포천-철원
11:30~12:20	승 리 전망대	-민통선 출입 -11개전망대중 정중앙 전망대	육군보병15사단

		-북한 DMZ 향해 사진촬영	
12:20~12:40	이 동	승리전망대→안중식당	
12:40~13:30	목단식당	중식	
13:30~14:00	이 동	목단리→생창리	
14:00~15:20	생 창 리	마을방문자센터	-육군보병3사단 -국도 5번/43번 교차지점 -도로원점 -김화이야기
	D M Z 생태평화공원 용 양 보	-생태평화 습지 탐방 -DMZ 통문 철책선 답사 -북한 오성산 -금강산가는철도 -남방한계선내 진입 -용양보 생태계 탐방/가마우지	
15:20~17:30	이 동	철원→서울	
17:30	서 울	도착 및 해산	

㉢ 통일국토교육과정 평가 및 통일지리 교과서 개발방안

차수	일시/장소	내용
1	'18. 11. 23(금) 16:00-18:00/ 경희대학교 Space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지리학대회 특별세션 "한반도 평화시대, 지리학의 역할"에서 북한지리 교과서에 대한 자문 논의 • 이민부 교수, 이정훈 박사 외 추가 자문위원 논의
2	'18. 11. 30(금) 18:00-21:00/ 용산역 '기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토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국내학자를 중심으로 • 통일교육 교과서 목차구성·임무분담·추진계획 논의
3	'18. 12. 6(목) 17:00-19:00/ 서울대학교 소담마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토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해외학자를 중심으로 • 통일교육 교과서 목차구성·임무분담·추진계획 논의(계속)

㉣ 사업 성과

- [통일국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본 프로그램은 지리학과 전공선택 "북한지역연구특강"으로 2017년 2학기에 강으로써 개발된 이후 2년차를 맞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인 지리학과 전공선택 교과목이 수요를 고려하여 2년에 한번씩 개설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은 지리학과 학생 뿐 아니라 타 전공, 대학원생, 일반인까지 많은 학생들이 수강·청강을 진행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향후 북한 관련 연구 및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

- 많은 학생들이 통일 및 통일국토 관련 분야 및 북한지리 연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관련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통일지리 교과서 개발방안 도출] 상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부생 대상 “통일지리 교과서”의 개발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기초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음

- 자료부족 및 관련 전문가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자문을 진행하여 통일지리 교과서의 목차구성 초안과 개략적인 추진계획을 도출할 수 있었으나 2019년에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과 관련 노력 지속 진행을 통해 시의적절한 북한지리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

⑤ 증빙 자료

[첨부 1] 답사 현장 사진



[첨부 2] 통일지리 교육과정 자문위원 자문내용

연번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자문내용
----	----	----	----	----	------

1	1차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민부	북한 지리 연구 발전 방안에 대한 시론
2	2차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공우석	북한의 생태계 문제 연구 현황
3	2차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최영은	북한을 포함한 한국의 기후와 전망
4	2차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	본부장	이정훈	접경시대 변화 과정과 전망, 미국-멕시코 초국경 생활경제권과 북-중 접경시대 사례
5	2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 중점교원	이복남	통일한반도 인프라 구축 전략 구상
6	2차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안재섭	북한도시공간구조
7	2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박효석	"중기홀로세이후 북반구 기후변화"를 통해 본 북한의 환경변화 문제
8	2차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민부	2차 자문회의 총평 및 "북한지리 교과서" 내용 구성방안
9	3차	오카야마대학 환경생명과학연구소	교수	김두철	북한의 20세기 토지이용 변화
10	3차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김석주	중 북 러 접경지역 경제 및 물류 네트워크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 통찰
11	3차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민부	3차 자문회의 총평 및 "북한지리 교과서" 내용 구성 수정방안

[첨부 3] 통일지리 교과서 목차 시안

제 1부 북한의 자연지리	
I. 북한의 지형·지질 : 이민부(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지질	2. 지형
1) 암석분포	1) 지형 형성작용
2) 지체구조	2) 산지
3) 지질과 지하자원	(1) 산지 분포

- | | |
|---------------------|-------------|
| (2) 주요 산맥 | (2) 주요 하천지형 |
| (3) 침식면, 퇴적면, 산록완사면 | 4) 해안과 해양 |
| 3) 하천과 평야 | 5) 화산지형 |
| (1) 일반적 특색 | 6) 지형과 자연재해 |

II. 북한의 기후 : 최영은(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 | |
|--------------------|---------------|
| 1. 기후인자와 관측환경 | 6) 극한기후지수 |
| 1) 기후인자 | (1) 고온 관련 지수 |
| (1) 지형 | (2) 저온 관련 지수 |
| (2) 해류 | (3) 강수 관련 지수 |
| (3) 기타 인자 | 3. 기후지역구분 |
| 2) 관측환경 | 4. 기후변화와 미래전망 |
| (1) 지리적 특성 | 1) 기후변화 |
| (2) 기후자료의 특성 | 1) 기온 |
| 2. 연평균 및 계절별 기후 특성 | 2) 강수량 |
| 1) 기온 | 3) 기타 |
| (1) 연평균기온과 연교차 | (1) 자연계절길이 |
| (2)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 (2) 기후지역구분 |
| 2) 강수 | 2) 미래전망 |
| (1) 강수량 | 1) 기온 |
| (2) 강수일수와 강수강도 | 2) 강수량 |
| 3) 바람 | 3) 기타 |
| 4) 기타 요소 | (1) 자연 계절길이 |
| 5) 주요 현상일수 | (2) 기후지역구분 |

III. 북한의 생태환경·식생 : 공우석(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조림 |
| 2. 북한의 식물 | 4. 북한의 동물 |
| 1) 식물 다양성과 분포 | 1) 동물 다양성과 분포 |
| 2) 식물지리구 | 2) 동물지리구 |
| 3) 식생사 | 3) 보호 동물과 동물보호구 |
| 4) 보호 식물과 식물보호구 | 5. 주요 생태계 |
| 3. 산림 | 1) 고산생태계 |
| 1) 산림 수종과 분포 | 2) 습지생태계 |
| 2) 산림 식생 | 3) 농경지생태계 |
| 3) 산림 훼손 | 6. 마무리 |

IV. 북한의 수문과 환경 : 박효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 | |
|------------------|---------------|
| 1. 서론 | (1) 댐과 담수호 |
| 2. 북한 주요 하천과 수자원 | (2) 발전시설 |
| 1) 주요 하천 | 3. 북한의 환경 |
| (1) 압록강 | 1) 대기 환경 |
| (2) 두만강 | 2) 토양과 산림 |
| (3) 대동강 | 4. 환경 문제 전망 |
| 2) 하천유역의 특성 | 1) 대기오염 |
| (1) 지역에 따른 강우량 | 2) 기후변화 |
| (2) 지형 및 수문학적 특성 | 3) 산림훼손과 토양유출 |
| 3) 주요 수자원 시설 | |

제 2부 북한의 인문지리

V. 북한의 지역, 농촌, 토지이용 : 김두철(오카야마대학 교수)

- | | |
|----------------------|---|
| 1. 서론 | 3) 인구분포 |
| 2. 연구 방법 | 3. 20세기 북한의 토지이용변화 -평양주변 200km 지역을 대상으로 |
| 1) 분석 절차 | 4. 고찰과 전망 |
| 2) 토지이용구분과 토지이용 인정기준 | |

VI. 북한의 인구 : 김석주(연변대학교 교수)

- | | |
|------------------|--------------|
| 1. 서론 | 3) 인구분포 |
| 2. 북한 인구의 구조와 분포 | 3. 북한 인구의 동태 |
| 1) 인구변화 | 1) 인구성장 |
| (1) 1945~1960년 | 2) 인구이동 |
| (2) 1960~1970년 | 4. 인구문제와 전망 |
| (3) 1970~1980년 | 1) 인구문제 |
| (4) 1990년 이후 | 2) 인구전망 |
| 2) 인구구조 | |

VII. 북한의 경제, 산업 : 이정훈(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 | |
|-------------------|---------------------|
| 1. 서론 | 3. 북한의 공업 |
| 2. 북한의 경제 구조 | 1) 공업정책의 변화와 공업의 발전 |
|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 2) 공업의 지역 구조 |
| 2) 북한경제의 성장 | 4. 북한의 서비스업 |
| 3) 북한의 기업과 시장 | 1) 주요 서비스업 분포 |

- | | |
|----------------------|------------------------|
| 2) 북한의 시장화 | 현재와 발전 전망 |
| 5. 경제특구 및 접경 대외개방구 | 6.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경제권 |
| 1)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 변화 | 1) 남북 경제협력과 공간구조 변화 전망 |
| 2) 경제특구 및 접경 대외 개방구의 | 2) 한반도 경제권 구성 |

VIII. 북한의 도시 : 안재섭(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 | |
|--------------------------|-------------------|
| 1. 서론 | (1) 평양과 대도시의 성장 |
| 2. 북한 도시화 과정과 도시 분포 | (2) 중소도시의 성장 |
| 1) 도시화 과정 | 2) 도시의 공간구조 |
| (1) 해방 이전의 도시화 | (1) 사회주의 도시의 공간구조 |
| (2) 해방 이후의 2000년 까지의 도시화 | (2) 평양도시의 공간구조 |
| (3) 2000년 이후의 도시화 | (3) 중소도시의 공간구조 |
| 2) 도시 분포와 도시체계 | 4. 도시 문제와 전망 |
| 3. 북한 도시의 구조 | 1) 도시 문제 |
| 1) 도시 성장 | 2) 도시 전망 |

IX. 북한의 교통인프라 : 이복남(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교원)

1. 교통인프라 개요
 - 1) 국토인프라와 교통
 - (1) 국토인프라 개요
 - (2) 국토인프라와 국가경쟁력
 - (3) 교통인프라 속성
 - 2) 국토인프라의 세계적인 동향
 - (1) 세계 교통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화 가속
 - (2) 속도와 수송량 확대 경쟁
 - (3) 스마트화
 - (4) 2차 대전 후 급격하게 늘어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노후화 가속
2. 북한 교통인프라 일반
 - 1) 교통인프라 구축 정책과 정치.경제 관계
 - (1) 사회주의 도시와 거주 정책
 - (2) 대외무역보다 내수 자립 기반 경제 중심
 - (3) 국가경제 여력과 개인소득이 교통인프라 구축에 미치는 영향
 - 2) 북한 교통인프라의 특성
 - (1) 사회주의 근본과 거주 및 이동 제한에 의한 중심교통 수요 억제
 - (2) 일자리아와 주거지 정책(직주환경)으로 도시교통인프라 수요 억제
 - (3) 내수 경제 자립화 정책으로 인한 항만교통 수요 제한
 - (4) 철도중심의 육상교통과 신수요 제한 등

3. 북한 교통인프라 부문별 현안

- 1) 육상교통인프라
 - (1) 육상 교통인프라 구성과 특징
 - (2) 도로 및 철도 양적 및 질적 현안
 - (3) 노후화로 인한 안전과 성능 현안 등
- 2) 항공교통인프라
 - (1) 정치.외교.무역.관광 수요와 북한의 공항인프라 현안
 - (2) 민간항공 수요로 인한 공항인프라 현안 등
- 3) 해상교통인프라
 - (1) 경제 생산 주체와 무역거래 수요 한계로 인한 항만인프라 현안
 - (2) 항만인프라와 육상교통인프라 연계성 부족 현안 등
- 4) 도시교통인프라
 - (1) 평양 외 기타 도시교통인프라 현안
 - (2) 국토와 도시개발 정책과 도시교통인프라 현안
 - (3) 대중교통인프라와 개인 교통 활용 현안
4. 통일한반도 교통인프라 통합 과제
 - 1) 남.북한 교통인프라 양적 비교
 - (1) 남북한 육상교통 기간망 통합
 - (2) 도로교통 양적 비교
 - (3) 철도교통 양적 비교
 - 2) 남.북한 교통인프라 질적 비교
 - (1) 경제여력과 소득수준에 의한 질적 성능
 - (2) 도로교통 질적 비교
 - (3) 철도교통 질적 비교
 - 3) 남.북한 교통인프라 법과 제도 비교
 - 4) 남.북한 교통인프라 기술 기준 비교
 - (1) 도로교통 기술 기준 비교
 - (2) 철도교통 기술 기준 비교
 - 5) 남.북한 교통인프라 산업체계 비교
 - (1) 남한의 교통인프라 산업체계
 - (2) 북한의 교통인프라 산업체계
 - (3) 남.북한 교통인프라 산업체계 비교
 - 6) 남.북한 교통인프라 건설기술인력 양성체계 비교
 - (1) 남한의 건설 기술인력과 기능인 양성 체계
 - (2) 북한의 건설 기술인력과 기능인 양성 체계
 - (3) 남.북한 건설 기술인력과 기능인 양성 체계 비교
 - 7) 통일한반도 교통인프라 통합 과제
 - (1) 남.북한 교통인프라 망 통합과제
 - (2) 대륙연계 교통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3) 남.북한 교통인프라의 양적.질적 통합 과제
 - (4) 수준 차이 해소를 위한 과제 등
5. 맺음말

2) 통일법 세미나 (법대 이효원 교수)

①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활동하는 헌법통일법학회 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식 교육을 진행(2018년도 1·2학기에 개설)
- 이를 통해 남북한관계 및 통일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심도깊은 안목을 키우고자 독일통일판례 위주로 강의 진행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 18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1	손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2	김진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3	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4	김남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	전세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6	김태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7	박유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8	신유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9	이윤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	이은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1	박기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2	이혜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3	전령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4	김정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5	황신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6	김용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7	김우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8	김영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학과 : 2018학년도 1,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이효원(법학과 교수) 외 9명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17:00 ~ 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305호

차시	일시	강사명	소속	강의주제
제1강	3. 31(토)	강민식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생	GDR criminal court judge II case (admission as a notary public) (EuGRZ 2000, pp. 475 ff.)
제2강	4. 28(토)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비서실장	Waiting loop case (civil servants' employment contracts) (BVerfGE 84, 133)
제3강	5. 26(토)	이재희	법무부 공익법무관	Bar admissions case (BVerfGE 93, 362)
제4강	6. 30(토)	서경준	육군사관학교 법학 강사	Judicial Service Courts' competences case (BVerfGE 87, 68)
제5강	9. 29(토)	유성욱	법무부 공익법무관	GDR civil service employment periods case (BVerfGE 103, 310)
제6강	10.27(토)	김지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Pension expectancies case (system decision) (BVerfGE 100, 1)
제7강	12.22(토)	강승우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생	Basic disability pension case (BVerfGE 102, 41)
		이상협	법무부 공익법무관	GDR specialist in sports medicine case (NJW 2000, 41, pp. 3057-3058)
		박종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Stendal south railway line bypass case (BVerfGE 95, 1)

차시	강의내용
제1강	○ GDR criminal court judge II case (admission as a notary public) (EuGRZ 2000, pp. 475 ff.) -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으로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형사 사건들에서의 판결 가담(동독 하위지방법원의 장)을 이유로 한 공증소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판단
제2강	○ Waiting loop case (civil servants' employment contracts) (BVerfGE 84, 133) - 동독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일조약에서의 "대기 루프 조항"에 대한 판단
제3강	○ Bar admissions case (BVerfGE 93, 362) - 신 연방 주들에 있어서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

3) 통일법의 현황과 과제 (법대 이효원 교수)

① 사업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 내 통일법 교육과정을 개설
 - 통일정책추진은 구체화된 법제도로 이루지는 법치주의 질서에 구속되는데,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사회 전문가에 비해 법전문가는 부족하므로 따라서 법전문가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역할이 필요하고 본 사업은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교육활성화의 일환으로 존재함
- 통일법 제도에 대한 법이론 교육을 심화
 - 통일문제가 복잡·다양하고 통일법 연구주제·대상도 이에 준하나, 크게 북한법, 남한 내 북한관련 법제도(남북교류법제 등)로 구분가능하다. 이에 본 사업 기간 중에는 북한법을 중심으로 진행 예정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총 12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1	강민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	강승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	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4	김남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5	전세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6	김태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7	서경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8	신유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9	이윤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0	이은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1	박기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2	이혜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이효원(법학과 교수) 외 8인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2학기 매주 토요일(15:00 ~ 16: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305호
- 방식 : 이론강의 및 질의응답

차시	날짜	강사명	소속	제목
제1강	18. 09. 01(토)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한법을 헌법부문·주권부문
제2강	18. 09. 08(토)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한법을 행정부문
제3강	18. 09. 15(토)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한법을 형민사부문
제4강	18. 09. 29(토)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한법을 재판, 인민보안부문
제5강	18. 10. 06(토)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한법을 계획, 노동, 재산관리부문
제6강	18. 10. 13(토)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한법을 보건부문
제7강	18. 10. 06(토)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한법을 사회복지부문
제8강	18. 10. 13(토)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한법을 북남경제협력부문
제9강	18. 10. 20(토)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한법을 남북한 외교, 대외경제부문
제10강	18. 10. 27(토)	김현창	법무부 검사	* 특강 : “북한의 젠더”
		유성욱	공익법무관	
		윤형석	국회 비서	
		이상협	공익법무관	
제11강	18. 11. 24(토)	홍영기	공익법무관	* 워크샵 :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한철웅	변호사	
		박종원	판사	
제12강	18. 12. 22(토)	이재희	검사	총강 및 총정리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차시	강의내용
제1강	○ 헌법부문·주권부문 - 헌법제정 및 개정의 경위,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질서 - 남한헌법과 비교 : 헌법의 기본질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와 작용 등
제2강	○ 행정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法源), 기본원리 - 대상법률 : 평양시관리법, 공무원자격판정법, 행정구역법, 신소청원법
제3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형민사부문 - 민사부문 : 민법, 손해보상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상속법 등 - 형사부문 : 형법, 형사소송법 등
제4강	○ 재판, 인민보안부문 : 재판소구성법, 공증법, 변호사법, 공민등록법 등
제5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노동, 재산관리부문 - 계획부문 : 인민경제계획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 노동부문 : 사회주의노동법, 노동정량법, 노동보호법 - 재산관리부문 : 기업소법, 자재관리법, 설비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부동산관리법
제6강	○ 보건부문 : 인민보건법, 의료법, 공중위생법, 식료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의약품관리법
제7강	○ 사회복지부문 : 적십자회법, 사회보장법, 근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제8강	○ 북남경제협력부문 :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법
제9강	○ 남북한 외교, 대외경제부문 : 무역법, 외국인투자법
제10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젠더부문 : 북한내부의 여성에 대한 권리보장·평등보장 조항(예정) * 강연자 : 유성욱(공익법무관), 윤형석(국회비서), 이상협(공익법무관), 홍영기(공익법무관), 김현창(법무부)
제11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경상북도 통일교육센터 소재지(경상북도 안동) 방문 * 남북교류협력 추진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양상 확인 - 해당지역 교육기관(안동대학교)과 학술대회 병행 - 최근 남북관련법의 주요쟁점(판문점, 평화협정, 대북제재)의 의의 발표 - 통일법 관련 직위자, 전문가, 법조인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연구성과 발표 및 의견교환·토론으로 참여자의 연구능력 향상

주요 경과

- ① 일 시 : 18. 11. 24(토)
- ② 시 간 : 15:00 ~ 18:00
- ③ 장 소 : 안동대학교
- ④ 주제 :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사회 : 이재명, 이효원, 김혜현
 - * 발표 1 :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법적 의미(한철웅 변호사)
 - * 발표 2 : 평화협정을 주요 쟁점(박종원 판사)
 - * 발표 3 :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제재(이재희 검사)
- ⑤ 토론자 : 김홍식 교수(안동대학교), 최민수 교수(안동대학교), 이동건 법무관(해군)

④ 사업 성과

○ 북한법령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2017년 최신 북한법령집 확보로 북한 법제도의 동향 분석 가능해졌다. 남북한 법령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체제 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분석 및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를 진행하였다.

○ 안동 워크숍 및 학술대회를 진행하여 성과를 가시화한 점이다. 이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 및 평화협정 등 남북관계의 최신주제에 대한 쟁점 논의하며, 타 학교와의 통일법 학술교류로 다양한 의견청취하고 통일법 교육과 연구기반의 저변 확대할 수 있었다.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현장 사진 및 시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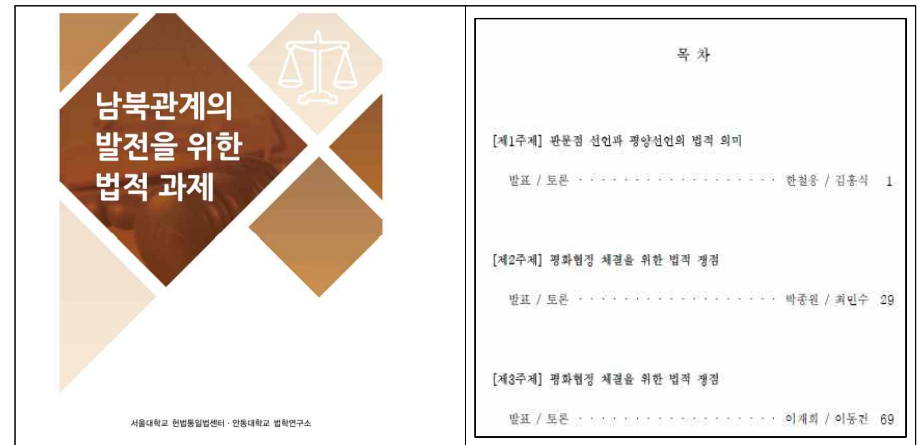


세미나 및 수업진행

북한법의 젠더 특강

안동 워크숍 및 학술대회

[첨부 2] 2018년11월24일안동대학교공동주최학술대회 자료집(일부)



[첨부 3] 북한법에 나타난 젠더 강의자료(일부)

<p>북한법에 나타난 젠더</p> <p style="text-align: right;">홍영기</p>
<p>⑩ 서론</p> <p>본 글에서는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생략) 사회주의헌법(이하 '북한 헌법'이라 한다)과 사회주의로동법(이하 '북한 노동법'이라 한다), 로동보호법(이하 '북한 노동보호법'이라 한다), 녀성권리보장법(이하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이라 한다), 가족법, 상속법에서 여성 성별을 특별하게 규정한 조문을 찾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유사한 내용을 가진 대한민국의 헌법 또는 법률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만약 비슷한 내용의 두 법률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한 사법심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아울러 검토한다. 다만 이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북한 헌법에서는 여성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적고 여성권리보장법에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편의상 헌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동시에 논할 것이다.</p> <p>반대로, 우리나라의 헌법 또는 법률 중 여성 성별을 특별하게 규정한 조문을 찾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유사한 내용을 가진 북한의 헌법 또는 법률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두 법률이 통합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다.</p> <p>⑪ 북한의 헌법·여성권리보장법과 남한의 헌법·법률 비교</p> <p>○ 남북한 헌법의 비교</p> <p>북한 헌법에서 여성의 권리의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제77조를 들 수 있다. 북한 헌법 제 77조는 다음과 같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 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p> </div> <p>위 헌법 규정 1문은 여자와 남자는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일반 추상적 규정이다. 이는 북한 헌법 제 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의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져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평등한 지위를 강조한 문구로 볼 수 있다. 2문은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와 '어머니' 즉, 자녀를 가진 여성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 3문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보장하는 규정이다.</p> <p>우리나라의 경우 평등권 조항인 제11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외에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제34조 제3항에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제36조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p> <p>북한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북한 헌법에서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와 어</p>

머니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데에 반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러한 조문이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모성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조문을 근거로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보호를 도출할 여지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호의 객체를 '자녀를 가진 여성'이라고 명시하는 북한 헌법보다는 보호의 정도가 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헌법 중 남녀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는 제77조 제1문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대응하고 국가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제3문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3항, 나머지 제2문은 제36조 제2항의 해석에 따른 결론과 대응될 수 있으나 2문은 산전산후휴가, 노동시간 단축, 산원탁아소·유치원망 등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기에는 다소 구체적인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

○ 북한 여성권리보장법과 남한 법률 비교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는 여성의 권리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문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 조문들을 단순 열거하기보다는 조문의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 조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부류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취급, 특히 여성에 대한 열등한 대우를 방지하는 조문들을 말하고 다른 하나의 부류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규정한 조문들을 말한다. 전자는 소극적인 차별금지규정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적극적인 여성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조문들은 위 헌법에서 검토한 부분의 주의적 규정 내지는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북한 헌법 제65조에서 평등권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고 제 77조 제1문에서 여자와 남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다시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하위라고 볼 수 있는 법률 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특정 영역에서 다시금 헌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의를 가진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 중 후자의 부류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4조, 각급 지방인민위원회가 여성권리보장사업을 주요 직능으로 정하고 관할 지역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6조, 기관·기업소·단체는 여성 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해야 한다는 제15조, 보건기관은 여성을 위한 전문의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제24조, 기관·기업소·단체는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27조, 젖먹이 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30조, 산전 산후휴가를 보장하는 제33조, 결혼·임신·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 것을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제34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 3월부터 산후 7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하는 제38조,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의 기간 동안은 남성의 이혼 제기는 금지하되 여성의 이혼제기는 허용하는 제47조, 재산분할 시 자녀와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천명하는 제48조 등이 있다.

제25조의 경우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농촌 여성들이 도시 여성들과 똑같이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중에서도 농촌 여성을 특히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이와 유사한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이 있다. 총칙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수립 의무와 기본계획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외에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을 규정한 제2장에서는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제2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제3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4절)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모성 보호(제3장), 일·가정의 양립지원(제3장의2), 분쟁의 예방과 해결(제4장)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들 역시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열거된 규정들 중 제2장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와 제2장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의 경우 전자의 부류에 속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거나 여성의 고용 촉진 및 임신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여성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요하는 규정으로서 위의 부류에 따르면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규정들로 볼 수 있다.

산전산후 휴가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보호는 남북한의 법률에 있어 비슷한 점을 많이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의 법률 중 농촌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의 여성을 대상으로는 남성이 이혼제기를 할 수 없는 규정 및 재산분할 시 아이와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보다 훨씬 더 나아간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족법상에서 남녀의 평등한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에서 나아가 남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여성의 권리를 우대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두 법률체계가 통합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우리나라의 법률 중 여성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법률이 헌법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이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심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³¹⁾를 하지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엄격한 심사척도를 기준으로 심사³²⁾를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근로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은 두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³³⁾고 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차별취급이 헌법에 근거하지 헌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³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평등권 침해 심할 때 헌법이 특별히 보호를 명하는 경우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는다라는 규정을 특별히 보호를 명하는 경우로 보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일견 위에서 검토한 남북한의 법률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에 있어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을 사법심사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는 현행 헌법규정을 근거로 완화된 심사를 할 것이고 대부분 합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비교한 규정 중 농촌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의 여성을 대상으로는 남성이 이혼제기를 할 수 없는 규정 및 재산분할 시 아이와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은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농촌여성을 위한 규정의 경우 농촌 여성과 도시 여성을 차별취급하는 규정이므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것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혼 제한 규정의 경우 여성이 임신하였거나 산후 1년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남성이 전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재산분할 규정의 경우에도 남녀의 평등한 재판 분배 원칙이 아닌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는 다른 특별한 보호근거가 헌법에 있다면 위헌 소지가 줄고 헌법적으로 더 쉽게 정당화 될 것이다.

⑫ 남북한의 노동관련 법률 비교

○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노동보호법 및 남한의 노동 관련 법률 비교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서 여성의 권리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제3문에서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는 규정, 제31조에서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고, 지방정권기관과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 작업반, 가내 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는 규정, 제59조에서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고,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 마지막으로 제66조에서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

북한 노동보호법에서 여성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24조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혈한 일을 시키며 젖먹이 어린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들에게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 제38조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힘든 노동,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노동을 시키지 말고, 젖먹이 어린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야간노동, 시간 외 노동, 휴식일 노동을 금지하며 여성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직종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노동행정지도 기관이 한다는 규정, 제40조에서 여성 근로자들에게 정기휴가와 보충휴가 외에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배려,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눈에 띄는 점은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고정한다는 규정, 여성에게는 초과 근무나 위험한 종류의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 육아를 위한 탁아소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중 대한민국 법률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제 21조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등의 설치를 규정하는 조문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임신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임신부를 제1항의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위임을 받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사업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서처럼 자녀를 3명 이상 가진 어머니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 두 법률체계가 통합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위 검토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정은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제16조 제3문에서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해당 여성의 하루 노동시간을 명시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 규정의 경우 두 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로, 자녀를 가진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과 둘째로 자녀를 둘 이하로 가진 여성과 셋 이상을 가진 여성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명될 소지가 높다. 반면 자녀를 둘 이하로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위헌심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자의금지원칙 상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바,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⑬ 남북한의 친상법 비교

○ 북한의 가족법·상속법과 남한의 법률 비교

북한의 가족법 중 성별에 따른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6조에서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는 규정, 제8조에서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 제17조에서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 제22조에서 이혼시 양육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소가 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아래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는 규정, 제26조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북한의 상속법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성별에 따라 권리의무를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 제3조에서 국가는 상속받는 자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나 유언에서 상속몫을 따로 정하였거나 법에서 상속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 제19조에서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상속몫은 같다는 규정을 우리나라의 법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가족법 중 우리나라의 친족법과 비교해볼 수 있는 조문으로 우선 제8조를 보면, 북한은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일처의 원칙을 표명함과 동시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조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810조에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비록 명시적으로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양성), 부부(부부), 부(부) 또는 처(처), 남편과 아내, 부모(부모)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⁵⁾고 하여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가족법 제22조는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녀가 3세 이하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진다고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제837조 제3항에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이 때 제3항에서 명시한 자(子)의 의사·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자녀의 의사에 따라 누가 양육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원칙을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북한 가족법 제26조의 경우 자녀의 성에 관해 부성주의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모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제781조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다고 하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성주의의 원칙은 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동일하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어도 부부 양 당사자의 협의가 있는 경우 모의 성도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가족법보다 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넓게 보장하고 있다.

○ 두 법률체계가 통합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위에서 검토한 남북한의 법률이 합쳐질 경우 첫째로, 일부일처 원칙과 동성결혼 금지 규정이 위헌심사에서 문제가 될 확률은 없다. 이는 남북한 법률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체계 통합에 따른 문제가 아닌,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고유의 위헌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둘째로, 양육권에 관한 두 법률이 통합될 경우, 북한의 법률이 남한의 법률보다 여성의 양육권을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사법심사를 받을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에서 검토한 헌법재판소의 견해⁶⁾에 따르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이 특별히 명시한 양성평등 보호규정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엄격한 심사기준 하에서 위헌성을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여성의 양육권을 우위에 둔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북한의 헌법은 개정전 대한민국 민법 781조와 유사하다. 개정 전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⁷⁾는 다음과 같다.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개정 전 우리 민법도 원칙적으로 제1항에서 부성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단서와 제2항에서 부가 외국인이거나 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 가족법은 예외적으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를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현행 규정이 여성의 권리를 더 높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여 두 법률이 통합될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대로 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북한 가족법 제26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고 하더라도, 부성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5인 의견의 취지가,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⁸⁾하고 그 사례로 제시한 경우가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임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 가족법 제26조 제2문에서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을 경우'의 범위에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포함된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⑭ 남한과 북한의 선거관련 법률 비교

○ 북한의 선거관련 법률과 남한의 공직선거법 비교

이 항목에서는 역으로 대한민국의 법률 중 여성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검토한 뒤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비교해볼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 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2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후보자의 1/2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9조 제8항에서는 '제47조 제4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관위가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수리가 되더라

도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다.

동법 제47조 제4항에서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30% 이상의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니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등록신청 수리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없다.

동법 제47조 제5항에서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일정 수 이상으로 추천해야 함을 강제하는 규정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2조 제2항에서는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무효사유로 보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은 국회의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 시 여성의 비율과 수를 일정 정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도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이하 '북한 선거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는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한다고 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6조에서는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5조에 따르면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하고 추천된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는 1백명 이상의 선거자회의에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에서 자격심사내용을 규정하는데, 이름, 성별, 연령, 사는 곳, 정당, 사회단체, 직장직위, 경력을 소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 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에 관한 내용을 가진 조항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이하 '북한 지방기관법'이라 한다)에서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자격과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제8조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과 인원수에 관한 규정인데,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11 ~ 15명, 시(구역)·군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9 ~ 13명 범위 안에서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대의원의 구성 중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검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넓은 범위의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에 그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규정한 법률은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고 북한은 이에 관해 여성에게 특정 비율이나 수를 보장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두 법률체계가 통합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선출직 공직자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여성의 권리를 높이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두 법률체계가 통합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곧 현행 우리나라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일종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채용목표제에 관하여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판

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제도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¹⁰⁾한 바 있고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하여도 기본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¹¹⁾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법심사도 위헌으로 결정할 여지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⑤ 결론

이상에서는 '젠더'라는 관점에서 북한법을 바라보고 특히 여성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검토해보았다. 그 뒤 비슷한 규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비교하며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만약 두 법률이 통합될 경우 사법심사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북한의 헌법·법률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나 우리나라의 것보다 더욱 여성권리에 친화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다. 이러한 부분의 경우 만약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법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명시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데에 반해 북한에서는 그렇지 아니한 규정도 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더욱 여성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 통합시에도 고유의 위헌성 논란 외에 통합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헌 논란은 적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통일법 강좌(법대 이효원 교수)

① 사업 목적

-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법학적인 문제인식을 함으로써, 통일관련 법규법적인 측면에서 고찰을 기대
- 비법학 전공자들이 로스쿨 진학시 남북관계와 통일관련 전문가로의 진로모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
- 통일법강좌를 통한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는 법실질무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며 수강생들은 단순한 관심수준 이상의 심도깊은 고민으로 통일분야 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

② 강좌 대상

- 1) 2002. 11. 28. 2002헌바45
- 2) 1999. 12. 23. 98헌마363
- 3) 2010. 11. 25. 2006헌마328
- 4) 2001. 2. 22. 2000헌마25, 2006. 2. 23. 2004헌마675
- 5) 2016. 5. 25. 자 2014호파1843 결정
- 6) 2010. 11. 25. 2006헌마328
- 7)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것
- 8) 2005. 12. 22. 2003헌가5
- 9) 1999. 12. 23. 98헌마363
- 10) 2003. 7. 24. 2001헌바96
- 11) 2014. 8. 28. 3013헌마553

○ 서울대학교 및 타교 학부생·대학원생 총 32명(1학기 14명, 2학기 18명)

○ 참가자 구성

㉠ 2018학년 1학기 총 14명

연번	성명	소속
1	강은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권기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3	김남균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4	김민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5	김선재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6	김의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7	박기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8	박지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9	신예리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10	오세진	서울대학교 국제지역학과
11	윤상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2	장등뢰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중어중문학과
13	정우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14	홍동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 2018학년 2학기 총 18명

연번	성명	소속
1	김근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	김민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사회정의리더십학
3	김송경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4	김희연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5	문중흠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6	박재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	박주성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8	박지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9	신예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0	안교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1	안호성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12	오세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3	윤지수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4	이보드레	고려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15	이정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6	이진현	Carleton College
17	임주현	서강대학교 경영정치외교학과 졸업
18	차정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3)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1·2학기 헌법 통일법센터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이효원(법학과 교수) 외 8인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목요일(19:00 ~ 20:3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 홀

- 방식 : 이론 강의 및 질의응답

㉠ 18학년도 1학기 통일법 강좌

차시	일시	강사명	소속	강의 주제
1	03. 15.(목) 19:00~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 통일법의 개념과 범위
2	03. 22.(목) 19:00~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남북관계의 법률체계
3	03. 29.(목) 19:00~	한동훈	서울대학교 박사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4	04. 19.(목) 19:00~	김은정	통일부 사무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한 법제도
5	04. 26.(목) 19:00~	김태현	서울 북부지검 검사	● 북한인권법의 이해
6	05. 03.(목) 19:00~	장소영	부산지방법검찰청 검사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7	05. 10.(목) 19:00~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	● 남북한 헌법의 비교
8	05. 17.(목) 19:00~	박종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통일합의서의 주요 쟁점
9	05. 24.(목) 19:00~	김우진	주식회사 교원 변호사	● 통일헌법의 준비
10	05. 31.(목) 19:00~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 통일을 위한 법적 과제

□ 18-2학기 통일법 강좌

차시	일시	강사명	소속	강의주제
1	09. 06.(목) 19:00~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 통일법의 개념과 범위
2	09. 13.(목) 19:00~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남북통일정책의 비교
3	09. 20.(목) 19:00~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남북관계의 법률체계
4	10. 04.(목) 19:00~	한철웅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판문점선언의 법적 과제
5	10. 25.(목) 19:00~	김은정	통일부 사무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한 법제도
6	11. 01.(목) 19:00~	한동훈	서울대학교 박사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7	11. 08.(목) 19:00~	김태현	서울 북부지검 검사	● 북한인권법의 이해
8	11. 15.(목) 19:00~	장소영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9	11. 22.(목) 19:00~	박종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10	11. 29.(목) 19:00~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 통일을 위한 법적 과제

④ 사업 성과

○ 통일법에 대한 관심증대와 통일을 규율하는 현 법체계 교육

- 통일을 위한 실무적 접근과 법학적인 관점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봄으로써 통일관련 주요 법적쟁점에 대한 이해도 함양

○ 구체적 지표로는 두 개 학기동안 각 학기별로 국내 통일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총 11인이 총 10강, 24시간에 걸쳐 강의실시, 총 32명의 교육대상자 중 총 22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함

- 향후에는 통일법 강좌의 지속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보완할 예정임
- 강사들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강의진도 조율. 강의별로 일부 중복 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으며, 일부내용은 법학의 특성상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일부 존재하므로 최종적인 교육목표 달성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각 주제의 진도에 따른 이해 수준 확인 및 단계적·점진적 교육)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현장 사진 및 시각자료

강의 내용
<p>① 통일법의 개념과 특징</p> <p>통일과 관련된 법적쟁점들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위해서는 '통일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따라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체계와 그 형성 과정, 그리고 법률체계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로 통일과 법률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임.</p>
<p>②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p> <p>통일이 진행되기 위한 정책적인 결과물은 그 법적쟁점을 해결해나가면서 나타나는 산물이기 때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법무부, 통일부, 사법부 등 주요 행정부처에서 남북관계의 협상 등에 참여한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통일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더 현실적이고 생생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임.</p>
<p>③ 남북관계의 법적성격과 규범체계</p> <p>통일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법적성격과 규범체계를 이해해야 함. 즉, 남북교류협력을 이해해야 함.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체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학전공자가 아닌 학생들, 또는 통일법과 접점이 없는 이들은 교류협력 또한 법치주의의 지배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대체로 많음.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현재의 법률체계와 그 한계, 그리고 그 나아가 방향성에 대한 강의로 학생들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을 접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임.</p>
<p>④ 남북한 헌법의 비교</p> <p>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그 기본전제로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함. 그러므로 남북한의 헌법을 이해해야 하는 것도 교육목적상 필연적인 것임. 남북한 헌법을 바탕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비교를 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함과 동시에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헌법이 갖고 있는 역할도 함께 이해하는 것을 중점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임.</p>
<p>⑤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p> <p>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남북합의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법적 성격 역시 신사협정으로만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면 남북관계와 관련된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음. 그리고 남북한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내용들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 바, 이와 관련된 개론적인 강의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p>
<p>⑥ 북한인권법의 이해</p> <p>북한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내용임.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이 법률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음. 그리고 북한인권법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많이 갖고 있기</p>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 23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1	이윤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김충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신유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강민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김우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	이은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	이혜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	박기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	김남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	김정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	김태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	서혜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	이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	이상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	방지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	임성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	주민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	김은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	박유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1	홍영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2	황신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3	이동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이효원(법학과 교수) 외 7명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16:00 - 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3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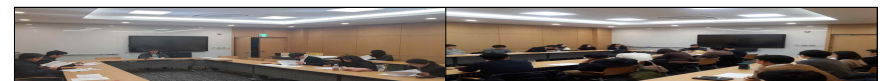
차시	일시	발표자(학생)	심사자	제목
1	09.08(토)	이효원		세미나 진행 오리엔테이션
준비기간				
2	11.24(토)	강민식	한동훈 (헌법재판 연구원)	남북 군사제도 통합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3	12.01(토)	정구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4	12.08(토)	황신영		남한과 북한의 통일원칙에 대한 규범적 고찰
5	12.15(토)	강승우	장소영 (부산지검)	현 시급 상황에서의 통일 대비 개헌 방안 제안 -급작스러운 통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구상-
6	12.22(토)	김은정		북한 기업소 운영 개혁에 관한 법적 검토

④ 사업 성과

- 학위논문에 대한 심사 및 논문에 대한 강의 실시(총 5명)를 통하여 논문
별 평가 및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교육
- 학위논문에 대한 심사과정 및 평가는 타 학생의 연구에도 지침제공
- 논문주제 관련이론의 비판적인 모색과 검토과정은 연구방법과 논문작성법 교육 그
자체로 연구 주제의 독창성, 연구 목적의 명확성, 연구 내용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 관점의 참신성,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 기여도, 원고작성 요령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현장 사진





통일법 학위논문 세미나 진행

통일법 학위논문 심사지도 강의

[첨부 2] 통일법 학위논문세미나 평가 및 지도자료(장소영 교수)

평가논문제목	남북 군사제도 통합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강○식)			
심사위원	성명	장소영	소속	부산지검 검사
전체 의견				
<p>그동안 대부분의 군사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는 일방적이 흡수형태를 주로 논의하고 있었다. 남한의 일방적인 군사제도를 어떻게 북한에 적용시키고, 이를 위해 북한의 군대를 어떻게 해체시킬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군사제도 통합은 오랜기간의 이질성과 적대감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아가 군사제도 통합은 어디까지나 남북한의 정치적·현실적인 변화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세(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관계), 북한의 안정적인 권력계승, 낮은 수준의 북한주민의 민주의식 등을 감안했을 때 갑작스러운 흡수통일만을 고려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군대통합과 관련하여 동서독 통일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그러한 배경에는 우선 동독군대를 지휘했던 SPD의 권력상실, 동독군 내의 회의적인 감정, 동독주민의 자발적인 서독으로의 통일요청이 있었다. 또한, 서독에서도 갑작스럽기는 하였지만 군대통합을 위한 과제와 임무들을 헌법상의 원칙,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가치관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민통제 원칙과 이를 공고히 하는 현실적인 환경과 조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한편, 남한의 문민통제 원칙과 관련된 우리의 의식수준은 아직 문제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여 높은 수준으로 이끌었을 때 북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상국가를 표방하는 북한은 시장경제질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법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이러한 변화는 북한 내부의 법의식에 대한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민통제 원칙과 관련된 제반요소들은 충분히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의사합치, 수용,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정을 위해서는 남북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사기구가 필요할 것인데, 그 역할을 남북공동군사위원회가 맡는 것은 현재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문민통제 원칙과 이를 위한 헌법상의 원칙은 자연히 통일헌의서와 통일헌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문민통제 원칙의 현실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인적청산이 될 것인데 청산의 원칙과 규범적 기준에 관한 부분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p>				

[첨부 3] 통일법 학위논문세미나 평가 및 지도자료(한동훈 교수)

평가논문제목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정구진)			
심사위원	성명	한동훈	소속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관
전체 의견				
<p>사회통합을 위하여 북한주민지원제도를 살펴본 논문의 주제는 매우 실용적이고 후속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북한주민지원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통합의 기초, 국가의 사회통합 원리, 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사회통합, 북한주민지원제도의 기본원리 등으로 논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서술 기존의 체제전환국가와 남북한의 지원제도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논하면서, 남북한의 북한주민지원제도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연구들에 더 나아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 체제전환기에 북한주민지원제도의 핵심은 북한주민에 대한 교육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체제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국가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내용은 통일과정에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제공되는 교육의 연장선이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인바, 통일국가에서 북한주민에 대해 이뤄질 수 있는 교육의 수준 통일이 되는 시점에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뤄지던 교육의 수준과 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통일국가에 대한 교육을 위한 준비는 통일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기회를 확대 및 확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폴란드에서 극우파가 집권하는 과정이 보여주듯이 사회통합의 수준은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통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한 사회의 통합 수준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p> <p>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통합 수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남북한 주민들 간에 연대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통일국가에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기에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남북한 주민 간에 연대성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비용은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연대성이 형성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투자는 통일 이후에 집중되기 보다는 통일과정에서부터 분산되어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통일국가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부터 북한주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p> <p>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논리의 서술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보다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p>				

6) 간호대학(원)생 통일보건의료 교육 (간호대 채선미 교수)

① 사업 목적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통일보건의료 교육 강좌를 개발 및 운영하여 간호대학생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하고자 함
- 간호대학(원)생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강좌를 운영 및 다수의 간호대학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간호대학 재학 대학원생들도 포함하여 교육강좌 참여 대상자 확대 운영

② 강좌 대상

- 간호대학(연건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부 2, 3, 4학년
- 참가자 구성

차시	날짜	참여자 구성	총 인원(명)
1	9/4	교수 9인, 간호대학 학부생 35인, 간호대학원생 20인	64
2	9/18	교수 4인, 간호대학 학부생 26인, 간호대학원생 18인	48
3	10/2	교수 5인, 간호대학 학부생 10인, 간호대학원생 17인	32
4	10/16	교수 4인, 간호대학 학부생 7인, 간호대학원생 19인, 연구원 1인, 병원직원 1인	32
5	11/6	교수 1인, 간호대학 학부생 22인, 간호대학원생 26인, 연구원 1인, 병원직원 2인	52
6	11/13	교수 6인, 간호대학 학부생 20인, 간호대학원생 21인, 연구원 1인, 병원직원 1인	49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기
: 2018학년도 2학기 간호대학 간호학과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채선미(간호학과 교수) 외 6인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2018년도 2학기 9월~11월
매월 2회 매주 화요일 12시~12시 5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408호
- 강의방식 : 특강 및 질의응답

차시	일자	강사명	소속	강의 주제
1	9/4	황나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박사	북한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간호와 통일대비 과제
2	9/18	홍인철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평양과학기술대학 의과대학원의 현황; 북한의 의료의 이해와 전망
3	10/2	민하주	의료복지연구소 연구원	통일대비 국내 보건의료인의 역할 모색
4	10/16	김성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통일대비 보건의료인을 위한 북한 간호교육 제도의 이해
5	11/6	김영인	남북 하나재단 책임전문상담사	간호서비스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이해
6	11/13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는 보건의료인 10대 지침

차시	강의내용
1	제1강: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간호와 통일대비 과제 - 강의목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최근의 북한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이해하고, 통일대비 간호 분야의 준비를 모색한다. - 강의내용: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 /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 / 북한의 보건의료 시설 최근의 변화 / 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 통일대비 간호분야의 준비
2	제2강: 의료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북한의료의 이해와 전망 - 강의목표: 북한의 의료현황과 의학교과과정을 이해하고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부의 과제를 논의한다. - 강의내용: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대학원의 현황과 교과과정 / 북한의 의료현황과 의료전달체계 /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부 발전계획
3	제3강: 통일대비 국내 보건의료인의 역할 모색: 간호사를 중심으로. - 강의목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국내 입국 후 적응,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통일대비

	간호사의 역할을 탐색한다. - 강의내용: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정 /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건강문제 / 통일대비 간호사의 역할
4	제4강: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간호교육 전망 - 강의목표: 남북한 간호교육과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의 간호교육을 이해하고 통일대비 간호인력 개발을 위한 간호교육제도를 논의한다. - 강의내용: 평양과학기술대학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험 /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 설립 추진안 / 남북한 간호교육과정 비교 / 통일대비 간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5	제5강: 간호서비스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고객 이해하기 - 강의목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후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건강 요구도를 이해하여 통일대비 간호역량 개발을 모색한다. - 강의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 요인과 주제 /북한이탈주민 관계 시 피해야 할 점 /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상담자의 마음 준비
6	제6강: 통일대비 보건의료인력의 준비 -강의목표: 북한이탈주민의 질병관과 건강행태를 이해하고, 이들을 진료하는 보건의료인의 지침을 소개한다. - 강의내용: 남북 인력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 /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시대적 변화 /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건강행태 /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는 남한 보건의료인을 위한 10대 지침 / 통일대비 향후 과제

④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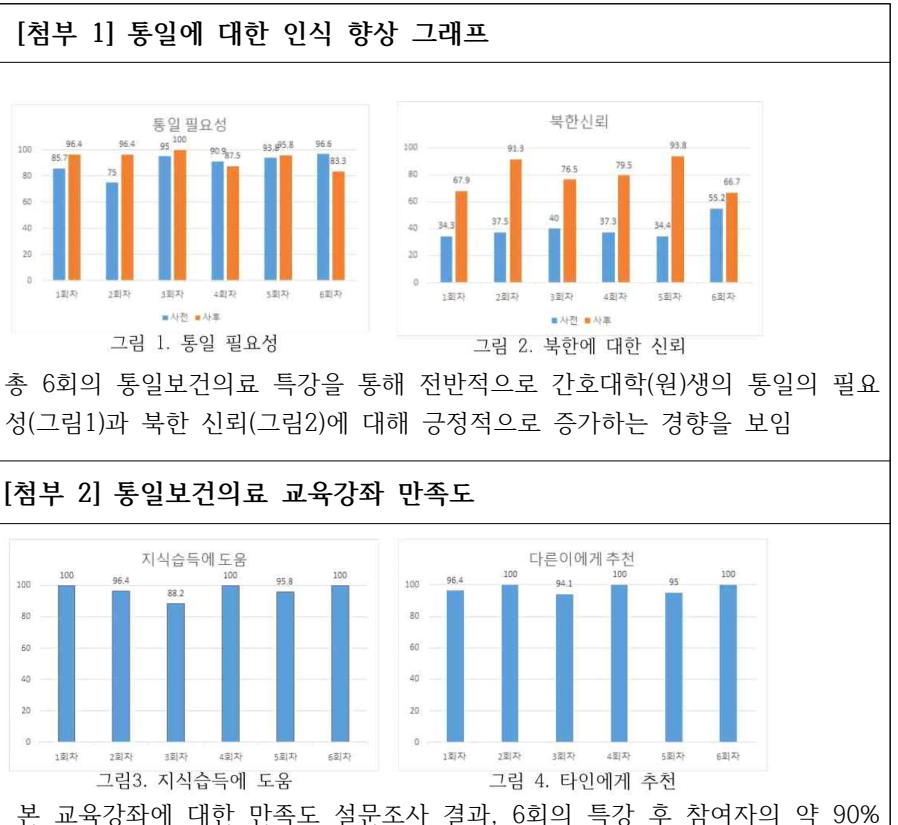
- 간호대학(원)생을 위한 통일보건의료 비교과과정 교육강좌 개발
 - 총 6회의 50분 통일보건의료 특강 시리즈를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의 통일보건의료 전문가로 강사를 구성하여 '통일보건의료의 이해 증진을 위해 북한 보건의료체계와 의학 및 간호학 교육, 통일대비 보건의료인력의 준비,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등 이론적, 경험적 내용으로 특강 주제를 구성하여 진행
- 간호대학(원)생의 통일과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향상
 - 총 6회의 통일보건의료 특강을 통해 전반적으로 간호대학(원)생의 통일의 필요성(그림1)과 북한 신뢰(그림2)에 대해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특강 전 대체로 참여자의 30~40% 정도가 북한에 대해 신뢰한 다고 하였

으나 참여자의 68~94%가 특강이 북한에 대한 신뢰를 변화하게 하였다고 응답함.

○ 통일보건의료 이해 증진

- 본 교육강좌 종료 후 2회에 걸친 교육강좌 평가회 결과, '언론으로 공개되는 북한의 모습이 매우 제한적임을 깨닫고 북한의 보건 의료체계에 대한 탐구 의지가 생김', '통일 이후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주안점을 고려하게 됨',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됨' 등의 답변 내용을 통해 간호대학(원)생들은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함

○ 증빙 자료



이상 또는 100% 전원이 특강이 통일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및 추천 의지가 있음을 밝힘

[첨부 3] 강의안(PPT 슬라이드)

제1강: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간호와 통일대비 과제

2018. 9. 4

1.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2. 북한 보건의료체계 현황
3. 최근 북한 보건의료 변화
4.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5. 북한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분야 과제

1.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건강 결과: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사후관리, 돌봄, 건강 관리

예방 및 관리(1)
- 정기 및 의사당면 (예방, 진단, 사후관리, 재활, 사후관리)
- 재활사용 자원과 구질

자원 조직화(2)
- 국가 보건인력, 의료보물기, 보건 관련 정부기구, 독립 민간기구

재정적 지원(3)
- 공적 재정조달
- 기업부설, 조식화된 민간기구
- 외국 원조

보건의료자원 개발(1)
- 인력, 시설, 장비 및 기타 요소들, 의료진단능력

2. 북한 보건의료체계 현황

1) 보건의료자원

구분	교육 과정
의사	한국 11개 의학대학 의학부(전 2,200여명) 양성 4년제, 군과대학 5년제 * 특성학부: 5년 이상 근무한 조의사 또는 간호사 대상 - 임상학교 교육 수료(4년), 시험 통과 후 의사자격 부여 * 특성학부: 분과 4년제(또는 2년 또는 3년) 수료후 인 과정 이수
조형사	한국 11개 (고등)의학전문학교 4년, 3년(과거)
간호사	의학대학 교리의학부 6년
원생의사	의학대학 위생학부 5년 6개월
구급의사	의학대학 구급학부 5년 6개월
의향사	평양의학대학 및 약 5개 11개 의학대학 의학부 5년 6개월 * 북한, 특공학교(간호) 및 특성교육(단기) 임상현장 근무(5년), 과정 운영
의향사	고려의학대학 5년, 사리원 고려의학대학 4년
준의향사	의학전문학교 4년 (대학수시제 불가능)
조산원	시, 도 2-3년제 의학전문학교 졸업생
간호원	시, 도의 2-3년제 의학전문학교, 1년 간호전문학교, 6개월(병문) 재교육(간호), 군 간호
의향 보조원	고등(의학)전문학교 2-3년제 졸업생, 원조직, 물리치료 및 보철장

* 북한 교육은 5년 6개월(4년 - 5년) 과정, 학부 또는 5년제(또는 4년제) 또는 3년제(또는 2년제) 또는 1년제(또는 6개월) 과정

요약 및 제안

- 북한의 의료인력체계는 든든한 45,000명의 의사인력과 8936의 의료시설이다.
- 이 체계가 물리적인 자원과 역량의 조달, 그리고 최신지식 획득 및 보수교육 등에 대하여 심한 제약이 가해진 상황.
- **의학적인 교육과 자원의 제공이 함께 되어야 하며, 자원이 열악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전달을 잘 할 수 있을 지 연구해야 한다.**

Assessment of the DPRK Health Status through the Lens of the DPRK MoPH/WHO Strategic Plan

Dr. Charles D. Sandoz
Professo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Pyeong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KMO(세계한민사회) 제 5차 학술대회

주제: Health Care in NK

2016.2.13

PUST 의과대학원 설립과 전망

- 의과대학원
- 의학부동 (청사)의 순조로운 건축*
- 2017년 가을 개교: Post graduated training (3~4) yr ?
- 기존(의사 보수교육과) 지속적 교육 (CME)을 가능하게
- 실습 (김만유) 병원의 Upgrade*
- 2. PUST Clinic/ KMY 병원의 Upgrade*
- 대방축 의사와 함께 인민진료 → 인민의 건강증진

7)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리더 양성 (공대 이현수 교수)

① 사업 목적

- 북한개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현안 공유를 통해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프로그램 기획 중요성 인식 제고
- 국가경쟁력 향상의 수단으로서의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으로 인식 전환 및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강좌 운영안 개발을 통해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이 건설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재인식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무대로서 인식 및 북한 국토인프라의 격차해소가 단순히 북한지역에 부족한 국토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통일한반도의 경쟁력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로 인식 촉구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남북한의 국토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성 역설 및 통일 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이 미래지향적인 한국건설의 기술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인식 촉구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39명
- 참가자 구성

Ⓐ 1차 강좌 총 39명(참가 학생 39명, 강연자 외 참가자 12명)

연번	성명	소속
1	김다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	이은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	모대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	이가령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5	최우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6	양성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7	정현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8	오승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9	이은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0	박수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1	송형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2	김호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3	채송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4	김지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5	최원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6	김민섭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7	곽태홍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8	최진성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9	이성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0	신현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1	권희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2	배준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3	임남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4	김재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5	김기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6	정성용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7	유홍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8	김민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9	주경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0	고동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1	김진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2	권영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3	고영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4	송호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35	문세동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36	김용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7	서정욱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8	신규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39	이희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 강연자 외 참가자 총 12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	----	---------

1	고현무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2	김세훈	(주) AweXome Ray대표 (강연자)
3	김영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사회자)
4	박진희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연자)
5	이복남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연자)
6	정충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7	지석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강연자)
8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9	이슬기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10	신승우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11	이자혜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실장
12	안광선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실장

20	오성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1	백승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2	송형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3	이성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4	최진성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5	조영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6	김혜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7	장용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8	박종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9	조민경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0	김성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31	곽진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2	정흡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3	배연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4	박소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5	최준성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6	최지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7	정인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8	강세웅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39	이태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0	석의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1	김태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2	이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3	고영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4	안덕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5	정광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6	평호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7	정광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8	평호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49	최준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50	김다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51	이충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52	이현무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	학부생
53	이현희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㉞ 2차 강좌 총 84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1	채승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2	구설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3	임성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4	이동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5	최재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6	이은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7	이청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8	이정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9	홍성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0	이경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1	이수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2	김운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학부생
13	김수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4	김유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5	김준엽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6	홍수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7	정세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8	이양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19	조정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54	정찬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55	최자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56	임다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57	전현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58	이동건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부생
59	김준평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60	백석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61	이경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62	신선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63	김이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64	김지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65	정걸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66	서정욱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67	장한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68	유홍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69	강연주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박사과정
70	권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71	김경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72	김대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73	김민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74	김서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75	김태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76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77	박수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생
78	박한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79	소희진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석사과정
80	송용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81	신두식	대한건축학회	팀장
82	신상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83	안병욱	대한건축학회	부소장
84	문성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1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강연자)
2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강연자)
3	김승철	북한발전연구원	대표 (강연자)
4	강영실	심연북한연구소	박사 (강연자)
5	이복남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교원
6	최재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7	이슬기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8	신승우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9	이인근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10	이자혜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원
11	박세미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원
12	진상희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원

3)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건축학과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이현수(건축학과 교수) 외 8인

○ 강의 일자 및 내용(2018년도는 2차까지만 진행)

주차	강사명	소속	제목	세부내용
제1강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안 파악을 위한 사례 소개와 향후 전망 공유 대북 제재 상황의 쟁점 요소 비핵화 과정의 이슈 분석 등
제2강	임동우	홍익대학교 교수	북한의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도시의 이해 통일이후 북한지역 도시개발 방향 등
제3강	미정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의 주택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주택인프라 현황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경험소개 북한의 주택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4강	미정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북한의 도로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도로인프라 현황 북한의 도로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 강연자 외 참가자 총 12명

제5강	미정	한국철도공사	북한의 철도 및 지하철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철도 및 지하철인프라 현황 북한의 철도 및 지하철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6강	미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의 항만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항만인프라 현황 북한의 항만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7강	미정	한국공항공사	북한의 공항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공항인프라 현황 북한의 공항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8강	미정	수자원공사	북한의 수자원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수자원인프라 현황 북한의 수자원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9강	미정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북한의 상·하수도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상·하수도인프라 현황 북한의 상·하수도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10강	미정	한국전력기술	북한의 발전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발전인프라 현황 북한의 발전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11강	미정	한국전력공사	북한의 송·배전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송·배전인프라 현황 북한의 송·배전인프라 개발 관련 연구현황 등
제12강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의 의미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경제성장국 국토인프라 한국의 국토인프라 구축 사례: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발전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남·북한 국토인프라 비교분석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 전략방향 등
제13강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남·북 경험사례 소개 및 대북진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협력에서 정치/제도적 경제의 특징 북한 SOC역사와 현황 및 특징 기업의 대북진출 역사와 문제점 및 교훈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SOC 분야에서 기업의 대북진출 전략 등
제14강	강영실	심연북한연구소 박사	북한 기술자 양성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산업 육성 정책 법 제정 및 제도화 건설기술 인력 육성 체계 건설인력 배치 및 기능 등
제15강	이복남 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및 신기술/신공법 관련 전문가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사업모델 구상 & 청년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 이후 현안 국토인프라 격차해소 방향 국토인프라 격차해소 전략 구상 신기술/신공법/건설스타트업 사례소개 등

* 음영 표시된 강의는 이번 차년도에 시범운영함.
 - [1차 강연 제 15강
 - [2차 강연 제 1강, 제 2강, 제 13강, 제 14강

㉠ 1차 강연

- 기간 : 2018년 10월 04일(목) 17:00~20:00
- 장소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층 광영필홀
- 강의방식 : 주제 발표 및 토론, 견학

구분	시간	활동
등록 및 접수	17:00~17:30	□ 등 록
개회	17:30~17:40	□ 개회사 : 이 현 수 소장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주제발표	17:40~18:00	□ 통일한반도 신사업모델 구상 이 복 남 산학협력중점교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8:00~18:20	□ 터널공사에서의 'Digital Face Mapping' 기술 제안과정 박 진 희 과장 (한국도로공사)
	18:20~18:40	□ 글로벌 건설 스타트업 사례 지 석 호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8:40~19:00	□ 기술 창업 경험 및 사례 김 세 훈 대표 (㈜AweXome Ray, ㈜김랩)
토론	19:00-19:40	□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김 영 오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패널] 지 석 호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 세 훈 대표 (㈜AweXome Ray, ㈜김랩) 박 진 희 과장 (한국도로공사) 이 복 남 산학협력중점교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송 호 재 학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문 세 동 학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견학	19:40~20:00	□ 기념사진촬영 □ 극한성능실험센터 견학

㉡ 2차 강연

- 기간 : 2018년 11월 22일(목), 13:00 -14:30
- 장소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5동 223호
- 강의방식 : 주제 발표

구분	시간	활동
등록 및 접수	12:30~13:00	▫ 등록
개회	13:00~13:05	▫ 개회사 : 이현수 소장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강연	13:05~13:20	▫ 최근 한반도 경제와 남북관계 현황 김 병 로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3:20~13:40	▫ 북한 도시 읽기 임 동 우 교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13:40~14:00	▫ 북한의 SOC 현황과 대북진출 전략 김 승 철 대표 ((사)북한발전연구원)
	14:00~14:20	▫ 북한 건설산업 육성 체계 및 기술자 양성 현황 강 영 실 박사 (심연북한연구소)
질의응답	14:20-14:30	▫ 질의응답

④ 사업 성과

□ 강의안 개발 성과

- 학문적 이론에 앞서 경험 사례 강의를 통해 기초 지식 습득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실제 사례 강의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사례 학습과 토론 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재 중심으로 이론적 지식을 습득
- 북한지역 국토인프라 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국내 7개 전문기관(공기업 및 연구소 등)의 인프라 연구전문가를 초빙하여 개별 인프라 조사 결과 및 국내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구성 및 북한 지역 자료 신뢰성 제고를 위해 탈북 과학자/연구자/공과대학졸업자들을 초빙하여 북한의 국토인프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도록 구성 완료

□ 1차 강연 운영 성과

- 통일시대의 국토인프라 관련 이슈와 북한지역 국토인프라 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 및 전문기관의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와 남북한 국토인프라 격차정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북한의 현황을 알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통일한반도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짐

□ 2차 강연 운영 성과

- 최근 한반도 경제와 남북현안 이슈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시각을 공

유하며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도를 제고시켰으며 통일준비와 통일한반도 시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

- 북한의 대북진출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북한지역 인프라구축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접근해야함을 알려줌으로써 장기전으로 준비해야하는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짐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 현장 사진






<p>김승철 대표 (((북한발전 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평양 ● 북한 출신의 토목전공자이자 건설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협력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 역사를 소개하고 인프라의 양·질적 실태와 대북 진출 준비를 위한 요건 분석 결과를 공유함. 북한지역 인프라구축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접근해야하고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정치, 제도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진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함. ● 남북한 협력에서 정치, 제도적 견제의 특징 ● 북한 SO장C 역사와 현황 및 특징 ● 기업의 대북진출 역사와 문제점 및 교훈 ● 2018 남북 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 SOC 분야에서 기업의 대북진출 전략
<p>강영실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환경, 조직 구축 등 시기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건설상품군(예시: 도로, 철도 등)별 교육 및 배출하는 기관, 건설업체, 학교에 대한 유형별 현황을 설명함. 북한은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에 대한 위상이 우리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등급에 따른 건설인력 배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에 대해 설명함. ● 건설산업 육성 정책 ● 법 제정 및 제도화 ● 건설기술 인력 육성 체계 ● 건설인력 배치 및 기능

[첨부 2] 강좌별 결과물


강연자	결과내역
<p>김병로 HK 교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연구학회 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공동선언, 평창올림픽, 중국,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 비핵화, 통일전망 등 관련 이슈를 분석한 북한 전문가의 관점을 공유하였으며, 북한 국제화와 평화전략,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학부생 눈높이에서 쉽게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안 파악을 위한 사례 소개와 향후 전망 공유 ● 대북 제재 상황의 쟁점 요소 정리 ● 비핵화 과정의 이슈 분석
<p>임동우 교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도시계획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의 사회주의 도시 공간에 대한 고찰로서 도시의 상징성, 사회주의에서 중요시하는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의 계획과 실제 취지와는 상이한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함. 특히 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북한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도시계획 및 설계 전문가의 관점을 공유하였으며 정치적, 행정적인 요소보다 강력한 도시 공간 변화에 미치는 시장의 영향력과 도시 가치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간의 균형화 ● 녹지공간의 제공 ● 상징적이고 중앙화된 도시

[첨부 3] 발제 자료 및 포스터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바로 알기

●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12:30-14:30
● 장소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5동 223호
● 주관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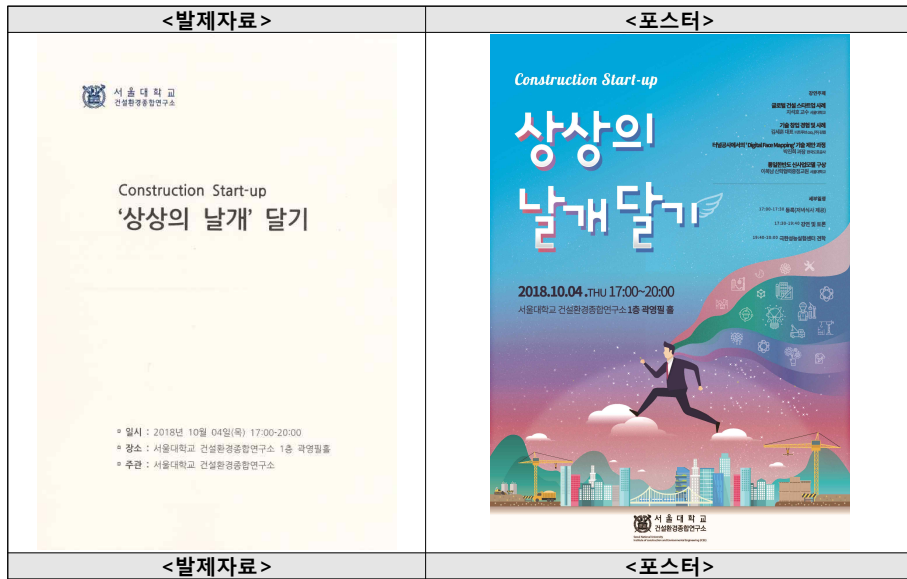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바로 알기

2018년 11월 22일
pm 12:30-14:30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5동 223호

●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12:30-14:30
● 장소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5동 223호
● 주관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첨부 4] 강의 평가

□ 1차 강연

Ⓐ 정량 평가

평가항목	평균(5점 만점)
강의의 유익함 정도	4.10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신사업 모델 구상에 대한 인식 변화	3.60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90

Ⓑ 정성 평가

강의에 대한 의견 및 평가
1. 북한 인프라가 노후화되었고 남북한의 격차해소를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지만 수치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니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2. 지금까지 통일은 먼 일이라고 생각해왔고, 통일이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으나 본 강연을 통해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이 한국건설 기술발전에 계기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음
3. 통일이려면 정치적이고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북한의 국토인프라

- 라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남북의 국토인프라 격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들로서 도시집적화와 도로의 스마트화 등과 같은 전략들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우리가 살아갈 그리고 살아가고 싶은 통일한반도의 미래모습을 구상하게 되는 계기였음.
 - 통일시대에 건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게 되었고 전공자로서 추구해야하는 진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기존방식의 강의를 벗어나 학업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흥미로운 장이었음.
 - 통일과 토목은 과거에 메어있다고 생각한 제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음.

□ 2차 강연

Ⓐ 정량 평가

평가항목	평균(5점 만점)
강의의 유익함 정도	4.40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신사업 모델 구상에 대한 인식 변화	3.70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4.30

Ⓑ 정성 평가

강의에 대한 의견 및 평가
1.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시각에서 통일한반도시대의 국토개발에 대해 접근해야하는 필요성을 실감함.
2.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볼 수 있는 신선한 기회였으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청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음.
3.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음.
4. 어떤 북한의 공간을 봤을 때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그게 북한문화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됨.
5. 상당히 흥미로운 강의가 많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새로웠고 나의 통일, 대북 관점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6. 북한은 블루션이 아니고 정글이며, 한민족-동포애-선점효과는 감성적이고 약점이자 무위일 뿐이라는 강연자님의 말이 인상 깊었음.
7.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을 세미나를 통해 접할 수 있어 좋았고, 추후에도 이러한 학술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면 좋겠음.

8) 통일교육 아카데미(사범대 박성춘 교수)

① 사업 목적

○ 남북통합과 사람통일의 중요성 이해

- 정치적, 경제적 수준의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차원의 사람 통일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의 학부,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통하여 남북한 통합의 경험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 전문가 양성

-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나 인력 수급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본 사업은 남북통합의 경험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와 연구자를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및 타교 학부생·대학원생·외부인 총 48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1	강신혁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학부과정
2	강유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학부과정
3	고대영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주무관, 사회학 전공
4	고상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부과정
5	권미성	경기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
6	김경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교육인류학)
7	김경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간강사
8	김민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부과정
9	김봉제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10	김상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학부과정
11	김수경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학부과정
12	김유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13	김윤이	숙명여자대학교	회화, 시각영상디자인 학부졸업생

14	김은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석사과정
15	김은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 학부과정
16	김정은	동국대학교	중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17	김종진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18	김지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 학부과정
19	김진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학부과정
20	김채현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21	박소연	서울대학교	미술교육 석사과정, 미술교사
22	박주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법 일반박사과정
23	박준형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독어독문학,바이오인포메이션학 학부과정
24	서은아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25	세키네 마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특별수강생
26	손명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27	손은혜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과정
28	신경준	서울대학교	수리학과 본과 과정
29	신지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석사과정, 성산중 교사
30	신지인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31	엄인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 박사과정 수료, 윤리교육 복수전공
32	오연서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박사과정
33	유금복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박사과정
34	이경주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부과정
35	이경희	고려사이버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 (한국어 전공)
36	이동형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37	이성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38	이소연	인천동방초등학교	교사
39	이유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40	이재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박사수료 연구원
41	이현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42	이화연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과정
43	장유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부과정
44	장은성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45	정은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문현중 보건교사
46	최화연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부과정
47	최호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공익법무관, 법학

48	홍승표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연구담당관
----	-----	-------	-------------------------------

과정별	직군별	대학별
학부 (23명)	초중등 교육 관련 예비교사/사범대 대학원 포함 (29명)	서울대(38명)
석사과정/졸업 (7명)	그 외 (19명)	성균관대, 동국대, 이화여대, 경기대, 인천재능 대, 숙명여대, 교대, 서울고 등검찰청, 고려사이버대 등 기타 (10명)
박사과정/졸업 (11명)	법무관, 고려사이버대 학생, 수의학과, 사회교육과 시간강사, 학부모정책연구 센터 연구교수, 인문대 주무관 등	
기타 외부 (7명)		

3)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센터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박성춘(사범대 교수) 외 13인

○ 강의 일자 및 내용

차시	차시 /날짜	강사명	소속	강 의 주 제
개강	1차시 (10/1)	이종석	세종연구소前 통일부장관	통일을 열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세션 1:				
개성공단의 경제통합	2차시 (10/8)	김진향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단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든다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이다" 개성공 단과 한반도 평화
	3차시 (10/15)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연합회 부회장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다 '개성공단 공식 1호 기업'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대표의 사업이야기
	4차시 (10/22)	채형우	개성공단 지원재단 통합경험 교육팀장	개성공단 통합경험을 가르치다 "개성공단의 경제통합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워크숍>
세션 2:				

서울대학교의 통일실험학교	5차시 (10/29)	유준희	서울대 교육 연수원장	서울대학교에서 통일을 실험하다 "통일은 실험할 수 없지만 통일학교는 가능하다"서 울대 통일학교 이야기
	6차시 (11/5)	강나현	장도초교 통일전담 교육사	서울대 통일학교에서 가르치다 "남북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 다"통일학교의 경험
		손수진	경서중 통일전담 교육사	
	7차시 (11/12)	김병연	양재고 교사	통일 이후 학교를 생각하다 "과연 통일학교는 통일 이후 학교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워크숍>
김은수		청원여고 교사		
손은혜		매탄초교교 사		
세션 3:				
남북한 사람통일과 교육	8차시 (11/19)	박미경	서울대학교 학생	북한과 남한 학교에서 배우다 학생의 시선으로 남북한을 담다. 전지적 학생 시점!
		장은숙	고려대학교 학생	
	9차시 (11/26)	최옥경	동방초교 통일전담 교육사	북한과 남한 학교에서 가르치다 "북한에서 교사를 하다가 남한으로 왔어요. 지금은 통일전담교육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최금실	하안남초 통일전담 교육사	
10차시 (12/3)	박성춘	서울대 통일교육 연구센터장	교육으로 통일을 준비하다 "통일교육은 왜 답정너인가?" 새로운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법 모색 <워크숍>	

④ 사업 성과

○ 10회에 걸쳐 진행된 통일교육아카데미는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한 37명의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였음.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교육 분야에서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통합방안 및 통일교육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통일교육 선도교사 및 통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향후 남북 교육통합을 위한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통한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는 통합의 경험과 통일교육의 방법을 실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체적인 남북통합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각과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 현장 사진

1강: 통일을 열다 -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첨부 2] 홍보용 포스터

서울대 통일교육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안내

2018년에는 판문점선언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북한의 사회통합과 사람통일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남북한 사람들의 만나와 통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통일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세션	차시/날짜	강의 주 제	강 사
개강	1차시 (10/1)	통일을 열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동석 (서울연구소, 통일실무연구원)
	세션 1:		
	2차시 (10/8)	개성공단에서 한반도 평화를 말한다 "개성공단은 파수가 아니라 파고대이다" 개성공단의 한반도 평화	김진영 (개성공단지구지원센터 이사장)
	3차시 (10/15)	개성공단에서 사면을 하라 "개성공단 중시 1호 기업"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유한군 대표 이사장이자	유창근 (개성공단지구지원센터 부책임)
개성공단의 경제통합	4차시 (10/22)	개성공단 통합경험을 가르쳐라 "개성공단의 경제통합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최규승)	최규승 (개성공단지구지원센터 통합경제교육팀장)
	세션 2:		
	5차시 (10/29)	서울대학교에서 통일을 실행하라 "통일은 실행할 수 있지만 통일학교는 가능하다" 서울대 통일학교 이야기	홍준희 (서울대 교육혁신연구원)
	6차시 (11/5)	서울대 통일학교에서 가르쳐라 "남북한 교사의 차이를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다" 통일학교의 경험	권나현, 손수민 (장도호, 장서영 통일실무연구원)
서울대학교의 통일실용학교	7차시 (11/12)	통일 이후 학교를 생각하라 "그런 통일학교는 통일 이후 학교의 모습에 볼 수 있을까?" (최규승)	권나현, 김은수, 손준재 (장도호, 장서영, 최재호, 최재호 교사)
	세션 3:		
	8차시 (11/19)	북한과 남한 학교에서 배우라 학생의 시선으로 남북통일을 본다. 전세계 학생 시선	박미경, 장은숙 (서울대, 고려대 학생)
남북한 사람통일과 교육	9차시 (11/26)	북한과 남한 학교에서 가르쳐라 "북한에서 교사를 하다가 남한으로 왔어요, 지금은 통일전담교육사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최규승, 최규승 (통일교, 학원비트 통일실무연구원)
	10차시 (12/3)	교육으로 통일을 준비하라 "통일교육은 왜 필요한가?" 새로운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법 모색 (최규승)	최규승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원장)

- 모 집 요 강 -

수강대상 : 2018년 10월 1일 ~ 12월 3일(10주) 매주 (월) 저녁 6시30분 ~ 9시
 수강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2일(수) ~ 11월 19일(수)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www.snu.ac.kr) 409 내외 선별, 발표 9월 21일(금)
 수강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11~1동 103호)
 수강료 : 무료
 이수인정 :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원에 발급 이수증(80%이상 출석자)
 문의처 : 02-880-4461 (일일차 한순환)

서울대학교
 Education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원

9) '북한의 기초과학 현실과 전망' 세미나 시즌 2(통평원 한모니까 교수)

① 사업 목적

- 본 프로그램은 남한에 정착하여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과 학술교류를 통해 북한의 기초과학수준을 이해하고 북한 출신 지식인들이 북한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통일에 대비하여 그들의 지적역량을 충실히 함
- 남북한 학술교류와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출신 지식인들의 지적 자산은 남한 사회가 적극 계발시키고 발양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
- 북한 출신 지식인들의 발표를 통해 분단 70년간 남북한의 지식의 체계와 교육내용, 수준에서 차이를 극복하여야 할 필요성 인식
-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탈북 지식인들의 발표를 통해 학문적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론 및 방법론을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이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고양

② 강좌 대상

- 북한 출신 지식인(현 대학원 석박사과정) 총 8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1	김현성	평양건축종합대학 석사
2	윤경은	함북종합대학 공업설계 (북한대학원 석사)
3	김형수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 (동국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4	주성하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동아일보 기자)
5	조충희	평성수의축산대학
6	김지홍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경기대 북한학과 석사)
7	오영철	경성도자기 전문대학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8	최설	순천공업대학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통화평일연구원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한모니까(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2018년 5월 9일(수) ~ 8월 20일(월)
- 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실(문화관 209호)
- 진행 방식 : 세미나 진행 후 대화

주차	날짜	발표자	내용
1	5. 9	김현성	북한 주택 매매시장 현황과 주택건설 발전추세
2	5. 28	윤경은	북한 8.3 소비품 생산기술에 대한 고찰
3	6. 4	김형수	북한의 만청산연구소와 생물학연구 현황
4	6. 11	주성하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과 북한의 개발방향
5	6. 18	조충희	북한 식품과학기술 현황 및 추세(지방공업을 중심으로)
6	6. 25	김지홍	최근 북한 사이버 기술과 IT 현황
7	7. 2	오영철	북한의 도자기 생산 기술 현황과 추세
8	7. 16	최설	북한의 채취 공업기술의 발전과 응용에 대한 고찰(석탄산업을 중심으로)

* 소속은 항목 ②와 같으므로 생략

□ 활동 조건

- 결과물 주제는 발표자가 자발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결과물 형식은 PPT 또는 영상 등 자율성에 맡기되, 발표원고는 반드시 제출
- 미비한 북한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 자료의 축적이 병행되어야 할 취지에서 원고를 제출.
- 결과물 메일로 제출
- 피드백을 반영하여 결과물 완성

차시	세미나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북한지식인과의 대화 1] 북한 주택 매매시장 현황과 주택 건설 발전추세 ○ 최근 북한에서 주택건설 발전 추세와 주택 매매시장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소유이며 국가에 의해 주민에게 배정된다. 주민은 배정된 주택의 이용권만 갖게 된다. 이러한 합법적 절차와 불법적 주택매매가 결합되어 주택시장이 형성되었다. 북한의 주택건설 또한 국가지원에 의해 건설되어 오던 것이 현재는 시장자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가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기관들은 돈주들

	과 결탁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합법적 절차의 외피를 쓴 주택 매매가 이뤄진다. 북한의 주택건설 발전 추세를 보면 기존의 공장을 중심으로 건설되거나 도시형성계획에 따라 건설하여 오던 것에서 벗어나 수요자에 따른 인테리어 및 공간평수, 교통, 편의시설, 시장을 비롯한 지리적 접근성 등 시장의 수요가 반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북한지식인과의 대화 2] 북한 8.3 소비품 생산기술에 대한 고찰 ○ 이번 세미나에서는 8.3 인민소비품생산의 기원과 생산 현황, 북한 당국이 생존정치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발표하였다. 1984년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통해 출현하였다. 계획의 일원화, 획일화에 따른 상품부족을 계획 생산을 통해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생산자 의욕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시장원리 가격이 적용되었다. 경제난 이후 8.3 소비품 생산 운동은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국가와 기업, 주민의 생존을 위한 합법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북한지식인과의 대화 3] 북한의 만청산연구소와 생물학연구 현황 ○ 이번 세미나에서 북한의 만청산 연구소의 정체와 생물학 연구현황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만청산 연구소는 수령의 건강과 장수를 보장하기 위한 의학 및 생물학 연구소이다. 생물학 연구의 성과를 신체에 도입하여 직접 인체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북한 최고 지도부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데 활용한다. 북한의 기초과학원, 만청산연구원, 청암산 연구소의 명칭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으며 보안을 위해 '만수무강 연구소'로 통칭하여 부른다. 만수무강연구소의 과학자 수는 생리학, 미생물학, 식품공학, 유전자공학, 자동화공학, 여학을 전공한 박사, 석사 비중이 가장 높고, 학위 소유자들로 2천 5백 여명 정도로 포진되어 있다. 연구소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에 1978년 실험생물학과를 개설하였다. 이 학과 졸업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은 만수무강 연구소로 선발된다.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미생물공학을 비롯한 첨단 생물학의 탐을 쌓아올리는데서 월북교수들이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북한지식인과의 대화 4]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과 북한의 개발방향 ○ 이번 세미나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 북한의 개발방향과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며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와 통일전망은 무엇인가를 발표하였다.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경제개발은 남한식 시스템의 강제도입이 아닌 이왕이면 세계적인 최첨단기술과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제도 역시 남북한의 장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 북한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 북한을 안정적인 전략적 중립지대로 설정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시베리아의 연해주 지방 개발이 북한 재건뿐만이 아닌 남한에도, 통일 후에도 가장 낙관적이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북한지식인과의 대화 5] 북한 식품과학기술 현황 및 추세 (지방공업을 중심으로) ○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식품기술 수준과 발전면모, 시장확장성과 맞물린 식품기술의 개발과 첨단기술 도입 전개과정을 발표하였다. 낡은 재래식 식료가공기술은 외부 식료품의 유입을 눈으로 보고 익히고 모방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산 식품이 남한에서 어떤 상품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토론도 이어졌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북한지식인과의 대화 6] 최근 북한 사이버 기술과 IT 현황 ○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사이버기술 수준과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은 사이버 기술 전사들을 영재교육을 통해 선발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보안상 비밀보장

	을 위해 사회와 격리된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라크전의 교훈에 기초해 사이버전의 기본 틀을 구성한 후 북한 내 인트라넷에서의 훈련과 전 세계 해킹 사례들을 분석한 기초위에 해커들이 만든 해킹 툴을 직접 다뤄보면서 새로운 해킹수법 및 도구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다. 이로 인해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보다 다각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북한지식인과의 대화 7] 북한의 도자기 생산 기술 현황과 추세 ○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세상에 보물로 널리 알려졌던 고려청자기, 고려상감자기, 고려백자기, 비취자기 등 고려자기를 원상복구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국가자원을 집중하는 북한을 소개하였다. 발표자는 북한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1970년대부터 해외에 수출하고 불합격품만 국내에서 유통하였다. 이를 통해 도자기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연결해 개인에 의한 골동자기 생산기술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북한지식인과의 대화 8] 북한의 채취 공업기술의 발전과 응용에 대한 고찰(석탄산업을 중심으로) ○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채취 공업기술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석탄은 '공업의 왕'으로 불리는데,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경제난으로 채굴, 채취설비들의 수입이 어려워 석탄생산량의 저하는 발전소 전기생산량 감소, 전국 공장들의 연료난으로 생산을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경제에서 주체와 자립을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공업의 연료를 석탄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석탄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주요 수출품목으로 되면서 탄광은 국가와 개인의 외화벌이장으로 되고 있다. 석탄의 주요생산지는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안주지구탄광

연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이다.

④ 사업 성과

- 본 프로그램에는 교내외 대학생은 물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음. 이는 현 사회의 변화와 이를 사전에 대비한 본 프로그램의 의미를 반영함. 4-27 판문점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예상됨에 따라, 북한출신 지식인들로부터 북한에서의 경험들을 듣고 각 분야에서의 북한 현황을 알고자 하는 학문적·사회적 요구 및 관심이 커짐. 판문점선언 이전부터 기획되었던 본 프로그램은 매우 능동적·선도적으로 사회변화 및 요구를 대비했다는 의미가 있음
- 북한출신 지식인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도움. 서울대에서의 대학생을 비롯한 교수·연구원들이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이 북한에서의 지적 경험을 발전시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세미나에 참석한 남한의 대학생들은 북한의 지식체계를 둘러싼 남북한 지식인들의 교류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사회와 통일에 대한 이해를 향상
-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사회 공헌·나눔 프로그램인 제26회“공감”의 한 코너로서 북한이탈 지식인과의 대담 기획에 기여함. 서울대 자연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눔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 2월로 예정된 “공감”에 처음으로 북한이탈 지식인 특히 북한의 기초과학 전공자들과의 대담 코너를 기획했음. 자연대가 이 기획을 하는 데 본 프로그램의 연구책임자와 발표자가 참여하여 진행 노하우 및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문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출판사(메디치미디어)에서 단행본 발간을 제의해올 정도로 많은 효과가 있었음. 메디치미디어는 본 프로그램이 향후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그 출판 제의 배경

을 설명함. 당초 본 프로그램은 출판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메디치미 디어와 단행본 출판을 논의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이 단행본 출판으로 이어진다면, 그 성과는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기대됨

⑤ 증빙자료

※ 본 강좌의 강사들은 탈북 지식인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가진 이들임. 그런 만큼 이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함. 이러한 강사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못함.

[첨부 1] 본 세미나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 제11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유니콘 이경주 기자입니다. 2018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6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각 지역의 통일교육 선도대학에서도 여러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5월 28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개최한 통일지식공감 강연, <북한의 8·3 소비품 생산기술에 대한 고찰>을 다루어보려 합니다.

본 강연은 북한 지식인과의 대화를 통한 통일교육의 실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통일교육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기초과학 현실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열린 강연 프로그램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온 연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북한 학문의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 대학생을 비롯한 대중의 통일 의식 함양을 돕고 남북한 학문 교류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예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합니다.

강연자 윤경은 강사 역시 토목 관련 연구를 한 지식인으로, 현재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북한의 학문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락)

출처: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302804016>

[출처 2] 세미나 관련 자료

4강_주성하_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과 북한의 개발방향(일부)
<서울대 발표자료>

4차 산업시대의 북한 개발 및 통일방안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목 차

- I 21세기형 북한을 만들기 위한 전제
 1. 통일 이후 남북 관계
 2. 성장과 분배의 균형
 3. 4차 산업혁명과 북한
- II 북한의 경제 개발 전략
 1. 북한 경제현황과 문제점
 2.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위기
 3. 북한이 갖고 있는 잠재력
 4. 공동화와 시베리아 진출
 5. 북한 국토개발 계획, 메가시티 건설
 6. 북한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구상

2강_윤경은_북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 연구
북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 연구
석사학위논문(2017)
윤 경 은
북한대학원대학교

1. 서론	1
2.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태동(1984~1994년).....	5
3.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변화(1995~현재).....	16
4. 결론	28

요 약 문

- 북한은 오래전부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선순위 경제정책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북한산업에서 중공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은 위축되었다. 이런 경공업의 낙후는 1970년대 중반부터 생필품부족현상을 가져왔고 이를 인식한 북한은 1980년대부터 경공업발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1984년 “8월3일인민소비품”(이하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출현하였다. 이 운동은 기본생산 외의 부산물과 폐설물, 유희자재를 이용하여 소비품을 생산함으로써 국가의 투자 없이 부족한 소비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기본생산 밖의 생산원료, 자재, 설비, 기술, 노동력을 사용하여 소비품을 생산함으로써 계획생산 외의 생산이라는 특성을 가졌다. 여기에 생산자들의 의욕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시장원리가격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 생산주체는 기존의 생산단위에서 비생산단위로 확대됨으로써 사실상 소비품생산의 분업화가 일어났다.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시스템에서 계획경제 외의 경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은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파격적인 조치이며 이는 많은 북한경제연구들에서 개혁적인 성격, 제2경제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개혁적인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품 부족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소규모적이고 비전문적인 생산조직, 생산원료의 자체해결, 낮은 수준의 생산수단과 기술은 높은 생

산성으로 이어지는데 한계를 보였다. 반면에 생산의 자율성, 판매의 자율성은 개인이기주의와 비사회주의적인 경제행위들을 야기 시켰다.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위기가 오고 계획경제가 붕괴되어 중앙배급이 마비되는 상황은 8.3인민소비품생산을 변화하게 하였다. 그 변화는 8.3의 인지도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탈북자설문조사에서 장마당 이전 세대는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부산물, 폐설물을 사용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였고, 장마당 이후 세대는 회사에 돈을 내고 시간을 얻는 것이라고 인지하였다. 이런 서로 다른 결과는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경제난 이후 이 운동은 부산물, 폐설물을 사용하는 소비품생산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하였지만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국가와 기업, 주민 사이에서 생계유지와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 아래 생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 8.3노동자의 증가와 가내수공업의 확대는 북한 시장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뿌리는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 시민 평화학교(통평원 이찬수 교수)

① 사업 목적

- 통일교육의 선도라는 취지를 학교 밖에서 시도
- 한정된 예산으로 본래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구원이 기본 재정 및 강의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시민강좌 경험이 많은
도서출판 한길사가 강의 장소 제공 및 홍보를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하고, 이러한 협업을 통해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지출한 재정대
비 사회적 효과(교외 대학생 및 시민 통일의식) 고취

② 강좌 대상

- 일반 시민 총 92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기본 연락처
1	강공미	gmkang@hanmail.net
2	강기영	kykang0709@gmail.com
3	강나경	nagyeong.kang@gmail.com
4	강성원	swkang1002@thepromise.or.kr
5	강지운	kkangjiwoon@naver.com
6	강지호	rainbowsing@naver.com
7	고재근	wortm78@naver.com
8	곽현주	hyunjoo.kwak@gmail.com
9	김기수	thinkimmer@gmail.com
10	김무영	gallantmy@gmail.com
11	김법현	napo200@nate.com
12	김서영	humane5@gumisb.or.kr
13	김성배	namugold@naver.com
14	김성원	nuno79@naver.com
15	김세교	wwind100@gmail.com
16	김수정	hakudo@naver.com
17	김시용	icarusksy@hanmail.net
18	김연순	sorak57@hanmail.net
19	김영범	restfree@naver.com

20	김영준	kyjalosha@naver.com
21	김예현	nuyhey@gmail.com
22	김용재	nanmami1000@naver.com
23	김원천	penny61@gmail.com
24	김윤	ykimforward@gmail.com
25	김일숙	is_prayer@naver.com
26	김재영	kjy@etone.co.kr
27	김태영	take23y@naver.com
28	김헌하	huntkim@korea.com
29	김형엽	hykim@telaum.com
30	김혜영	qdyoung@naver.com
31	김효진	nol1023@daum.net
32	김희숙	daehalee1@naver.com
33	류순권	rlovelord@hanmail.net
34	문예지	stardust_144@naver.com
35	문정원	moonjw1113@gmail.com
36	박관일	goldpki@hanmail.net
37	박나경	freefoot@nate.com
38	박다은	suode0906@naver.com
39	박윤길	ykparket@naver.com
40	박한솔	sol8@snu.ac.kr
41	박효진	ssamesame@hanmail.net
42	백봉현	pbhmaria100@naver.com
43	변준희	-jun2@hanmail.net
44	변택주	einew@hanmail.net
45	부종욱	jwboo429@naver.com
46	손현목	shmking@gmail.com
47	송수일	sulii@snu.ac.kr
48	송영구	syjoo9@hotmail.com
49	신선희	sun2@sen.go.kr
50	신주호	Jooho14@yahoo.com
51	염은경	julianayeom01@gmail.com
52	오상열	osolgil64@hanmail.net
53	오세진	ohioh@snu.ac.kr

54	오원배	bintan425@naver.com
55	오은영	obanii@gmail.com
56	오종학	totototo2001@naver.com
57	유영주	yoonjoo6767@naver.com
58	윤지연	colza05@hanmail.net
59	이동애	tolerance.dongai@gmail.com
60	이선민	giselle7@hanmail.net
61	이순환	lback@daum.net
62	이영아	wendy13.lee@gmail.com
63	이원정	wonjung2 @daum.net
64	이유진	lyjuk95@naver.com
65	이으뜸	ed6054@hanmail.net
66	이진선	jjinssunss@naver.com
67	이철수	happydaycsl@yahoo.com
68	이태주	tjlee@hansung.ac.kr
69	이현민	lhmquapo931003@gmail.com
70	임광수	frts24@naver.com
71	임의진	superlinyz@gmail.com
72	정국진	kujjini@naver.com
73	정박문	healingmoon@naver.com
74	정선문	asmallbean@snu.ac.kr
75	정영화	jyflowerj@daum.net
76	정유진	freude0107@hanmail.net
77	정의현	wjdehrtnf@hanmail.net
78	정의현	uihyeon92@snu.ac.kr
79	정혜영	favorjh@hanmail.net
80	조성환	nouwenj@hanmail.net
81	조창원	opwon@paran.com
82	주수현	poiesis83@naver.com
83	지희수	asmallbean@snu.ac.kr
84	차진용	cha74@ naver.com
85	최웅식	spacola@hanmail.net
86	최자인	201724750@snu.ac.kr
87	파니	fanlam316@gmail.com

88	허민석	mcddt1992@naver.com
89	강진아	baraco@hanmail.net
90	황윤지	yunjihwang6@gmail.com
91	황지영	khjiyoung@naver .com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이찬수(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 외 8인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2018년 4월 2일 ~ 5월 28일 매주 월요일 19:00-21:00

- 장소 : 순화동천(한길사 복합문화예술공간)

- 진행 방식 : 세미나 강연 진행 후 질의응답

차수	날짜	강사명	소속	내용
제1강	2018.04.02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핵무기를 바라보는 북한의 마음
제2강	2018.04.09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판문점 정전체제와 한반도 평화의 꿈
제3강	2018.04.16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동북아의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
제4강	2018.04.23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제5강	2018.04.30	홍세화	소박한자유인 대표	돌레랑스와 사회적 평화
제6강	2018.05.14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핵무장국가 북한 앞에 선 세계와 한국
제7강	2018.05.21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
제8강	2018.05.28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다시 꿈꾸는 통일

강좌별 내용

이번 강좌는 서울대 교외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서출판 한길사와 함께 “통일을 꿈꾸며 평화를 기획하다”는 주제로 공동 개최했다. 2018.4.2~5.28까지 주 1회, 총 8회에 걸쳐 순화동천(한길사 인문예술공간)에서 평화 분야 국내 최고의 연구자 8인이 강의하고 연인원 300여명의 시민이 수강생으로 참석

제1강	1. 조동준(IPUS 부원장) 강의 요지: 북핵은 완성되었는가. 북핵은 과학기술적으로는 미완성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성되었다. 이 강의에서는 기술적 불완전성에 대해 심층 분석하면서도, 정치적 완성을 전제한 전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지 진지하게 강의하고 토론했다.
제2강	2. 김학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강의 요지: 한국전쟁(1950-53)은 한반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평화회담이나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임시적인 군사 정전체제로 끝났다. 단순히 전쟁이 부재하다는 의미의 부정적 평화의 상태가 60여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낮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지속되고 한반도의 각종 난제도 결국은 완전하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것에서 기원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논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분단/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어떻게 완전히 전쟁을 종식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수준의 평화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부정적 평화, 긍정적 평화의 의미와, 한반도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긍정적 평화의 달성으로 가는 로드맵은 무엇인지 검토했다.
제3강	3.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강의 요지: 한반도가 북핵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삼각 관계의 향후 전망에 대해 탐색하고, 중국과 일본의 변수를 가능함으로써 한반도가 정전체제를 이루고 나아가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가능성에 대해 열띤 강의와 질의가 오갔다.
제4강	4.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강의 요지: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공언하고 경제적 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과정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북핵 정책을 평가하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마지막 미지의 길을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제5강	5. 홍세화(소박한자유인 대표) 강의 요지: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다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존중받기 위한 조건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름을 존중하기보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고 억압하고 배제하는 데 쉽게 동원된다. 홍세화 선생의 강의에서는 이 이유를 톨레랑스의 개념을 중심으로 집중 탐구하고, 사회적 평화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했다.
제6강	6. 이삼성(한림대 교수) 강의 요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장 국가로 등극하는 과정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를 내놓았고, 그 과정에 한반도의 위기는 고조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때일수록 북한의 핵무장을 한편에서는 인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하는 방식으로 저마다의 권력 정치를 하고 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나아가고, 아시아 전체가 대분단체제를 넘어서도록 정치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제7강	7.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강의 요지: 경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가서도 안되고 또 그런 것도 아니다. 주류경제학의 가정(인간의 합리성과 시장의 효율성)은 비현실적이며 단순화한 이론이 현실을 완벽히 반영할 수 없다.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경제학의 이름으로

제8강	8. 김병로(IPUS HK교수). 강의 요지: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내몰렸다가 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일수록 통일은 경제와 정치, 사회 등 여러 면에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대한민국에 유력한 대안이다. 첨예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평화의 시각에서 통일을 다시보고 연합의 사유와 전략으로 통합의 미래를 모색했다. 총평: 이상 총 여덟 번에 걸친 강의 대부분이 질문과 대화의 시간이 강의 시간보다 길어지는 등 여러 수강생이 강의에 진지하게 호응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수준을 함께 전망했다. 통일교육의 저변을 학교 밖에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에도 교내의 연구와 강의 역량을 교외에서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	---

④ 사업 성과

○ 총 여덟 번에 걸친 강의 대부분이 질문과 대화의 시간이 강의 시간보다 길어지는 등 여러 수강생이 강의에 진지하게 호응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수준을 함께 전망할 수 있었음

○ 통일교육의 저변을 학교 밖에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에도 교내의 연구와 강의 역량을 교외에서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 현장 사진





[첨부 3] 세미나 자료

<p>조동준 <1강_북한_핵무기_마음_2018></p> <p>핵무기를 바라보는 북한의 마음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p> <p>1. 북한의 핵 능력</p> <p>6차 핵실험용 핵무기 개발 가정</p> <p>핵무기 개발 일정</p> <p>핵 실험 능력</p>	<p>김학재 <2강_판문점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구축></p> <p>판문점 정전 체제에서 평화체제로</p> <p>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p> <p>“남한의 박물관” 판문점 DMZ, 양강의 평화체제 지상군과 항명제</p> <p>김학재</p> <p>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p> <p>War</p> <p>Peace</p> <p>Positive Peace Index</p>
<p>서보혁 <4강_코리아인권></p> <p>북한인권 개선, 어떻게?</p> <p>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p> <p>1. 인권의 속성</p> <p>2. 인권과 타 보편가치</p>	<p>정태인 <7강_이행경제로서의 북한경제></p> <p>“이행 또는 전환경제(transition or transformation economy)로서의 북한경제”</p> <p>정태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p> <p>1. 사회적 딜레마와 협동의 힘</p> <p>주요내용</p> <p>【타의 강제】</p>

[첨부 2] 평화학교 포스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도서출판 한길사 공동기획

'평화 학교' 개강

통일을 꿈꾸며 평화를 기원하다
다양한 문제와 역동적인 가능성이 공존하는 21세기 한반도.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오늘,
어두운 신냉전구도를 넘어 소통과 대화, 화해와 협력의 길을 묻는다.
여기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주차	일정	강사	주제
1	4월 2일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핵무기를 바라보는 북한의 마음
2	4월 9일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판문점 정전체제와 한반도 평화의 꿈
3	4월 16일	정세현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동북아의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
4	4월 23일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5	4월 30일	홍세화 소박한지유인 대표	블레랑스와 사회적 평화
6	5월 14일	이상성 한양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핵무강국이 북한 앞에 선 세계와 한국
7	5월 21일	정태인 울릉대 사회경제연구소장	인본과 경제라는 두 축
8	5월 28일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다시 꿈꾸는 통일

11) 철원 통일·평화 현장학습 강좌운영 사업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

① 사업 목적

- 자유전공학부 2018학년도 신입생 약 134명을 대상으로 철원 지역의 통일·평화 관련 역사와 사회사 등을 주제로 사전 강의
- 철원 제2땅굴, 평화전망대 등을 방문하여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학부 신입생들의 통일·평화 관련 인식 제고
- 통일을 대비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프로그램 마련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총 134명
- 참가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1	유현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	김슬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	김준경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	박시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	장서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	허남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	안유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	김아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	안길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	이현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	김현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	김규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3	송정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4	박찬목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5	이원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6	김채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7	강소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8	김소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9	전우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0	손진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1	최한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2	황지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3	최준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4	김종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5	한상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6	조성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7	조형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8	윤자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29	강승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0	박현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1	홍태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2	박진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3	설예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4	나세창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5	서보성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6	배시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7	곽동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8	이민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39	이수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0	조유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1	김희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2	정승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3	두호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4	송정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5	이강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6	정원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7	이승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8	고유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49	김가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0	이동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1	정유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2	송찬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3	박예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4	윤동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5	이영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6	강지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7	김희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8	소예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59	김건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0	김수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1	김근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2	김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3	하고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4	서예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5	정현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6	김민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7	이해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8	김경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69	한수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0	최정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1	조현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2	임혜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3	전민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4	권혜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5	김세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6	정성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7	오예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8	박도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79	사공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0	박민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1	최은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2	윤지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3	김지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4	박서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5	노종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6	김민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7	김지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8	김지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89	김유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0	김은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1	김근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2	배지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3	유민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4	이윤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5	조주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6	문보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7	장시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8	김은형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99	김진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0	신예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1	오준석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2	김보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3	권소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4	김기명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5	김재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6	김백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7	김교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8	한승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09	이석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0	김재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1	김훈성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2	박윤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3	이가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4	이하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5	김민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6	장호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7	정지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8	김우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19	민새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0	최은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1	이재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2	곽원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3	김한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4	김여경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5	이정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6	선우다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7	김현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8	김미승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29	김태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30	장하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31	정준형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32	문정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33	홍수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134	황혜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김범수(자유전공학부 교수)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2018년 3월 30일 ~ 3월 31일 (1박 2일)
- 장소 : 철원지역
- 진행 방식 : 답사 진행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일자	시간	일정	비고
3월 30일 (금)	9:30	서울 출발	집합지 사당역 공영주차장 (사당역 1번 출구 나온 후 약 200미터 직진)
	9:30~11:40	이동	※ 1차 설문지 작성
	11:40	철원 양지리 도착	
	11:40~12:30	점심식사	양지리 마을식당, 황금밥상
	12:30~1:10	토교저수지, 철새타운	
	1:10~2:30	철원 2땅굴	
	2:40~4:00	철원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4:20~5:00	철원 노동당사, 송대소 지리공원	
	5:30~6:20	저녁식사	신철원 청정하우촌

3월 31일 (토)	6:20~7:00	숙소로 이동	포천 한화리조트
	7:30~9:00	지도교수와의 대화	
	9:00~10:00	자유시간	
	10:00	취침	
	8:00~9:00	아침식사	포천 한화리조트
	9:10	집합	
	9:10~11:30	산정호수 둘레길	
	11:30~12:20	점심식사	
	12:30	서울 출발	※ 2차 설문지 작성 ※ 백일장 작품 제출
	15:30	서울 도착	

답사 방식

- 자유전공학부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인 <전공설계1>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전공학부 1학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통일·평화 관련 현장학습교육
- 철원 제2땅굴, 평화전망대 등을 방문하여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학생들의 통일·평화 관련 인식 제고

④ 사업 성과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철원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장학습 교육을 통하여 통일·평화 인식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통일 감수성을 향상시킴
- 다양한 방식의 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

⑤ 증빙 자료

[첨부 1] 현장 답사 사진



<철원 노동당사 앞>



<철원 두루미 마을 견학>



<철원 노동당사 견학>



<백마고지 전투 전적비 참배>



<전체 교육>



<철원 월정리역>

[첨부 2] 학부생 대상 통일·평화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한 '백일장' 결과물

수상작 2편 선정	
최우수상: 윤자현 '봄' (윤자현 작사, 윤자현 작곡)	우수상: 김려경, '새가 우는 마을'
<p>언젠가 겨울 지나 봄이 올거야. 난 믿어요 움추렸던 꽃도 다시 피어올거야 언젠가 언젠가 겨울 지나 봄이 올거야 난 믿어요 움추렸던 꽃도 다시 피어올거야 언젠가</p> <p>차가운 회색빛 공기엔 건조한 적막이 흘러 내 맘대로 흐르지 않아 눈을 그저 감았지만 일렁이는 모습들 다시 나를 깨워 돌아갈 수 있을까</p> <p>언젠가 겨울 지나 봄이 올거야</p>	<p>굽이치는 물결을 떼어 하늘에 놓는다 파닥이는 날개짓 하나</p> <p>다른 물결들이 하나 둘 따라 붙는다 하나로서 우리 짓는다</p> <p>따스한 물결이 허영계 녹은 고지를 만지고 비오는 날마다 울던 산을 넘는다</p> <p>우짚는 소리에 한도 담고 빛도 담아 오며가며 뿌려주는</p> <p>물결은 겨울, 하얗게 얼어</p>

<p>난 믿어요 움추렸던 꽃도 다시 피어올거야 언젠가 시간이 흘러 어느새 무뎠던 것 처럼 보여 그대 무슨 말이 필요할까 상처가 덧난 것 같아 눈을 감아도 빛나던 그때가 떠오르는걸</p> <p>무너진다 흐려간다 결국 끝이 났다 여전히 여기 이 자리에 남아 너는 흘러간다</p> <p>언젠가 겨울 지나 봄이 올거야 난 믿어요 움추렸던 꽃도 다시 피어올거야 언젠가.</p>	<p>철조망을 따스히 품는다 하나로서 눈투성이인 어떤 마을 풍경.</p>
--	---

[첨부 3] “철원에 대한 시선, 이미지 그리고 기억” 설문 조사 결과 (학생 119명 응답)

<p>○ 중간평가 :</p> <p style="text-align: center;">철원 도착 전</p> <p>Q1. 철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84명) ② 1회(25명) ③ 2회 이상(10명) ④ 근무하거나 거주한 적이 있음(0명)</p> <p>Q2. 철원의 이미지를 한 가지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입니까? ① 흰색(15명) ② 회색(49명) ③ 검정색(16명) ④ 빨간색(2명) ⑤ 노란색(2명) ⑥ 주황색(1명) ⑦ 초록색(26명) ⑧ 파란색(4명) ⑨ 남색(3명) ⑩ 기타(카키색 1명)</p> <p>Q3. 철원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나 영화가 있나요? ① 없다.(109명) ② 있다.(10명: JSA, 이등병의 편지, 강철비 등)</p> <p>Q4.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소가 있나요? (1개만 골라주세요) ① 백마고지 ② 한탄강(16명) ③ 철원평야(5명) ④ DMZ(42명) ⑤ 땅굴(15명) ⑥ 철새(12명) ⑦ 민통선마을(2명) ⑧ 노동당사(5명) ⑨ 얼음창고 등(6명) ⑩ 철도와 기차역(10명) ⑪ 기타(6명 : 깨끗한 공기 등)</p> <p>○ 최종평가 :</p>

철원 방문 후

Q1.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철원에 다시 오고 싶나요?

- ① 없다.(30명) ② 있다. (89명)

Q2. 철원의 이미지를 한 가지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입니까?

- ① 흰색(22명) ② 회색(31명) ③ 검정색(6명) ④ 빨간색(3명) ⑤ 노란색 (10명)
⑥ 주황색(2명) ⑦ 초록색(28명) ⑧ 파란색(9명) ⑨ 남색(3명) ⑩ 기타(5명: 갈색 2명, 무지개색 등)

Q3. 답사 중에 특별히 떠오른 노래나 영화가 있나요?

- ① 없다.(95명) ② 있다.(24명 : 강철비, 고지전 등)

Q4. 이번 답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백마고지(6명) ② 한탄강(20명) ③ 철원평야(1명) ④ DMZ(전망대) (33명)
⑤ 땅굴(22명) ⑥ 철새(두루미)(12명) ⑦ 민통선마을(1명) ⑧ 노동당사(6명)
⑨ 얼음창고(기타 폐허)(1명) ⑩ 철도와 기차역(12명) ⑪ 기타(숙소 등 5명)

Q5. 이번 철원 답사를 통하여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1개만 골라주세요)

- ① 안보의 중요성(21명) ② 평화의 중요성(72명) ③ 지역개발의 중요성(11명)
④ 기타(15명)

Q6. 철원답사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2) 동아시아대학생 평화인권캠프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

① 사업 목적

○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앞서 사전 세미나와 특강에 참여하고 캠프 답사를 통해 통일·평화 현장의 지역적, 역사적 맥락, 연관된 권력의 흐름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

○ 평화시대를 만들어 나갈 본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생 대상 통일·평화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② 강좌 대상

○ 서울대학교 및 타교 대학(원)생 총 13명

○ 참가자 구성

연 번	이 름	소 속	
1	전혜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2	정기연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3	간여운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생)
4	이헌정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생)
5	김혜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6	엄재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7	박재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	조민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9	안혜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0	김서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	이동진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12	장우영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13	이경태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③ 강좌 내용

○ 개최 학기 및 소속 학과

: 2018학년도 여름 방학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강사명 및 강사 소속 : 정근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외 3인

○ 강의 일자 및 내용

- 기간 : 2018. 7. 18.(수) ~ 8. 18.(토)
- 장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관, 동아대학교 인문과학관
- 진행 방식 : 특강 세미나 진행 후 질의응답

④ 아카데미 프로그램 세미나

아카데미 프로그램				
주차	일자	강사명	소속	주제
1회	7. 18.(수)	이시우	개인 사진작가	평화협정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과제
2회	7. 25.(수)	정옥식	한국평화네트워크 대표	북.미정상회담 분석과 전망 평가
3회	8. 6.(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냉전, 분단 경관과 평화-철책과 전망대에 관하여
4회	8. 18.(토)	원동욱	동아대 중국학부 교수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비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의 의미와 과제

강연 내용	
주차	내용
1회	<p>① 평화협정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과제 (강사: 이시우 사진작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미군의 개입 방식과 이에 대한 국제법 학계의 의견 -그러한 개입으로 생겨난 38선 위 '수복 지역'의 특성을 사진과 함께 설명 -수복지역의 점령상태 해결 방안으로서의 평화협정의 필요성 -정전협정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 평화협정의 특징
2회	<p>② 북-미 정상회담 분석과 전망 평가 (강사: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가능했던 배경 -북미공동성명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북-미 정상회담과 이에 대한 일본/중국의 반응 -북-미 평화 체제의 전망 및 예상되는 어려움들
3회	<p>③ 냉전, 분단 경관과 평화-철책과 전망대에 관하여 (강사: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전 경관의 사례와 특징들 -철책과 전망대의 시선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 -분단지역의 철책/전망대의 형성, 변천 과정 및 역사적 특성 -냉전/분단 경관의 미래 전망
4회	<p>④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비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의 의미와 과제 (강사: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정세와 미/중 세력관계 변화, 동북아 정세 개괄 -신정부의 외교안보구상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필요성, 정책목표, 기대효과 및 주요 내용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3단계 로드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와 구경제지도와의 차이
-비핵화와 신북방/신남방정책,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⑤ 차이나타운 답사

답사 프로그램		
주차	일자	내용
1회	8월 19일	부산 차이나타운/러시아인 거리(텍사스거리) 답사
답사 진행 내용 및 소감		
<p>-답사장소와 사업성격의 연관성</p> <p>: 차이나타운과 텍사스거리 답사는 전날 저녁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에서 다뤄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 한반도신경제지도 완성에 있어 부산이 거점 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부산에서 강연만 듣고 오기보다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추가 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특히나 남-북 경제협력의 단순히 남북 양자관계를 넘어 남-북-중-러의 확장된 형태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중국인과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거리가 향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 실현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과 텍사스거리를 돌아보고 현지 외국인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해보기도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고, 전날 강연에서 들은 거점 지역으로서의 부산의 특징을 현장에서 경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p>		
<p>-러시아인 거리 현지주민 인터뷰</p> <p>: 러시아인 거리를 돌아다니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거리의 변화, 차이나타운과의 관계 및 남북중러 협력시 부산 러시아거리의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중에는 교포가 많았고, 예전에는 이 거리가 중국인 중심이었는데 러시아인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며, 두 거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과 러시아인 간 교류는 딱히 없는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p> <p>또 러시아 거리의 인구 유입이 예전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중국/러시아 쪽과의 연결이 쉬워지면서 더 값싼 비용으로 배를 탈 수 있는 중국/러시아로 선원들이 이동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남북중러 경제협력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나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 아직 남북중러 경제협력의 현지주민이 체감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위치한 러시아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생활 회화는 가능하지만 인터뷰에 본격적으로 응해줄 정도로 고급 회화가 가능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도였습니다.</p>		
<p>-거리 답사/인터뷰 후 소감</p> <p>: 답사를 마친 후 점심을 먹으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유흥주점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으며, 이곳이 관광지화 되면서 진짜 중국인/러시아인보다는 중국/러시아 간판을 내건 한국인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 거리라고는 하지만 몽골, 우즈베크에서 온 고려인이 많았고, 이들은 잠시 돈을 벌기 위해 동해에서 배를 타고 오다 보니 부산에 정착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돈을 벌러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 많고 여학당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환전소가 유난히 많은 것을 보면서 사회학과 수업에서 문화가 교차하는 곳에는 환전소가 늘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러시아인 거리인데도 몽골과 필리핀 가게도 존재하는 것을 보고 전날 원동욱 교수님 강연에서 들은 '남/북/중/러를 넘어 그 외 지역까지도 협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p> <p>다만 부산의 외국인 거리에는 양쪽 모두 유동 인구가 적은 편이었고, 현지 주민분도 실제로 예전보다 거리의 활기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산의 외국인 거리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국 속의 중국/러시아 혹은 관광지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언어 습득의 기회도 제공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 같</p>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일 대학생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교육 저변 확대

: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동아시아평화인권캠프에 참가했던 서울팀 학생들은 자기 부담으로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 북미회담 전망과 평가, 남북정상회담 등을 다룬 제33대 동아시아평화인권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캠프 중 낮 시간에는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답사지로 필드워크를 다녀왔고, 저녁 시간에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일 학생들이 모여 토론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강연과 답사지에서 느낀 내용들을 배경 지식으로 삼아 토론하여 보다 원활하게 토론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한·일 대학생이 남북관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들을 강연을 통해 학습하고 강연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보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동아시아평화인권캠프 서울팀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학습을 이어나가 겨울에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광주에서 진행되는 제 34대 동아시아 평화인권캠프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④ 사업 성과

○ 통일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국제 구도가 형성되는 과정과 이후 그것이 작동되었던 방식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 이에 따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동아시아 내 평화체제를 도입할 방법을 고민하게 됨.

○ 향후 한·일 네트워크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모색

- 학생들은 캠프 답사 이후 일본 지역을 방문해 일본 학생들과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를 약속하면서 평화 협력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짐.

⑤ 증빙 자료

[첨부 1] 강의현장/답사 사진 및 시각자료

동아시아대학생 평화인권캠프 사진



제1강 (2018. 7. 18.)
이시우 '평화협정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과제'



제2강 (2018. 7. 25.)
정육식 '북·미정상회담 분석과 전망 평가'



제3강 (2018. 8. 6.)
정근식 '냉전, 분단 경관과 평화-철책과 전망대에 관하여'



제4강 (2018. 8. 18.)
원동욱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비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의 의미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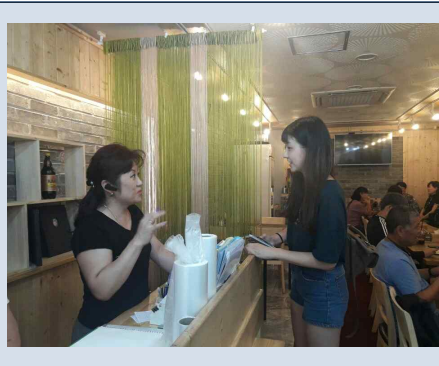
2018. 8. 18.
부산 차이나타운/러시아인 거리 답사



2018. 8. 18.
부산 차이나타운/러시아인 거리 답사



2018. 8. 18.
부산 차이나타운/러시아인 거리 답사



2018. 8. 18.
부산 차이나타운/러시아인 거리 답사

회 결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개괄함으로써 3.8선 위 수복 지역의 생성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복지역에 대해 주권 대신 행정권만 갖고 있으므로 이 지역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점령 상태이고, 이 점령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협정의 관건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의 정전협정은 군 사령관들이 임시로 맺은 협정으로서 군사적인 것이며,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미/중 및 일/러의 정치 대표가 당사자로서 참여한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직접 찍으신 수복지역 사진을 여러 장 같이 보며 설명을 듣고 해당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질문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사회대 신앙에 모여 강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전쟁 상태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수복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 잔존해 있음을 느꼈다는 의견,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포함되어야 할 국가가 생각보다 많아 남북 평화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 동일 양식의 회의록은 총 4차까지 있으며, 증빙 자료로 첨부

[첨부 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회의록(1차)

일 시	2018.07.18
장 소	서울대학교 16동 104호
참 석 자	이시우(강연자), 정근식, 이현정, 엄재연, 간여운, 정기연, 김혜지, 전혜원

동아시아 평화인권연구소 7/18 강연 참여자 목록

이름	서명
정기연	<i>[Handwritten Signature]</i>
전혜원	<i>[Handwritten Signature]</i>
간여운	<i>[Handwritten Signature]</i>
이현정	<i>[Handwritten Signature]</i>
김혜지	<i>[Handwritten Signature]</i>
엄재연	<i>[Handwritten Signature]</i>



2018년 7월 18일 서울대학교 16동 104호에서 사진작가 이시우 님의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에서는 3.8선 위이자 휴전선 아래인 수복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통합군사령부 창설결의와 유엔총

□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대학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번호	단위사업	담당자
1	예체능 연계모델보급: 플래시몹 제작	최의창 (체육교육과 교수)
2	SNU 황해 평화학교	김학재한모나까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3	한반도정책컨설팅센터 정책형 통일교육모델 보급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4	통일아카데미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5	평화아카데미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6	서울대학교 통일교육모델 출판사업	정근식 (사회대 교수) 주윤정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7	교직원 통일교육	성삼제 (행정교육원 원장)
8	서울대학교강원대학교 교류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 예체능 연계모델보급

세부 사업명: 플래시몹, '통일을 춤추다'

① 사업 목적

- 통일을 염원하는 '댄스 플래시몹(Dance Flash Mob)' 실시
 - 통일염원 댄스 플래시몹 프로젝트 기획, 제작, 실행(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 문화예술을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공감 능력, 의식 함양
- 플래시몹 관련 영상제작 및 온라인 확산
 - 플래시몹 실행 촬영영상을 효과적으로 편집
 - 플래시몹 실행 영상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보급하여 국내외 관심 유도
- 통일대학선도대학 모델보급형 사업의 일환으로 모델보급을 위한 방안 마련
 -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타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
 - 통일관련 플래시몹 시행 및 확산을 위한 보급영상 제작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사업 주제

- 통일 염원 '댄스 플래시몹(Dance Flash Mob)' 실시.

○ 참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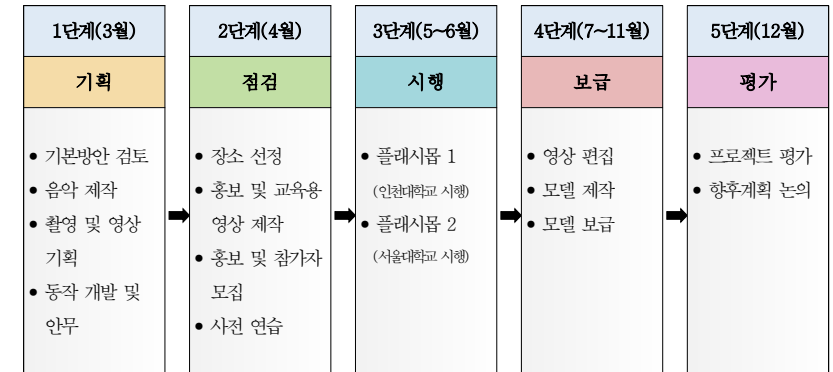
- 플래시몹 모델보급 및 확산을 위해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인천거점대학인 '국립인천대학교'를 연계.

○ 시행 시기 및 장소

- 준비 기간: 2018년 1·2학기
- 플래시몹 실시 일자

횟수	실시 일자	실시 장소
1	2018년 5월 30일 16시	인천대학교 학생회관 앞
2	2018년 6월 1일 12시 30분	서울대학교 아크로광장

○ 세부 추진 절차 계획



③ 추진 내용

단계	추진 내용	세부 내용
기획	• 기본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2017 통일을 춤추다 1, 2에서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댄스 플래시몹을 진행하였다면, 2018 통일을 춤추다 3에서는 <모델보급형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플래시몹 모델보급 및 확산을 위해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타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함 • 본 사업은 통일선도대학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구성원의 통일에 대한 관심 고취가 목적인만큼, 플래시몹

참가자뿐만 아니라 음악, 촬영, 안무, 영상 편집 및 제작 모두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 방안으로 삼음

표 302. 세부 업무 및 담당장

역할	세부업무	담당자
음악	작사, 작곡, 녹음	서울대학교 작곡과 '남예찬'
촬영 및 영상 제작	촬영, 편집, 영상 제작	서울대학교 영상동아리 '이미지밴드'
안무	안무, 홍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무용부'
참여	플래시몹 시행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재학생

- '서울대학교'와 인천거점대학인 '국립인천대학교'를 연계하여 댄스 플래시몹을 시행함으로써, 각 대학을 중심으로 플래시몹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댄스 플래시몹을 위해 2016년도에 서울대학교 작곡과 남예찬군이 작곡한 음악을 사용하기로 함
- Part 1(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은 서정적 멜로디)와 Part 2(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과 열망을 담은 활기찬 멜로디)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과 안무를 진행하기로 계획

• 음악 검토

<음악 제작자 및 주제곡 악보>

- 플래시몹을 촬영 전략 및 영상 제작 방향성에 관한 논의, 특히 모델보급 확산을 위해 플래시몹 실행 영상이외에 최종 결과물을 어떤 콘텐츠로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
- 실행영상에서는 음악의 방향성과 함께 영상의 <Part 1>에서는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요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인터뷰를 활용하고, <Part 2>에서는 플래시몹 시행 영상을 편집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

• 촬영 및 영상 기획



<플래시몹 촬영 준비 모습>

- 서울대학교 무용부 학생들과 관련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통일의 염원을 담은 동작을 개발
- 통일을 상징하는 모티브를 담아 전체 안무 구성(분단, 만남, 그리움 등), 다른 통일 관련 플래시몹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안무
- 참가자의 특성(일반인)과 플래시몹의 특성(즉흥성)을 고려하여 동작의 난이도를 조절


• 동작 개발 및 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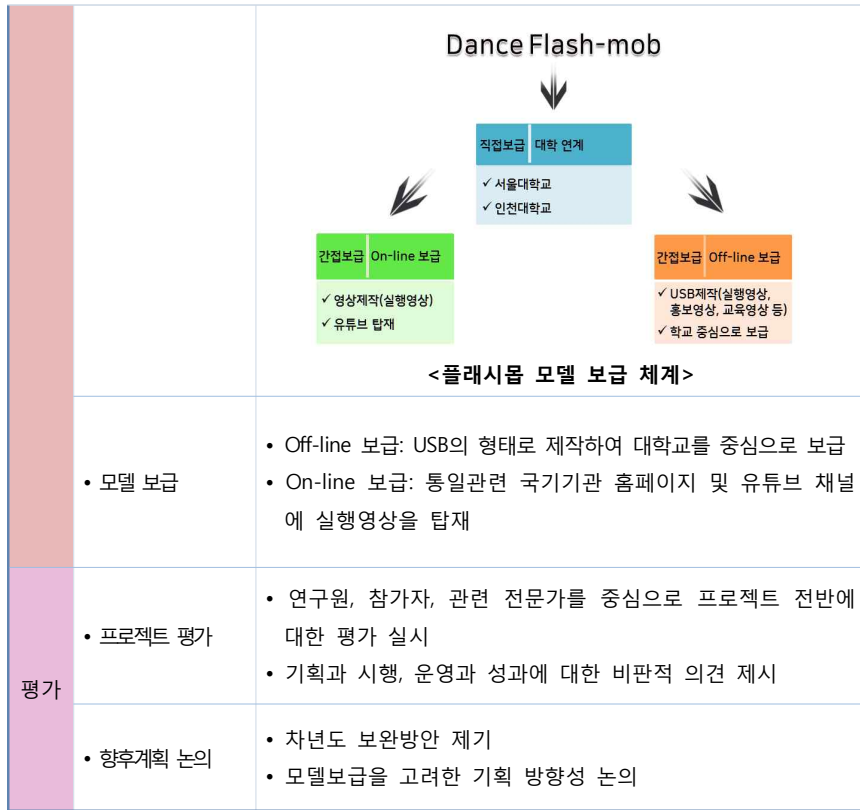
<댄스 플래시몹 동작>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교내 중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를 장소 섭외의 기준으로 삼음 •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능 여부 타진 • 서울대학교 아크로광장, 인천대학교 학생회관 앞으로 장소 최종 결정
	<p><플래시몹 집행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line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 확산 • 타 학교에서도 플래시몹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델모습을 고려하여 교육영상을 제작 • 교육영상에서는 동작과 안무의 특성을 박자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안무에 대한 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교육용 영상 제작 	<p><플래시몹 홍보 영상></p>

	<p><플래시몹 교육 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참가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모집 • Off-line 홍보방법으로 포스터,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On-line 홍보방법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참여를 유도 <p><플래시몹 현수막 부착 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무의 적합성을 재검토 하며, 통일의 이미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무 수정 및 보완을 실시 • 플래시몹에 참여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전연습을 실시 <p><인천대학교 사전연습 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래시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플래시몹을 실시 • 사전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가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도를 고려하여 인천대학교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플래시몹을 시행 ✓ 일시: 2018년 5월 30일 16시 ✓ 장소: 인천대학교 학생회관 앞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대학교 플래시몹 시행 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래시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플래시몹을 실시 • 사전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가자 모집 • 참여도를 고려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와 시간을 고려하여 플래시몹을 시행 ✓ 일시: 2018년 6월 1일 12시 30분 ✓ 장소: 서울대학교 아크로광장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대학교 플래시몹 시행 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영상에서 Part 1, 2의 제작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편집을 실시 • 플래시몹 현장의 생생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플래시몹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이 담길 수 있도록 편집, 또한 감상자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영상을 제작  <p style="text-align: center;"><플래시몹 편집영상 첫장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래시몹 실행 영상을 포함하여, 차후에 여러 지역, 장소, 사람들에게 의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 • 홍보영상, 교육영상, 실행영상, 실행사진이 담긴 자료를 제작, 특히 댄스 플래시몹을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도록 동작과 관련설명이 담긴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효과적인 보급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1	황○영	45	조○
12	임○기	46	임○옥
13	고○진	47	이○민
14	박○찬	48	김○준
15	김○지	49	신○진
16	이○현	50	이○원
17	곽○훈	51	장○현
18	김○호	52	성○모
19	채○훈	53	신○우
20	이○호	54	노○련
21	송○준	55	최○경
22	이○연	56	김○경
23	정○원	57	김○림
24	최○원	58	한○원
25	최○화	59	이○성
26	강○선	60	김○현
27	정○수	61	이○제
28	신○현	62	유○민
29	장○훈	63	신○림
30	송○화	64	유○영
31	강○기	65	김○연
32	천○민		
33	박○현		
34	왕○호		

□ 참여자 명단 1(인천대학교 65명)

번호	이름	번호	이름
1	황○연	35	김○곤
2	김○주	36	조○현
3	이○주	37	김○재
4	차○빈	38	강○남
5	오○민	39	박○이
6	장○화	40	이○아
7	홍○기	41	현○환
8	주○우	42	최○빈
9	양○수	43	이○인
10	유○재	44	이○혁

□ 참여자 명단 2(서울대학교 67명)

번호	이름	번호	이름
1	예○조	35	이○정
2	김○지	36	김○영
3	황○지	37	김○원
4	한○울	38	류○미
5	이○원	39	최○윤
6	이○운	40	서○원
7	정○진	41	이○옥
8	금○리	42	양○윤
9	이○영	43	박○혜
10	이○섭	44	서○
11	유○영	45	이○환

12	권○영	46	김○식
13	김○정	47	박○호
14	이○희	48	이○
15	김○연	49	조○오
16	김○순	50	곽○욱
17	홍○령	51	김○술
18	전○화	52	조○실
19	장○성	53	김○민
20	이○화	54	권○혁
21	장○령	55	최○혁
22	김○현	56	박○용
23	장○이	57	최○규
24	김○희	58	최○온
25	이○대	59	우○빈
26	손○준	60	정○수
27	이○주	61	최○현
28	양○열	62	최○영
29	사○엽	63	전○용
30	풍○	64	이○수
31	오○규	65	서○은
32	윤○돈	66	정○규
33	황○민	67	임○진
34	조○욱	68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통일대학선도대학 사업 차원

: 통일선도대학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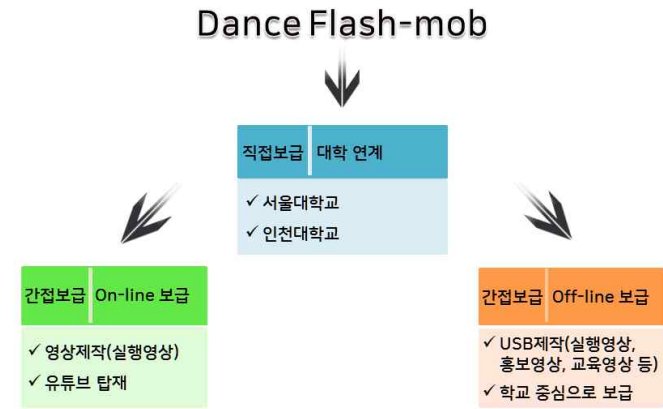
- 본 프로젝트는 통일선도대학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비롯하여, 교수, 교육직원 등의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이 댄스 플래시몹이라는 참여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 특히 예년에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올해는 인천의 거점대학인 국립인천대학교와 연계하여 플래시몹을 진행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나아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통일 리더를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함.

□ 모델보급사업 차원

: 통일 댄스 플래시몹(Dance Flash Mob) 모델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



댄스 플래시몹 모델보급 체계

- 통일 염원 댄스 플래시몹이 다양한 대상과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 및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춤.
- 플래시몹 모델보급을 위한 직접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국립인천대학교와의 대학연계작업을 통해 대학생들 간에 교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플래시몹을 확산하고자 함.
- 플래시몹 모델보급을 위한 간접적 방안으로 실행영상을 중심으로 한 On-line 보급과 실행영상을 포함한 교육영상 등의 콘텐츠를 담은 Off-line 보급을 실시함. 이를 통해 통일 댄스 플래시몹의 체계적인 모델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 On-line 보급: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서 시행된 플래시몹을 촬영하고 편집작업을 거쳐 통일관련기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였음.

- ➔ Off-line 보급: 관련 자료를 담은 USB를 제작하여 초, 중, 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보급을 실시함. 관련 자료에는 플래시몹 실행영상 및 사진뿐만 아니라, 홍보영상, 특히 교육영상(설명용, 시연용)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장소와 대상에 관계없이 댄스 플래시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통일을 춤추다 3> 모델보급용 USB 콘텐츠 목차

2018	1. 홍보영상	2017	1. 실행영상
	2. 교육영상 ① 설명용 ② 시연용		2. 실행사진 ① 서울대학교 ② 서울대학교 사대부속중등학교
2016	3. 실행영상 ① 종합 ② 서울대학교 ③ 인천대학교	2016	1. 실행영상
	4. 실행사진 ① 서울대학교 ② 인천대학교		2. 실행사진 ① 서울대학교 ② 서울대학교 사대부속중등학교

□ 플래시몹 프로젝트 차원

: 문화예술콘텐츠 보급을 통해 국내외 통일에 대한 감수성 자극, 공감을 유도

- 본 프로젝트는 댄스 플래시몹의 실행과 공유라는 문화예술콘텐츠 작업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움직임, 음악, 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와 협력하여 참가자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공감을 유도함.
-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각과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통일 염원 댄스 플래시몹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을 넘어선 통일에 대한 공감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함.

□ 기타 성과

: 대학 구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본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담당자 및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묻는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통일에 대한 관심, 이해 정도를 진단할 수 있었음.
- 또한 플래시몹 참가자들과의 사후 인터뷰와 비형식적인 대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를 포함하여 대학 구성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저조하며,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험적 근거가 마련됨.



<댄스 플래시몹 담당자 및 참여자와의 인터뷰 장면>

2) SNU 황해 평화학교

①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의 통일 교육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답사 및 캠프 프로그램 개발.
- 구체적인 지역별 현안과 쟁점에 정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시대를 대비하는 공간적 상상력 개발.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사업 중 환황해와 환동해 벨트에 해당되는 서울대-인천대 협력, 서울대-강원대 협력을 활용해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
- 주변국과의 교류 확대, 국제화된 교육 프로그램 발전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사업 주제
 - 강화-교동 서해 평화 캠프 (‘제 1회 SNU 황해 평화학교’)
- 운영 주체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참여 대상
 - 서울대학교 재학생 (24명),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

번호	이름	학교	전공	학년	연락처
1	안승원	대진대	도시공학	2	ahnsw98@naver.com
2	장우석	서울대	법학	석사 1학기	jjjjang95@gmail.com
3	조누리	숙명여대	일본어학	1	challenge0503@naver.com
4	고유진	서울대	자유전공학	1	dbwlsrh@snu.ac.kr
5	김정민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석사 3학기	dearmothermusic@gmail.com
6	문채원	Tufts University	경제학	석사과정	moonchaewon07@gmail.com
7	정영훈	서울대	자유전공학	2	dudgns0610@snu.ac.kr
8	박경태	서울대	경영학	4	abc1424@snu.ac.kr

9	이상연	인천대	중어중국학	3	lsy02190@naver.com
10	현지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	1	guswlgp22@naver.com
11	임주희	서울대	서어서문학	3	imjuhee3293@snu.ac.kr
12	정원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	3	dnjswns9433@naver.com
13	이종경	서울대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수료	jonggyom@gmail.com
14	황종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jongwookhwang.official@gmail.com
15	김진수	서울대	사회교육과	4	jin931029@snu.ac.kr
16	강윤아	서울대	사회학	3	11yoona@naver.com
17	한준일	인천대	중어중국학	4	jjhan1994@naver.com
18	조범준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	4	xkqwh123@snu.ac.kr
19	이진명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	4	mys1458@snu.ac.kr
20	이정은	서울대	경제학	3	sunjudge@naver.com
21	김지윤	서울대	국어국문학	박사수료	miel_honey@hanmail.net
22	윤지은	서울대	국어국문학	박사수료	prnum1@daum.net
23	곽병현	서울대	지리교육과	4	kbh7381@naver.com
24	김민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6개 대학 (서울대, 대진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TUFTS, 인천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명 참석

○ 프로그램 장소

- 인천, 강화도, 교동 일대. (숙소: 하버 파크 호텔)

○ 일시

- 2018년 11월 16(금)~ 18일(일), 2박 3일

○ 프로그램 개발 배경

- 제 5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2018.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경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서해 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 (2조 2항)

- 이는 2007년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제 5조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의 연장.

-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정전협정에서 정확한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던 것에 기원.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는 유엔군사령관 관할에 둔다.”고 규정.

-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의 해공군 초계활동 범위를 규정한 NLL(Northern Limit Line)을 설정.
-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데탕트 이후 남북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냉전 경쟁이 강화되던 1973년 11월. 1977년에는 경계수역 발표.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협의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으며 심각한 교전이 발생. 1999년, 2002년.
- 남·북·중 해군의 성장과 바다와 해양이 점차 중요해진 상황을 반영. 어업과 해상 경계의 문제. 일반적인 두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남북관계의 특수성의 산물, 군사긴장과 경제성장을 결합하는 문제.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제거하고, 남북 경계의 확정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변화를 이뤄가고, 해상 경계의 변화에 대한 국제적 사례와 해법에서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로서 다양한 질문이 제기됨. 군사적 대결은 경제적 협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 다른 해상 경계는 어떻게 설정되며,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중재되는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가? 통일과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서해 일대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인식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③ 추진 내용

- 목적: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시대를 대비하는 공간적 상상력 개발. 학부생, 외국인 학생 등 다양한 참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2박 3일 간 세미나와 답사가 결합 된 프로그램 구성.
- 기간: 2018년 11월 16(금)~ 18일(일), 2박 3일

○ 세부 프로그램

일자	내용
Day1(11/16)	
09:00	서울대학교 73동 문화관 집결, 출발(경유: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10:30	숙소 도착(인천 허버파크 호텔)
11:00	세미나실(2층 스퀘어 ①) 집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12:30	점심식사, 조 구성(5개 조)
14:00-18:00	세미나 1: 한강하구 접경의 통일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라운드 테이블(5개 조별) 세미나 2: 황해 도시연합과 동아시아 도시 협력의 현황과 전망 (권기영, 인천대 중국학과 교수): 라운드 테이블(5개 조별)
18:30	저녁식사
20:00	다큐/영상 감상 "강화 돈대"
Day2(11/17)	
9:00	식사(호텔조식) 후 집결(호텔 로비)
10:30	교통 역사문화 프레젠테이션, 교통 대릉시장 견학 (강화군 교통면 대릉리 582-③)
12:00	점심
13:00	망향대 견학(강화군 교통면 지석리 산 129) 평화나들길 걷기(강화군 교통면 지석리 산 129)
14:00	평화물들이기 체험(강화군 교통면 교동북로467번길 1③) 남북공동수로조사 지역현장 관망(2-3분 거리 도보 이동)
14:50	숙소로 출발(인천 허버파크 호텔)
16:00	숙소 도착(인천 허버파크 호텔)
16:30	오후 공부 세미나 3: 동북아의 해양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문제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라운드 테이블(5개 조별)
18:30	저녁식사
Day3(11/18)	
09:00	식사(호텔조식) 후 집결(호텔 로비)
10:00	초지대교로 강화도 진입 덕진진(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46), 광성보(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3-①) 견학
12:00	점심식사(외부식)
13:00	평화전망대 견학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14:00	조별 주제 발표, 토론 (강화미술관)
16:00	마무리, 서울로 출발

- 각 주제 별 전문가 섭외를 통한 강연과 토론
 - 한강하구 접경의 통일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인천연구원, 김수한 박사)
 - 황해 도시 연합과 동아시아 도시 협력의 현황과 전망 (인천대, 권기영 교수)
 - 동북아의 해양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문제 (서울시립대, 이창위 교수)

o 교육 주제와 조별 토론의 구성

- 위의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아래의 주제로 다섯 그룹을 만들어 2박 3일 간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한 뒤 마지막 날 최종 조별 발표를 수행.

번호	주제	토론 내용
1	정전협정과 NLL, 서해평화지대의 설정	정전협정, NLL의 역사와 서해 평화지대 구상의 변화와 현재.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의 쟁점들을 도출. 향후 국제기구 자문을 얻어서 협약 체결 필요. 개성연락사무소는 단지 연락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소할 절차와 단계를 만들어 가야함.
2	동아시아의 국제 해양분쟁과 해법들	해양 분쟁은 서해만의 문제가 아님.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양한 해상 분쟁과 경계선 갈등이 발생함. 최근 호주-동티모르 해상 국경선 분쟁 해결후 조약 체결. 배경에는 국제수로기구(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ffices: IHO), UNGEGN, 유엔 해양법 위원회,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Exclusive Economic Zone, EEZ (200해리) 문제 등이 있음. 이에 대해 일반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
3	황해 도시 연합과 황해 프로젝트	남북간의 화해와 서해평화특별경제지대의 전망은 해주-개성-인천 삼각 경제지구. 지역의 발전을 지향하는 다양한 구상이 존재하고, 나아가 다렌, 칭다오, 인천, 상하이, (남포)를 포함한 다양한 동아시아 국제 항구 도시들의 관계와 미래의 교류와 연합 가능성을 전망하게 함. 이에 관한 구상들을 듣고, Pan Yellow Sea Forum 등 도시간 교류 협력 현황을 점검. 다렌, 칭다오, 인천, 상하이 전문가, 주민들과 교류 전망.
4	교동의 역사와 중립해역의 전망	교동은 이 일대에서 북한과 가장 근접한 접경지대. NLL과 중립지대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경험 가능, 지역성과 집단 트라우마, 생태 문제등을 고민. 교동 민민회관(교동의 역사 및 현황), 평화나들길, 망향대와 철책, 포구, 대룡시장 등 견학.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중립해역에 대해 공부하고 전망에 대해 성찰.
5	강화의 역사와 통일후 전망	강화는 섬으로서 다양한 역사적 유적들이 존재. 최근 '미스터션샤인' 등 드라마 유형으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관련 유적지 역사 여행. 고 인물, 전등사, 평화전망대, 남단 갯벌 체험, 평화의 섬 물들이기 - 천연 염색, 등의 체험도 가능. 김영애 우리누리 대표.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통일후 강화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어떤 가능성과 전망이 있을지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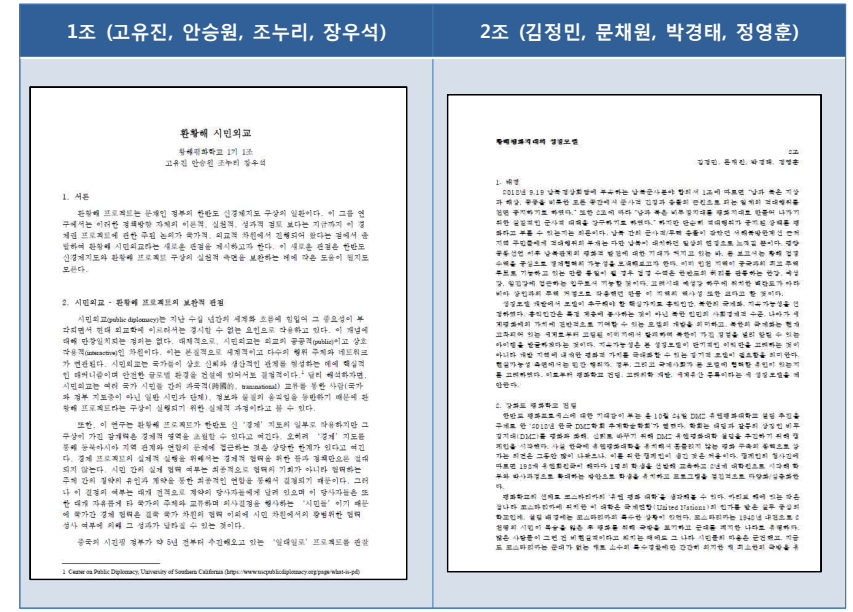
※ 기타 프로그램: 각 세미나에는 예술인과 관련 영상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술, 영상, 사진 등을 통한 강연과 감상도 포함.

o 답사와 체험 활동

- 교동: 북한과의 접경지대인 교동을 답사하며 역사 및 현황 파악
- 강화: 병인양요, 신미양요 유적지 견학, 남단 갯벌 체험 등 역사+체험 답사

o 세미나 후 학생들의 조별 과제물 제출

<조별 과제물 제출본 예시>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o 인천, 교동, 강화 지역 역사 지식과 경험 제고
 - 지역의 구체적 현안과 접목된 답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했던 황해평화학회의 취지에 맞게 인천, 교동, 강화 지역의 구체적인 역사 지식과 경험을 축적.
 - 향후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답사 지역, 답사 코스 등, 주제별 강의진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습득함.
- o 통일평화연구원 교육 모델의 성공적 확산
 - 학생 모집 기간이 짧았던 것에 비해 다양한 학교의 학부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해당 학생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남김.

o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 사전 평가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귀하는 황해평화학교와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27.8%) 2. 아니오(72.2%)
2.	귀하는 평소 북한, 통일, 평화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매우 관심(22.2%) 2. 조금 관심(61.1%) 3. 조금 관심이 없었음(11.1%) 4. 매우 관심이 없었음(5.6%)
3.	귀하는 황해평화학교를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1. 포스터(실외) (5.6%) 2. 포스터(실내) (0) 3. 인터넷 게시물 (27.8%) 4. 지인의 추천(38.9%) 5. 기타(27.8%)
4.	귀하는 황해평화학교의 제1강(한강하구 접경의 통일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강연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모른다(34.7%) 2. 잘 모른다(29.2%) 3. 보통이다(27.8%) 4. 조금 안다(8.3%) 5. 매우 잘안다(0)
5.	귀하는 황해평화학교의 제2강(황해 도시연합과 동아시아 도시협력의 현황과 전망) 강연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모른다(8.3%) 2. 잘 모른다(40.3%) 3. 보통이다(31.9%) 4. 조금 안다(19.4%) 5. 매우 잘안다(0)
6.	귀하는 황해평화학교의 제3강(동북아의 해양 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문제) 강연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모른다(23.6%) 2. 잘 모른다(25%) 3. 보통이다(33.3%) 4. 조금 안다(15.3%) 5. 매우 잘안다(2.8%)
7.	귀하는 교동, 강화 현장을 답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22.2%) 2. 아니오(77.8%)
8.	귀하는 평소 교동, 강화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매우 관심(11.1%) 2. 조금 관심(38.9%) 3. 조금 관심이 없었음(27.8%) 4. 매우 관심이 없었음(22.2%)

- 사후 평가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황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이 귀하의 통일·평화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87.5%) 2. 다소 도움(12.5%) 3. 다소 도움 안됨(0) 4. 매우 도움 안됨(0)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황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의 강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1. 너무 쉬움(0) 2. 다소 쉬움(18.8%) 3. 적당함(43.8%) 4. 다소 어려움(31.3%) 5. 너무 어려움(0)
3.	귀하는 황해평화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87.5%) 2. 다소 필요(12.5%) 3. 다소 불필요(0) 4. 매우 불필요(0)
4.	귀하는 황해평화학교 수강을 주변 분들께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50%) 2. 권유할 의향(50%) 3. 별로 추천 안함(0) 4. 잘 모르겠음(0)
5.	귀하는 황해평화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68.8%) 2. 다소 만족(31.3%) 3. 다소 불만족(0) 4. 매우 불만족(0)
6.	귀하는 황해평화학교 1강(한강하구 접경의 통일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강연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하십니까?	1. 전혀 모름(0) 2. 잘 모름(0) 3. 보통이다(5.7%) 4. 조금 안다(48.3%) 5. 매우 잘안다(45%)
7.	귀하는 황해평화학교 2강(황해 도시연합과 동아시아 도시협력의 현황과 전망) 강연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하십니까?	1. 전혀 모름(0) 2. 잘 모름(5%) 3. 보통이다(10%) 4. 조금 안다(48.3%) 5. 매우 잘안다(36.7%)
8.	귀하는 황해평화학교 3강(동북아의 해양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문제) 강연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하십니까?	1. 전혀 모름(0) 2. 잘 모름(0) 3. 보통이다(13.3%) 4. 조금 안다(46.7%) 5. 매우 잘안다(36.7%)
9.	귀하는 황해평화학교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만족(56.3%) 2. 만족(31.3%) 3. 보통(6.3%) 4. 불만(6.3%) 5. 매우 불만(0)

10.	귀하는 현장학습 내용이 흥미롭고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53.3%) 2. 그렇다(33.3%) 3. 보통이다(13.3%) 4. 그렇지 않다(0) 5. 매우 그렇지 않다(0)
11.	귀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적절한 인원수로 편성되어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68.8%) 2. 그렇다(31.3%) 3. 보통이다(0) 4. 그렇지 않다(0) 5. 매우 그렇지 않다(0)
12.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인솔자, 지도강사는 친절하게 지도하였습니까?	1. 매우 그렇다(93.8%) 2. 그렇다(6.3%) 3. 보통이다(0) 4. 그렇지 않다(0) 5. 매우 그렇지 않다(0)

- 총 응답자의 95.3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함

- 정성평가

-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갈 수 있었음
- 조원이 너무 좋았음, **조별로 그룹핑을 한 것이 신의 한 수였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어서 유익했음.** 북한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고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꿈도 생기는 것 같았음
- **해양분야의 실무자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정보를 이론과 연계하여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
- **음식, 숙박, 알찬 프로그램, 친절함, 강연자분의 전문성이 해박함**
- 현장 답사시, 교수님과 지도해주는 가이드 선생님이 매우 친절, 지역특색이 있는 음식을 경험해본 것이 좋았음
- **이론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세미나, 팀들의 아카데미한 분위기를 보완하는 성격의 현장학습을 삽입하여 프로그램 전반의 즐거움이 향상되었음.**
- **망향대, 개인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을 망원경으로 본 경험이 인상 깊었음. 평화전망대를 다녀온 뒤 통일에 대한 시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뀜**

- 프로그램 운영 기간 학생들이 실제 황해 지역을 답사하고 세미나를 통해 접경 지역에 대한 인식을 넓히면서, 서해 5도, 파주 DMZ, 백령도, 연평도 등 답사 추가 지역이 적극적으로 제안됨.
- 프로그램 시작과 중간, 끝에서 통일평화연구원 운영진이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과 연구원의 교육 사업을 홍보하여 연구원 활동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임.

황해평화학교 사진



제1강 (2018. 11. 15.)
김수한 '한강하구 접경의 통일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제2강 (2018. 11. 15.)
권기영 '황해 도시 연합과 동아시아 도시 협력의 현황과 전망'



제3강 (2018. 11. 16.)



조별 세미나·토론

이창위 '동북아의 해양 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문제'



조별 발표·토론(1조)



조별 발표·토론(2조)



조별 발표·토론(5조)



교동 지역 답사



강화 지역 답사



강화 지역 답사

3) IPUS·KPPC 공동기획 사업

세부 사업명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정책형 통일교육모델 보급

① 사업 목적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확대 및 공론의 장 마련
 -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의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관심을 확장하고자 오로지 남북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토론위원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고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되므로 이 회의 모델은 정치나 외교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임. 토론위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기자단 및 옹저버 제도를 두어 선택의 폭을 확장함.
- 상향식 회의 구조를 통한 합의 도출 모델 마련
 - ‘소위원회 - 분과위원회 - 전체회의’로 이어지는 3단계 상향식 회의 구조에서 토론위원은 남북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자신의 문제의식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함.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합의안을 2-3개의 소위원회가 합쳐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며 합의안을 수정 보완하고, 마지막 날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하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consensus)를 도출하는 상향식 구조 모델 마련.
- 청년층의 목소리 반영
 - 연구소와의 협조를 통해 회의의 질 및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언론을 통해 청년층의 목소리가 사회와 정치에 보다 파급력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추구하고자 함.

② 운영 개요 및 운영 계획

- 사업 주제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정책형 통일교육모델 보급
- 운영 주체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참여 대상
 -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19-39세 청년

- 프로그램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일시
 - 2018년 8월 20(월) ~ 22일(수), 2박 3일
- 운영 내용
 - 평화에 관심을 가진 청년 신청자들은 본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학습함.
 - '소위원회 - 분과위원회 - 전체회의'로 이어지는 3단계 상향식 회의 구조를 통해 쟁점들을 구체화하여 정책 결정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사무국은 이를 공동 주최 기관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더불어 행사의 진행에 도움을 준 협력 기관에 전달, 청년의 문제의식을 공유.

③ 추진 내용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오리엔테이션

- 목적: 본회의 이전 각 분과별 현안에 대한 이해도 함양 (총 4회)
- 기간: 2018. 8. 12.(일) ~ 8. 13.(월) / 11:00 ~ 16:30
- 장소: 서소문 WCO 2층 W-stage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주차	일자	주제	강사
1회	8. 12.(일)	정치분과 전문가 특강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2회	8. 12.(일)	경제분과 전문가 특강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3회	8. 13.(월)	사회분과 전문가 특강	김영수 서강대 정치학 교수
4회	8. 13.(월)	안보분과 전문가 특강	김동업 북한대학원대 교수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오리엔테이션 내용
 - 오리엔테이션은 참가자들에게 회의의 목적, 진행방식을 설명한 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강연을 포함함.
 - 제3회 본회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통일교육모델의 일환으로써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참가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교류협력이라는 대주제 아래 특정 분과에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추구함.

<오리엔테이션 포스터>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모집 포스터>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본회의

- 목적: 각 분과별 상향식 토론 체계를 통해 정책제안 모델 형성
- 기간: 2018. 8. 20.(월) ~ 8. 22.(수) / 09:00 ~ 21:0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시간	8/20(월)	8/21(화)	8/22(수)
09:00~09:30	개회식	출석	출석
09:30~12:00	소위원회 1차	분과위원회 1차	본회의 1차
12:00~13:00	중식	중식	중식

13:00~15:00	소위원회 2차	분과위원회 2차	본회의 2차
15:00~15:20	휴식	휴식	휴식
15:20~18:00	소위원회 3차	분과위원회 3차	본회의 3차
18:00~19:00	석식	석식	석식
19:00~21:00	소위원회 4차	분과위원회 4차	독트린 발표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본회의 내용



토론회원

대표위원 이수연

강지운 곽철민 김성우 김지원
 김효린 나하늘 문지영 박강현
 박세진 박재우 변경미 심성아
 손주원 안준현 양재석 이재준
 이정환 이지연 이호순 임하영
 정가현 조성은 조용근 조윤진
 차현경 채홍윤 한민수 한예슬

**제3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본회의 합의문 (독트린)**

2018년 8월 22일
이수연 외 28인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사무국

요약

전체회의에 상정된 13개의 안건 중

의결 11안

“중진선언의 전개 조건으로서 비핵화에 관한 논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동맹”
 “비핵화 및 남북 정치 관계와 남북 경협 연계성”
 “남북한 철차 관과 관행의 지속적인 개발”
 “유소년 교류의 제도화 및 지속화”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과 방식에 대한 논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
 “DMZ 지역의 상호 위협 및 긴장감 완화를 위한 논의”
 “대북 보건 의료 지원 범위와 방법”
 “관문점 선전 중 남북교류협력 이행에 관한 협상”
 “다국적정찰정찰과정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방안”

부결 2안

“장기적 문화교류 실현 가능성 및 제도, 상설기구 추진”
 찬성 14 반대 14 기권 0
 “미중 리걸구도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
 찬성 2 반대 22 기권 3

“중진선언의 전개 조건으로서 비핵화에 관한 논의”

1. 실질적 비핵화와 같은 북한 핵 시설, 핵탄두, SLBM을 포함한 핵무기 무탈수단 제거 및 핵 인력 무력화를 포괄하며 남북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 무기와 핵무기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반 시설이 제거된 상태라고 정의한다.
2. 중진선언을 전지구적 논의하기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검증 가능한 도출해야 함에 합의하는 바이다. 북한이 합의된 비핵화 과정을 이행할 시 중진선언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한다.
3. 이에 본 위원회는 곧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협력 등 수시로 일어날 일련의 남북대화 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우선으로 촉구하고 비핵화의 진전 상황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국민 보고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4. 북한의 비핵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확인권’ 행사하기, 불확실 다국적 핵 전문기구 구성한 조산의 사전 및 사후적 ‘사찰’ 또한 추진한다. 사전적 사찰은 핵 보유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사후적 사찰은 비핵화 이행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5. 비핵화 과정은 1) IAEA 등 다국적 조사단의 사전 사찰 > 2) 북한의 핵시설 파괴, 핵 무탈수단과 핵탄두 제거 > 3) 핵물질 제거 > 4) 핵 인력 무력화 > 5) 다국적 조사단의 사후 사찰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북한이 비핵화 협력을 위한 진전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실질하게 이행할 시 중진선언에 관한 논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6. 북한이 합의된 비핵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다시금 안보적 위협을 가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유연한 전략을 외교적 카드로서의 활용을 검토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 전체 수반권은 아니며, 다자안보 체계가 부재한 동북아 안보 구조에서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항은 협상 수단으로 삼을 것을 지양한다.
2.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대한 현안 사항이며, 그것이 상용화될 경우 북한이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규모 육해공 합동 훈련 등 극단 단계 훈련을 정례화·강화할 것을 계산한다.
3. 이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 현 상황에서, 그것이 상용화될 경우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성의 있는 조치는 단계별 비핵화의 확실한 이행을 골자로 한다.
4. 북한의 성의 있고 유리미한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대북 전략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비핵화 및 남북 정치 관계와 남북 경협 연계성”

1.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제시된 비핵화 과정을 이행하고 군사무기를 지체할 시, 남북 경제협력을 심화하여 남북의 동진한 경제 상호 의존성을 촉진하여 합의한다.
 - ①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는 양국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13조(남북한 거래의 용이), 국가 간의 거래가 여건 일족 남북의 거래를 조장하는 조항에 관한다.
 - ② 경제적 상호 의존성 촉진 남북의 경제 공동체 형성 또는 북한 경제체제의 이행이 아니며, 물론 안전 차원의 교류추진은 합의한다.
 - ③ 경제적 의존성인 북한이 국제 정치관계 질서로 발달하여 국제사회의 핵심 있는 일원으로 본시 행동할 것을 유도함과 동시에 남북과 북한이 서로의 경제에 대한 이익을 넘어 한반도 지역 통합과 평화체제를 구축 및 상호 협력 이익을 추구하는 의의를 지닌다.
2. 북한의 비핵화 결과 불이행 혹은 군사적 도발 시 격변한 국제 상황에 남북관계발전법(2조 5) 따라 남북경협을 중단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를 이행한다. 단,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조사는 지속한다. 경제 공동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으로써 규정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 보장하기 위해 인조적 지원은 지속한다(인도적 지원의 내용) 북한 당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보다는 북한 주민에 대한 물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맞선 남한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일부 보상을 통해 진행한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대북제재 관련에 자질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 351 -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한 합작 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p> <p>1. 남북 합작 콘텐츠 초기작으로서 이념적 색채가 적은 소재를 장르로 뮤지컬, 제작 과정 촬영 실황,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한다.</p> <p>수익은 남북합작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남북한에는 민간자원에서 절인 투자기술을 지원하며, 북한에서는 기예와 요크스트라 악단의 구성을 비롯한 관련 악단이 맡는 것 등으로 수익과 인적 자원에 대해서 협의한다. 남북 통일에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는 소재를 연구한다. 남북과 북한의 각각의 우수한 기술력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p> <p>2. 이에 본 위원회는 남북 대중예술 전문가들이 (문예부와 통일부 관할/상설기구에서 만든 대중예술부서에서 남북대중예술인가들이) 정기적으로 민간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초기에는 사극에서부터 현대를 장르까지 주제로 한 합작 드라마를 제작한다. 남북의 합의로 각본을 쓰고 배우들을 구성한다. 공감대가 높은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다.</p> <p>3. 4 차 산업 시대와 어울리는 콘텐츠 개발로서, 남북 관광 지역에 대한 VR 합작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지 남북한 역사학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 감수를 받는다. VR 가상 체험으로 경제력 및 남과 북 지역들을 설명하는 가이드의 목소리는 각각의 실제 남북 관광 북한 사람의 음성으로 녹음하고, 파손되어 현존하지 않거나 일부분만이 손실된 문화재들은 CG로 가상복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7</p>
--

<p style="text-align: center;">“유소년 교류의 제도화 및 지속화”</p> <p>1. 유소년스포츠 특화 교류를 실행해 종목별 유소년 리그로 통합한다. 먼저 남북에서 대중적이며 북한에서도 무척을 드러내고 있는 “축구”와 “농구”부터 실행한다. 성공적인 교류 이후에는 남북 모두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사격”과 “역도” 종목도 확대한다. 축구와 농구는 리그의 방식으로, ‘사격’과 ‘역도’ 역도는 훈련시설 인력 정합 후, 이 모든 것을 남북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작한다. 국제 수준의 스포츠 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운영한다.</p> <p>2. 민간 중소기업 업계에서 유소년 스포츠 지원 용품 브랜드를 자체 제작하여 남북 유소년 스포츠를 지원한다. 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으로 활용한다. 남북의 경제적 협력 사업을 통해 적절한 협력 생산 방안을 협의한다. 한 팀을 지원 가능한 기업 지원의 국내 스폰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수용하고, 이 외에는 수용하지 않는다.</p> <p>3. 유소년 리그 방식은 기존의 남북체육 교류와 달리 장기적 교류를 특징으로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탐광과 북한은 상호 배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8</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비핵화의 당위성과 방식에 대한 논의”</p> <p>1. 비핵화 기본 초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강요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에 영향을 남한과 미국의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p> <p>2. 이후 북한은 선 공개 개선 및 보상 후 비핵화는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선 공개 후 보상하는 일괄 타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단계로 온 계급과 있다.</p> <p>3. 단계적 비핵화의 구체적인 타일과일과 절차는 남, 북, 미 또는 남, 북, 미, 중이 협상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설정한다.</p> <p>4. 단계적 비핵화의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p> <p>1단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식량, 생필품, 의학품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의 지원 남북 공동 비핵화 이행 공동 사무소(가칭)를 설립하고, 북한은 개별적인 비핵화 단계 협의에 동의하며, 국제적으로 북한에서 일괄타결을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p> <p>2단계에서는 남한은 수년 인분보상 이시점의 단계적 비핵화정책에 따라 남북이 실행정책의 기본 경제 체구 산업을 재가하며, 북한은 원자로 폐쇄를 전제로 IAEA 국제 원격 감시 기구 사찰에 동의하며, 남, 북, 미, 중 4차 정상회담의 개최를 호명하며, 관련국별로 하여금 비핵화 단계 이행을 촉진하게 하고,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한다.</p> <p>3단계에서는 남한은 경제특구산업 확대 및 인민의 건설을 통한 전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세부적인 외교조약추진미군 주둔 유지, 한미동맹 유지에 포함한 중립선언과 평화협상을 진행하며, 북한은 NPT에 복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더불어 평화협상을 공조여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유조한다.</p> <p>상기의 모든 과정은 단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9</p>
--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p> <p>1.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개선에 책임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주민을 고립화하는 정책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여 반발하고 있다.</p> <p>2.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개별적인 권리 존중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특히 여성,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p> <p>3.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p> <p>1) 북한인권재단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활성화, 확대 2) 북한 인권 실태 교육 활성화, 민간단체와 시민단체 노력 촉구 3)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 지원 4) 국제사회의 지원 유조를 위해, 북한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인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 마련 5) 보건의료, 생활용 품목에 맞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지원 6) 북한 이탈 주민 복송 및 신분 보호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관여</p> <p style="text-align: center;">10</p>
--

<p style="text-align: center;">“DMZ 지역의 상호 위험 및 긴장감 완화를 위한 논의”</p> <p>1. DMZ 지역의 GP 철수는 안보 위협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은 상호 신뢰를 위해 GP 시범 철수를 이행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논의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일정 수준 진행된 이후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2. 이라한 인역에 따라 DMZ 일대에서의 GP 시범 철수와 같은 긴장감 완화를 위한 물리적 차원의 조치들에 대한 논의는 시시상조라 선언한다.</p> <p>3. 한반도에서 육군에서 인장이 반발할 시 DMZ 제1 방어선 수호를 담당하게 되는 데, GP 철수를 시발점으로 하여 방어선이 후퇴할 경우 수도인 서울이 지나치게 위험해질 수 있음으로 고려한다.</p> <p>4. 일시적일 수 있는 변화 무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는 협력 구축 조치는 지양한다.</p> <p>5. 대한민국과 북한의 실제 전력 수준 차이 및 전선으로부터 수도까지의 거리 차이로 인해 통일이 보일 수 있는 조치가 불명확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으로 상기한다.</p> <p>6. DMZ 지역의 상호 위험 및 긴장감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JSA 비무장화를 제안한다. 또한 DMZ 내 공동유해발굴 활동이나 지뢰 제거와 같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1</p>
--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 보건의료 지원 범위와 방법”</p> <p>1. 남북교류협력의 차원에서도 정상회담이 시행될 때마다 언급되었던 보건의료지원의 합의는 접근 가능성이 가장 쉬운 분야일과 동시에 그 논의 가치가 충분하다.</p> <p>2.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더불어 먼저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성과 파주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최소화, 민간자원 지원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대남 인식 강화를 위함이고, 이에 지속적인 대북 보건의료 지원이 요구된다.</p> <p>3. 남북의 협의를 주제로 결정하도록 한다. 이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지원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는 남북의 독자적인 공동의체로 보건의료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p> <p>4. 지원범위에 한정해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지원 사업 주체가 되는 북한의 천 보산상에 대한 대타와 통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p> <p>5. 본격적으로 지원 범위에 대해 논의는 크게 3단계로 나눠서 합의하였다. 1단계는 ‘육군지원단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 상용과 직결되는 대상으로 결정한다. 김정은 관리 대상과 요조반대사업이 이에 해당한다.</p> <p>6. 2단계는 지속 가능 단계로, 1단계의 지원들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생산 설비, 인력 지원, 1차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의 의료 인력 개발 및 교육, 각 부문 진료소 개원을 목표로 한다.</p> <p>7. 3단계는 지원단계로, 남한과의 지속 교류 협력을 시도한다. 남북 공동의뢰과학자 교류, 예술 분야, 중앙의과대학,서울대 의과대학 간 학술교류 등의 의료교육 교류 추진, 북한 보건의료-남한 보건의료부 등의 교류를 요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2</p>
--

<p style="text-align: center;">“관문점 선언 중 남북교류협력역량 이행에 관한 법률”</p> <p>1. 최근 발표된 관문점 선언의 사후적 방지와 규범적 확보를 위한 이행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조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두 지역에서의 긴장감 완화 및 상호 협력 증진,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해일 과제이다.</p> <p>2. 관문점 선언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p> <p>1) 오후 방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원활한 행정 교차로 위하여 남북의 언어적 장벽 및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데 앞선다. - 남북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양국 또는 법인, 단체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서 및 문서상의 용어 사용 충돌을 검토한다. - 해당 업무는 기존의 ‘역차별비선남북공동통관사업회법’을 개정하여 그 기능을 확대한다.</p> <p>2)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두산 및 금강산 관광 자유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광 자유 정책을 수립한다. 단, 유엔안보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육안, 금강산, 평안, 백두산에 있는 관광 자유(법률)를 조성한다. - 자국민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남북 공동 관광 사무소에 긴급 대응 기구를 구성하며, 유 구성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에 의해 파견한다. - 북한과의 협력 하여 한반도 관광 지도를 제작한다. - 남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은 육로를 통해 진행하며 지역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p> <p>3)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를 통하여 남북한의 철길 관리 기준 통일 및 지속적 협력을 통하여 철도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한다. 단, 유엔안보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철도의 현대화는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며, 부분적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3</p>
--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방안”</p> <p>1. 본위원회는 중앙정부 위주 대북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해당 사안에 대한 불연속성,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 사회갈등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합의하였다. 또한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따라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p> <p>2. 이에 본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등의 사안에서 시민 참여가 보장된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위하여 행정과 투명하며 법률적 절차가 기반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p> <p>· 여기서 거버넌스란 공공, 민간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p> <p>3. 이를 위해 법적으로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정책 수립과 시행 및 감시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북 교류협력추진회의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법의 개정, 운영, 북한과의 의견 수렴 및 참여의 보장을 요구한다.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교류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한다.</p> <p>4. 국회는 민간과의 정책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민간의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들을 실제 법률 정책으로 전환하는 의견수렴 장구 역할을 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4</p>
--

○ 참여자 명단 (총 58명)

번호	성명	소속	학과
01	강지운	숙명여자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02	곽철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03	김성우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04	김지영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05	김효린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학과
06	나하늘	연세대학교	사학과
07	문지영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08	박강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09	박세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0	박재우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1	변경미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2	손주원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3	심성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14	안준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5	양재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과
16	이수연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7	이정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8	이재연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19	이지연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	이호순	-	(일반인)
21	임하영	-	(일반인)
22	장익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3	정가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4	조성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25	조윤진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학과
26	조윤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7	차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28	채홍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대학원생)
29	한민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역사관광학과
30	한예슬	Ecole Nationale Supérieure	Art
31	김민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
32	김민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3	허강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34	박성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대학원생)
35	박재연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36	백승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대학원생)
37	안호성	서울대학교	법학과(대학원생)
38	강민석	상명대학교	사진영상학부
39	김소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40	김혜웅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1	신민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2	염세영	서울대학교	독어독문과
43	유남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4	이동훈	-	(일반인)
45	이진희	-	(일반인)

46	차승주	통일부	(일반인)
47	최유미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48	최예일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9	하정민	런던대학교	디자인학과(대학원생)
50	정우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대학원생)
51	이영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52	김의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53	김희령	숙명여자대학교	외식경영학과
54	김민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생)
55	이유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56	김홍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57	이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
58	도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총 58명 중 서울대학교 구성원 17명(29%), 타교생 36명(62%), 기타 5명(9%)
 ○ 학부과정 46명(79%), 석사 및 박사과정 7명(12%), 기타 5명(9%)
 * 기타 분류: 일반인

○ 강의현장 사진 및 시각자료

한반도정책컨센서스 회의 사진



소위원회 (2018. 8. 20.)



소위원회 (2018. 8. 20.)



분과위원회 (2018. 8. 21.)



본회의 (2018. 8. 22.)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의식 공유의 장 마련
 - 총 3일간의 행사에 52명(사무국원 제외)이 등록하였으며, 심화 토론 과정인 본회의 시간에는 30명의 청년 대학생이 참가하여 대주제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임.
 - 본회의에서 30명의 참가자들은 본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정책 결정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모델의 대중적 보급 및 확산
 -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 소속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함.
 - 연세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동대학교, 상명대학교,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Bourges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와 직장에 종사하는 청년들 역시 참여함으로써 참가자의 다양성 확보에 성공함.
 -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사무국은 이를 공동 주최 기관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더불어 행사의 진행에 도움을 준 협력 기관에 전달하여 합의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함.
 - 이를 통해 합의문의 내용이 단지 프로그램 내부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합의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4) 제18기 통일아카데미

①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통일의식 향상 및 지식 함양
-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
- 다양한 연사들의 강연과 실제 체험 청취를 통해 국내외의 분단국 경험을 이해하고, 한반도의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사업 개요 및 운영 계획

- 사업 주제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통일의식 향상 및 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해온 통일아카데미의 제18기 프로그램.
- 운영 주체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운영 계획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학문적 지식 향상을 위한 통일아카데미 강의 실시.
 - 통일평화연구원 내부 교수진 및 외부 강사진 활용. 총 8회 실시.
 -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통일의식 향상을 위한 중·서부 DMZ 일대 답사.



제 18기 통일아카데미 모집 포스터

③ 추진 내용

□ 통일아카데미 강의

- 목적: 대학(원)생 대상 통일에 관한 학문적 지식 향상을 위한 강의
- 기간: 2018. 4. 3.(화) ~ 5. 29.(화) / 매주 화요일 19:00 ~ 21:0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101동) 영원홀

아카데미 프로그램				
주차	일자	주제	강사명	강사 소속
1회	4. 3.	(개강) 통일한국 브랜딩	전병길	제) 통일과나눔 사무국장
2회	4. 10.	해외분단국 경험: 독일,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3회	4. 17.	SDG와 대북개발협력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4회	4. 24.	북한출신청년과의 대화: '남한에서 살아보니'	정서윤	민주평통 주무관
5회	5. 1.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6회	5. 8.	중국이 보는 한반도 통일	박 우	한성대학교 교수
7회	5. 15.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천해성	통일부 차관
8회	5. 29.	수료식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수강생

- 총 72명 수강. 그 중 56명 수료.
- * 수료기준: 강의 8회 중 6회 이상 출석
-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소속	학과
01	황선영	서울대	정치학과
02	김동욱	서울대	정치학과
03	이웅철	시민	
04	최태현	광운대	국제학부
05	정지혜	서울대	국제대학원
06	허강준	서울대	체육교육과
07	최고운정	서울대	환경대학원
08	김유라	경희대	행정학과
09	변은결	홍익대	법학
10	정지안	성균관대	중어중문학/행정학

11	허정민	태국 출라롱콘대	한국학
12	유수영	서울대	간호학
13	이윤규	서울대	의예과
14	유민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15	김희령	숙명여대	외식경영/글로벌협력
16	신윤영	시민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17	이충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18	문영란	서울대	외교학과
19	김현우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20	김엘리나	서울대	국제대학원
21	임재훈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22	차우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23	송수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24	임태훈	북한대학원대학교	군사안보
25	최서현	서울대	교육학과
26	한승원	서울대	윤리교육과
27	이주형	홍익대	법학부
28	송현이	서울대	한국음악학
29	김유정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30	김성중	서울대	생명과학부
31	이소연	서울대	의예과
32	박민지	서울대	원자핵공학
33	박영준	서울대	경영대학
34	윤민경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35	이승지	서울대	국어교육과
36	황윤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동양사학과
37	성경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38	이주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39	이우민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40	왕지쌍	서울대	한국학
41	노현웅	서울대	체육교육과
42	안배현	서울대	체육교육과
43	이영우	서울대	경영학과
44	이강훈	성결대	목회학전공
45	심유영	서울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46	손지현	연세대	경제학과
47	임해린	서울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48	선우성혁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49	손진용	서울대	공공정책학과
50	응오 지엠 홍아	서울대	한국학
51	정세용	서울대	동양사학과
52	양지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53	정유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54	응웬 킴 응안	서울대	한국학
55	부종욱	고려대	사학
56	윌티 타오 쓰영	서울대	한국학
57	장혜신	서울대	독어교육과
58	이현주	시민	학교보건진흥원

59	리우 흥평	서울대	한국학
60	권찬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61	김동주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62	정우진	용인대	경찰행정/군사학과
63	이지호	서울대	정치외교학
64	윤재휘	서울대	정치학과
65	박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66	최자인	서울대	외교학과
67	빈다은	서울대	윤리교육과
68	김지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69	신지훈	서울대	의학과
70	박한솔	서울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71	김동환	서울대	수리과학부
72	이동형	서울대	윤리교육과

○ 총 72명 중 서울대학교 구성원 52명(72%), 타교생 17명(23%), 기타 3명(4%)
○ 학부과정 25명(34%), 석사 및 박사과정 36명(50%), 기타 13명(18%)
* 기타 분류: 일반 시민, 졸업생 등

○ 강의현장 사진 및 시각자료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제18기 통일아카데미 답사

- 목적
 - 통일아카데미 수강생들이 DMZ 일대를 답사하며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답사 프로그램임.
- 기간
 - 2018. 5. 11.(금) ~ 5. 12.(토) / 1박 2일

- 장소
 - 임진각,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평화전망대 등 중서부 DMZ 일대

○ 내용

- A. 중·서부 DMZ를 방문하는 평화·안보 체험
 - 도라전망대 및 평화전망대를 방문하여 개성공단과 DMZ 내부를 조망하며 남·북 군사대치상황 및 안보현실을 이해하게 함.
- B. 남북출입사무소 및 도라산역 방문
 - 북한 및 유라시아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통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
- C. 생명이 싹트는 공간으로서의 DMZ 체험
 - 인간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DMZ에서 다양한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며 생명을 중시하는 통일에 대해 고민하게 함.

- 참여자 명단 (총 31명 중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5명, 통일이카데미 수강생 등 26명)

번호	성명	학과 / 소속	비고
01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02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03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04	안성태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05	김윤애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06	송현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07	허강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08	손지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학부	
09	응오 지엠 홍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0	원티 타오 쓰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1	김성종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2	왕지쌍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3	이지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4	윤재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5	이현주	서울대학교 학교보건진흥원	
16	최태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17	유민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8	황윤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9	부종욱	고려대학교	
20	심유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1	이동형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22	정재중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7기	
23	이예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24	박지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5	이명찬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26	김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7	신준석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28	오세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9	응웬 후잉 니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30	류효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31	풍정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답사 현장 사진



도라전망대 방문

도라산역 방문 ①

도라산역 방문 ②

노동당사 방문

□ 통일 아카데미 수강생 평가

○ 제18기 통일아카데미 수강생 대상 강의평가 실시 결과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필요함(65%) 2. 조금 필요함(31%) 3. 별로 필요하지 않음(4%) 4. 매우 불필요(0%)
2.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귀하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1. 매우 이익(52%) 2. 다소 이익(44%)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음(4%) 4. 매우 이익이 되지 않음(0%)
3.	이 강의를 우리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43%) 2. 조금 도움(57%)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0%) 4.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0%)
4.	이 강의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62%) 2. 조금 도움(38%)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0%) 4.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0%)
5.	이 강의를 통일의 파트너로서 귀하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32%) 2. 조금 그렇다(42%) 3. 별로 그렇지 않다(26%) 4. 전혀 그렇지 않다(0%)
6.	이 강의의 수강이 귀하가 북한 주민 및 탈북민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52%) 2. 조금 그렇다(40%) 3. 별로 그렇지 않다(4%) 4. 전혀 그렇지 않다(3%)
7.	이 강의는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61%) 2. 조금 그렇다(38%) 3. 별로 그렇지 않다(0%) 4. 전혀 그렇지 않다(0%)
8.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1. 매우 추천한다(67%) 2. 조금 추천한다(33%) 3.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0%) 4.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0%)
9.	이 강의의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전개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56%) 2. 조금 그렇다(38%) 3. 별로 그렇지 못했다(6%) 4. 매우 그렇지 못했다(0%)
수강생 기타 의견		

강의자료가 조금 더 미리 공개되면 좋겠다.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경험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 다양한 전공이 모여있기에 다양한 파트의 전문가 분들이 오셔도 좋을 것 같다.
현장학습이 평일이라 참여하지 못했다.
심화 학습이 가능한 세미나, 강연 등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북한 주민 및 탈북민에 대해 더 배우고, 같이 만나고, 대화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점점 민족의식이 얼어지는 세상에서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만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정도로는 안되나요?+ 천해성 차관님의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

- 수강생의 94.5%가 9개의 문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5) 제6기 평화아카데미

①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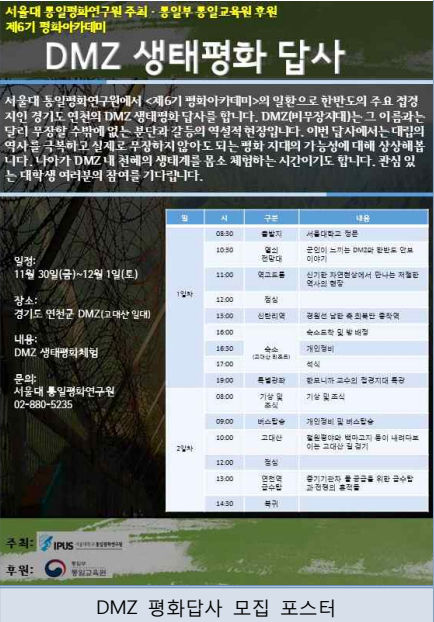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평화의식 향상 및 지식 함양
- 분단과 갈등의 역설적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평화지대의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이번 제6기 평화아카데미에서는 세계 각국의 '분쟁'을 다룸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서울대학교 학생 뿐 아니라 강의 참여를 원하는 외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통일교육 모델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사업 개요 및 운영 계획

- 사업 주제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평화의식 향상 및 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해온 평화아카데미의 제6기 프로그램.
- 운영 주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운영 계획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평화 및 세계 분쟁 사례에 관한 학문적 지식 향상을 위한 평화아카데미 강의 실시.
 - 통일평화연구원 내부 교수진 및 외부 강사진 활용. 총 8회 실시.
 -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료 후 수강생 중 희망 참가자를 대상으로 평화의식 향상을 위한 경기도 연천군 DMZ 생태평화 답사 실시.



제 6기 평화아카데미 모집 포스터



DMZ 평화답사 모집 포스터

③ 추진 내용

□ 평화아카데미 강의

- 목적: 대학(원)생 대상 평화 문제에 관한 학문적 지식 향상을 위한 강의
- 기간: 2018. 10. 2.(화) ~ 11. 27.(화) / 매주 화요일 19:00 ~ 21:00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양관 (16-1동) 407호

아카데미 프로그램				
주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1회	10. 2.	오리엔테이션 & 분쟁에서 평화로	이찬수	IPUS HK연구교수
2회	10. 16.	아프간-이라크의 아픈 역사	김영미	시사IN 분쟁전문 PD
3회	10. 2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끝나지 않는 전쟁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교수
4회	10. 30.	21세기 화약고 시리아 전쟁, 8년 전쟁의 끝은?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가

5회	11. 06.	보스니아 내전: 새로운 전쟁	김철민	한국외대 동유럽학과 교수
6회	11. 13.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20년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7회	11. 20.	65년 간의 전쟁, 73년의 분단	김학재	IPUS HK교수
8회	11. 27.	수료식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수강생

- 총 65명 수강. 그 중 38명 수료.

* 수료기준: 강의 8회 중 6회 이상 출석

- 수강생 명단

번호	성명	소속	학과
01	김진수	독일 본대학교	국제관계학 (대학원생)
02	최태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03	전미영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생)
04	김민혁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05	박범석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생)
06	문영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생)
07	송수일	서울대학교	공기업정책학 (대학원생)
08	강지운	숙명여자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
09	최은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0	김상일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1	김은심	탈북민 대안학교 다음학교	(일반인)
12	김나영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13	조은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14	박새리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5	성경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6	유재연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대학원생)
17	김정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대학원생)
18	전예지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
19	이서영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 (대학원생)
20	이채영	서울여자대학교	심리학
21	장우석	서울대학교	법학 (대학원생)
22	이승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생)
23	이지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4	박경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5	고상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6	성소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27	신경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28	이아영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29	안준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0	허선주	제주대학교	사학과
31	이수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2	김근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33	손수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4	조혜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5	박대환	한양대학교	국제관계학 (대학원생)
36	정란	서울대학교	법학
37	김성중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대학원생)
38	한준엽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39	최의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생)
40	임주희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41	박광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2	심나리	서울대학교	정책학과 (대학원생)
43	강수림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44	유지민	서울대학교	국제지역학과
45	윤송희	경기대학교	호텔경영학과
46	허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47	이예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8	이효재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49	송인영	서울대학교	정책학과
50	유효정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51	이승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52	채푸름	서울대학교	철학과
53	박선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54	박혜안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55	박주영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56	박형준	단국대학교	중동학과
57	이정윤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58	선우성혁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 (대학원생)
59	한수연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60	정성원	육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61	임형신	국군정보사	(일반인)
62	이새롭	사단법인 좋은 벗들	(일반인)
63	이숙레	사단법인 좋은 벗들	(일반인)
64	정영미	사단법인 한국 제이티에스	(일반인)
65	서민정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일반인)

○ 총 65명 중 서울대학교 구성원 40명(61%), 타교생 18명(28%), 기타 7명(11%)
○ 학부과정 42명(64%), 석사 및 박사과정 16명(25%), 기타 7명(11%)
* 기타 분류: 일반인, 북한이탈주민, 사관학교 생도 등

○ 강의현장 사진 및 시각자료

제6기 평화아카데미 강의 사진	
	
제1강 (2018. 10. 2.) 이찬수 '분쟁에서 평화로'	제2강 (2018. 10. 16.) 김영미 '세계는 왜 싸우는가?'
	
제3강 (2018. 10. 23.) 홍미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끝나지 않는 전쟁'	제4강 (2018. 10. 30.) 김재명 '21세기 화약고 시리아 전쟁 8년 전쟁의 끝은?'
	
제5강 (2018. 11. 6.) 김철민 '보스니아 내전: 새로운 전쟁'	제6강 (2018. 11. 13.) 구갑우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20년'

	
제7강 (2018. 11. 20.) 김학재 '65년 간의 전쟁, 73년의 분단'	제8강 (2018. 11. 27.) 수료식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제6기 평화아카데미 답사

- 목적
 - 평화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경기도 연천군 DMZ 일대를 답사하며 분단과 갈등의 역설적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평화지대의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통일아카데미 수강생들이 DMZ 일대를 답사하며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
- 기간
 - 2018. 11. 30.(금) ~ 12. 1.(토) / 1박 2일
- 장소
 - 열쇠전망대, 신탄리역, 고대산길(철원평야, 백마고지), 연천역 급수탑 등 경기도 연천군 DMZ 일대
- 내용
 - A. 경기도 DMZ를 방문하는 평화·안보 체험
열쇠전망대를 방문하여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파악하고 GP 철수 등 현 정세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B. 역고드름 동굴, 신탄리역, 고대산 길, 연천역 급수탑 등 방문

한국전쟁 역사의 처절한 현장으로 역고드름 동굴 및 연천역 급수탑과 경원선 남측 최북단 종착역인 신탄리역을 방문해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을 만들어 낸 역사를 탐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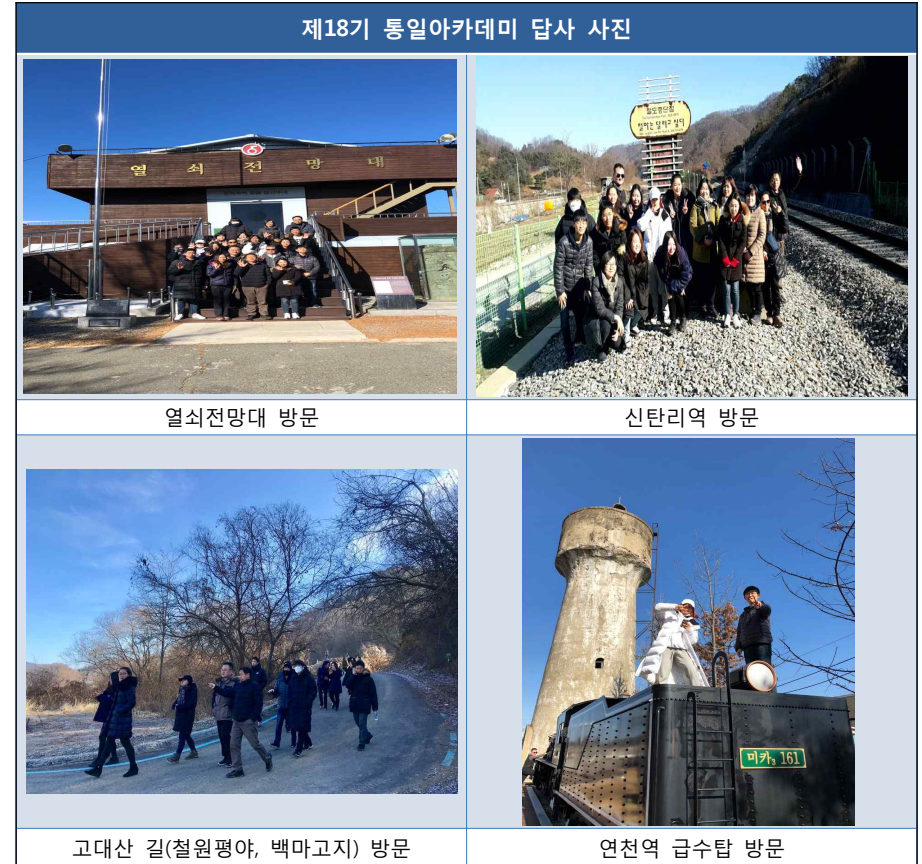
C. 생태평화의 공간으로서 평화지대 조성 (사진전 개최)

DMZ(비무장지대)는 그 이름과는 달리 무장할 수밖에 없는 분단과 갈등의 역설적 현장으로써 생태 현장체험을 통해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실제 무장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지대의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봄. 그 가능성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의 사진전 개최

○ 참여자 명단 (총 23명 중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5명, 통일아카데미 수강생 등 18명)

번호	성명	학과 / 소속	비고
01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사업책임자
02	한모니까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현장강의
03	김지윤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04	황창현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05	신인석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06	박범석	서울대학교/종교학과	
07	손선미	일반인	
08	정윤경	일반인	
09	문영란	서울대학교/외교학과	
10	장우석	서울대학교/법학과	
11	박경태	서울대학교/경영학과	
12	성소진	서울대학교/인류학과	
13	정란	서울대학교/법학과	
14	임주희	서울대학교/서어서문학과	
15	박혜안	서울대학교/서양사학과	
16	박형준	단국대학교/중등학교	
17	임형신	일반인	
18	현영림	일반인	
19	이기은	일반인	
20	정정은	일반인	
21	은정인	일반인	
22	서민정	일반인	
23	박길수	일반인	

○ 답사 현장 사진



□ 평화 아카데미 수강생 평가

○ 제6기 평화아카데미 수강생 대상 사전 설문 실시 결과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귀하는 기존에 통일아카데미 혹은 평화아카데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74.5%)

2.	귀하는 평소 북한, 통일, 평화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매우 관심 2. 조금 관심(55.3%) 3. 조금 관심이 없었음 4. 매우 관심이 없었음
3.	귀하는 평화아카데미를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1. 포스터(실외) 2. 포스터(실내) 3. 서울대학교 공식홈페이지 4. 통일평화연구원 공식홈페이지 5. mySNU 게시글 6. SNU 메일(55.3%) 7. 지인의 추천 8. 기타
4.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강연 중 어떤 강연(2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분쟁에서 평화로 2. 세계는 왜 싸우는가?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22.7%) 4. 시리아 전쟁(19.3%) 5. 보스니아 내전 6.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7. 한국전쟁

5.	평화아카데미 강연 중 가장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던 강연(2개)은 무엇입니까?	1. 분쟁에서 평화로(9.1%) 2. 세계는 왜 싸우는가?(18.2%)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12.1%) 4. 시리아 전쟁(12.1%) 5. 보스니아 내전(21.2%) 6. 북아일랜드 평화협정(12.1%) 7. 한국전쟁(15.2%)
----	---	---

- 응답자의 96.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함.

○ 수강생 대상 평가 설문 실시 결과

번호	문항	답변(비율)
1.	귀하는 평화아카데미가 귀하의 통일·평화 인식 및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71%) 2. 다소 도움(25.8%) 3. 다소 도움 안됨(3.2%) 4. 매우 도움 안됨(0)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평화아카데미 강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1. 너무 쉬움(3.2%) 2. 다소 쉬움(29%) 3. 적당함(48.4%) 4. 다소 어려움(19.4%) 5. 너무 어려움(0)
3.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수업을 주변 분들께 추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 적극 추천 의향(48.4%) 2. 권유할 의향(45.2%) 3. 별로 추천 안함(0) 4. 잘 모르겠음(6.5%)
4.	귀하는 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41.9%) 2. 다소 만족(58.1%) 3. 다소 불만족(0) 4. 매우 불만족(0)

6) 서울대학교 통일교육모델 출판사업 - 정근식·주운정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세부 사업명: 동아시아 평화연구의 새로운 페다고지를 향하여

① 사업 목적

- 평화교육 관련 새로운 교육론 개발 및 교육성과 출간
 - 평화교육 현장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를 출간하여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을 외부 기관으로 확산하고자 함.
 - 평화교육이 이루어진 사례를 충실히 소개하고, 관련한 새로운 페다고지에 대한 소개. 또한 교육성과물을 소개.

② 사업 개요 및 운영 계획

- 사업 주제
 - 동아시아 평화교육 관련 서울대학교 통일교육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출간.
- 운영 주체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운영 계획
 - 동아시아 평화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철학을 의미하는 '페다고지'와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뜻하는 '커리큘럼'을 '구체적 현장 경험'을 통해 매개하며 새로운 교육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현재의 청년들에게 단순히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대신 학생들의 자발적 관심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현장연구'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분단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함.
 - 본 사업에서는 평화교육 현장교육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를 출간하여 외부 기관으로의 확산을 도모함.

번호	과정	내용
1	교과과정 사례	동아시아 현장연구 및 커리큘럼
2	비교과정 사례	동아시아 평화인권캠프 및 커리큘럼
3	예시 커리큘럼	15주 강의교육과정

③ 추진 내용

○ 통일평화교육의 현장연구의 커리큘럼 제시

A. 교과과정 사례: 동아시아 현장연구 및 커리큘럼

- 동아시아 사회변동과 냉전/탈냉전연구를 위한 동아시아 주요 현장들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는 커리큘럼 개발.
-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동아시아의 사회변동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특히,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두 사회의 사회변동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 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전범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장 연구와 교수의 강의 이후에는 개방형 주제선택에 기반한 학생참여 결과물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획됨.

B. 비교과정 사례: 동아시아 평화인권캠프 및 커리큘럼

- 그동안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평화인권캠프'(이하 '동평캠프')의 예들을 소개하고, 그 대표적 사례로서 2017년 8월 제 31회 서울팀 주최 동평캠프의 커리큘럼과 그 함의를 자세히 분석함.

C. 예시 커리큘럼: 15주 강의 교육과정

-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이 조화롭게 합치되어야 함.

원칙	내용
1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개방적 페다고지
2	현장성과 물질성 이 강조되는 커리큘럼
3	동아시아적 시각

- 이를 잘 조화시키는 15주 과정의 강의 교육과정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모델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함.

- 커리큘럼 예시

강의계획			
<p>1. 목적: 동아시아의 변경과 평화와 관련한 핵심 이슈를 이해하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p> <p>2. 특징 및 의의: 특징 및 의의: 동아시아 역사변동에 대한 거시적 이해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변경과 평화에 대한 문화적 표상과 인문학적 성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주도적으로 동아시아의 냉전/탈냉전, 통일과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완성하게 한다.</p> <p>3. 주요 내용: 냉전과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상이한 역사적 경로 속에서 전쟁과 평화를 경험했다. 본과목에서는 변경/국경을 중심으로, 전쟁과 평화가 지속적으로 교차해 온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변경과 평화를 대표하는 남북분단문제, 양안문제, 동아시아의 국경 충돌, 평화에 대한 지향 등을 재구성한다.</p> <p>4. 참고도서:</p> <p>정근식·김민환,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 진인진, 2016. Thomas M. Wilson & Hastings Donnan, <i>A Companion to Border Studies</i>, Wiley-Blackwell, 2012. 김병로 외, 『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 프로젝트』, 진인진, 2015. 강주원, 『압록강의 다르게 흐른다』, 눌민, 2016. 주운정, “신비의 나라-중국인의 북한 관광과 노스텔지어”, 『역사비평』 118, 2017. James Mahoney, <i>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p>			
강의차수 (날짜)	강의주제	강의진행 및 수강자활동	
1주차	동아시아 분단과 통일	강의 소개	
2주차	동아시아 냉전 분단구조	동아시아 냉전 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 멀티스케일 접근	
3주차	동아시아 사회의 이해와 냉전	동아시아 사회의 이해와 냉전구조의 형성	
4주차	동아시아 역사분쟁	동아시아 역사분쟁 관련 논의를 통해 현재 동아시아에서 어떤 갈등적 이슈들이 있는지를 파악, 동아시아는 식민/탈식민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갈등의 조건들이 잠재했기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5주차	국경과 분경연구: 압록강을 따라서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가 국경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탐구. 그 사례 하나로 압록강의 사례를 탐구	
6주차	국경 본격연구: 철원연구	폐허에서 잊혀진 전쟁기억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 철원연구 냉전정권을 평화의 경관으로 어떻게 전환시키는가	
7주차	국경과 분경연구: 금문도의 관광개발 사례	탈냉전의 경관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과 결합시키는가? 금문도의 사례를 통해 탐구	
8주차	현지조사 방법론	현지조사시 필요한 방법론을 강의한다. 민족지적 연구, 현지조사 계획작성 등에 대한 방법론 강의	
9주차	학생 프로젝트 발표	학생들은 학기초 선정한 주제를 심화하여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이후 이런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심화하게 한다.	
10주차	현지조사	현지조사 실시	<p>현지 조사는 필수적으로 맞추어 탐구할 것으로 한다.</p> <p>4박 5일 현지 조사 -> 4회</p> <p>국내/해외 등으로 나누어 조사할 수 있음 조사별로는 학생 중심으로 할 수 있음 학기말정산 시기를 맞추어 최소 2박 3일의 집중 현지조사 실시 이후 학생들이 2회는 자율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유도</p>
11주차	현지조사	현지조사 실시	<p>현지조사 중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피드백을 제공한다.</p>

			학생들 조사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
12주차	현지조사	현지조사 실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유도
13주차	현지조사	현지조사 실시	
14주차	학생발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발표와 피드백	
15주차	학생발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발표와 피드백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평화교육에 대한 현장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소개된 적은 없었음. 수년간의 교육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서 이 교육경험을 체계화하고 확산하고자 함.
- 평화교육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경험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임. 이런 사례의 소개를 통해 다양한 평화교육의 가능성을 개발함.
- 통일·평화교육의 페다고지와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제시함.
 - 그동안 통일교육은 강의실 교육이나 다소 경직된 커리큘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본 교육 페다고지/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
 - 이후 본 보고서의 책으로 출간해 교육 매뉴얼로 확산시키고자 함.

7) 교직원 통일교육

①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현장학습을 통하여, 직원들의 통일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② 사업 개요 및 운영 계획

- 사업 주제
 - 서울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특강 및 현장학습)
- 운영 주체
 - 서울대학교 행정교육원
- 운영 계획
 - 대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 및 통일교육 전문가를 초빙한 강연 진행.
 -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변 정세와 평화 확산에 관한 주제와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통일에 관한 관심과 이해 제고.
 - 강원도 양구 지역을 방문하여 평화와 통일 염원 현장학습을 통해 평화와 통일 필요성 체득(을지전망대, 제4땅굴, 양구전쟁기념관, 통일관, DMZ 등).
 - 조별 토론탈동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노력에 대해 고민해보고 의견 교환과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효과 증대.
 - 북한과 통일 관련 서적과 온라인 사이트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을 고조시키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 유도.
 - 현장학습의 내용과 강의교안, 조별 답사 후기 등을 편집하여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 형식의 책자 제작.

③ 추진 내용

□ 대학교 직원 대상 특강 및 현장학습 진행

- 목적
 - 대학직원 대상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전달 및 통일 대비 역량 함양

○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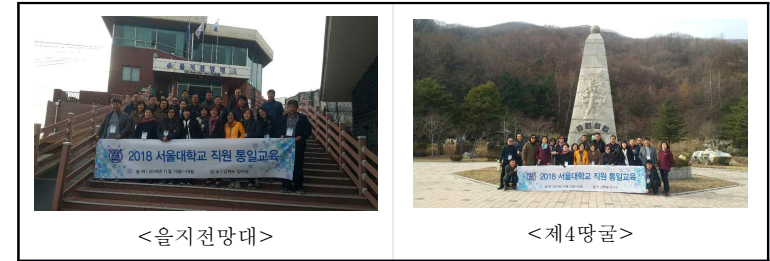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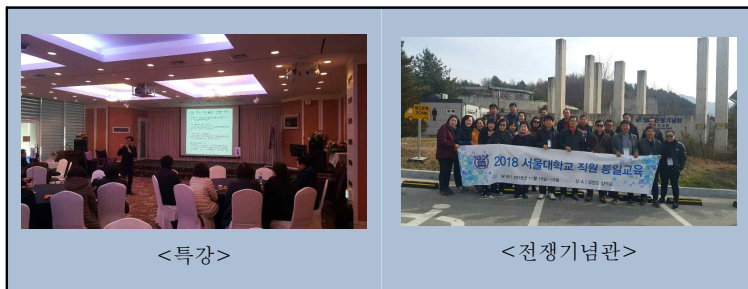
일자	내용	제출
11월 6일(화)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①	계획서 제출 완료
11월 15일(목) ~ 11월 16일(금)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 완료
11월 16일(금)	특강②	계획서 제출 완료

○ 방식

- 강의 및 현장학습

구분	일자	세부내용	강사
특강①	11월 6일(화)	. 북한의 최근 동향과 변화 전망 - 북한 대외정책 이해 - 북한사회 시장화 이해 - 북한사회 진로 예측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
특강②	11월 16일(금)	. 한반도 평화의길 찾기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 북미관계 현황과 전망 - 한반도의 미래상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
현장학습	11월 15일(목) ~11월 16일(금)	. 을지전망대, 제4땅굴, 전쟁기념관, 통일관 등	-

○ 진행사진



○ 참가자 명단

번호	이름	소속기관	직급
1	곽근호	의과대학	직원
2	김수진	암연구소	담당관
3	김순옥	중앙도서관	담당관
4	김양희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주무관
5	김은숙	자연과학대학	선임주무관
6	김정희	사회과학대학	선임주무관
7	김태수	대학생활문화원	선임주무관
8	김현미	경력개발센터	담당관
9	박종섭	자연과학대학	선임주무관
10	소미애	사범대학	선임주무관
11	윤혜경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관
12	장인	교수학습개발센터	담당관
13	장정화	자연과학대학	선임주무관
14	전정희	공과대학	선임주무관
15	전흥구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선임주무관
16	정춘희	부설여자중학교	담당관
17	주용식	약학대학	행정관
18	최숙희	사회과학대학	선임주무관
19	한경석	교무과	행정관

20	한영택	정보화본부	선임행정관
21	한재영	공과대학	선임주무관
22	홍성수	공과대학	담당관
23	황창모	학생지원과	선임행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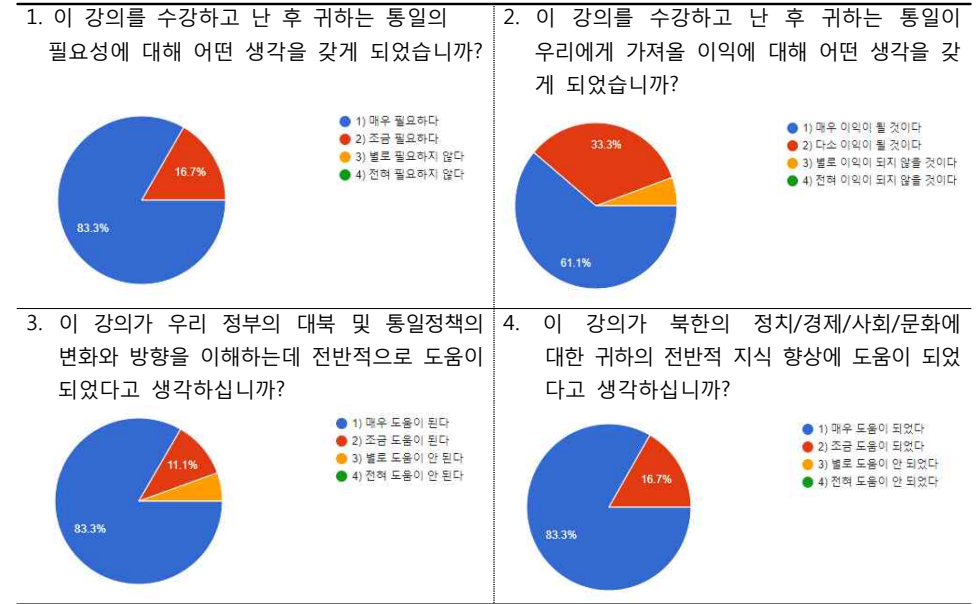
○ 활동 조건: 서울대학교 전 직원 대상 모집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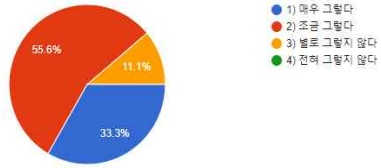
- 북한의 실상을 파악 및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 북한의 최근 동향과 변화 모습을 이해함
 - 급변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해 다양한 뉴스 기사, 사진 등을 정리 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함.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해
 - 동아시아 주변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파악함
 -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학습함.
- 평화와 통일 염원 현장학습을 방문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체득
 - 을지전망대, 제4땅굴, 양구전쟁기념관 등을 직접 방문하고,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장 체험 했기에 그 효과가 극대화됨
- 통일이 장기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
 - 민족 공통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 가치관을 기르는데 도움
 - 통일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절대 정략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
- 현장교육에서의 민족과 통일에 대한 고찰
 - 통일비용(약 4천조 추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보고서가 있으나 실제 분단비용(1경4천조 이상 추정) 더 든다는 것을 이해함
 - 통일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와 국력 도약의 발판 마련 필요성 인식
 - 통일은 민족적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완성된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흐름임을 인식

□ 최종 평가(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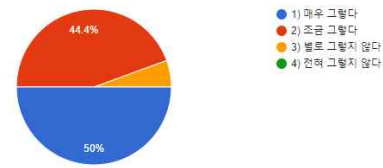
표 341) 특강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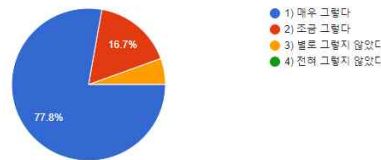
5. 이 강의가 통일의 파트너로서 귀하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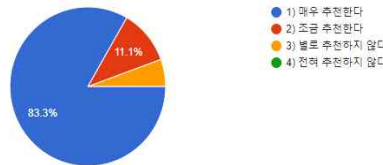
6. 이 강의의 수강이 귀하가 북한 주민 및 탈북민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바라 보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7. 이 강의는 수업계획서 등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8.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주변에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9. 이 강의의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 전개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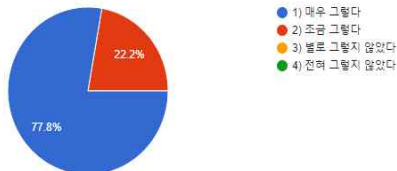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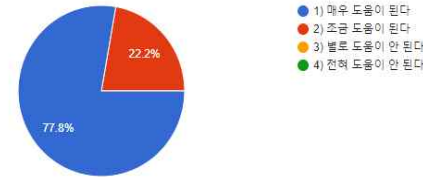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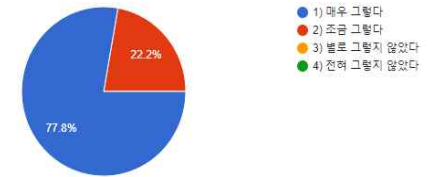


표 343) 현장학습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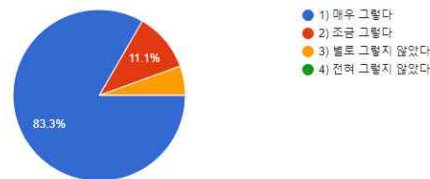
1. 이번 현장학습이 귀하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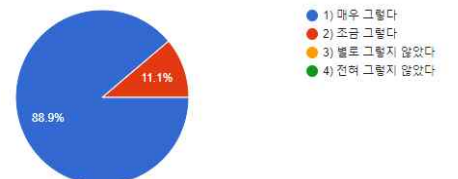
2.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귀하가 수강한 통일 교육 강좌와 연관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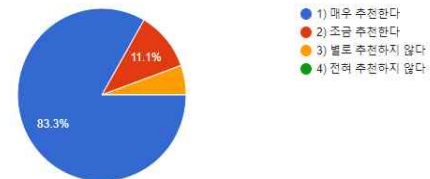
3. 현장학습 프로그램에서 방문한 장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5.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 총 응답자의 총 96.5%가 긍정적인 답을 함.

8) 서울대학교-강원대학교 교류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①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 하의 통일교육 모델을 국내 타 대학에 보급 및 확산
- 강원대학교와의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을 개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타 학교·기관과의 교류 증대 및 공동의 통일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의 모델보급 사업

② 사업 개요 및 운영 계획

- 사업 주제
 - 서울대학교와 강원대학교 사이의 교류를 통한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 보급, 국내 대학과의 통일교육 모델 교류사업 논의
- 운영 주체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운영 계획
 - 2018년 8월 체결된 서울대-강원대-인천대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MOU'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사업으로, 강원대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성사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서울대 통일교육 모델 확산 및 교류·협력' 방안에 관하여 통일평화연구원 내부 교수진 및 강원대학교 등 외부 교수진이 참가한 2박 3일 간의 워크숍을 진행.

③ 추진 내용

□ 추진 내용

- 목적
 -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 보급, 국내 대학과의 통일교육 모델 교류사업 논의

- 통일평화연구원 내부 교수진 및 강원대·전북대·국민대·통일연구원 등 외부 교수진 참가, 2박 3일 학술회의 진행

○ 기간 및 장소

- 2018. 9. 13.(목) ~ 9. 15.(토) 10:00 ~ 18:00
- 서귀포 KAL호텔 사파이어룸

□ 사업 참가 명단

내부 관계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번호	성명	소속	역할
01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02	안동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사회자)
03	조동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자)
04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발표자)
05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발표자)
06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발표자)
07	최규빈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자)
08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토론자)
09	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토론자)
10	신인석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실무담당자)

외부 관계자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국민대학교, 통일연구원)

번호	성명	소속	역할
01	김기석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 (토론자)
02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교수, 연구위원 (토론자)
03	정구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교수, 연구위원 (토론자)
04	이선우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05	이장영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
06	여현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교	교수 (토론자)
07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활동 프로그램

시간	세부프로그램		장소
9.13.(THU) Session I. 13:00~15:10	사회	안동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귀포 KAL호텔
	발표	· 최규빈(서울대) "서울대 통일교육 사업 소개" · 김병로(서울대) "통일아카데미 사례 소개"	
	토론	김기석(강원대), 송영훈(강원대), 이선우(전북대), 서보혁(통일연구원), 김학재(서울대)	
9.13.(THU) 15:20-17:30	답사	4·3 큰넓궤 동굴	한림읍 금악리
9.14.(FRI) Session II. 10:00~12:10	사회	조동준(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서귀포 KAL호텔
	발표	· 김범수(서울대) "통일평화 교과목 개발 및 현장연계 통일교육 사례 소개" · 이찬수(서울대) "시민강좌 평화학교 사례 소개"	
	토론	정구연(강원대), 여현철(국민대), 이장영(국민대), 서보혁(통일연구원), 백지운(서울대)	
9.14 14:00-16:00	종합토론 (사회: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장)		

□ 토론 내용 요지

- 남북평화협력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그 실천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시점에서 서울대와 강원대 관계자들은 DMZ와 접경지역의 군사화 역사 및 실태를 성찰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에 구축할 평화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데 공감함.
- 무엇보다 DMZ와 접경지역의 비평화 상태 및 평화지대화를 주제로 한 교육이나 전시회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 따라서 서울대와 강원대는 2019년 여름을 기점으로 전시회, 강연회, 답사, 체험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아래와 같이 협의함.

번호	내용
1	서울대와 강원대 순회 전시 (미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사진·영상 자료)
2	DMZ,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관련된 6개 가량의 강의 진행
3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郡)의 협력을 받아 DMZ와 접경지역을 1박 2일 동안 답사
4	SNU-KNU 동해평화학교 개강

- 추후에는 서울대-강원대 교류 사업의 성과에 따라 타 학교를 대상으로도 적극 교류를 실시 및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여 이를 확인함.
- 2019년 여름 'SNU-KNU 동해평화학교' 개설에 합의. 통일평화연구원과 통일강원연구원의 공동 주최.
- 그 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의 탈북자 대학생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의 경험을 공유. 대학 내 탈북학생의 교육 및 소통의 방안 토론.

□ 현장 사진 및 시각자료



발표



9.13(목) 14:00~14:30 Session 1
토론

발표



9.13(목) 14:30~15:00 Session 1
토론



9.13(목) 15:30~17:30
4-3 큰넓궤 동굴 답사



9.13(목) 15:30~17:30
4-3 큰넓궤 동굴 답사



9.14(금) 10:00~10:30 Session 2
발표



9.14(금) 10:30~11:00 Session 2
발표



9.14(금) 11:00~11:30 Session 2
토론



9.14(금) 11:30~12:00 Session 2
토론

④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 서울대-강원대-인천대 MoU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사업으로 강원대와 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성사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워크숍을 통해, SNU-KNU동해평화학교 개설에 대해 합의함. 이를 통해 서울대에서 그동안 축적해온 통일/평화 아카데미의 경험, 그리고 황해평화학교의 경험을 타 대학과 공유하고 확산하며 교류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리라 전망함.
- ‘DMZ의 평화지역화’에 대한 슬로건은 많지만 군사지대로서의 구체적인 연구나 인식은 미약한 현재 상황에서, 향후 두 대학의 교류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Ⅲ 2018년 사업 평가

1 잘된 점

- 선도대학 지원을 통해 통일 관련 강의의 전문성 제고
 - ▷ 현역 판사, 변호사, 의사, 작가, 교사 등 각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강의의 전문성 제고.
- 통일학 범위의 확대
 - ▷ 통상적으로 정치학 사회학 등으로 한정되기 쉬운 통일학의 범위를 넘어, 의료, 보건, 법학, 문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로 통일학의 저변을 확대
 - ▷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치학 분야와 결합한 통일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냄.
- 강의의 다원성과 역동성 제고
 - ▷ 학과 중심 교육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현장답사, 현장활동가, 전문가, 탈북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쌍방향적이고 역동적인 강의 효과.
- 통일을 대비한 실질 교육
 - ▷ 통일 국토인프라, 통일법, 보건의료법 등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교육.
- ‘조기 통일 교육’으로 신입생의 통일 인식 제고
 - ▷ 신입생 세미나, 문화사회학, 영상사회학, 및 자유전공학부 1학년생 등 저학년 교양 수업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작품, 영화 감상, 다큐멘터리 시청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저학년들의 통일감수성 제고.
 - ▷ 통일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조기 교육에서, 통일교육의효율성이 높음.
- SNS·영상 매체를 활용한 통일공감 능력 향상
 - ▷ 유튜브 강좌, ‘통일을 춤추다’ 플래쉬몹 등을 활용하여 대학의 상아탑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통일공감 능력을 향상.
 - ▷ 주입식 교육을 넘어, 몸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공감능력이 더 자연스럽게 형성됨.
- 권위 있는 ‘자격증 수여 교육 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의 안착

- ▷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통일아카데미(19기), 평화아카데미(6기) 등 서울대의 권위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킴.
- ▷ 통일/평화 아카데미의 경우 정규 교과목보다 수강생의 호응이 월등히 높았음.
- ▷ 이를 기반으로 제1회 SNU황해평화학교를 개설하여 모델을 확산.
- ▷ 향후 SNU-KNU 동해평화학교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 타학교 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강화
 - ▷ 도서출판 한길사와 결합하여 시민평화학교 개설.
 - ▷ 인천대,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계하여 SNU황해평화학교 개교.
 - ▷ 서울대-강원대-인천대 ‘남북교류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구 및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 ▷ 서울대-강원대 워크숍을 통해 2019년 8월 SNU-KNU동해평화학교 개설 기획.
 - ▷ 서울대-인천대와 연계한 ‘통일을 춤추다’ 플래쉬몹 시연.

2 보완(개선) 사항 및 보완 계획

- 통일교육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의 강화
 - ▷ 2018년도 사업에서는 통일평화교육의 국제화 노력이 부족했음.
 - ▷ 동아시아 및 서구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보는 시야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 ▷ 2019년 1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중국 샤먼대 대만연구원과 MOU 체결. 한반도 남북과 중국-대만의 통일평화 의식, 사회통합, 사회복지제도 교환을 서로 비교하는 공동 심포지엄 및 학생 교류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함. 2019년에 하반기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 ▷ 베를린자유대학 동아시아학과 학생과 서울대학생의 공동 여름캠프 기획안을 논의 중임.
- 강의실에서 활용 가능한 통일교육 교재 출판
 - ▷ 통일교육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커리큘럼 개발의 성과물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기간의 축적된 연구성과물 중에서 완성도 높은 것을 선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강의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작 출간할 예정이다.

○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의 강화

- ▷ 한반도 정책컨센서스, 학생주도형 통일교재 개발 등 학생들의 주도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은 편임.
- ▷ 학생들이 3-4인으로 프로젝트 팀을 꾸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연구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
- ▷ 또한,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에세이, 유튜브 동영상, 단편영화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일평화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임.

○ 탈북자 강사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

- ▷ 다양한 강의에서 탈북자들의 탈북경험 및 북한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 ▷ 이러한 강의가 처음에는 호응이 높지만, 수강생들이 탈북자를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지적 욕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탈북자 강사들의 전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이에, 사범대와 결합하여 탈북강사 워크숍 개설 방안을 논의 중임.

○ 비교과형 강좌의 체계화

- ▷ 교과형 강좌에 비해 비교과형 강좌의 경우 강의 평가,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에 있어 다소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함.

○ 사업의 양적 확장보다 질적 고양에 집중

- ▷ 2018년도 단위 사업 개수는 총 45개로, 2017년도 20개에 비해 사업개수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 ▷ 2019년도는 단위 사업 수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그간의 성과가 좋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택하고자 함.

○ 예산 관리의 일원화

- ▷ 사업단위의 예산을 소속 단과대를 통해 지출, 결제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예산관리가 어려움.
- ▷ 예산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끝】